머 리 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우리 나라에는 예로부터 인민의 슬기와 재능, 기지가 넘치는 전설들이 참으로 많이 창조되여 내려오고있다.

문자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전해져내려오는 단군신화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설들이 태여났다.

그러나 종래의 전설들은 옛사람들의 소박한 동경의 세계를 담은것으로서 자기들을 《지상락원》에로 인도해줄 그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숭상,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아름다운것과 추악한것, 지혜로운것과 몽매한것 등 사회와 인간생활의 이모저모를 반영하였을뿐 온갖 예속을 박차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들의 참다운 계급적의지와 념원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오직 인간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보람찬 삶의 길,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준 위인의 출현만이 새로운 주제의 전설, 혁명전설을 창조케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의 신출귀몰한 전법과 관련하여 당시 인민들속에

서는 〈하늘로 올랐나, 땅으로 잦았나〉, 〈종이 한장으로 수만군사 강을 건는다〉를 비롯한 수많은 전설적이야기들이 널리 전해졌습니다.》

우리 인민이 그처럼 애타게 기다리던 절세의 위인들인 백두산3대장군을 맞이함으로써 이 땅우에는 민족의 무궁번영과 부강조국의 휘황한 전도가 열리고 위인숭배와 위인칭송의 혁명전설이 태여나게 되였다.

신출귀몰한 전법으로 일제 100만대군을 쥐락펴락하시며 멸망의 구렁텅이에 쓸어넣으시는 백두산의 호랑이로, 민족의 태양으로 그 존함 찬란한 빛을 뿌리던 만고의 영웅 빨찌산대장 **김일성**장군.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여 무비의 담력과 지략으로 21세기를 향도해나가시는 비범한 령도의 천재, 탁월한 정치가, 희세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

항일의 불바다, 피바다만리를 헤치시며 혁명의 사령부를 결사옹위하시고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만대로 굳건히 이어놓으신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

정녕 백두산3대장군은 세계가 한결같이 우러르며 공인하는 희세의 전설적위인들이시기에 우리 인민들은 그분들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면서 위인칭송, 위인숭배의 전설들을 창조하여 전하고있는것이다.

전설의 기본속성은 신비성이다.

우리 혁명전설의 신비성은 전설적위인들이신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에 그 바탕을 두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있다.

걸출한 수령이 없어 피눈물의 수난을 당하던 우리 인민에

게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략, 신비로운 예지와 천재적인 령도력, 뛰여난 천품과 덕망을 다 체현하고계시는 천하무적의 전설적영웅, 력사의 대성인들이신 백두산3대장군을 맞이하고 높이 모신것은 최대의 행운이였다.

그분들의 품속에서 자주적이며 행복한 삶을 누려가려는 인민들의 기대와 숙망은 가지가지의 환상적나래를 펴게 하였다. 더구나 그분들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이 땅우에서 창조되고있는 기적같은 현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경이였고 전설속의 무릉도원, 리상향이였다. 하여 인민들은 백두산3대장군을 하늘이 낸 위인으로 우러르면서 열렬히 칭송하였다.

위인에게 매혹된 인민은 언제나 위인전설을 창조하는 법이다.

주체문학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하던 시기부터 창조된 혁명전설은 그 한편한편이 다 위인숭배, 위인칭송을 핵으로 하고있으며 수령형상문학창작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는 문학의 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기나긴 력사를 가진 전설이 수령을 형상의 중심에 모신 혁명전설로, 백두산3대장군전설로 발전한것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우리 나라의 자랑찬 현실과 수령에 대한 흠모의 정이 거창한 흐름을 이루는 시대의 지향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더욱 의의가 크다.

세상에는 영웅호걸도 많았고 명장들도 많았으며 그들에 대한 전설도 많이 전해졌다.

지난날의 위인전설들은 대체로 한 인물에 대하여 불과 몇편 그것도 당대가 아니라 후세에 가서 그들의 공적과 위훈이

전해지면서 점차적으로 생겨났다.

하지만 백두산3대장군에 대한 혁명전설은 당대에 벌써 수백수천편이 창조되여 전해지고있다. 이 사실자체가 우리의 백두산3대장군들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들도 비길수 없고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시고 절세의 영웅들이시라는것을 웅변적으로 잘 말해주고있는것이다.

조선의 현대력사와 더불어 창조되여내려온 혁명전설은 백두산3대장군의 영광스러운 혁명활동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옮겨놓은 생동한 혁명실록인 동시에 그분들의 위대한 생애와 업적, 사상과 령도, 풍모를 격조높이 례찬한 영웅서사시이고 수령송가이며 현대신화이다.

백두산3대장군전설이 창조됨으로써 비로소 인류는 오랜 세월 물려오던 허황한 환상속에서 벗어나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설형식을 찾게 되였으며 문학사적인 진보를 이룩하고 인류문화사에 크게 기여하게 되였다.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고 창조자들의 환상이 깃든 신비한 이야기들로 엮어진 백두산3대장군전설들은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재보이며 영원무궁한 생명력을 가진 국보이다.

참으로 백두산3대장군전설을 가지고있는것은 **김일성**, **김정일**민족의 크나큰 자랑이고 긍지이다.

이번에 편찬하는 《백두산3대장군전설전집》은 우리 인민들과 온 나라 청소년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따라 이미 출판된 전설들과 새로 발굴정리한 혁명전설들가운데서 우수한것을 종합하여 묶은것이다.

《백두산3대장군전설전집》을 묶어내는것은 우리 당 력사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백두산3대장군들의 혁명력사에 기초하여 창조된 혁명전설들은 우리 당 력사를 더 풍부히 하고 먼 후세에 가서도 사람들의 가슴속에 하늘이 낸 불세출의 위인들을 모신 조선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영예를 더욱 깊이 간직하게 할것이다.

《백두산3대장군전설전집》은 전15권으로 되여있는데 《하늘로 올랐나, 땅으로 잦았나》, 《아흔아홉가지 축지법》, 《신기한 발자국》, 《호박풍년이 들었다》, 《관희극》 등 해방전 수령님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전설들을 묶은 백두산전설편(1—5), 《구만리장천에 드리운 흰 댕기》, 《그칠줄 모르는 울음소리》, 《거목이 쓰러져 통곡하다》, 《만경대에서 일어난 신기한 조화》, 《백두의 기상》 등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전국각지에서 나타난 신기한 자연조화와 관련하여 전해진 설화들을 묶은 추모설화편(6), 《**정일**봉의 우뢰소리》, 《천하제일명장》, 《해삼대》, 《빛을 뿌리는 글발》, 《<신로군일>이 거꾸로 된 이야기》, 《태풍을 길들이다》, 《어린 장수》 등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과 혁명활동을 반영한 전설들을 묶은 백두광명성전설편(7—11), 《오산의 전설》, 《백두산의 녀장수》, 《신기한 사진》, 《얼이 빠져 달아난 밀로배》 등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생애와 혁명활동을 반영한 전설들을 묶은 백두산녀장수전설편(12), 《금수산의 지맥》, 《수령님의 록음기》, 《계명산이 무너져내리다》, 《중지당한 구내길보수공사》, 《지구를 돌아온 조의렬차》, 《만경대가문》 등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과 만경대가문에 대한 전설들과 금수산지구의 옛전설들을 묶은 금수산기념궁전전설편(13—15)으로 나누어 편집하였다.

지난 20여년동안 전설발굴정리자들이 백두산으로부터 전국의 방방곡곡을 편답하면서 그리고 많은 해외교포들과 접촉하면서 또 남조선인민들의 반향을 종합하면서 수많은 혁명전설들을 발굴정리하였으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백두산3대장군의 거룩한 발자취일뿐아니라 우리 인민의 빛나는 력사이고 숨결인 위인칭송의 혁명전설은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계속 창조되고 더욱 주옥같이 다듬어질것이며 완성될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발굴되는 혁명전설들을 련속편으로 계속 편찬하여 이 땅에 흐르는 위인칭송력사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고 아름답게 가꾸어갈것이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금 성 청 년 출 판 사

백두산전설편

1

백두산천지에 오르면 약자도 강자로 된다는 전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전의 홰불을 높이 추켜드신 그때부터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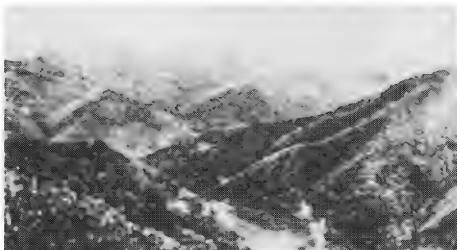
오늘 혁명의 성지 만경대에는 어버이수령님을 흠모하는 사람들의 물결이 언제나 끝없이 흐르고있다.

어리신 수령님께서 건너뛰실 때마다 두 바위가 서로 맞붙군하여
만경대아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룡악산 대봉의 문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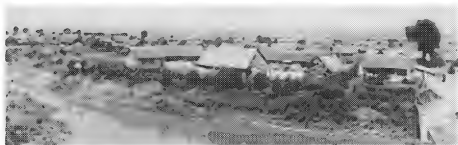
내려오신 전설이 깃든 만경대 솔숲
어리신 수령님께서 무지개를 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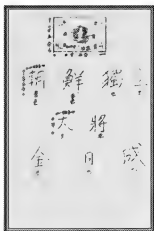
왜놈들이 찍어버린지 7년만인 1945년 봄
에 나무그루터기에서 다시 움이 터 조국
해방의 날을 예고해준 만경대의 버드나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린 시절 봉화산꼭대기에서 눈깜빡할사이에 마을에 내려오시여 동네어른들과 아이들을 깜짝 놀래우시였다

출렁이던 호수가 갑자기 얼음으로 변하여 달려들던 왜놈들이 모두 얼어붙게 하였다는 백두산대장수님에 대한 전설은 경박호와 더불어 세세년년 전해질것이다.

이 홍두산에서 유격대에 녹아난 왜놈들은 《**김일성**장군의 도술에 걸렸구나!》 하고 비명을 질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투를 지휘하실 때 선바위가 그대로 요새가 되고 수백수천의 화점이 되여 왜놈들에게 불벼락을 안겼다는 대덕수전투장소

바로 여기 12도구전투장에서 3원짜리 모가지에 대한 풍자질은 전설이 생겨났다.

밤깊도록 독서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광에서 신기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는 전설을 낳은 휘발하강기슭

보천보전투후 《베개퉁순사》, 《염소순사》, 《벙어리순사》 등 허다한 별명들이 생겨났다. (옛 보천보시가)

관부련락선 《고안마루》에 쓴 이 글발을 보고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세번씩 불렀더니 태풍이 사라져 배가 구원되였다는 전설은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일본에도 널리 전해졌다.

《총알에 눈이 달렸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총으로 사격하면 신입대원도 백발백중하였다는 이야기는 오늘도 여기 신개척을 비롯한 백두산일대에 널리 전해지고있다.

五勇士の歓迎
けさ京城で盛んな

간삼봉전투에서 유명한 《호박대가리》 이야기를 남기고 돌아온 왜놈들

차　　례

하늘에서 내린 어린 장수

망국의 비운이 드리운 조선땅에 경술년의 대재난이 겹쳤다.

나라잃은 겨레의 원한은 구천에 사무쳤다.

애국의 피는 끓어 용솟음치건만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잡을 길 없어 인민들은 민족의 령도자를 애타게 기다렸다.

바로 이러한 시기 1912년 임자년에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만민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시였다.

위인의 탄생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전설들이 전해지기마련이다.

후날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에 올라 왜적을 무찌를 힘을 키우고계신다는 소문과 함께 환희와 감격에 넘쳐 그이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순화강의 나루터에서, 만경대마을에서 아니,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수령님의 탄생과 관련한 많은 전설들로 꽃을 피웠다.

당시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 화제에 올리면서도 그이께서 탄생하신 고향이 어디인지는 딱히 모르고있었다.

사람들은 저저마다 자기들이 사는 고장에서 하늘이 낸 위인이신 **김일성**장군님이 탄생하셨다고 궁지에 넘쳐 이야기하군하였다.

평안남도 대동군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순천군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고향이 순천이라고 하였고 지어 함흥사람들은 수령님이 자기네 고장에서 탄생하셨다고 우기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과 관련한 많은 전설가운데서 두편을 아래에 적어본다.

1. 만경대의 어린 장수

어느해 봄,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구름 한점 끼지 않은 밤하늘에서 천둥이 요란히 울더니 갑자기 날이 밝으면서 동녘에 채운이 서리고 무지개가 비끼였다.

그러다가 동산마루에 지금까지 본적이 없는 커다란 불바퀴 같은 태양이 불끈 솟아올랐다.

《야!—》

사람들은 너무도 희한한 그 모습에 그저 야, 야, 감탄을 금치 못했다.

지금까지 저렇게 큰 해를 한번도 본적이 없었기때문이였다.

바로 그날 평양성가까이 대동강을 끼고 수려하게 펼쳐진 경치 아름다운 만경대의 어느 한 초가집에서 귀여운 옥동자가 태여났다.

그런데 그 옥동자는 세상에 태여나자마자 벌떡 일어서더니 걸어다닐뿐아니라 말까지 하는것이였다.

사람들을 더욱 놀래운것은 옥동자가 한 첫말이였다.

옥동자는 세상에 태여나자마자 눈을 비비며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앞뒤 창문을 다 활짝 열어제꼈다. 방안으로 시원한 바람과 함께 밝은 빛이 비쳐들어왔다.

그런데도 옥동자는 《세상이 왜 이렇게 캄캄해요?》하고 또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날은 환히 밝았는데도 옥동자가 자꾸 캄캄하다고 하니 웬 영문인지 알수가 없어 사람들은 머리를 기웃거리며 서로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혹시 … 사람들은 가슴을 조이며 옥동자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영채도는 옥동자의 빛나는 두눈은 천리밖도 내다볼것만 같았다.

그런데도 옥동자는 어두워서 못견디겠다는듯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토방에 우뚝 서서 주위를 휘 둘러보던 그는 또 눈을 비비며 같은 말을 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온통 어둑컴컴해요?》

일제의 구두발에 짓밟혀 해마저 빛을 잃은 이 나라의 불행을 옥동자는 태여나자마자 감수했던것이다.

순간에 세상만사를 다 헤아린 옥동자는 가슴이 타는듯 따라나온 할머니에게 《시원한 샘물을 좀 주세요.》하고 말했다.

옥동자가 하는 행동이 모두 기이한지라 할머니는 그가 하자는대로 맑은 물이 퐁퐁 솟는 샘터로 데려갔다.

할머니는 정갈한 샘물을 한바가지 떠서 그우에 꽃잎을 몇잎 띄워 손자에게 주었다 .

옥동자는 그 샘물 한바가지를 단숨에 다 마시고 또 떠달래서는 그 물로 두눈을 씻었다.

그러자 옥동자는 갑자기 예닐곱살쯤 된 어린이로 우쑥 자랐고 눈에선 빛발이 뿜어나왔다. 사람들은 또 한번 깜짝 놀랐다.

옥동자는 기운이 뻗치는지 두팔과 두다리를 굽혔다폈다하며 샘터주위를 몇바퀴 돌았다. 그러다가 소나무밑에 있는 떡판만한 커다란 바위돌을 넝큼 들어 건너편 산으로 휭 집어던졌다.

바위돌은 가볍게 날아가 쿵! 하고 떨어졌다. 그바람에 지진이 인듯 산이 드르릉 하고 흔들렸다.

《히야!》

사람들은 저도모르게 환성을 질렀다.

어느덧 옥동자는 소년장수로 자란것이였다.

소년장수는 사람들이 놀라 떠드는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길로 마을에서 제일 높은 아름다운 만경봉으로 올라갔다.

산마루에 올라선 그는 거기서 한동안 천하를 굽어보았다.

칠색무지개가 초가집지붕우에 한다리를 박고 다른 한다리는 하늘높이 뻗치고있었다.

그 무지개를 타고 소년장수가 만경봉에서 마을로 내리였다.

이윽고 소년장수는 마을로 총총히 달려오더니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한참만에 그는 껍질을 벗긴 하얀 삼대를 한줌 쥐고 나와 하늘을 쳐다보았다.

령롱한 무지개가 산봉우리너머로 비껴있었다.

소년장수는 삼대를 든 손을 높이 쳐들고 휘휘 세바퀴 돌리였다. 그리고는 하늘로 씽 날아올라 무지개를 잡아탔다.

마을사람들은 《야! 야!—》하고 연방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떻게 장수가 하늘로 날아오를가 하고 자세히 올려다보던 마을사람들은 장수의 량겨드랑이에 돋은 금빛날개를 보자

일시에 《하늘에서 장수가 내렸다!》하며 환성을 올렸다.

무지개우에 올라선 소년장수는 손에 쥐였던 삼대를 하나만 남기고 모두 대동강물우에 홱 뿌려던지였다. 그러자 갑자기 뢰성벽력이 치듯 하늘과 땅이 쩌렁쩌렁 울더니 갑옷을 입은 여덟명의 군사가 창과 칼을 들고 나타나 소년장수앞에 무릎을 꿇고앉았다.

소년장수는 하나 남은 삼대를 마저 뿌려던졌다.

그러자 이번엔 오호홍! 하고 하늘땅이 울리게 말울음소리가 나더니 날개돋친 룡마가 달려왔다.

소년장수는 무지개우에서 뛰여내려 그 룡마의 잔등에 올라탔다.

와! 와! 환호성을 올리며 군사들은 장수의 뒤를 따랐다.

장수는 군사를 거느리고 넓은 갈매벌을 달리였다.

마을사람들은 장수의 비상한 재주에 감탄하며 《만경대에 장수가 났다!》고 무릎을 쳤다. 그들은 해가 저물도록 소년장수와 군사들을 보면서 시간가는줄을 몰랐다.

소년장수는 룡마를 타고 어두운 밤하늘로 날아올랐다. 그 뒤로 군사들도 하늘로 따라 날아올랐다.

밤하늘을 날아가는 소년장수와 군사들의 온몸에서 밝은 빛이 뿌려져 마치 불수레가 나는듯하였다.

이윽하여 그들은 검은 구름이 뒤덮인 백두산쪽 하늘가로 사라졌다.

그후 사람들은 하늘이 낸 장수를 찾아 백두산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만경대사람들은 백두산으로 들어간 장수가 군사조련을 마치고 나오면 왜놈들을 몽땅 족치고 나라가 독립된다고 하면서 그날을 목마르게 기다리였다.

2. 사라진 목동자

청룡산을 끼고있는 순천땅 어느 한 마을에 마음착하고 부지런한 젊은 내외가 살고있었다.

가난한 살림살이였으나 화목하게 살고있는 그들부부는 인정이 많고 의리가 깊어 언제나 마을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었다.

고삭은 초가지붕우에 박꽃이 피고 쑥내가 뜨락에 풍기는 저녁무렵이면 마을사람들은 이 집에 모여와 집주인한테서 시국이야기와 세상형편에 대해 듣기를 즐겨하였다.

집주인은 나이가 젊었으나 얼마나 세상 돌아가는 속내를 잘 아는지 그의 말을 듣고나면 마치 캄캄한 밤에 일월이 함께 빛을 뿌리는듯 눈앞이 환해지는것이였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젊은 부부를 존경하고 따랐으며 무슨 일이 생기면 의례히 그 집에 찾아가 의논을 하군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악착한 지주놈과 왜놈들은 그들 부부를 두려워하고 슬슬 피해다니기까지 하였다.

왜 그러는지 누구도 그 영문을 알지 못했다.

그저 부부가 하도 대가 바른 사람들인지라 감히 맞서지 못하는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어느해 여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늘에서 대줄기같은 소낙비가 몰박으로 쏟아졌다. 그바람

에 저수지의 물이 넘쳐나 벼이삭이 한창 패기 시작한 넓은 논과 농민들이 사는 집이 물에 잠기게 되였다.

반대쪽 저수지뚝을 터쳐놓으면 이런 피해는 막을수 있었다.

그런데 그쪽엔 지주의 양계장이 있었다. 양계장이라야 닭과 오리 그리고 게사니가 좀 있을뿐인데 그것들을 높은 둔덕으로 피신시키면 별로 큰 손해가 될것이 없었다.

마을사람들은 지주집에 찾아가 물을 그쪽으로 뽑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였다.

제것이라면 고뿔도 남에게 주기 싫어하는 지독한 욕심쟁이인지라 그놈이 농민들의 청을 들어줄리가 만무하였다.

그놈은 단마디로 잘라맸다.

《하늘이 하는 일이니 그대로 둬야 한다.》는것이였다.

어디에 갔다가 늦게야 이 소식을 알게 된 젊은 주인은 울며불며 땅을 치면서 한탄하는 마을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울음을 그치십시오. 그렇게 한탄만 해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은 젊은 주인을 올려다보았다. 무슨 수가 있단말인가?

그날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다.

꽝 꽈르릉! 하고 번개가 일고 우뢰가 울더니 갑자기 지주놈 양계장쪽 뚝이 무너지면서 물이 그리로 빠져나갔다.

구사일생으로 농민들이 구원되고 논밭들이 큰물피해를 면하게 되였다.

그러나 지주놈의 양계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놈은 가슴이 알알했으나 말 한마디 못했다.

《하늘이 한 일》이니 어쩌겠는가?

사람들은 모두 그것이 젊은 내외의 조화라고 생각하고있었다.

더욱 그것을 사실로 믿게 된것은 이웃마을에 범이 자주 나타나 사람을 물어가군하여 피해가 많다는 말을 듣고 젊은 주인이 《내가 그 호환을 막아주리다.》하고 집을 떠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다음날부터는 범이 얼씬도 하지 않은것이였다.

수십마리의 범이 무리를 지어 청룡산을 넘어 어디론가 황황히 꽁무니를 빼는것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마을사람들은 그 젊은 내외를 그저 범상한 사람들로 보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그들에 대한 존경심은 커만 갔다.

그러던 어느날 이 집에 경사가 생겼다.

안해가 귀한 옥동자를 낳았던것이다. 그날 여느때없이 방에 흰빛이 가득차고 지붕우 하늘엔 유별나게 현란한 무지개가 온종일 비껴있었다.

범상치 않은 천기여서 모두 신기해하였다.

마을사람들은 변변치 못한 살림이지만 쌀되박을 들고 이 집을 찾아와 생남을 같이 기뻐해주었다. 그런데 주인내외와 마을사람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방안에 난데없이 안개가 자욱히 서리였다가 걷히더니 옥동자가 간데온데없이 사라진것이였다.

방안에는 옥동자를 감싸안았던 포단과 흰쌀을 넣은 작은 베개만 있을뿐이였다.

사람들은 법석 끓었다.

귀여운 옥동자가 어디로 갔단말인가.

아무리 찾아보았으나 그 어디에도 없었다. 누가 안아가는것도 보지 못했고 누가 왔다간 흔적도 없었다.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사람들은 옥동자를 찾아보았으나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가만 있을수도 없었다.

바다에 떨어진 바늘이라고 눈에 띄우지 않으랴마는 주인내외는 벌써 백번도 넘게 방안의 이구석 저구석을 살펴보았다.

이웃마을들에까지 사람을 보내여 수소문을 해보았으나 옥동자의 행방은 도저히 알도리가 없었다.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났으나 여전히 옥동자의 행처는 알아내지 못하였다.

부부는 아이찾기를 단념하고말았다.

마을사람들은 젊은 내외를 위로하였다.

그러나 그 위로의 말은 부모들의 마음을 더욱 든장질했다. 젊은 부부의 가슴속에선 사라진 옥동자에 대한 애틋한 정과 그리운 마음이 자꾸만 끓어올랐다.

한해가 지나고 두해가 지났다.

마을사람들의 화제에 늘 오르군하던 옥동자에 대한 얘기는 점점 뜸해지다가 어느덧 아예 없어지고말았다.

그러나 젊은 부부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옥동자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릴수가 없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세해가 지났다.

이 집에 불행이 닥쳐왔다.

젊은 주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자리에 누워 운신조차 못하게 된것이다.

안해는 온갖 성의를 다하여 구완을 하였으나 웬일인지 병은 점점 더 깊어만졌다.

마을사람들은 떨쳐나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오고 애써 명약

을 구해다가 써보았으나 젊은 주인의 병엔 백약이 무효였다.

젊은 주인은 림종을 가까이 하게 되였다. 황천의 사자가 문밖에 서서 방안을 들여다보는 흉한 모습이 눈앞에 얼른거렸다.

주인은 감았던 눈을 가까스로 뜨고 머리맡에서 자기를 내려다보는 안해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였다.

《여보, 우리 애가 아무때건 돌아올터이니 집을 잘 거두고 있다가 맞아주길 바라오!》

《여보!—》

남편의 유언을 받은 안해의 가슴은 갈가리 찢기는듯 아팠다. 마을사람들도 아까운 사람이 갔다며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그후 얼마 안있어 안해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였다.

이웃들이 찾아와 극성스레 병구완을 해주었으나 차도가 없었다.

안해는 앓으면서도 남편의 유언을 지켜 집안팎을 깨끗이 거두었다.

마을사람들이 몸조리를 하면서 쉬라고 여러번 말렸으나 막무가내였다.

안해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몸져눕게 되였다.

마을사람들이 그를 대신해 집을 거두고 밭을 가꾸었다.

얼마후 안해도 끝내 세상을 떠나고말았다.

그는 눈을 감으면서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네들, 고마워요. 신세만 지고 먼저 가는 저를 용서하세요. 우리 애가 반드시 집에 꼭 돌아올거예요. 내가 없어도 이 집을 잘 거두어주세요.》

그를 지켜보는 마을사람들의 두눈에선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마을사람들은 슬하에 일점 혈육도 남기지 않고 떠나간 그들의 유언을 착실히 지켰다.

한가위(추석)와 제사날이 돌아오면 그들의 묘를 찾아 혼을 위로해주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젊은 부부의 제사날마다 꼭 비가 오군하였는데 마을사람들은 하늘도 같이 슬퍼하는것 같다고들 했다.

주인의 3년제가 되는 날이였다. 그날도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우뢰가 울고 바람이 불고… 아름드리나무들이 태질하였다.

그날밤 마을사람들은 저마다 술과 음식을 가지고 그 집으로 모여들었다.

방이 비좁게 모여온 사람들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밤 12시가 되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괘종이 열한점을 친지도 한동안이 지났다.

뒤집 로인이 제사를 지내려고 천천히 준비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였다.

밖에서 저벅저벅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땅이 쿵쿵 울리는 거인의 발걸음소리였다.

(누굴가? 비오는 이 밤중에 누가 찾아올가?)

말은 하지 않았으나 서로 마주보는 눈들엔 이런 의문이 비껴있었다.

이윽고 《으흠》하고 인기척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리였다.

문을 꽉 막아선 우람찬 체구의 젊은이가 방안으로 들어

섰다.

천반이 낮아 허리를 굽히고 들어선 그 젊은이는 방안에 가득 모여앉은 사람들을 향해 《안녕하십니까? 늦어서 미안합니다.》 하고 굽석 절을 하는것이였다.

그의 거동과 몸가짐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마치도 제집에 찾아온 사람같았다.

향불을 붙이려고 등잔불에 종이를 가져다대던 뒤집 로인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거긴 뉘시오?》

《예, 인사가 늦어서 미안합니다. 저는 이 집의 아들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그 젊은이는 침착하게 대답하였다.

《뭐? 아들이라니?》

로인은 저도모르게 놀란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안됐소만 이 집엔 아들이 없는데…》

로인은 얼떠름해서 말하였다.

젊은이의 얼굴에는 로인의 말에 조금도 당황해하거나 섭섭해하는 내색이 없었다. 그는 준수한 얼굴에 침착한 빛을 띠우고 조용히 말하였다.

《저는 불효막심한 자식이오만 이 집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로인은 젊은이의 태도와 기품이 어쩐지 범상한 사람같지 않아 례사롭게 대할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로인은 애써 태연한체하며 젊은이의 아래우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로인은 눈을 크게 떴다.

아서라, 내가 이 젊은이를 어디서 보았던가?

정기 넘치는 영채도는 눈, 꽉 다문 입, 넓은 미간.

로인은 젊은이의 모습이 너무도 낯이 익었다. 생각을 골똘히 하였으나 딱히 짚이는데가 없었다.

그러다가 그는 《음!》하고 머리를 끄덕이였다.

분명히 이 집의 아들이렸다! 그런즉 이목구비가 부모를 닮은것은 응당한것이요, 그 부모를 잘 아는 나에게 낯이 익은것 또한 이상할게 없는것이 아닌가!

《여보게, 장하이! 장해!》

로인은 벌떡 일어나 젊은이를 와락 그러안았다.

로인은 또 한번 놀랐다. 억수로 퍼붓는 비속을 걸어왔는데 웬일인지 젊은이의 옷엔 비 한방울 맞지 않았던것이다. 우장도 걸친것없는 여름옷차림인데 어떻게 비 한방울 맞지 않았을가? 생각할수록 신기하기만 하였다.

이때 젊은이의 목소리가 머리우에서 들려왔다.

《할아버지, 마을어른님들, 고맙습니다. 저의 부모님을 돌봐드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그새 임잔 어디 가있었나?》

로인과 마을사람들은 너무도 놀랍고 반가와 눈물이 글썽하여 물었다.

《저는 6년전 봄 이 집에서 태여난 후 저 멀리 3천리밖에 가서 나라찾을 군사를 키우고있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들의 소식을 모르는바는 아니였으나 군사훈련을 하는 일이 너무 바빠 찾아뵙지 못하였습니다.

오늘은 군사들이 하루 쉬는 날이라 아버지 제상에 술이라도 한잔 부으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넋을 잃고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분명히 여섯살일진대 어떻게 저렇듯 름름하고 의젓한 청년

으로 되였을가?

뒤집로인은 향불을 피웠다. 향내를 풍기며 가느다란 연기가 제사상을 어루만지였다.

젊은이는 가져온 술을 잔에 부어 상우에 올려놓더니 벽에 걸어놓은 아버지사진을 보며 말하였다.

《아버님, 이 아들의 술을 받아주십시오. 부모님들의 뜻을 안고 저는 머나먼 타향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군사들을 키웠습니다.

이젠 군사를 일으켜 왜놈들을 내 나라에서 몰아내고야말겠습니다. 조선이 독립된 다음 부모님의 령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이 잠드십시오.》

젊은이의 말은 비장하게 울렸다. 방안은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누구 하나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다. 숨소리만 들렸다.

젊은이의 목소리가 또 울렸다.

《마을어른님들, 저는 바빠서 이젠 떠나야겠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떠나다니? 비도 아직 멎지 않았는데.》

이때 마침 밖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천둥이 짜르릉! 울렸다.

《꼭 가야 합니다. 저의 군사들이 기다리고있습니다.》

젊은이는 마을사람들이 모두 말렸으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더는 어쩔수 없다고 여겼는지 뒤집로인은 《그럼 가게. 군사가 하는 일을 말리지는 않겠네. 그러나 오래간만에 찾아왔는데 제 집에서 하루밤도 묵지 않으니 그게 너무 섭섭해 그러네. 부모님들이 임자가 오면 이 집에서 잘 맞아달라고 한 유언도 있는데…》하더니 말끝을 흐리였다.

눈을 슴벅이며 먼저 간 부부를 생각하는듯 추연히 앉아있던 로인이 이윽고 입을 열었다.

《그럼 또 언제 오려나?》

《나라가 독립된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 나라가 독립되나?》

《을유년이면 왜놈이 망하고 나라가 독립될것입니다. 모두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젊은이는 문을 열고 마당에 나섰다. 모두 그를 바래주려고 밖으로 나왔다.

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내리고있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비를 맞지 말고…》

젊은이가 마을사람들을 말렸으나 누구 하나 방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없었다.

젊은이는 저벅저벅 비오는 밤길을 걸어가는데 그가 걸어가는 앞은 웬일인지 환하였다. 해와 달이 그에게만 따로 빛을 뿌려주는것 같았다.

그러니 그가 가는 길앞엔 비도 뿌리지 않을수밖에.

마을사람들은 꿈을 꾸듯 신기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서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얼마나 빠른지 벌써 저 멀리 산등성이를 넘어가고있었다. …

순천사람들은 그 젊은이가 바로 천출명장 **김일성**장군님이시라고 하였다.

그이께서 을유년에 나라가 독립된다고 하시였는데 정말 그해(1945년이 을유년이다.)에 왜놈이 망하고 조국이 해방되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수령님을 우러르며 모두 기뻐하

였다.

수령님의 고향이 순천이 아니라 함경남도 함흥이라는 설도 많이 돌았다.

함흥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함흥지방의 어느 바다가마을에서 수령님이 탄생하셨다고 하였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자 하늘에 령롱한 칠색무지개가 서고 옥피리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고 한다.

사람들이 놀라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여러명의 선녀들이 그 무지개를 타고 어느 집뜨락에 내려 종종걸음을 쳐 방안으로 들어갔다.

얼마후 선녀들이 빛을 뿌리는 금포단에 옥동자를 고이 싸안고 나오더니 다시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얼없이 멍하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로부터 몇년후 옥동자가 장수가 되여 백두산에 내렸는데 그이가 바로 하늘이 낸 위인이신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하늘에서 천기술법과 천지조화술을 다 배워가지고 백두산에 내리시였기때문에 축지법과 승천입지, 장신술과 분신술 등 온갖 조화를 다 부리시며 왜놈들을 족친다고 함흥사람들은 자랑스레 말하군하였다.

만경대의 신동

만경대와 봉화리사람들속에서는 **김일성**장군님의 어린 시절과 관련한 전설들이 많이 전해져내려오고있다.

어리신 수령님을 사람들은 《만경대의 신동》이라 칭송하여마지 않았으니 하많은 이야기들중에서 몇가지만을 소개한다.

1. 하늘에서 내려온 신동

어린 시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녁이면 만경대의 아이들과 함께 자주 술래잡이를 하시였다.

둥근 보름달이 만경봉의 소나무가지에 걸린 어느날 저녁이였다.

이날도 어리신 수령님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술래잡이를 하시였다.

술래로는 바우도 되고 장쇠도 되고 그러다 나중에는 막동이가 되였다.

술래가 눈을 감고 하나둘 셈을 세는동안 어리신 수령님과 아이들은 모두 저마끔 달려가 여기저기에 숨었다.

셈을 다 센 막동이는 어디에들 숨었을가 하고 고개를 갸웃

거리며 생각하다가 굴뚝뒤와 울바자아래 그리고 느티나무밑에서 장쇠와 바우와 다른 애들을 모두 찾아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술래의 빈틈을 타서 매번 먼저 달려나와 《하나, 둘, 셋》하고 진을 치시던 수령님께서 이번엔 다른 애들을 다 찾아낼 때까지도 까딱 나타나지 않으시였다.

막동이는 찾다 못하여 어리신 수령님네 집 꽃밭에 가서 기웃거렸다.

바람도 없는 꽃밭에서 접시꽃이 갑자기 한들한들했다.

《아, 저기 숨었구나.》

뒤따라온 애들이 바로 거기라고 눈을 끔쩍거려주었다.

막동이는 허리를 구부리고 살며시 다가갔다. 그러나 꽃밭속에도 어리신 수령님께서는 안계셨다.

막동이는 락심해서 고개를 쳐들었다.

그랬더니 이번엔 울바자를 덮은 호박잎이 한들한들했다.

《아, 저기구나.》

막동이는 숨소리도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러나 호박잎들속엔 호박만 데룽데룽하고 어리신 수령님께선 감쪽같이 어디에 또 숨어버리셨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만 맥이 풀려 허리를 펴고 일어서는데 또 고향집뒤켠에서 인기척이 나며 하얀 박꽃이 한들거렸다.

《하, 어느새 저기로 가서 숨었구나.》

막동이는 쏜살같이 집뒤로 달려갔다. 그러나 거기에도 어리신 수령님께서는 계시지 않고 푸른 박통만이 올려다보일뿐이였다.

그러는데 애들과 함께 뒤미처 온 바우가 가만히 와서 귀띔을 해주었다.

혹시 방에 가서 숨었을지도 모른다는것이였다.

그래서 막동이는 사립문을 열고 어리신 수령님네 집뜨락으로 살금살금 들어가서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집안에도 어리신 수령님은 보이지 않았다. 지어는 사다리를 타고 다락우에까지 올라가 살펴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막동이는 심드렁해서 사립문으로 나왔다.

이때였다. 갑자기 머리우에서 《하, 하, 하》하는 어리신 수령님의 웃음소리가 들리였다.

막동이와 아이들은 깜짝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이께서 흰구름을 타고 밤하늘을 날아내려오시는것이였다.

어리신 수령님의 온몸에선 밤하늘을 밝히며 환한 빛이 뿜어져나오고있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수다!》

아이들은 합창이나 하듯 소리쳤다.

이때부터 만경대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위대한 수령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신동》이라고 불렀다.

2. 보물뒤웅박

만경대고향집에는 김보현선생님께서 쓰시던 보물뒤웅박이 있었다.

언제 어떻게 고향집에 그 보물뒤웅박이 생겨났는지는 누구도 몰랐으나 그것은 《여의주》처럼 신기한 보물이였다.

그 보물뒤웅박은 보통뒤웅박과 생김새가 조금도 다른데가 없었다.

김보현선생님께서는 이 뒤웅박을 몹시 사랑하시였다. 그 보물뒤웅박에서는 무엇이나 요구하는대로 다 나오기때문이였다.

이 보물뒤웅박을 어리신 수령님께서 자주 가지고다니셨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몹시 부러워하였다.

어느날 바우라는 아이가 팽이채를 만들려고 어리신 수령님께 노끈을 얻으러 간적이 있었다.

어리신 수령님께서는 보물뒤웅박에서 멋진 노끈을 꺼내주시였다.

《이거면 되겠니?》

《응.》

바우는 좋아서 노끈을 받아들고 집으로 달려갔다.

얼마후 팽이채를 다 만든 바우는 이번엔 썰매를 만들다가 또 못이 몇개 모자라 어리신 수령님께 찾아갔다.

그이께서는 역시 그 보물뒤웅박에서 번쩍거리는 못을 꺼내 그에게 주셨다.

바우는 그것을 받아들고 집으로 가 썰매를 만들었다.

썰매와 팽이를 다 만든 바우는 빨리 얼음판에 나가 놀려고 두손에는 썰매와 팽이채를 들고 발로 찌그덩거리는 대문을 차서 열었다.

그런데 그바람에 공교롭게도 돌쩌귀가 부러지면서 대문의 한쪽이 떨어져나갔다.

《에이, 참》

바우는 어떻게 할지 몰라 망설이였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되게 꾸지람을 할것이였다.

그래 제손으로 고쳐놓자고 하니 돌쩌귀가 없었다.

그렇다고 수령님댁에 가서 또 돌쩌귀까지 얻어올수는 없었다. 그런 돌쩌귀가 있겠는지도 모르겠고…

한참동안 궁리를 하던 바우는 이번엔 뒤집 막동이네 집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막동이네 집엔 돌쩌귀가 없었다.

안달이 난 바우는 다음엔 점득이네 집으로 갔다. 그 집엔 돌쩌귀가 하나 있는데 작은것이여서 대문에는 달수 없는것이였다.

바우는 할수없이 또 렴치를 불구하고 수령님한테로 찾아갔다.

《어떻게 왔니?》

그이께서 물으셔서야 그는 겨우 문돌쩌귀를 얻으러 왔다고 대답하였다.

《어떤 문돌쩌귀냐?》

바우는 어리신 수령님께 돌쩌귀의 크기와 생긴 모양을 대주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그 보물뒤웅박에서 그런 돌쩌귀를 제꺽 꺼내주시였다.

막동이네 집 대문에 달았던 그 돌쩌귀와 신통히도 꼭 같은 것이였다.

바우는 놀랍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여 입을 하 벌리고 섰다가 고맙다는 인사도 변변히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바우는 그 돌쩌귀로 대문을 든든하게 달아놓아 아버지한테 칭찬까지 받았다.

그때부터 바우는 그 보물뒤웅박을 더욱 부러워했다. 얼마나 부러웠던지 그는 어리신 수령님께 보물뒤웅박을 며칠만 빌려달라고까지 하였다.

어리신 수령님께서는 흔연히 바우의 청을 들어주시였다.

바우는 보물뒤웅박을 받아들고 너무 좋아서 그것을 몸에서 떼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였다. 보물뒤웅박이 바우한테로 가자 그안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것이였다.

바우는 겁이 덜컥 났다.

(혹시 내가 이 보물뒤웅박을 못쓰게 만든게 아닐가?)

바우는 《못쓰게》된 뒤웅박을 어리신 수령님한테 가지고 가서 사실대로 말했다.

바우의 말을 다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며 《일없어, 걱정말어.》하시면서 그것을 받으시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어리신 수령님한테로 보물뒤웅박이 되돌아가자 다시 그안에서는 무엇이나 필요한것이면 다 나오군 하는것이였다.

보물뒤웅박은 그 주인인 김보현선생님이나 어리신 수령님께서 가지고계셔야만 신기한 조화를 부리였다.

3. 돌미륵이 된 왜놈학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덕학교에 다니시던 어느해 여름에 있은 일이였다고 한다.

평양성안에 있는 왜놈학생들이 여름방학이면 칠골쪽에 나와 민충이와 매미를 잡으며 싸다니군하였다.

왜놈학생들은 조선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제 애비들의 본색을 그대로 물려받았는지 농민들을 몹시도 깔보았다.

왜놈새끼들은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참외밭과 오이밭에 들어가서 제마음대로 따먹었을뿐아니라 채 익지 않은 참외를 발로 차버리고 넝쿨을 짓뭉개여 밭을 못쓰게 만들군하였다. 이렇게 하고도 원두막주인이 말을 하면 제편에서 행패질을 하며 참외포기를 마구 뽑아버리였다.

그래 농민들은 왜놈새끼들과 아예 상종하지 않았고 아무리 행패를 해도 그냥 내버려두었다.

그러자 왜놈학생들은 더 기승을 부리며 날치였다.

어느날이였다.

창덕학교에 다니시는 어리신 수령님께서 비석거리에 갔다오시다가 재등에 있는 참외밭에서 대여섯명의 왜놈학생들이 원두막로인에게 행패를 하는것을 목격하게 되시였다.

평양성안에서 욱 밀려나오던 왜놈새끼들은 참외밭을 보자 마치 자기네 밭처럼 뻐젓이 들어가 참외를 따려고 하였다.

원두막로인은 그들에게 자기가 익은 참외를 골라따줄테니 아무것이나 망탕 따서 못쓰게 만들지 말라고 애원하듯 말했다.

그러자 키가 껑두룩한 왜놈새끼가 앞에 나서며 《령감, 그럼 맛있는 참외나 빨리빨리 따오라.》하고 큰소리를 쳤다.

로인은 왜놈새끼들이 행패를 할가봐 잘 익은 참외를 한망태기 따주었다.

왜놈새끼들은 참외를 받아들고 게걸스레 먹어댔다.

단숨에 참외 한망태기를 다 먹은 왜놈새끼들은 배가 부른지 로인에게 까박을 붙이며 생트집을 걸기 시작하였다.

《령감, 매우매우 고약하다. 참외나 맛이 없는것이나 골라 땄다. 맛있는것이나 다시 골라따라.》

로인은 잘 익은 참외를 다 골라따서 이젠 그보다 더 맛있는것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왜놈새끼들은 한창 익는 참외들을 발로 차고 짓뭉개고는 그우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미친듯이 돌아쳤다.

로인이 말리자 놈들은 오히려 더 승이 나서 할아버지의 수염까지 잡아흔들었다.

참외밭은 운동장이 되고말았다.

이것을 보신 어리신 수령님께서는 왜놈새끼들한테 달려가 제일 큰놈의 팔목을 틀어잡으시였다.

《이놈들아! 무슨 짓이야? 가만 있지 못하겠니?》

어리신 수령님의 추상같은 호령소리에 왜놈새끼들은 놀라서 무춤 그자리에 굳어졌다.

그러나 다음순간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리신것을 보고 깔보았던지 키큰 왜놈의 새끼가 《뭐가 어째?》하며 대들었다.

어리신 수령님께서는 쓴웃음을 지으시며 그놈의 머리를 가볍게 다치시였다.

그러자 어떻게 된 일인지 키큰 왜놈의 새끼는 머저리처럼 멍해져 눈만 끔벅거리고 서있었다.

이번엔 어리신 수령님께서 그놈의 어깨를 만졌다가 놓으시자 팔이 굳어져 움직이지 못하였다.

다시 손으로 몸을 어루쓸어주시니 눈과 입만 움직이고 온몸이 돌처럼 굳어져버렸다.

그놈의 입에서는 연방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하

는 말이 흘러나왔고 눈에서는 닭똥같은 눈물이 뚤렁뚤렁 떨어졌다.

놀라운것은 그놈뿐만아니라 함께 온 왜놈새끼들이 모두 돌미륵으로 되여버린것이였다.

그놈들은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서 합창으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그러겠습니다.》하는 소리를 자꾸만 반복하였다.

어리신 수령님께서 놈들의 사죄를 받아내고 용서해주시자 그제야 놈들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고 몸이 움직이였다.

그때부터 왜놈학생들은 칠골일대에 한놈도 얼씬하지 못했다고 한다.

4. 바람타고 내려왔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봉화리 명신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혁명활동을 벌리실 때 있은 일이다.

만산에 단풍이 들고 소슬바람에 밤알들이 쏟아지는 가을 어느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학생들과 함께 봉화산에 오르시였는데 그때 어리신 수령님께서도 같이 가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여 학생들과 같이 노래도 부르시고 그들에게 재미나는 이야기도 들려주시면서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시였다.

그러다가 석양노을이 비낀 다음에야 산에서 내리시였는데

학생들은 모두 선생님을 따라 함께 내려왔다.

그런데 어리신 수령님께서만은 살맹이를 따느라고 제일 뒤에 떨어지시였다.

오득이라는 아이가 빨리 내려가자고 재촉하였으나 수령님께서는 《먼저 내려가. 난 어머님께 드릴 살맹이를 좀 따가지고 가겠어.》 하고 말씀하시였다.

《그럼 내 따줄게 같이 따자.》

《아니야. 먼저 내려가. 내 인차 뒤따라가겠어.》

어리신 수령님께서 하도 말리시는바람에 오득이는 아이들과 함께 먼저 산을 내려갔다.

그는 가면서도 몇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어리신 수령님께서는 살맹이를 따느라고 여념이 없으시였다.

오득이는 슬그머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수령님만 산에 홀로 남겨두고 제먼저 온것이 마음에 걸리였다. 그래 다시 산에 오를가 말가 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벌써 산아래까지 거의 다달았다.

그때 또 산을 올려다보니 살맹이를 따시는 어리신 수령님의 모습이 어스름속에서 뿌옇게 보였다.

어두운 산속에 혼자 있는데 이제라도 올라갈가?

오득이는 근심어린 마음으로 또 수령님을 올려다보았다.

우중충한 산은 벌써 어둠속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쏴쏴 바람만이 세차게 불어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이들이 떠들며 노는 말바위쪽에서 어리신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목소리가 울리는것이였다.

오득이는 처음엔 잘못 들었으려니 하면서도 신통히 같은

목소리여서 바삐 달려가보았다.

《엉?》

오득이는 깜짝 놀랐다.

글쎄 수령님께서 어느새 벌써 산을 내리시여 말바위우에 앉아 동네아이들과 군사놀이를 하고계시였던것이다.

오득이와 그의 말을 들은 다른 학생들과 마을사람들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어떻게 눈깜짝할사이에 산에서 내리셨을가! 과시 신동이로다. 바람을 잡아타고 내려온게 분명하구나.

그때부터 어리신 수령님께서 바람을 타고 다니신다는 소문이 퍼졌다.

5. 명 궁

어린 시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활을 잘 쏘시였기때문에 사람들은 그이를 《명궁》이라고도 불렀고 궁술이 너무도 신기하여 《신궁》이라고도 불렀다.

봉화리에 계실 때 어리신 수령님께서 사용하시던 활과 화살은 모두 자신께서 만드신것이였다.

활은 참나무를 휜 다음 삼끈으로 시위줄을 매여 만든것이였고 화살은 수수깡으로 만들었는데 축음기바늘과 작은 못을 갈아 활촉을 대신한것이였다.

어느해 여름 뽕나무가 우거진 시내가 방축을 넘어 한 녀인

이 빨래함지를 이고 개울가로 나가고있었다.

그는 얼마전에 성천에서 갓 시집온 포수집 며느리였다.

녀인은 빨래함지를 내려놓고 빨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흰비누거품이 맑은 내물우로 떠내려가고 방치소리가 내가를 울리였다.

이때 멀지 않은 건너편 방축에서 아이들의 와와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웬일인가 하여 녀인은 그쪽을 바라보았다.

거기서는 명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활쏘기를 하고있었다.

짚으로 왜놈을 형상한 허수아비를 만들어놓고 한 아이씩 나와서 활로 쏘아맞힐 내기를 하는데 그 거리가 퍼그나 멀었다.

학생들속에는 어리신 수령님도 계셨는데 그이께서는 다른 애들보다 곱절이나 먼곳에서 활을 쏘아 화살 열개를 다 맞히시는것이였다.

녀인을 더욱 놀래운것은 그중 다섯개의 화살은 눈을 싸매고 쏘시였는데 그 화살이 모두다 왜놈허수아비의 심장부위를 맞히는것이였다.

아이들은 화살이 목표에 가맞을 때마다 《야!— 야!—》환성을 올리고 박수를 치며 야단이였다.

너무도 신기하여 빨래방치를 들고 일어서서 멍하니 바라보는 녀인의 입에서도 저도모르게 《히야!—》하는 감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다른 아이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쏘았는데 열개중 한개도 변변히 맞히지 못하였다.

활쏘기가 끝나자 아이들은 날려보낸 화살을 주으러 가려고 하였다.

바로 이때 개울건너 마을쪽에서 《후여— 후여—》하는 소리와 함께 《독수리가 닭을 채간다!》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송아지만한 시커먼 독수리가 사나운 발톱으로 어미닭을 움켜쥐고 하늘로 날아오르는것이였다.

아이들은 하늘에 대고 수수깡화살이라도 날려보내려 하였으나 공교롭게도 모두 쏘아버린뒤여서 누구에게도 화살이 없었다.

빨래를 하던 녀인도 어떻게 할지 몰라 앞치마만 문지르고 있었다.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고 안타까와만하고있는데 어리신 수령님께서 어느새 뽕나무가지 하나를 꺾으시여 잎을 쭉 훑어버리시고 그것을 활에 메워 시위줄을 당기시였다.

이런 놀라운 일이라구야. 글쎄 그 뽕나무가지가 화살로 변하여 하늘로 날아가 독수리의 대가리를 명중하는것이였다.

독수리는 짹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한채 돌멩이처럼 땅에 쿵 떨어졌다.

《야!— 만세!—》

아이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산이 떠나갈듯 환성을 올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포수집 며느리도 두손을 모아쥐고 《정말 신궁이로구나. 어쩌면 그렇게 신기한 조화를 부릴가?》하고 환성을 질렀다.

어리신 수령님의 신기한 궁술에 넋이 빠져 빨래를 하러 나왔다는 생각마저 까맣게 잊고 바라보고있던 녀인은 순간 소

스라쳐 놀랐다. 그제야 빨래생각이 났던것이다.

서둘러 주변을 둘러보니 빨래감은 절반이나 떠내려가고 보이지 않았다.

《어마나, 이를 어쩌나?》

녀인은 치마가 젖는줄도 모르고 개울에 들어서서 첨벙거리며 여기저기 떠내려가다가 걸린 빨래들을 찾아들었다.

어떤것은 멀리까지 떠내려가 힘들게 찾아냈다.

그러노라니 시간이 퍼그나 흘러 해동갑해서야 빨래를 끝내였다.

이것을 알리 없는 포수집 어머니는 그날 늦어서 집으로 들어온 며느리를 나무람하였다.

그러나 어리신 수령님의 신비한 궁술에 대해 얘기하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는 온 가족이 깜짝 놀라 혀를 찼다.

6. 움직이는 바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덕학교에 다니실 때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중에는 몸이 다부지고 체육을 잘하는 쇠득이라는 아이가 있었다고 한다.

그애는 어리신 수령님과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날 그이를 따라 여러 아이들과 함께 룡악산에 간적이 있었다.

어리신 수령님과 같이 간 그들은 어서빨리 룡악산봉우리에 오르려고 걸음을 다그쳤다.

룡곡서원을 지나 개울을 따라 우거진 숲을 헤치고 가파로운 벼랑을 톺아오르는 그들은 숨이 턱에 닿아 헐떡거리면서도 쉬지 않고 그냥 산발을 탔다. 누가 먼저 룡악산봉우리에 오르는가 보자 하는 은근한 경쟁심이 생겼던것이다.

쇠득이가 제일먼저 룡악산중턱에 있는 법운암이라는 절간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가 본전앞마당에 있는 돌탑을 보고있을 때 룡악산의 정수리대봉에서 《쇠득아—》하고 찾는 소리가 쩌렁쩌렁 골안을 산울림하였다.

누굴가?

쇠득이가 산을 올려다보니 숲이 우거져 보이지 않는데 그 목소리는 분명 어리신 수령님의 목소리였다.

(언제 벌써 산꼭대기에 올랐을가?)

쇠득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조금전에도 힘들어하는 애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시며 자기 뒤에서 오르고계셨는데 갑자기 산꼭대기에 올라 소리를 치고있으니 날아오르지 않고서야 하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잠시후 어리신 수령님께서 쇠득이앞에 나타나시였다.

《쇠득아, 빨리 오르자꾸나.》

그는 놀라운 눈길로 어리신 수령님을 바라보며 생각하였다.

(날개가 돋힌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눈깜짝할 사이에 험한 산을 오르내릴가?)

마을사람들이 어리신 수령님을 신동이라고 하더니 정말 자기들과 같은 보통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쇠득이는 어리신 수령님의 손에 이끌리여 순간에 룡악산정수리에 올랐다.

봉우리에 오른 아이들은 우뚝우뚝 솟은 바위우에 올라서서 산아래를 굽어보았다.

멀리로 띠처럼 대동강과 보통강이 보이고 가까이로는 만경봉과 송산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정말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왔다.

그들이 딛고서있는 봉우리아래에는 문바위라고 하는 두개의 큰바위가 나란히 서있었다.

한 바위는 높고 다른 바위는 좀 낮은데 그 사이는 어른들도 웬만해서는 건너뛸 엄두를 내지 못하리만큼 퍼그나 멀었다.

그런데 어리신 수령님께서는 문바위에 올라서시여 그 사이를 보통땅우를 걸어가듯 쉽게 넘어가시였다.

쇠득이는 자기도 두 바위사이를 넘어보려고 높은쪽에 올라섰다.

학교에선 체육을 잘하고 겁이 없기로 소문난 쇠득이였으나 정작 바위우에 올라서 내려다보니 낭떠러지가 너무나 아찔하여 속이 떨리였다.

그러나 애써 태연한체하며 높은데서 낮은쪽으로 있는 힘껏 건너뛰였다. 겨우 낮은 바위우에는 건너갔으나 반대로 높은쪽으로 건너뛰자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아찔해서 뛸수가 없었다.

다른 아이들은 아예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건너뛸념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리신 수령님께서는 두 바위사이를 걸음을 걷듯

범상히 건느시였다. 아이들은 놀랍고 부러운 눈으로 어리신 수령님의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쇠득이는 어리신 수령님께서 문바위사이를 건너다니시는것을 자세히 눈여겨보았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어리신 수령님께서 문바위사이를 건느실 때마다 두 바위가 움직여 서로 붙었다가 떨어지는것이였다.

《옳지!》

쇠득이는 그제야 알았다는듯 무릎을 쳤다.

문바위는 어리신 수령님께서 건느실 때마다 움직이는것이였다. 바위만이 아니였다.

어리신 수령님께서 산을 건너뛰실 땐 산이 서로 맞붙었고 강을 건느실 땐 기슭이 서로 마주 붙군하였다.

쇠득이는 마을로 내려와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그 희한한 소식을 마치 제 자랑거리이기라도 한듯 외우고 또 외웠다.

그리하여 사람들속에서는 어리신 수령님께서 땅도 바위도 마음대로 움직이고 쥐락펴락하신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였다.

만경대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쓰신 축지법이라고 말하고있다.

백두산마을에서 전해진 장수이야기

삼천리강토가 왜놈들의 구두발에 짓밟혀 신음하던 그 시절, 캄캄한 암흑속에서 살아가는 조선사람들속에서 가슴이 탁 트이는 굉장한 소문이 떠돌았다.

어느고장엔가 용모가 뛰여나고 무술이 으뜸가는 한 장수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장수는 이제 겨우 열살을 갓 넘긴 어린 소년이다. 그렇지만 기마술에 뛰여나고 창과 칼을 잘 쓸뿐아니라 활을 잘 쏘는 명궁이여서 누구도 그를 당해내지 못한다. 게다가 량겨드랑이엔 쌍날개가 돋쳤는데 날이 가고 해가 바뀜에 따라 그 날개가 점점 더 크게 자라난다. 어깨에는 일곱개의 별이 돋쳤는데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눈이 부시여 자세히 볼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어두운 밤에도 주위를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며 그 어디에나 마음대로 날아다닌다. …

이런 소문과 함께 실제 있은 일이라는 주석까지 가해진 전설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 어린 장수휘하로 담이 크고 체격이 좋은 청년들이 매일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린 장수는 모여온 젊은이들에게 무술과 도술을 가르쳐주고 천기보는 법을 배워주었다.

그들이 어린 장수의 지도를 받으며 훈련을 할 때면 참으로 요란스러웠다.

칼들이 부딪치는 소리가 우뢰같고 말들이 달리는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훈련하는것을 직접 제 눈으로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것이였다.

어린 장수에 대한 소문이 온 나라에 자자하니 퍼져 사람들은 모여앉기만하면 그 이야기로 시간가는줄을 몰랐다.

언젠가 백두산밑 어느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앉아 어린 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신이 나서 하고있었다.

그런데 그들중에는 이 어린 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몇이 있었다.

《아무렴 그런 일이 있을법한 일인가?》

《왜놈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다니는데 장수가 웬말인가?》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떠도는 말이 헛소문이라고 하였다.

그 사람들가운데는 고불통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은 여간 고집이 세지 않았다. 벽도 문이라고 넙다 우겨댈 때에는 그 누구도 그의 고집을 당해내지 못했다.

그는 제 눈으로 직접 보기전에는 무엇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였다.

지어 어떤 때는 제 눈으로 보고도 한번 우겨대던것은 끝까

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였다.

그래서 고불통이라는 별명까지 달리게 되였던것이다.

이리하여 마을에서는 어린 장수이야기를 믿는 사람과 고불통을 비롯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로 자연히 편이 갈라져서 서로 싱갱이를 하게 되였다.

그러던끝에 그들은 이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어린 장수밑에서 젊은이들이 훈련하는 고장을 알아보려고 산지사방으로 사람들을 파했다.

석달열흘이 지나서야 겨우 그 고장을 알아냈다.

그리하여 마을사람들은 젊은이들이 훈련하고있다는 깊은 산속의 개울가를 찾아떠났다.

그런데 일은 매우 공교롭게 되였다.

왜놈들도 그 고장을 알아냈던것이다.

놈들은 장수의 혼을 그 싹에서부터 뽑아버린다면서 마을사람들을 앞질러 산속으로 먼저 쳐들어갔다.

깊은 산속 개울가에 이르러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사람들은 뜻하지 않았던 큰 봉변을 겪게 되여 불안한 가슴을 안은채 숲속에 몸을 숨기고 놈들을 지켜보았다.

놈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젊은이들의 훈련장을 빙 둘러싸고 도적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조여들어갔다.

이때 어린 장수는 왜놈들이 포위하고있는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태연한 자세로 훈련하는 젊은이들을 둘러보더니 모두 한곳에 모이라는 명령을 내리였다.

어린 장수의 구령소리가 어찌나 큰지 골짜기가 찌렁찌렁 울리면서 금시 산이 무너져내릴것만 같았다.

왜놈들도 마을사람들도 모두 어린 장수의 구령소리에 깜짝

놀랐다.

훈련하던 젊은이들은 어린 장수의 구령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모두 한곳에 모여섰다.

《옳지, 됐다! 돌격하라!》

왜놈헌병대장놈은 무릎을 치고 얼굴에 싦의 웃음을 지으며 졸병놈들을 내몰았다.

졸병놈들은 어린 장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지라 겁이 나서 엉기엉기 무릎걸음을 하며 포위망을 좁혀들어갔다.

그런데 포위망을 바싹 좁혀놓고보니 어린 장수와 젊은이들은 온데간데 없고 버들방천만 눈앞에 덩실하니 펼쳐져있었다.

왜놈들은 하도 이상하여 눈만 멀뚱거리며 서로 쳐다볼뿐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서있었다.

한참만에야 정신을 차리고 버드나무 사이사이와 도랑홈타기들을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어린 장수와 훈련받던 젊은이들은 흔적도 찾아볼수 없었다.

이때 바로 개울가의 제일 높은 바위우에서 탕탕하는 소리가 울리더니 하늘에서 푸른 번개가 일고 비가 강물처럼 쏟아져내렸다.

왜놈들이 어정거리던 개울가며 버들방천은 삽시에 물바다가 되였다.

수백명이나 되던놈들이 풀벌레처럼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몽땅 몰살당하였다.

이 광경을 숲속에서 지켜보고있던 마을사람들은 어찌나 기뻤던지 벌떡 일어서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어린 장수이야기를 믿지 않던 고불통도 그 광경을 제눈

으로 똑똑히 보고서는 《장수란 말이 과시 옳다! 우리 나라에 성인이 내렸구나!》하고 경탄하면서 자기를 깊이 뉘우쳤다.

그와 함께 고집을 쓰면서 믿지 않던 마을사람들도 머리를 끄덕이면서 《아무렴, 장수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순식간에 적의 대군을 전멸시킬수 있겠는가.》고 일치하게 말했다.

알고보니 그때 큰 바위우에서 탕탕 소리가 난것은 어린 장수가 탄 말이 뛰면서 내는 말발굽소리였고 하늘에서 비가 강물처럼 쏟아진것은 장수가 새끼손가락으로 도랑물을 튕긴것이고 푸른 번개가 번뜩인것은 장수가 풀어놓은 젊은이들이 휘둘러대는 칼에서 뿜는 빛이였는데 그것이 마치 번개불처럼 보였다는것이였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어린 장수가 여덟가지 도술을 하는데 갑자기 없어졌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수백만 병사들을 몸에 품고다니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이제 어린 장수가 백두산에 올라 진을 치면 조선이 독립된다고들 하면서 신이 나서 그 이야기를 옮기고 또 옮기였다.

만경대의 버드나무

혁명의 요람 만경대고향집을 찾으면 집 뒤뜰안에 한그루의 늙은 버드나무가 있다.

오랜 세월 이 나라의 력사와 더불어 풍상고초를 다 겪은 이 버드나무는 산골짜기처럼 깊게 패인 우둘투둘한 검회색 두터운 껍질로 뒤덮여있어 늙은 거목으로서의 자태가 력력하다.

언젠가 찍어버린 로목그루터기에서 세개의 굵은 줄기가 자라 하늘을 찌르고있다. 구새먹은 구멍마다에는 정성들여 양회매질을 하였고 둘레에는 고운 자갈도 깔아놓았다.

왜 구새먹은 이 버드나무그루터기를 그토록 소중히 여길가?

여기에는 장군님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맡긴 만경대사람들의 절절한 념원과 기대가 담긴 뜨거운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만경대에 장쇠라고 부르는 나무군총각이 살고있었다.

그는 장군님보다 나이가 퍽 우였으나 어렸을 때 그이와 같이 놀기를 즐기였다.

장쇠는 어리신 장군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이 버드나무밑에

서 자주 군사놀이를 하고 숨박곡질도 하였다.

이 버드나무는 봄이면 여느 나무들보다 제일먼저 움이 트고 무성한 잎새들이 피여나 온갖 새들을 제 가지밑으로 부르군하였다.

그래서 만경대아이들은 모두 이 버드나무밑에서 놀기를 좋아하였고 어른들도 그밑에 모여앉아 땀을 들이군하였다.

여름밤이면 마을사람들은 이 버드나무밑에 멍석을 깔고앉아 구수한 옛이야기를 하였고 아이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 하나, 나 하나》하고 별세기놀음도 하였다.

버드나무는 만경대사람들과 이처럼 뗄수 없는 깊은 인연을 맺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어리신 나이에 결연히 조국해방의 성전에 나서신 이후에도 만경대사람들은 이 버드나무밑에 자주 모여앉군하였다.

장쇠도 나무짐을 지고 여기를 지날 때면 의례히 지게를 벗어놓고 땀을 들이면서 어렸을 때 숨박곡질을 하며 장군님과 함께 놀던 그 시절을 그려보군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장쇠는 그 나무밑에서 마을어른들이 모여앉아 소곤소곤 귀속말로 장군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것을 들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백두산의 험한 산발들을 넘나드시며 왜놈들을 족치신다는 통쾌한 이야기였다. 장쇠는 온몸에 새힘이 용솟음쳤다.

장쇠와 마을사람들은 이 버드나무밑에 더 자주 모여앉

왔다.

왜놈들은 그것이 싫었다.

소문이 퍼지는게 두려웠던것이다.

대평주재소 소장놈은 만경대에 깔끔한 말라꽹이순사를 파하며 마을사람들이 그 버드나무밑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였다.

말라꽹이순사놈은 마을사람들이 그 버드나무밑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었다.

순사놈은 어느날 어슬녘에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가며 버드나무가까이로 다가갔다.

마을사람들은 한참 신명이 나서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그놈은 바싹 귀를 강구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지난달에 또 왜놈들을 크게 요정내셨다누만.》

《글쎄 장군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수천수만의 왜놈군대가 일시에 벼락맞은 고목같이 되고 퍼석돌로 된다지 않소.》

이 말을 들은 말라꽹이놈은 너무도 놀라 대번에 눈알이 뒤집혔다.

그놈은 마을사람들을 헤쳐놓을념도 못하고 그 길로 냅다 소장놈에게로 달려갔다.

《소장님! 소장님!》

그놈은 어푸러질듯 소장앞으로 다가가 제가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소장놈은 성이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라 고래고래 소래기를 질렀다.

《이 멍텅구리같은놈아, 누가 그따위 소리나 듣고 돌아오랬는가? 당장 가서 마을놈들을 헤쳐놓지 못하겠는가?》

그러나 말라꽹이놈은 장군님에 대한 말만 듣고도 다리가 후들거려 그자리에 털썩 주저앉고말았다.

소장은 그놈의 따귀를 몇개 후려치며 《바보같은 자식!》하더니 이번엔 털보순사놈을 불러 또다시 만경대로 파했다.

털보순사놈 역시 잔뜩 호기심이 생겨 어슬녘에 버드나무가까이로 다가가 바싹 귀를 강구었다.

《김장군은 백두산에 걸터앉아 온 천하를 다 굽어보시면서 어떤놈이 못된짓을 하는가 하고 살피다가 축지법을 써서 요정을 내신다오.》

《글쎄 김장군님께서 축지법을 써서 보천보를 들이치셨는데 굉장했다오.》

이 말을 들은 털보놈은 온몸이 와들와들 떨려 마음대로 사지를 움직일수가 없었다.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내리는것 같았다.

털보도 마을사람들을 헤쳐놓을념을 못하고 허둥지둥 소장놈한테로 달려가 들은 소리를 그대로 전했다.

《뭣이? 바보같은놈!》

소장놈은 털보놈의 따귀를 쳤다.

《머저리같은놈들, 나와 함께 가서 그 버드나무를 당장 찍어버리자.》

소장놈은 겨우 정신을 차린 말라꽹이와 털보 그리고 주재소의 순사놈들을 모조리 데리고 만경대로 달려갔다.

악에 받친 왜놈들은 장군님의 생가에 달려들어 갖은 행패

를 다하고는 그 버드나무를 찍으려 하였다.

그러자 마을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 나무는 못찍소!》

장쇠가 마을사람들의 앞장에 나서서 왜놈들에게 항거하였다.

《뭐야?》

왜놈들은 총부리를 내대고 칼을 휘둘러댔다.

마을사람들은 나무를 빙 둘러싸고 진을 쳤으나 맨주먹뿐인 그들은 어쩌는수가 없었다.

소장놈은 순사들을 내몰아 끝내 버드나무를 찍게 하였다.

《말라꽹이, 어서 저 나무를 찍지 못할가!》

말라꽹이순사는 부들부들 떨면서 겨우 도끼를 들고나섰다.

그놈은 어찌나 무서웠던지 나무밑둥을 찍지 못하고 한길이나 우에다 겨우 도끼날을 박았다.

그런데 웬일인가? 도끼날을 박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짜르릉! 하고 천둥이 울었다.

이놈은 질겁하여 도끼를 집어던지고 미친듯이 냅다 뛰였다.

소장놈이 아무리 고래고래 찾았으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뺐다.

소장놈은 이번엔 털보를 내몰았다.

그놈도 역시 부들부들 떨며 말라꽹이가 찍었던 그 자리에 겨우 도끼날을 박았다.

그러자 또 하늘에서 짜르릉! 하고 천둥이 울었다.

털보놈은 흠칠 놀라 도끼를 떨구었다.

이때 소장놈의 앙칼진 목소리와 함께 철커덕 총재우는 소리가 들렸다.

《뭐야? 네놈도 도망칠 차비냐?》

털보놈은 하는수없이 도끼를 다시 집어들고 또 나무를 찍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재소의 모든 순사놈들을 다 내몰아 겨우 굵은 줄기 셋을 찍어버렸다.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도 맑은 하늘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모여들더니 번개치고 천둥이 울며 련 사흘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만경대사람들은 장군님의 얼이 스며있는 그 버드나무에 왜놈들이 무엄하게도 도끼질을 하여 하늘이 노한것이라고 하였다.

그해가 1938년이였다.

그후 버드나무에는 봄과 여름이 몇번씩 바뀌여도 새싹이 돋아나지 않았다.

봄이면 버드나무가 흘리는 눈물인듯 찍어버린 자리에서 스며나오는 진을 보면서 장쇠는 왜놈들을 증오하며 주먹을 불끈 쥐군하였다.

《왜놈새끼들, 어디 두고보자. **김일성**장군님께서 네놈들을 꽉 혼쌀내실것이다.》

어떤 로인은 남 안보는 깊은 밤이면 그 나무그루터기앞에 꿇어앉아 버드나무가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기도 하였다.

장쇠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나무그루터기에다 물을 주었

고 가슴에 그 무슨 설음이 생길 때마다 나무를 찾아가군하였다.

그러면 가슴에 쌓였던 설음이 봄눈녹듯 사라지고 새로운 신심이 넘치군하였다.

이렇게 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1945년 봄, 그들의 소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땅에 어렸는지 신기하게도 다 말라버렸던가싶던 그 버드나무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났다.

이것을 제일먼저 본 장쇠는 마을로인들을 찾아다니며 그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마을로인들은 달려와 새싹이 돋아나는 버드나무를 보더니 수염을 내리쓸며 의미있게 말했다.

《국운이 열릴 조짐이 틀림없군. 올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것 같소.》

정말 그해 8월 간악한 일본제국주의가 망하고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에 개선하시였다.

그 버드나무는 지금도 긴 가지들을 실실이 드리우고 밤이면 푸른 잎새사이에 별들을 초롱초롱 달고서 잊지 못할 이야기들을 전해주고있다.

해를 멈춘 위인

우주는 무한하다고 한다. 이 무한한 우주공간에 떠있는 항성과 행성들의 수 또한 이루 헤아릴수없이 많다.

오죽하면 다음과 같은 일화가 생겨났겠는가.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직후 한생 천문대에서 망원경으로 별들만 관찰하던 어느 나라의 한 천문학자가 만세를 부르며 좋아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고 묻자 파쑈도이췰란드와 일제가 패망하였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는 《지구에서 있은 일이로군.》하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는것이였다.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의 눈으로 보면 지구는 백사장의 모래 한알에 불과한 존재였다.

이처럼 광활한 우주에서 항성들의 주위를 도는 무수한 행성들은 수억만년 언제 한번 흐트러진적없이 불변의 궤도를 따라 정확하게 운동하고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운동을 도저히 뜨게도 빠르게도 변화시킬수 없으며 더우기 멈춰세운다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여 인공위성을 쏴올리고 우주왕복선이 별나라를 향해 날고있지만 인간의 힘이 아무리 무궁하다

해도 천체의 운동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 시절에 벌써 지는 해를 멈춰세우셨다는 전설이 전해지고있으니 여기서 그 이야기를 떠올려보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화성의숙에 다니실 때였다. 수령님께서는 의숙에서 제일 끌끌한 청년들인 최창걸, 계영춘을 비롯한 여러 동무들과 함께 휘발하강변으로 자주 나가시여 맑스주의서적들을 탐독하시고 토론회를 벌리군하시였는데 그때 있은 일이다.

어느해 봄날이였다고 한다.

이날도 의숙에 다니는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휘발하강변에서 맑스주의책들을 열심히 읽고있었다.

얼마나 독서에 열중하였던지 해가 지고 강변에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였으나 누구 하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설념을 하지 않았다.

사위가 캄캄해져 더는 글줄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제야 여기저기 흩어져 책을 읽던 청년들이 하나둘 자리를 털고 일어나 기숙사로 들어갈 차비를 하였다.

그런데 모두가 한데 모여 떠나려고 하는데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용히 앉아 책에 시선을 박은채 좀처럼 일어날념을 하지 않으시였다.

한 청년이 소리내여 가까이 다가가려는것을 최창걸이 조용히 제지시켰다.

잠시 한자리에서 지켜보던 동무들은 약속이나 한듯 발볌발볌 위대한 수령님께서 앉아계시는곳으로 다가가며 저마끔 생

각하였다.

사색의 나래를 펼치고있을가, 아니면 피곤에 몰려 졸고있는것일가.

강의와 훈련에는 누구보다 더 열성적으로 참가하시면서도 나머지 모든 시간, 지어 잠시간마저 떼내여 책을 탐독하니 강철인들 견딜수 있겠는가.

하지만 다가선 동무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책장을 번지시며 계속 책을 읽고계셨던것이였다.

한 청년이 일부러 인기척을 크게 내며 그이께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얼마나 책에 심취되셨던지 인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하신듯 여전히 책장을 번지시며 독서에 여념이 없으시였다.

(이 어둠속에서 글줄이 보이기나 할가?) 그 청년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이께서 보시는 책장을 등너머로 내려다보았다.

그는 갑자기 눈을 크게 홉떴다.

글쎄 그이께서 보시는 책장이 마치 전지불을 비친듯 환히 들여다보이는것이였다.

그는 너무도 놀라와 수령님께 큰소리로 물었다.

《아니, 거 성주동무 눈에서는 불빛이 흘러나오는게 아니요?》

그제서야 책에서 눈길을 떼신 수령님께서는 주위에 둘러선 동무들을 보시자 《벌써 날이 어두웠는가.》하며 흔연히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그이께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동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밤낮없이 책을 읽으라고 나의 눈에 불을 달아놓았는지 모르겠소. 하하하》

호탕하게 웃으시는 그이를 따라 동무들도 즐겁게 웃었다.

최창걸이 수령님께서 보시던 책을 받아들고 책장을 번지였으나 한 글자도 보이지 않았다.

책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넘어가 저저마다 책장을 들여다보았으나 그 누구도 글줄을 볼수가 없었다.

(거참 이상한데. 서산을 넘던 해님이 성주동무에게만 빛을 남기고 갔을가?…)

모두들 머리를 기웃거렸다.

이런 일은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계속 반복되였다.

어느날 휘발하강변에서 책을 읽던 계영춘은 땅거미가 지자 바위돌에 걸터앉으시여 독서에 열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순간도 눈길을 떼지 않고 지켜보던 그는 눈이 휘둥그래졌다.

하늘에 뜬 반달이 그이께서 앉아계시는곳에 유난히도 더 밝은 빛을 뿌려주는것이 아닌가!

얼마후 달이 지자 이번엔 하늘에 총총히 뜬 별들이 빛을 모아 그이 계시는곳에 밝은 빛을 뿌리기 시작했다.

계영춘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렇지. 성주동무는 하늘이 낸 위인이 분명해.)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색과 행동이 출중할뿐아니라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디마디가 다 금과옥조와도 같은 진리여서 늘 경탄하군하였는데 오늘 달빛과 별빛의 조화를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으신 《ㅌ. ㄷ》의 첫 성원으로 된 최창걸, 계영춘 등 화성의숙의 청년들은 자기가 활동하는 남북만주와 동만의 여러 지역에서 《김성주동무가 책을 읽을 때에는 지는 해도 멎어선다.》라고 긍지높이 자랑하여 이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였다.

그러나 실은 이보다 퍽 이전 벌써 어린 시절에 만경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자 산당집은 물론 온 만경대가 들끓었다.

동리사람들은 물론 린근에서도 겨끔내기로 찾아와 위대한 수령님의 곁에서 오래도록 머물다 가군하였다.

그들이 돌아가서 새라새로운 이야기를 펴놓아서인지 아니면 하늘이 낸분이라는 소문이 나서인지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발길이 더 잦아졌다.

하루는 웬간해서는 자리를 뜨지 않던 마을의 좌상로인도 찾아왔다.

당시 위대한 수령님을 애명으로 증손이라고 불렀다.

생가로 들어서던 로인은 증조할머님께 증손을 보아서 얼굴의 주름살이 다 펴지였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증조할머님께서는 기다렸던듯 증손이 웃는 모습을 한번 보면 고생살이로 생긴 주름살이 하나씩 없어진다고 하시였다.

그 말씀에 마음이 동한 좌상로인은 어리신 수령님의 웃는 모습을 보려고 이제나저제나 하고 앉아기다렸다.

마침내 어리신 수령님께서 량볼에 보조개를 지으며 활짝 웃으시였다.

순간 좌상로인도 답답하던 가슴이 후련해지고 온 방안이

다 밝아지는것 같았다.

로인은 그 길로 돌아가 동리사람들에게 산당집 종손의 웃음은 험한 세월에 모질어지다못해 굳어져버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만시름을 잊게 해주는 행복의 미소라고 흥분에 떠서 말하였다.

그러면서 로인은 해빛도 녹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멍든 마음속을 따뜻이 덥혀주는 그 미소를 보니 조선의 밝은 앞날이 기약된다고 말했다.

그 말이 또 퍼져서인지 이웃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보는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을 보태서 그이의 출중한 인품에 대한 이야기는 나날이 늘어만 갔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이웃마을에 사는 한 할머니가 산당집에 찾아왔다.

그 할머니는 방안에 들어서며 《아니, 이 집에선 종손을 보더니 초저녁부터 등불을 켜놓았구만요.》라고 말하면서 방안을 둘러보다가 흠칫 놀라는것이였다.

밖에서 보니 창호지를 바른 창문이 환하길래 이렇게 말하였는데 방안에 등불은 없고 어리신 종손자분의 눈에서 밝은 빛이 뿜어나오고있었기때문이였다.

그 이야기가 한입두입 건너가는사이에 이 사람, 저 사람의 소감이 보태여지니 린근마을들에서는 옹근 하나의 줄거리를 이룬 이런 이야기가 돌아갔다.

산당집 종손의 눈에서는 인정과 노기가 함께 뿜어나오는데 정직한 사람은 용기를 느끼고 고약한 사람은 공포를 느끼게 된다, 그 눈빛에는 사람의 속은 물론 세상만사를 다 꿰뚫어보는 예지가 비꼈다, 그러니 이제 산당집 종손이 자라면 만

경대사람들의 소원만이 아니라 만백성의 념원을 다 풀어주는 위인이 될것이다. …

어리신 수령님께서 글을 배우신후 만경봉에 올라가 저녁늦도록 책을 읽으실 때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다.

장쇠라는 젊은이가 퍼뜨린 말인데 그는 자기가 직접 보았다고 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어느날 밥지을 나무가 떨어져 솔잎이라도 긁어오려고 땅거미가 지는 저녁에 지게를 지고 서둘러 만경봉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그만 중턱에서 걸음을 멈추고말았다. 사위는 어두운데 웬일인지 대동강이 내려다보이는 산중턱에만은 동트는 산마루처럼 환히 밝았기때문이였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앞을 바라보니 어리신 수령님께서 소나무밑에 앉아 책을 읽으시는데 서산으로 지던 해가 멈춰서서 유독 거기에만 밝은 빛을 뿌려주고있었던것이다.

그는 점도록 지게를 진채 그 자리에 서서 책을 읽으시는 수령님을 얼없이 바라보았다.

장쇠는 온 정신을 쏟아 책을 보시는 어리신 수령님께 방해가 될가보아 한참만에 푼두골쪽으로 에돌아갔다.

그가 솔잎을 해지고 다시 올라왔던 그 길로 내려오는데 마침 그때까지 책을 읽던 어리신 수령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종종걸음으로 산당집을 향해 달음박질치시였다.

그제서야 해님이 빛을 거두고 서산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해를 멈춘 위인》이라는 전설이 만경대에 전해졌다.

그후 이런 전설은 왕청과 요영구 그리고 백석탄밀영과 백두산밀영에서도 창조되여 전해졌다.

그뿐이 아니다. 해방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시면 내리

던 비가 멎고 해빛이 쏟아지군하여 《그이께서 해빛을 안고오셨다》는 전설이 우리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에서나 전해졌다.

빛은 곧 태양을 의미하는것이니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시는곳마다에 해빛이 넘치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옛날 중국의 진시황이 신하들과 궁녀들을 거느리고 태산에 올라가 질탕스럽게 놀다가 해가 지자 《내가 즐겁게 노는데 감히 해가 지다니?》하고 소리치자 그 세력에 눌리워 슬그머니 해가 다시 솟아올랐다는 전설이 있다.

이것은 포악한 진시황의 《위세》를 보여주는 전설이다.

허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평생을 고스란히 다 바치셨으니 그이의 인품에 하늘도 감응하여 태양이 자기의 운동법칙을 변화시킨것이다.

그러고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1994년 7월 태양계에 속하는 《슈메이커—레비9호》라는 천체가 자리길을 잃고 목성과 충돌하여 자기의 존재를 마치는 우주에서 일어난 기이한 천문현상은 참으로 의미심장한것이다.

21개의 혜성이 련이어 목성과 부딪쳐 눈부신 섬광과 거대한 불기둥속에서 모두가 종적없이 사라졌다.

어찌하여 천년력사에 한번 있을가말가한 혜성의 충돌현상이 인류의 슬픔이 극한에 이른 때에 생겨났을가. 이를 두고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 수령님은 분명 하늘이 낸분이십니다. 그래서 태양계도 너무 절통하여 몸부림친것입니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를 멈추셨다는 전설을 사실로 믿고있다.

백두산의 장군별

어느날 도꾜의 화려한 궁성의 정원길로는 일본천황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저녁산책을 하고있었다.

때는 춘삼월, 세상만물이 양춘가절을 즐기는 시절이라 벌과 나비, 한들거리는 꽃송이, 기묘한 나무… 그 어느것 하나 불붙는듯한 저녁노을의 여광에 이쁘지 않고 신비롭지 않은것이 없었다.

천황은 한껏 무르녹은 봄의 정취에 온몸을 푹 잠그고 눈을 스르르 내리감았다.

《폐하, 피곤하시나이까? 여기 앉으시오이다.》

천황은 내시의 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여전히 한자세로 점도록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서있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조선을 타고앉았으니… 이제 중국과 씨비리를 치고 장차 세계를 평정해야겠는데…》

침략의 무대에 등장한 일본군벌집단은 칼부림으로 온 아시아를 전쟁의 동란속에 몰아넣었다.

류꾸렬도를 삼키고 오끼나와를 병합한 다음 중국과의 불평등조약을 체결한데 이어 곧 대만을 떼낸놈들은 생억지로 꾸릴렬도를 강탈하였다.

그러고도 성차지 않아 싸할린의 남단을 끊어내고 조선을 강점하였다.

이제 또 만주를 강점하고 중국대륙과 함께 씨비리까지 집어삼키려는 천황은 세계제패의 꿈속에 묻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있었다.

이때였다.

별의 빛과 위치를 보고 나라의 길흉을 잘 알아맞힌다고 소문이 난 궁내부대신이 천황앞에 급히 나타나 엎드리였다.

《그대는 어떻게 왔는고?》

웬일인지 궁내부대신은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천황은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무슨 일인고?》

천황이 약간 높은 음성으로 재차 물어서야 궁내부대신은 《폐하! 지금 부사산에 난데없는 새별이 솟았습니다.》하고 말하고 다음말을 잇지 못했다.

《헌데 어쨌단말인가? 부사산에 새별이 솟았으면 그것은 응당 〈대일본제국〉의 앞길을 더욱 환히 밝혀줄것인즉 무엇이 나쁜고?》

《폐하, 그런게 아니옵니다. 그 새별은 얼핏 보기엔 부사산에 솟은것처럼 보이나 실은 조선의 백두산에 솟은것이옵니다. 그것은 창창한 우리의 앞길에 그늘이 드리우는 조짐이옵니다.》

《그런데?》

천황은 백두산에 별이 솟았는데 그게 무슨 대수냐는 뜻으로 되물었다.

《예로부터 조선사람들은 백두산을 하늘의 령을 받은 성산

으로, 조선의 생기가 일어번지는 근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의 지맥은 모두 백두산에 뿌리를 두고 조선의 산들은 모두 백두산을 우러러 솟아있습니다. 그뿐아니라 백두산천지에 물이 불어나면 한나산의 백록담에 물이 넘치고 백두산천지에 안개가 서리면 한나산의 백록담에 그늘이 덮이옵니다. 이렇듯 백두산은 조종의 산일뿐아니라 조선의 신성한 정기가 어린 성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성산에 보통별이 아니라 장군별이 떴은즉 그것은 조선을 구원할 성인이 내렸다는 뜻인데 이는 실로 우리 대일본제국의 앞길에 짙은 그늘을 던져주는것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천황은 고개를 들어 멀리 부사산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광휘로운 빛발을 뿌리는 령롱한 별 하나가 눈에 안겨왔다. 항간에서 장군별이라 부른다는 큰 별이다.

이때 별이 번쩍 강한 빛을 뿌렸다.

그러자 부사산쪽 하늘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끼더니 번개가 번쩍이고 우뢰가 꽈르릉 울었다.

그바람에 궁성의 기와장이 날아나고 유리창이 쟁가당 산산쪼각이 났다.

천황은 겁을 먹고 신하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경들은 어서 행장을 갖추고 저 부사산에 올라 신기한 별의 내막을 자세히 알아보라.》

궁성안에서는 륙군대신을 비롯하여 모두 천황의 어명을 받고 부사산으로 갈 준비를 갖추느라고 떠들썩하였다.

대신들은 불길한 징조에 겁을 먹고 부사산에 오르기를 꺼렸으나 천황의 어명이라 어쩔수 없었다.

부사산에 오르니 거기서 조선의 백두산이 우렷이 바라보

였다.

백두산과 부사산은 바다건너 산너머 수천리 아득히 먼곳에 있었으나 어인 일인지 앞산을 건너다보는것처럼 눈앞에 거대한 산의 웅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침해가 솟아오르는듯 찬란한 빛발이 온누리에 비쳐갔다.

대신들은 깜짝 놀라 정신을 못차리고 어리둥절해있다가 황황히 산을 내려 며칠만에 궁성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천황에게 모든 사실을 그대로 보고했다.

천황의 얼굴엔 긴장한 빛이 흘렀다.

《아무래도 백두산의 장군별은 심상치 않은즉 믿을만한자들을 조선에 보내여 자상히 알아보도록 하라.》

천황은 분부를 내리고 룡상에서 일어나 내전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한생 별을 관측해온 나이지긋한 천문학자가 선발되여 조선으로 떠나게 되였다.

그는 보통나그네차림을 하고 시모노세끼에서 현해탄을 건너 부산으로 왔다.

조선에 첫발을 들여놓은 천문학자는 장군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밤이면 하늘의 별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곳으로 가까이 다가가 귀가 항아리만해서 무슨 말들을 하는가 엿듣기도 하였다.

어느날 지리산밑에 이른 그는 한 마을에 들렸다. 여기서도 그는 역시 도적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끝걸음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엿들었다.

어느날 천문학자는 큰 느티나무아래에 멍석을 펴고 이야기판을 벌려놓은곳으로 슬그머니 다가갔다. 놈은 온몸이 귀가

되여 듣기 시작했다.

한 로인이 은빛수염을 쓰다듬으며 말을 하고있었다.

《국운을 건지려고 백두산우에 장군별 하나가 떴는데 그 별이 바로 **김일성**장군님별이라우. 백두산속에는 주위가 300리나 되는 큰 바위굴이 있는데 장군별의 빛으로 대낮처럼 환하다고 하지 않소. 그래서 그 굴속에서 장수들이 무기를 만들고 조련을 하고 말을 타고 달린다오.》

《뭐? **김일성**장군님별?》

천문학자는 저도모르게 이렇게 되뇌이였다.

웬일인지 그는 가슴이 섬찍했다.

이때였다. 갑자기 어디선가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머리를 들어보니 지리산우에 한떼의 새무리가 하늘높이 날아올라 아름다운 소리로 지저귀고있었다.

이게 웬일이냐? 이야기판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일어서서 그쪽을 바라보았다.

꾀꼴새와 종다리, 할미새와 티티새, 찌르레기 등 어디서 모여왔는지 크고작은 새들이 알락달락한 고운 날개깃을 흔들며 지리산의 푸른 하늘우를 날아예다간 숲속으로 내리꼰지고 내리꼰졌다가는 다시 하늘로 솟아올라 즐거이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지리산으로 올라갔다.

새들은 지리산에 무리져 곱게 핀 목련꽃우를 날으고있었다.

왜나라 천문학자도 몰래 마을사람들을 뒤따라 올라가 숲속에 몸을 숨기고 날아예는 새들을 넋없이 바라보았다.

심상치 않은 일이였다.

그날밤 하늘을 쳐다보니 북쪽하늘높이 백두산이 보이는 하늘에 유난히도 밝은 별이 떠서 반짝이고있었다.

《엉?》

천문학자는 너무도 놀라와 소리를 질렀다.

《에크, 이러다간 큰일나겠구나.》

그는 겁이 나서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여 일본으로 돌아가고말았다.

궁성안으로 허겁지겁 달려들어간 천문학자는 《폐하! 천황폐하! 정말 큰일났습니다!》하고 비명부터 내질렀다.

《어떻게 된 일이냐? 자세히 아뢰여라.》

천황앞에 엎드려 보고들은 사실을 그대로 다 아뢰고나서 천문학자는 이렇게 말끝을 맺었다.

《모두들 백두산에 장군별이 솟은것은 **김일성**장군이 백두산에 올라 조국해방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는것을 세상에 알리는것이라고 하옵니다.

이것은 곧 <대일본제국>앞에 큰 불행이 닥쳐옴을 의미하옵니다.》

《뭐, 뭣이?》

천황은 룡상에서 벌떡 일어나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놈, 괘씸한놈같으니라구. 승승장구하는 〈대일본제국〉앞에 불행이 닥쳤다니 그게 무슨 당치 않은 말인가? 그런 방정맞은 말을 감히 내앞에서 지껄이다니, 너 이놈!》

천황은 노발대발하였다.

《폐하! 아,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저 보고들은바를 사실대로 말씀드렸을뿐이옵니다.》

《저, 저놈의 목을 당장 베버려라. 뉘앞에서 말대답질인가?》

《폐하! 억울하옵니다. 정말 억울하옵니다.》

천문학자는 끌려가면서도 애청하였으나 끝내 효수를 당하

고야말았다.

천황은 그러지 않아도 장군별때문에 속이 께름하여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천문학자가 방정맞은 소리를 하자 그 분풀이를 했던것이다.

천황은 신하들을 둘러보았다.

《이번엔 누가 가겠는가?》

신하들은 목을 움츠러뜨리고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다.

이때 궁내부대신이 《폐하, 저 부사산의 어느 한 절간에 아는게 많고 재주가 능하기로 소문난 한 주지가 있는데 그를 보냄이 어떠하올지 망설이고있나이다.》 하고 말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 중을 조선으로 보내도록 해라.》

천황의 어명을 받고 궁내부대신은 부사산의 중을 조선으로 떠나보내였다.

왜나라중은 시주받으러 다니는 조선중의 차림을 하고 목탁을 두드리며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보면서 북쪽으로 올라갔다.

그러다 어느 마을어귀에서 그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에 귀가 번쩍 열렸다.

별 하나 빛나요 장군별이 빛나요
백두산마루에 장군별이 빛나요
피바다에 헤매는 우리네 마음속에
밝은 별 빛나요 장군별이 빛나요

이게 웬 노래냐? 그는 노래소리가 울리는곳을 찾아 슬금슬금 다가갔다.

그랬더니 여라문살이나 됐을가한 소년소녀 여럿이 모여앉

아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다가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하면서 별세기놀이도 하고 장군별에 대한 이야기도 홍이 나서 주고받고있었다.

《장군별이 떠서 조선을 독립시킨대.》

제일 큰 애가 먼저 이렇게 말하자 아이들은 저마다 승벽내기로 한마디씩 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웃으실 땐 백두산천지에 오색무지개가 서고 노하실 땐 백두산천지에서 쿵쿵 소리가 울린다고 하더라.》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나시고 하늘의 별을 이끄시는분이시기에 천지조화를 다 알고계신대. 장군님께서 왜놈들을 치실 때는 장군별을 하늘에 띄워놓으시고 적들을 몽땅 골짜기에 몰아넣고 잡기도 하시고 구름을 타고 적진에 들어가서 놈들끼리 싸워서 죽게도 하신다구 그러더라. 그리구 도망치는놈들은 길을 잃고 제 자리에서 헤매다가 돌로 굳어져 죽게도 만드신대.》

까까머리애가 눈이 올롱해서 마치 제가 보기라도 한듯 열심히 말했다.

왜나라중은 속이 켕기고 간이 콩알만해졌다.

혹시 술법에 능하다는 **김일성**장군이 자기의 정체를 알고 벌이라도 내리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아이들의 말을 귀동냥해듣던 중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뜨고말았다.

그러나 그는 점점 의문이 생겼다.

과연 누가 이런 노래를 지어 아이들이 부르게 하였을가? 과연 누가 아이들에게 장군별이야기를 들려주었을가?

놈은 의문을 가득 안은채 이 동네, 저 동네를 거쳐 계속 북으로 올라갔다.

그러다가 태백산밑에 이르게 되였다.

중놈은 마을사람들이 모여 떠들썩하는 오동나무밑으로 슬그머니 다가갔다.

거기서는 한 중년배가 마을사람들에게 흥이 나서 말을 하고있었다.

《글쎄, 참 신기하기두 하지. 지난해에 태백산의 천년묵은 고목에 꽃이 피여 떠든적이 있지 않소? 오늘 내 산에 올라갔다가 그 천년고목에 또 두번째로 꽃이 핀것을 보았수다. 그런데 저녁에 방금 서울에서 우리 동서가 왔는데 거기서는 갑자기 북악산이 향기를 내뿜어 사방 50리에 향기가 진동하였다지 않소. 그래서 모두 떠들고있다오.》

《모든것으로 미루어보아 나라에 이제 무슨 상서로운 일이 일어날게 분명하오. 백두산에 장군별이 뜨자 여기저기서 신기한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지 않소. 이것은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담아 삼천리 방방곡곡에 골고루 빛을 뿌려주는 그 장군별이 조선땅에 생기를 넣어주기때문일거요.》

마을의 좌상인듯한 풍채좋은 할아버지가 수염을 내리쓸며 신중한 어조로 중년배의 말을 이었다.

중놈은 이런 말을 들으면들을수록 겁이 났다.

한걸음도 마음놓고 걸을수 없었고 하루밤도 발편잠을 잘수가 없었다.

그는 그만에야 쫓기듯 일본으로 되돌아가고말았다.

《폐하! 백두산의 장군별은 반도에 생기를 불어넣었은즉 그 별빛이 일본의 부사산까지 비쳐온것은 멀지 않아 일본이 망한

다는 예고요, 태백산고목에 두번 다시 꽃이 핀것은 조선이 꼭 해방된다는것을 믿어의심치 말라는 뜻이라고 하옵니다.》

그놈은 조선에 가서 보고들은 사실을 그대로 다 아뢰고나서 이렇게 말끝을 맺었다.

《뭐라구?》

천황은 룡상에서 벌떡 일어나 꽥소리를 질렀다.

《네 이놈! 네가 아무리 중이기로서니 일본땅의 중일진대 일본이 망한다는 말을 그렇듯 서슴없이 하느냐? 불타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네놈이 자신이 지은 죄 모를리 없거늘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지은 죄를 씻으라!》

천황은 볼까지 푸들푸들 떨며 호령했다.

그 어느 누구도 믿을수가 없었다.

천황은 자기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근위장교를 직접 조선으로 보내라는 말을 남기고 내전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이번엔 장교가 조선으로 떠나게 되였다.

조선에 건너간 장교는 천문학자와 중이 들렸던 지리산과 태백산을 거쳐 백두산쪽으로 올라갔다.

백두산밑에서는 령롱한 빛을 뿌리는 장군별을 더 자세히 볼수 있었다.

장교는 장군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보면볼수록 신비롭기만한 별이였다.

한생 별을 보아왔으나 이런 신기한 별은 처음이였다. 그리고 가만히 귀기울이니 백두산 천리수해에 비껴가는 총칼 부딪치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장수들이 무예를 겨루는 소리였다.

그 소리와 함께 노래소리가 실려왔다.

멀리 마을에서 부르는 《장군별의 노래》였다.

별이 솟네 별이 솟네
장군별이 솟네
백두산에 높이 솟네
장군별이 솟네

장교는 그 노래소리를 따라 마을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저마다 신심에 넘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흥겨운 춤판이였다.

백두산밑 마을사람들은 말하기를 《천하술법을 다 쓰시여 동서남북을 날아다니시는 **김일성**장군님이 백두산에서 싸우고 계시니 왜놈들이 <무적황군>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멀지 않아 반드시 멸망한다.》고 하는것이였다.

왜나라의 장교는 조선에 더 있을 필요가 없었다. 모든것이 너무도 명백하였다.

도망치듯 황황히 자기 나라로 돌아간 장교는 천황앞에 엎드려 보고들은 사실을 그대로 다 아뢰고나서 이렇게 말끝을 맺었다.

《폐하! 백두산의 장군별은 우리 일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수 없는것으로 아옵니다.》

《뭐 뭣이? 네놈도 같은놈이로구나. 당장 저놈의 목을 베라.》

이렇게 소리친 천황은 쓰러지듯 그자리에 펄썩 주저앉고 말았다.

천황은 벌써 제 정신이 아니였다.

그날밤 멀리 서북쪽 하늘, 흰눈을 머리에 인 조선의 성산 백두산우에는 장군별이 높이 떠서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관 희 극

백두산에서 멀리 북쪽에 있는 청구자부근의 깊은 수림속에 자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었다.

이 마을에는 왜놈들한테 끌날같은 아들을 모두 잃은 리가 성을 가진 한 로인이 살고있었다.

홀로 사는 로인은 자기가 가꾸는 남새밭가운데 외따로 집을 한채 짓고 꺼져가는 인생을 쓸쓸하게 돌이켜보면서 울분을 안고 그날그날을 보내고있었다.

이 지방에는 사람이 죽기전에 미리 관을 장만하여두는 류다른 풍습이 있었는데 리로인 역시 미리 관을 하나 짜서 마당 한구석에 놓아두고있었다.

하늘이 더없이 높아진 청명한 초가을 어느날 리로인은 아침일찍부터 밭에 나가 허리를 꼬부리고 가을남새를 가꾸느라고 땀을 흘리고있었다.

해가 서켠으로 약간 기울어졌을무렵 갑자기 어디선가 콩볶듯하는 총소리가 들려왔다.

웬 총소리일가?

로인은 허리를 펴고 일어서서 귀를 강구었다.

총소리는 한곳에서만 들려오지 않고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저쪽에서 엇갈려 들려오는것이였다.

(무슨 큰 전쟁이 터진 모양이다. 그런데 누가 누구와 싸우는 전쟁일가?…

혹시 **김일성**장군님군사들이 나타났다더니 왜놈들을 족쳐대는게 아닐가?)

로인은 두루 궁금한 생각이 들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알아낼 무슨 수가 있는것도 아니여서 다시 오금을 꺾고앉아 김을 매나갔다.

자지러진 총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이때 저쪽 골짜기에서 누런 군복을 입은 일본군대 한놈이 죽을둥살둥 모르고 이쪽으로 달려오는것이 보였다.

그놈은 한창 땅내를 맡으며 싱싱하게 자라는 배추와 무우포기들을 짓뭉개며 로인이 있는쪽으로 달려왔다.

일본수비대 졸병이였다.

헤덤벼치는 꼴을 보니 장군님부대한테 단단히 혼쭐이 빠져 도망치는놈이 틀림없었다.

그놈은 로인앞으로 달려오더니 다짜고짜로 총부리를 내대고 《령감, 여기 어데 숨을데가 없는가?》하고 제법 큰소리를 쳤다.

로인은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이 태연하게 《예? 뭐라구요?》하고 말귀를 못알아들은듯 되물었다.

로인은 그놈이 다시한번 물은 뒤에야 《아니 숨을데말이유? 헌데 어디에 숨겠소?》하고 손을 들어 사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때 또 귀청을 째는듯한 총소리가 아츠럽게 들려왔다.

그놈은 로인에게 눈을 한번 더 부라리더니 밭가운데 있는 집으로 냅다 뛰여갔다.

이때였다.

갑자기 어디선가 윙—웅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릴가?

뛰여가던 놈은 발길을 멈추고 귀를 강구었다.

분명히 바람소리같은데 바람은 일지 않았다.

윙—웅 소리는 점점 더 세게 들려왔다.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여전히 나무잎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무엇에 홀리운듯 멍청하니 서있던놈은 갑자기 눈을 흡떴다.

이게 웬일이냐? 바람은 불지 않는데 짚검불과 가랑잎이 까맣게 하늘높이 휘말려오르는것이였다.

자세히 하늘을 올려다보니 휘말려올라가는 짚검불과 가랑잎속에 무엇인가 커다란 물체가 언듯언듯 눈에 띄였다.

얼마후 하늘높이 날아올랐던 그것들은 서서히 땅으로 내려오더니 왜놈졸병앞에 쿵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관이였다.

졸병놈은 눈이 휘둥그래서 관을 한참이나 내려다보더니 입가에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날 돕는것이로구나.》

놈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더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얼른 관뚜껑을 열고 그안에 들어가 엎디였다.

《후—》

놈은 안도의 숨이 나갔다.

(신출귀몰한 유격대의 수색을 피해 관속에 숨은것은 얼마나 큰 다행인가.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놈은 안도감에 싸여 관속에 대가리를 싸쥐고 엎디여있었다.

리로인은 하늘에서 관이 떨어진것이 너무도 이상해서 가까

이 가보았다.

뜻밖에도 그것은 리로인이 짜놓은 관이였다.

리로인은 머리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하긴 네놈이 들어갈곳이 거기밖에 없지.》

리로인은 졸병놈이 노는 꼴이 하도 기가 차서 혀를 끌끌 차다가 다시 돌아와 남새밭김을 매나갔다.

그런데 이번엔 또 반대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돌아다보니 또 한놈의 왜놈이 부상당한 다리를 질질 끌며 남새밭으로 벌벌 기여오고있었다.

그놈은 장교였다.

장교놈도 숨을 구멍을 찾아 헤매다가 여기로 오게 된 모양이였다.

그놈은 리로인을 보자 졸병놈과는 달리 처음부터 눈물을 찔찔 짜며 숨겨달라고 빌었다.

《령감, 나나 좀 숨겨달라. 내 돈주겠다. 제발, 제발 좀 숨겨달라.》

《나리님, 돈 아니라 황금을 준대도 어디 숨을데가 있소? 손바닥처럼 빤한데.》

리로인은 아닌보살을 하였다.

총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장교놈은 할수 없었던지 한쪽다리를 질질 끌며 남새밭가운데 있는 집쪽으로 기여갔다.

한참 기여가던 장교놈은 눈을 번쩍 떴다.

《저게 뭐야? 관?! 됐다.》

그놈은 다짜고짜로 관뚜껑을 열었다.

《앗!》

장교놈은 깜짝 놀라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았다.

관속에는 이미 송장 하나가 있는데 글쎄 송장이 눈을 번쩍 떴다가 감는것이 아닌가!

장교놈은 너무 놀라 숨을 헐떡거리다가 《송장》을 내려다 보았다.

수비대 졸병놈이였다.

장교놈은 자기를 놀래운 졸병놈을 향해 꽥 소리를 질렀다.

《넌 누구냐?》

그러자 졸병놈은 대가리를 싸쥐고 엎디면서 《악》하고 죽어가는 소리를 질렀다.

그놈은 무슨 수색대가 왔는가 하여 비명을 지르는것이다.

다음순간 졸병놈은 부들부들 떨면서도 조심스레 밖을 내다 보았다.

알고보니 수비대장교가 자기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것이였다. 졸병놈은 다 죽게 된판에 장교가 아니라 제 할애비라도 관속의 그 《명당》자리를 내주고싶지 않았다.

그놈은 관속에서 눈을 지르감고 《장교님은 왜 그럽니까? 이건 내 관입니다.》하고 웅얼거렸다.

《뭐이? 이건 내 관이란말이다. 당장 나오지 못하겠는가!》

장교놈은 덮어놓고 을러메기 시작했다.

그러나 졸병놈은 꿈쩍도 않고 꿩새끼처럼 대가리만 더 깊숙이 틀어박았다.

장교놈은 권총을 꺼내여 절커덕하고 총알을 재우며 위협을 하였다.

《당장 나오지 못하겠는가? 쏴죽이기전에 당장 나오라!》

그러자 졸병놈은 《이 관은 내것입니다. 하늘이 나에게 내려보내준 관입니다.》하고 대들었다.

《뭐, 하늘에서 내려보내준 관이라구? 당장 안나오면 쏜다!》

《그래도 못나가겠습니다. 장교님의 총알에 맞아죽기나 유격대의 총알에 맞아죽기나 죽기는 마찬가진데 어디로 나가란 말입니까?》

졸병놈은 그냥 뻗쳐댔다.

장교놈은 완력행사를 하는수밖에 없었다.

그놈은 졸병을 관속에서 강제로 잡아끌어내기 시작하였다.

졸병놈은 죽을 기를 쓰고 뻗대였다.

졸병놈과 장교놈사이에는 서로 관을 차지하기 위한 란투가 벌어졌다.

이때 가까이에서 총소리가 또 들려왔다.

금시 유격대가 뒤덜미를 잡는것 같아 놈들은 소름이 오싹 끼쳤다.

이젠 더 싸울 겨를도 없었다.

할수없이 놈들은 관속에 둘이 같이 들어가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래도 장교놈이 상관이라고 먼저 관속에 들어가고 그다음 졸병놈이 들어갔는데 그놈들은 서로 모로 누워 관을 절반씩 차지하였다.

그런데 관뚜껑을 닫는것이 문제였다.

관에서 다시 나오자니 비좁아서 움직이지 못해 일어설수가 없었다.

졸병놈이 관안에서 꽥 소리를 질렀다.

《령감, 령감. 빨리 관뚜껑을 닫아달라.》

놈들이 소리치는바람에 리로인이 달려가보니 관속에 들어간 두 왜놈의 몰골은 참으로 해괴망측하였다. 리로인은 어이가 없어 허구픈 웃음을 지었다.

《허허, 망하긴 망한놈의 왜놈들이야. 네놈들모두가 관속

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나보다. 그러니 내 관보다 네놈들의 관부터 먼저 마련해야겠다.》

놈들의 요구대로 로인은 관뚜껑을 꾹 닫아주었다.

그러자 두 왜놈은 관속에 들어간 주제에도 인사를 차리는지 《령감 좋은 사람이다. 아주 고맙다.》하고 주절거렸다.

《고맙긴 뭐가 고마와?》

로인은 방안에 들어가 망치와 못을 가져다가 관뚜껑에다 대고 못을 박기 시작했다.

관안에 갇힌 두 왜놈은 죽는다고 아우성을 쳤다.

그러거나말거나 리로인은 관안에 먼저 들어가겠다고 개싸움질을 하던 두 왜놈이 영원히 관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힘을 주어 쾅! 쾅! 못을 박았다.

리로인이 관을 타고앉아 마지막못을 박을 때였다.

갑자기 꽝! 하고 폭탄터지는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와 함께 리로인의 몸은 남새밭에 홱 뿌려던져졌다.

얼마후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리로인이 타고앉아 못을 박던 그 관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두 왜놈의 시체가 남새밭에 나딩굴고있었다.

리로인은 몸을 툭툭 털고 일어나 사방을 휘둘러보았다.

여전히 저쪽 골짜기에선 콩볶듯하는 총소리가 그치지 않고 들려왔다.

한동안 서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로인은 집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마당에 들어선 리로인은 또 한번 깜짝 놀랐다.

로인이 짜놓았던 관은 두 왜놈의 시체를 털어버리고 어느새 마당 한구석에 예전처럼 그대로 놓여있었던것이다.

경박호이야기

백두산에서 북쪽으로 약 500리가량 올라가면 하나의 망망한 호수가 있다.

맑고 푸른 물이 거울처럼 반짝거리는 이 호수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이끄신 항일혁명투쟁과 더불어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경박호이다.

어느때부터 경박호기슭에 사람들이 모여살기 시작했는지 딱히 알수 없으나 여기에 명줄을 걸고 대대로 살아오는 사람들속에서는 많은 전설들이 전해져내려오고있다.

그중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직진행하신 경박호전투후에 이 지방 인민들속에서 전해져내려오는 신비한 이야기는 오늘도 사람들속에서 널리 전해지고있다.

옛날 경박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고장에 한 왕국의 도읍이 있었다.

이 왕국은 나라가 선지 얼마 안되였지만 인차 세력이 확대되고 번성하기 시작하여 어느덧 강대한 국가로, 《해동성국》으로 크게 위엄을 떨치였다.

그것은 이 왕국의 궁중에 못부리는 조화가 없는 신기한 보경이 있기때문이라는 말이 전해져내려오고있었다.

금으로 만든 이 거울은 왕국의 둘도 없는 보배로서 이 보경을 가지고 강대한 국력을 다졌다는것이였다.

그런데 어느날 검푸른 경박호의 깊은 물속에 사는 대가리가 여덟이고 꼬리가 긴 마귀가 이 보경을 훔쳐갔다.

보경을 잃어버리자 왕국은 이내 쇠퇴몰락하고 대신 흉악한 마귀는 신기한 거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갖은 못된짓을 다 하였다.

쩍하면 파도를 일구어 배들이 경박호를 건느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물을 흐려놓아 고기를 잡을수 없게 하여 어부들의 생계를 위협하군하였다.

그리고 그 보경으로 세상에서 제일 고운 녀자를 찾아내여 잡아가군하였다.

호수가는 물론 멀리 돈화와 소성자, 대황구에까지 그 폐가 막심하였으며 더우기 딸가진 집들에서는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어제는 누구네 집 외동딸이 잡혀갔고 오늘은 또 갓 시집온 뒤집 며느리가 잡혀갔다는 소문이 그칠새 없었다.

날이 갈수록 마귀가 빚어내는 재난은 극심해졌다.

흉흉한 민심속에서도 세월은 흘러갔다.

어느해인가 호수의 북쪽 북호두의 어느 마을에 설씨성을 가진 선량한 젊은 내외의 집에 진달녀라는 딸이 태여났다.

일년 사시절 고기를 잡아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 부부네는 고생속에서도 의가 맞아 언제나 화목하고 다정하게 살았다.

그런데 이 집에 불행이 닥쳐왔다.

바로 그 마귀의 거울속에 어부의 안해가 비쳐진것이였다.

마귀는 안해를 내놓으라고 호령질을 하였다.

안해는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딸을 두고 차마 갈수가 없어 문밖에 나서지 못했다.

그러자 마귀는 거울을 가지고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다.

호수를 흐려놓고 산같은 파도가 일게 하여 호수가에 사는 어부들이 고기잡이에 아예 나가지 못하게 했다.

하루이틀도 아니요 두달, 석달이 지났으나 마귀는 더 기승을 부렸다.

경박호기슭에 사는 어부들과 그 가족들은 더는 살아갈수가 없게 되였다.

생각다못해 어느날 설씨의 안해는 남편에게 《여보, 이애를 부탁해요. 내가 저 마귀놈에게 가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겠는데 그냥 이러고만 있을수 없지 않아요. 진달녀를 잘 길러주세요. 그리고 저 못된 마귀놈에게서 그 보경을 빼앗아오세요. 그 거울속엔 언제나 제가 나타날거예요. 그러면 나도 한집안에서 사는것이나 다름없을거예요. 꼭 힘을 키워 저 마귀놈을 요정내고 그 거울을 빼앗아오길 바래요.》 하고 말하며 결연히 마귀놈을 찾아 호수가로 걸어나갔다.

마귀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번개같이 어부의 안해를 채가지고 사라졌다.

그와 함께 호수의 파도는 멎고 흐린 물도 맑아졌다.

호수엔 다시 고기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마음착한 어부의 안해를 잊지 않았다.

설씨는 진달녀를 데리고 고기잡이를 하면서 그 거울을 어떻게 하면 빼앗아올가 하고 늘 생각하였다.

하건만 도저히 마귀를 이겨낼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복수심과 두팔뚝에 뻗치는 힘만으로는 마귀를 당해낼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러는사이에 어느덧 세월은 흘러 진달녀의 나이 열여섯살이 되였다.

어부의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했고 진달녀는 방금 피여난 이슬머금은 꽃송이와도 같았다.

마을의 아들가진 집들에서는 저마다 진달녀를 탐내여 매파를 보내여왔다.

설씨는 그들중에서 힘도 제일 세고 날래며 마음어지고 일잘하고 대가 바른 총각을 사위로 맞으려고 생각하였다.

그런 사위를 맞는다면 안해의 소원대로 그 진귀한 거울도 마귀한테서 빼앗아올것만 같았다.

어느날 그의 집에 웬 총각이 찾아왔는데 그는 용모가 비범하고 구척키에 몸이 우람차고 목소리가 우뢰소리같은 장수였다.

어부는 그의 청혼을 순순히 받아들여 사위로 삼았다.

어부는 그 장수사위와 같이 호수가에 가서 마귀를 향해 소리쳤다.

《마귀야! 어서 나와 한번 겨뤄보자!》

그러자 룡대가리같이 징글스럽게 생긴 마귀의 여덟대가리가 물우에 솟구치며 《으하하하!》하고 웃어댔다.

장수와 어부는 배를 타고 거치른 파도를 헤가르며 호수 한

가운데로 마귀놈을 맞받아나갔다.

배를 몰아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 별안간 시커먼 구름이 몰려들더니 광풍이 일며 그들을 집어삼킬듯 파도쳤다.

마귀놈이 신기한 보경으로 조화를 부리는것이였다.

마귀는 그들이 탄 배를 꼬리로 세차게 치며 머리우를 날아올라 저 멀리 물속에 내리꼰지였다.

설씨는 노를 젓고 장수사위는 장검을 휘두르며 마귀와 결사전을 벌렸다.

사람과 휘두르는 칼은 한덩어리가 되여 어느것이 칼이고 어느것이 사람인지 분간할수 없었다.

긴장한 싸움은 사흘낮 사흘밤 계속되였는데 끝내 설씨네가 이겼다.

마귀의 여덟대가리가 파도에 실려 이리저리 떠다니고 흘린 피가 온 호수를 벌겋게 물들이였다.

얼마나 오랜 세월 마귀를 없앨 희망을 품고 살아왔던가!

그리하여 보경은 드디여 진달녀네것으로 되였다.

설씨는 보경을 들여다보았다.

그 보경속에 그리운 안해의 얼굴이 나타났다.

《여보!—》

설씨는 안해를 그러안을듯 두팔을 벌렸다.

안해는 상냥하게 웃으며 남편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뭍에서는 진달녀가 높은 벼랑우에 서서 마귀를 이기고 돌아오는 아버지와 장수를 향해 손을 높이 흔들었다.

《아버지!—》

《진달녀야!》

부르고 찾는 아버지와 딸의 목소리는 맑은 호수로 멀리멀리 울려갔다.

세상의 온갖 기쁨이 모두 그들의것인듯싶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너무나도 짧았다.

설씨가 갑자기 맥을 잃더니 손에 들었던 보경을 호수속에 뚤렁 떨구며 배전에 쓰러지는것이였다.

조금 있더니 장수사위도 그우에 함께 쓰러졌다.

마귀의 대가리를 자를 때 설씨와 장수의 몸에 묻은 그놈의 독이 온몸에 퍼진것이였다.

배를 향해 헤염쳐간 진달녀는 시체가 된 아버지와 장수를 그러안고 울고 또 울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다.

장수도 입을 꾹 다문채 아무 말이 없었다.

《아, 나는 누굴 믿고 살아가요?》

진달녀는 치마를 뒤집어쓰고 호수속에 풍덩 몸을 던져버렸다.

그후 북호두사람들은 설씨와 그의 안해 그리고 진달녀와 장수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이곳에 사당을 짓고 해마다 한가위(추석)때면 제사를 지내군하였다.

유구한 세월이 흘러 호수가에 사는 사람들의 대가 바뀌기를 수십번이 되였어도 그들은 이 사당에 찾아가서 제를 지내는것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활에 불행이 닥치거나 슬픔이 생기면 의례히 이 사당에 찾아가서 마음착한 설씨집안의 혼백을 불러 하소연도 하고 원을 담아 빌기도 하였다.

그러면 쓰리던 가슴은 좀 후련해지고 안타까운 마음도 위로가 되였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던 어느해 여기 북호두로 섬나라 왜놈들이 기여들었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모두 보금자리를 털리우고 한지에 나앉게 되였다.

왜놈들은 여기에다 수비대병영을 지었다.

사람들은 할수없이 정든 마을을 떠나 경박호를 건너 남호두로 자리를 옮겼다.

몇달을 고생하던끝에 그들은 겨우 집을 짓고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왜놈들이 또 여기 남호두에까지 따라와 마을사람들을 내쫓으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천하에 악독하기 그지없는놈들!》

마을사람들은 경박호의 마귀보다도 왜놈들이 더 악착한놈들이라고 저주하였다.

그러나 맨 주먹밖에 없는 그들은 왜놈들과 맞서싸울수 없었다.

날이 갈수록 왜놈들은 더 기승을 부렸다.

조선과 만주를 먹은 놈들은 장차 전중국과 씨비리를 먹고 온 세계를 다 제놈들의 손아귀에 넣는다고 큰소리를 탕탕 치며 돌아쳤다.

《누가 이 원한을 풀어줄고?》

왜놈들에 대한 원성은 하늘땅에 사무쳤다.

그러던 어느해 초겨울 아침저녁으로 맵짠 바람이 불어치던 날이였다.

왜놈수비대장은 수백명의 졸병들을 여러척의 발동선에 갈라태우고 남호두를 향해 경박호를 건너오고있었다.

왜놈들은 군가를 부르며 사기충천하여 갑판에 서서 소리도 치면서 기세를 돋구었다.

마을사람들은 발동선들이 물결을 헤가르며 달려오는 호수를 바라다보면서 걱정에 잠겼다.

어떻게 할것인가?

놈들은 또 집에 불을 지르고 마을사람들에게 갖은 행패를 다 부릴것이다.

《죽기밖에 더하겠나, 놈들과 목숨을 내대고 싸웁세.》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자 마을사람들은 손에 삽이며 곡괭이를 더 으스러지게 틀어쥐였다.

눈에서는 불이 펄펄 일었다.

죽기를 각오한것이였다.

그런데 이때였다.

꽝, 꽈르릉하고 하늘땅이 무너지는듯한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맑은 하늘에 난데없이 시커먼 구름이 몰려들었다. 그 구름은 곧장 호수우에 내려앉았다.

호수우엔 검은 구름이 덮이였다.

얼마만에 구름이 걷힌 다음 호수를 내려다보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방금까지 출렁거리던 호수물이 갑자기 번들거리는 얼음으로 뒤덮인것이였다.

기세좋게 달려오던 발동선들도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했다.

왜놈들은 야단법석하며 배에서 내려 호수가로 달려나오려고 덤벼쳤다.

그런데 왜놈들은 두발이 얼음판에 닿자마자 모두 얼어붙어 망두석처럼 뻣뻣이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마을사람들은 너무도 놀라와 눈이 휘둥그래졌다.

어떻게 된 일인가?

이때 호수가에 백포를 쓴 사람들이 나타났다.

자세히 보니 키는 구척장신이요, 몸도 우람한데 그들이 쓴 모자에서는 붉은별이 유표하게 빛나고있었다.

(어디서 나타난 사람들일가?)

모두 숨을 죽이고 호수가를 내려다보았다.

그 사람들은 유리처럼 얼어붙은 반짝거리는 경박호를 바라보았다.

그들중 한 사람이 허리춤에 찼던 목갑총을 뽑아들더니 《땅》하고 돌미륵처럼 서있는 왜놈들을 향해 한방 쏘았다.

그러자 그 총 한방에 수백명의 왜놈들이 썩은 나무 넘어지듯 쓰러졌다.

《야!—》

마을사람들은 통쾌해서 환성을 질렀다.

그 사람은 이번엔 호수가에 서있는 참나무앞으로 다가가 나무가지 하나를 꺾더니 그것을 잘게 여러 토막을 내여 얼음판우에 홱 뿌려던졌다.

그러자 이번엔 난데없이 여러대의 말파리가 얼음판우에 나타났다.

멍에를 멘 말들은 푸르르푸르르 기운차게 투레질을 하며 발을 텅텅 굴렀다.

사람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말파리에 갈라타고 말을 몰아 얼음덮인 경박호우를 달려갔다.

사람들은 힝! 힝! 코김을 내불며 쏜살같이 달리는 말파리들의 행렬을 얼없이 바라보았다.

말파리들이 저 멀리로 가물가물 사라져갈무렵 그 누군가가 《백두산장수다!》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모두 일시에 《백두산장수다!》하고 따라 웨쳤다.

《백두산장수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우리를 구원해주겠나?》

마을사람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였다.

이때 한 로인이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옳거니! 백두산장수님이 우리들의 원한을 풀어주셨네. 경박호의 보경이 어디에 갔는가 했더니 백두산장수님이 가지고계시는게 틀림없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조화를 부리겠나.》

《보경에 비기겠나? 그보다 더한 보물을 가지고계시는지 어떻게 알겠나?》

마을사람들은 자기들의 원한을 풀어준 백두산장수님이 한없이 고마와 말파리들이 사라진쪽을 향해 깊숙이 절을 하였다.

그후 경박호사람들은 백두산장수님이 신출귀몰하는 전법으로 왜놈들을 족쳤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그이께서 보경보다 더 큰 신통력이 있는 보물을 가지고계시기때문에 그 힘으로 왜놈을 요정내신다고 통쾌하게 말하군하였다.

미 친 병 졸

액목현 삼도구에는 높다란 담장으로 둘러싸인 일본수비대 병영이 자리잡고있었다.

김일성장군님 항일유격대의 진출에 겁을 먹은 왜놈들은 《토벌》을 한답시고 여기에다 수비대를 주둔시킨것이였다.

그런데 여기에 온 수비대놈들은 처음엔 목을 빼들고 우쭐렁거리며 돌아치더니 얼마후엔 모두 겁쟁이가 되여버려 바깥출입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그것은 어느날 깊은 야밤에 갑자기 백두산쪽 하늘에 솟았던 별하나가 곧추 수비대병영마당에 날아떨어진 일이 있은 다음부터였다. 별이 땅에 떨어지자 오색찬란한 구름이 뭉실 피여오르고 거기서 허연 수염을 무릎까지 내리드리운 풍채좋은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보초를 서던놈은 겁이 나서 말뚝처럼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있었다.

풍채좋은 할아버지는 불이 펄펄 이는 눈으로 병영을 휘둘러보더니 가까이 있는 병실안을 기웃이 들여다보았다.

수비대놈들은 범이 물어가도 모를 지경으로 잠에 곯아떨어져있었다.

《가련한놈들.》

할아버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무슨 생각에 잠겨 달빛밝은 마당안을 천천히 거닐었다.

잠시후에 휘— 하는 바람소리와 함께 오색구름에 휩싸여

할아버지는 다시 하늘로 날아올라갔다.

구름이 사라지자 별이 다시 반짝거렸다.

잠시후 병실을 들여다보던 보초놈은 기절초풍하여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말았다.

할아버지가 한번 들여다봤을뿐인 그 병실안의 왜놈들이 모두 죽어자빠진것이였다.

병원에 실려가서야 정신을 차린 보초놈의 말을 듣고 수비대놈들은 모두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다.

그런놈들중에 가나가와라고 부르는 졸병이 있었다.

이놈은 백두산의 별에 대한 말을 들은 다음부터 늘 기를 펴지 못하고 간이 콩알만해있었다.

어느날 이놈은 《토벌》에 나갔다가 보초를 서게 되였다.

갑자기 풀숲에서 부스럭소리가 났다.

가뜩이나 겁주머니를 차고다니는놈인지라 무서워서 눈을 지르감고 어림짐작으로 총을 쏘아댔다.

우연히 그 총알은 송아지만한 메돼지의 멱통을 맞혔다.

그러자 이놈은 기고만장하여 마치 제가 용감무쌍하여 메돼지를 잡은듯이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 덕인지는 모르나 그후 오장놈은 겁쟁이에게 기관총을 맡기였다.

가나가와는 일약 기관총수가 되였다.

그후 며칠이 지난 어느날 새벽녘이였다.

항일유격대《토벌》에 나갔다가 장군님의 신출귀몰한 전법에 걸려들어 지옥의 문턱에까지 들어섰던 가나가와는 겨우 목숨을 건지고 돌아와 밤새 무서운 악몽에서 헤매였다.

엎치락뒤치락하며 가위눌린 소리를 지르던 가나가와는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앉았다.

온몸에 식은땀이 쫙 흘렀다.

놈은 겁먹은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밝은 달빛이 교교히 흐르고있었다.

이때 멀리서 류성이 밤하늘을 쭉 가르며 땅으로 떨어졌다.

《엉?》

가나가와는 흠칫 놀라 목을 빼들었다.

그 별은 수비대병영 마당안에 떨어졌다.

《**김일성**장군이다!》

놈은 다급한 소리를 질렀다.

그 바람에 잠자던 왜놈들이 모두 깨여나서 갈팡질팡하였다.

가나가와의 눈앞에는 이리뛰고 저리뛰는 무리들이 틀림없는 유격대로만 보였다.

얼이 나간 가나가와는 《유격대다! 공산군이다!》하고 재차 소리치면서 얼른 기관총을 잡아당겨 급해맞아 돌아치는 놈들을 향해 마구 사격을 해댔다.

한참 쏘다가 총알이 떨어진 다음에야 제정신이 든 기관총수놈은 제편놈들이 모조리 죽어너부러져있는것을 보고 아연실색하였다.

그놈은 너무도 기가 차서 뒤로 벌렁 나자빠지고말았다.

나무토막처럼 넘어진 가나가와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한편 가나가와가 《유격대다!》하고 웨치는 소리에 질겁한 졸병 한놈이 또 정신이 돌았다.

그놈은 옷을 홀딱 벗은채 병영밖으로 뛰쳐나가 온 거리를 뛰여다니면서 《유격대다! 유격대!》, 《공산군이다! 공산군!》하고 소란을 피웠다.

그놈이 날이 밝은뒤에도 고함을 지르며 계속 거리를 뛰여다니는통에 지나가던 사람들을 수태 웃겼다고 한다.

다시 솟은 칠성별

울울창창한 백두산의 깊은 수림속에는 예로부터 여러가지 짐승들이 많이 살고있다.

그래서 우리 나라 방방곡곡에서 많은 사냥군들이 여기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산중에 막을 짓고 계절에 따라 리명수나 혜산을 오르내리면서 사냥을 했는데 이들이 바로 백두산포수들이다.

그들중에는 곽포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남달리 힘이 세고 총을 잘 쏘았기때문에 사냥에서 허탕을 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어느날 그는 동료들과 함께 커다란 메돼지를 한마리 잡아 둘러메고 포수막으로 돌아오고있었다.

날이 저물어 밀림속엔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캄캄한 밀림은 어디가 어딘지 통 방향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나무우듬지사이로 올려다보이는 밤하늘에서 칠성별을 찾아 방향을 가늠해나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하늘에서 유난히도 밝은 빛을 뿌리던 칠성별 하나가 땅으로 떨어지는것이였다.

조금 있더니 그 뒤를 따라 또 다른 별들이 련이어 떨어졌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일곱개의 칠성별이 모두다 땅에 떨어졌다.

곽포수와 동료포수들은 어깨에 멘 메돼지를 내려놓고 너무도 이상하여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여보게 곽포수, 저게 웬일인가?》

《글쎄말이네. 칠성별이 떨어지다니?》

포수들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였다.

칠성별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방향을 잡는단말인가?

그들은 밤이 깊었지만 또다시 메돼지를 둘러메고 밀림속을 헤치며 걷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밤하늘에 칠성별이 사라졌으니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잡을수가 없었다.

아무리 밀림속을 헤매도 도저히 자기들의 막을 찾을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때 저쪽 산너머에서 난데없이 찬란한 빛발이 솟구쳐올랐다.

포수들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리로 달려갔다.

그들은 조심조심 발자국소리를 죽여가며 산봉우리로 올라갔다.

그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산봉우리너머 바위뒤에 온몸에서 빛발을 내뿜는 일곱명의 장수가 나타나 세발도 넘는 긴 장검을 바위돌에다 썩 썩 갈며 노래를 부르고있었던것이다.

에헹— 에헹 에헤여
칼을 가세 칼을 가세
한번 갈면 룡천검 되고
두번 갈면 설악검 되리
에헹— 에헹 칼을 가세

그들이 노래를 먹이고 받으며 얼마나 흥겹게 칼을 가는지 바라보는 포수들까지 즐거워져서 저절로 어깨가 들썩거렸다.

썩! — 썩!—

한 장수가 너럭바위에다 칼을 갈고 춤을 추듯 빙그르르 돌면 다른 장수들도 모두 따라서 꼭같은 방법으로 칼을 갈고 갈다가는 하늘높이 쳐들고 이리저리 별빛에 비쳐보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또 갈고.

한동안 갈더니 일곱장수는 물이 쏟아져내리는 폭포수에다 칼을 깨끗이 씻는것이였다.

그러자 그 칼에서는 휘황한 빛발이 뿜어져나왔다.

한 장수가 칼을 머리우로 쳐들고 휘둘러댔다. 그러자 칼의 길이가 점점 늘어나 건너편 산의 아름드리나무들까지 썩뚝썩뚝 자르는것이였다.

와지직 아름드리나무들이 삼대쓰러지듯 하였다.

《아!》

포수들은 저도모르게 소리를 내질렀다.

그 소리에 장수들은 일시에 포수들이 있는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그대들은 누군데 어둠속에 몸을 숨기고 남의 거동을 엿보는거요?》

장수들의 몸에서 뿜어나오는 빛발은 포수들을 환하게 비쳤다.

포수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여 얼굴이 벌개진 채 머뭇거리고있었다.

이때 곽포수가 장수들앞에 다가가 두손을 마주쥐고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나서 자기들이 여기에 오게 된 사연을 자세히 말했다.

《저희들은 백두산포수들입니다. 오늘 메돼지를 잡아가지고 돌아오던중 하늘의 칠성별이 갑자기 사라져서 향방을 잃게 되였습니다.

그래 여기저기 헤매다가 놀랍게도 신기한 빛발을 발견하고 찾아와 지금 이러고있던참입니다.》

《방향을 잡지 못한다구요?》

한 장수가 펄쩍 놀라며 이렇게 되묻더니 다른 장수들을 둘러보았다.

그들도 모두 놀란 표정들이였다.

《예, 그렇습니다. 땅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의 칠성별을 보고 방향을 가늠하고 길을 찾는답니다.》

그러자 장수들은 모여서서 머리를 맞대고 무엇인가 한동안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그러더니 장수들은 갑자기 포수들앞으로 다가가 일시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것이였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러지들 마십시오. 우리같이 천한 포수들에게 장수님들이 절을 하시다니 어디 될 말씀입니까?》

포수들은 황급히 장수들을 일으켜세웠다.

그러자 한 장수가 입을 열었다.

《우리들은 모두 하늘의 칠성별장수들인데 장군별의 어명

을 받고 백두산에 내리고오르면서 힘을 키우고있는중입니다. 백두산의 바위에 칼을 갈아 보검의 날을 세워 언제나 정의로운 일을 할수 있게 준비를 갖추었다가 천하를 굽어보는 장군별이 명령을 내리시면 당장이라도 달려가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데 우리들의 생각이 미처 닿지 못해 이 세상 사람들이 밤길을 걷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였은즉 큰 실책을 범했습니다. 다음날부터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것이니 널리 량해해주십시오.》

장수가 진심으로 자기를 뉘우치며 하는 말에 포수들은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곽포수는 장수들에게 자기들이 모르고 한 말이니 제발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장수들은 어느새 칼을 허리에 차고 밤하늘로 훨훨 날아올라갔다.

하나, 둘, 셋…

이윽고 밤하늘에선 또다시 일곱개의 칠성별이 빛을 뿌렸다.

그 별들은 전보다 더 밝은 빛을 뿌렸다.

포수들은 그 빛발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메돼지를 둘러메고 막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부터 칠성별은 초저녁엔 땅에 내려오지 않고 밝은 빛을 뿌리며 사람들에게 길을 가리켜주었다.

그러다가 다 깊이 잠든 새벽녘이면 잠간 사라지군하였는데 그때엔 백두산에 내려와 칼을 갈고 힘을 키우는것이였다.

그후 백두산포수들은 밤길을 걸을 때면 그 별들을 바라보며 방향을 가늠하여 길을 잃는 일이 다시는 없었다고 한다.

바 위 굴

백두산기슭 어느 자그마한 마을에 덕보라는 사람이 식구들과 함께 살고있었다. 화전에 명줄을 걸고 사는 그는 덫을 놓아 짐승사냥을 하여 고기맛을 보고 가죽을 벗겨서 털옷을 만들어입기도 하였다.

어느해 가을 단풍이 들무렵 그는 산에 놓은 짐승덫을 돌아보려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잠간 짐승덫을 돌아보고오겠다던 사람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되여도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들은 물론 온 마을이 걱정에 잠겼다.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갔다. 그래도 덕보는 돌아오지 않았다.

모두 그가 잘못된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였다.

어느덧 석달이 지나갔다.

덕보의 안해는 어린 자식들과 함께 제사상을 차리고 제를 지내려고 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날 꽉 죽은줄로만 알았던 덕보가 피나리보짐을 어깨에 걸치고 집에 나타났다.

《아니 이게 꿈이요, 생시요? 여보!―》

안해는 너무도 기뻐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들도 동네사람들도 그를 빙 둘러싸고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모두 의아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러나 덕보는 노상 싱글벙글 웃기만 하였다.

이윽고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려는듯 덕보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짐승덫을 돌아보기 위해 집을 나선 덕보는 분비, 가문비가 우거진 숲속으로 들어갔다.

얼마를 가던 그는 큰 너럭바위에 이르자 거기에 앉아 담배를 한대 말아피웠다.

이때였다. 어디선가 사람들의 말소리와도 같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덕보는 바싹 귀를 강구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가 잘못 들은게로군.)

하고 일어서려는데 이번엔 좀 더 큰소리로 들려왔다.

어찌 들으면 함성같기도 했고 어찌 들으면 천군만마의 발구름소리같기도 하고 또 어찌 들으면 쇠붙이들이 서로 맞부딪치는 소리같기도 했다.

한참 방향을 가늠하며 주위를 살펴보던 덕보는 자기가 앉아있는 너럭바위뒤의 절벽에 눈길이 갔다.

자세히 보니 그 바위는 커다란 성문처럼 보였다.

이상한 소리는 바로 그 성문처럼 생긴 바위쪽에서 들려오고있었다.

덕보는 호기심이 버쩍 동해 절벽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성문처럼 생긴 바위틈사리에 귀를 가져다댔다.

분명히 이상한 소리는 바위안에서 들려왔다.

다시 보니 바위언저리엔 금빛서기가 어려있었다.

(보통바위가 아니구나!)

덕보는 바위문이 열릴듯싶어 어깨로 지그시 밀어보았다.

바위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안깐힘을 쓰며 또 힘껏 밀어보았다.

그러자 이번엔 알릴듯말듯 약간 움직이는감이 들었다.

(문이 분명하구나. 내 기어이 이 바위문을 열어보리라!)

덕보는 나무 두대를 찍어 마주 매고 거기에 칡넝쿨로 굵은 나무를 매달았다.

그리고 그 통나무를 그네뛰듯 앞뒤로 흔들다가 바위문을 쿵—하고 힘껏 내질렀다.

쿵! 쿵! 쿵!

바위문을 치는 소리가 멀리까지 산울림쳐갔다.

얼마만에 바위문은 사람이 겨우 나들수 있을정도로 열리고야말았다.

덕보는 바위굴안에 들어갔다.

캄캄한 굴안은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분간할수 없었다.

굴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밖에서 들리던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다.

덕보는 바위굴안으로 그냥 깊이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바위굴안에서 윙윙 광풍이 휘몰아치고 번개불이 번쩍거리더니 굴이 무너지는지 쫘르릉! 하는 소리가 났다.

덕보는 알지 못할 천길나락속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는 의식을 잃고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어렴풋이 어디선가 썩! 썩! 칼가는 소리에 깜짝 놀라 덕보는 눈을 번쩍 떴다.

이게 웬일인가?

분명히 캄캄한 바위굴안에서 천길나락속으로 굴러떨어졌는데 폭신한 금잔디우에 가랑잎을 덮고누워있으니 덕보는 꿈인지 생시인지 도저히 알수가 없었다.

금잔디와 가랑잎은 새의 깃보다 더 부드러웠고 머리맡에 핀 아름다운 꽃들은 진한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덕보가 누워있는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언덕아래에 한 젊은이가 앉아있었다.

그 젊은이는 긴 칼을 한무지 쌓아놓고 돌에다 열심히 갈고있었다.

썩! 썩! 젊은 사람이 칼을 돌우에서 앞뒤로 밀고당길 때마다 시퍼런 불찌가 튕기군하였다.

덕보는 가랑잎을 헤치고 반쯤 일어나앉았다.

칼을 갈던 젊은이가 반색을 하며 그에게로 달려왔다.

《한잠 푹 잤습니까?》

《예.》

덕보는 얼나간 사람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대답했다.

《여기가 대체 어디요?》

덕보는 주위를 두릿두릿 살펴보다가 이렇게 물었다.

젊은이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대답했다.

《여기말입니까. 여긴 백두산밑 바위굴안이랍니다.》

《예? 바위굴이요?》

덕보는 또 깜짝 놀랐다.

한번도 보지 못한 산천이요, 바위굴안이 분명할진대 어떻

게 땅속안에 바깥세상처럼 저렇게 산도 있고 강도 있도 또 대낮처럼 밝을수 있단말인가!

덕보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젊은 사람이 머리우에 드리운 나무가지에서 빨간 열매 한알을 따주면서 어서 먹으라고 하는것이였다.

덕보는 무작정 그가 하라는대로 빨간 열매를 받아먹었다.

그랬더니 지긋지긋하던 아픔이 가신듯이 사라지고 팔과 다리에 힘이 뻗치였다.

덕보는 젊은이를 도와 자기도 칼을 갈려고 하였다.

그래 긴 칼을 하나 골라들려는데 어찌나 무거운지 도저히 들수가 없었다.

아무리 힘을 써도 겨우 움직거리기나 할뿐 들어올릴수는 없었다.

젊은이는 그 무거운 칼을 나무칼처럼 가볍게 들어 돌에다 대고 썩썩 갈고있었다.

《이 돌은 백두산의 돌이랍니다. 이 돌에다 칼을 갈면 부러지지 않고 무디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칼은 제 혼자서도 윙윙 울며 원쑤놈들의 목을 벤답니다.》

젊은이는 이렇게 말하며 힘들지 않게 칼을 갈았다.

칼을 다 간다음 젊은이는 옆에 있는 아름드리나무토막을 내리쳐보군하였다.

그러면 그 나무토막은 두부모처럼 썩뚝 잘리워나갔다.

《아!》

덕보는 저도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정말 대단한 장수입니다.》

덕보는 젊은이의 손을 잡고 놓을줄 몰랐다.

《대단한 장수라구요? 제힘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난 어린애나 한가지랍니다.》

젊은이가 가리키는곳을 보니 갑옷을 입은 수많은 군사들이 날개돋힌 흰 룡마를 탄 장수의 뒤를 따라 기치창검을 날리며 달려가는것이였다.

그들은 강가로 달려가더니 그 자리에 뚝 멈춰섰다.

잠시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흰 룡마를 탄 장수가 강가에 서있는 떡갈나무를 마구 흔들어대자 나무잎들이 후두둑 강물우에 떨어졌다.

그 나무잎은 배처럼 동동 떠서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러자 수많은 젊은 장수들이 그 나무잎을 하나씩 잡아타고 강을 건느는것이였다.

강을 건느는 사이 나무잎들은 모두 큰 배로 변했다.

《히야!》

덕보는 놀라다못해 또 소리를 쳤다.

강을 다 건는 군사들은 룡마탄 장수가 한손을 들었다내리자 일시에 가뭇없이 사라졌다.

또 한번 손을 들었다놓으니 빽빽이 들어선 나무들이 어느새 군사로 변하여 칼을 휘둘러대는것이였다.

《저 룡마탄 장수가 누구십니까?》

덕보는 하도 신기한 술법을 쓰는 그 장수가 누구인지 알고싶었다.

《저분은 백두산의 대장수 **김일성**장군님이십니다.》

《예? **김일성**장군님이시라구요?!》

덕보는 못박힌듯 서서 멀리 흰 룡마를 타고 구름속으로 사라져가는 백두산대장수 **김일성**장군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에 불쑥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고싶은 생각이 가득 차올랐다.

자기의 억울한 사정도 말씀드리고 소원도 아뢰고싶었던것이다.

《**김일성**장군님을 좀 만나뵈올수 없을가요?》

덕보는 젊은이에게 자기 생각을 비쳤다.

《왜 그럽니까?》

《제 소원을 좀 말씀드리고싶어 그럽니다.

저는 원체 황해도 나무리벌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왜놈들이 땅을 조사한다고 하더니 글쎄 하루아침에 얼마 안되는 우리 집 땅을 몽땅 빼앗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원한을 품고 고향을 떠나 지금은 백두산골짜기에서 화전을 일구어 근근히 살아가고있습니다. 언제면 이 원한을 풀수 있을가요?》

젊은이의 얼굴에선 여전히 웃음이 가실줄 몰랐다.

그는 덕보에게 확신에 넘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이 굴속에서 힘을 키우는 장수들이 축지법을 다 배우면 바위문을 열고 달려나가 왜놈들을 몽땅 때려부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가 독립되고 모두가 잘 살게 됩니다.》

젊은이의 말을 듣는 덕보는 온몸에 새 힘이 용솟음침을 느꼈다.

장군님을 만나뵙고싶은 생각은 더욱 간절해졌다.

젊은이는 덕보의 심정을 다 알고있는지 품속에서 책 한권을 꺼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을 읽고 깊이 새기십시오. 그러면 장군님을 꼭 만나뵈옵게 될것입니다.》

《예?》

덕보는 빛을 뿌리는 신기한 그 책을 받아들었다.

《이 책은 장군님께서 친히 쓰신 책이랍니다.》

놀라는 덕보에게 젊은이는 차근차근 말해주었다.

《그 책에는 모든것이 다 밝혀져있습니다. 그것만 읽으면

세상에 모르는것이 없고 언제나 앞을 환히 내다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일성**장군님도 만나뵙게 됩니다.》

덕보는 그 신기한 책을 가슴에 꽉 품었다.

그 책을 다 외우고 **김일성**장군님을 꼭 만나뵈오리라는 결심을 굳게 다지였다.

젊은이는 덕보를 굴밖으로 안내하여주면서 바깥세상으로 나가면 사람들에게 그 책을 읽어주어 힘을 잃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가도록 하라고 신신당부하였다.

그는 모든것이 신기하여 얼떨떨해진 덕보를 말에 태우고 한참 달리였다.

그러더니 어느 한 산말랭이에서 그를 내려놓고는 열을 세도록 눈을 감고있으라고 하였다.

그의 말대로 덕보가 눈을 감고 열을 세고 다시 눈을 떠보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였다.

덕보는 어느새 자기 마을앞 동구길에 와있는것이 아닌가.

덕보는 자기눈을 의심했다.

집을 떠날 때는 감자를 캐던 가을이였는데 벌써 눈이 한길이나 쌓였다.

그는 바위굴안에서 석달이나 있었던것이다.

밤이 없이 언제나 낮만 있는 굴속세상이여서 날이 가는줄도 몰랐던것이다.

덕보는 이렇게 집에 다시 돌아온것이였다.

죽은줄 알았던 덕보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린근마을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다.

덕보는 그들에게 신기한 책을 내보이며 자기가 보고온 희한한 바위굴안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다시 들려주군하였다.

이상한 별찌

백두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마을에 아들을 유격대에 보낸 할머니가 있었다.

며느리, 손녀와 함께 살고있는 할머니는 늘 아들을 보고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던 어느 이른 봄날 깊은 밤이였다.

이날도 할머니는 아들생각으로 잠이 오지 않아 퇴창밖을 통해 별이 총총한 하늘을 내다보고있었다.

언제나 보고싶은 아들이였지만 이해따라 더욱 간절해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집집마다 량식이 떨어져 쌀독에는 거미줄이 쓴지 오래고 봄이 와도 당장 땅에 묻을 씨앗 한알 없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것인가?)

걱정을 안고 뒤척거리는데 백두산쪽 하늘에서 별찌 하나가 긴꼬리를 달고 미끄러지듯 땅으로 떨어지고있었다.

할머니는 밤하늘에 환한 빛을 뿌리며 떨어지는 그 별찌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런데 그 별찌는 바로 할머니네 집마당에 떨어졌다.

할머니는 밖으로 달려나갔다.

땅에 떨어진 별찌는 주먹만하였다.

별찌는 땅에 떨어졌어도 그대로 황황 불타올라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혀주고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별빛은 할머니의 온몸을 포근하게 감쌌다.

그러자 할머니는 시름이 가셔지고 마음이 한결 개운해졌다.

할머니는 너무도 신기하여 그 별찌를 품에 꼭 그러안았다.

별찌는 새의 깃털처럼 부드럽고 포근하고 따뜻하였다.

할머니는 이상한 그 별찌를 안고 방안으로 들어왔다.

방안은 대낮처럼 환해졌다.

이때 다시 창밖에서 번개같은 밝은 광채가 번쩍거렸다.

밖을 내다보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있었다.

백두산쪽 먼 하늘가에서 이번엔 난데없이 세 장수가 날개돋힌 룡마를 타고 눈이 부시게 밝은 빛을 뿌리며 날아오고있었던것이다.

할머니는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번에도 룡마를 탄 장수들은 곧바로 할머니네 집마당에 와 내리였다.

장수들은 룡마를 마당가 박달나무에 매놓고 할머니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고앉더니 투구를 벗어들고 절을 하였다.

《아니, 이러지들 마시우.》

할머니는 당황하여 그중 한 장수를 안아일으켰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장수는 할머니가 자나깨나 그토록 보고싶어하고 그리워하던 아들이였다.

《네가 이게 웬일이냐? 꿈이냐 생시냐?》

할머니는 진심으로 꿈이 아니기를 바랬다.

꿈이라면 영영 깨여나지 말았으면 하였다.

이때 아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어머니! 우리 대장님을 모시고왔으니 어서 안방을 내고 거둬주세요.》

그제야 할머니는 다른 장수들을 둘러보았다.

풍채가 름름한 붉은 갑옷을 입은 젊은 대장님이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말씀하시였다.

《어머님!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저희들은 아드님과 함께 나라를 찾으려고 백두산에서 싸우다가 지나가는 길에 어머님을 뵙자고 이렇게 들렸습니다.》

우렁우렁한 그분의 음성을 듣자 대번에 캄캄하던 밤하늘이 밝아지는것 같았다.

할머니는 대장님을 자세히 뵙고싶어 쳐다보고 또 쳐다보았다.

그런데 웬일인지 안개가 뽀얗게 서려 도저히 대장님을 자세히 뵐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안방을 잘 거두고 대장님을 그리로 모시였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진지상을 차렸다.

할머니는 진지상을 들고 세 장수가 들어있는 안방으로 갔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가?

세 장수가 모두 온데간데없이 사라진것이 아닌가!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니 마당가에 매놓았던 세필의 룡마도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보았다.

그런데 대장님이 앉았던 그 자리에 난데없는 큰 봉투 하나가 놓여있었다.

할머니는 얼른 봉투를 뜯어보았다.

봉투안에는 돈과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이런 글이 씌여있었다.

《어머님!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떠나는 저희들을 용서하십시오. 여기에 두고가는 적은 돈은 살림에 보태쓰십시오. 그리고 곰고개마루에 가면 종곡 세가마니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마을에서 나누어 씨를 뿌리십시오.》

그밑에는 활달한 필체로 놀랍게도 **김일성**장군님의 존함이 씌여있고 성냥곽만한 네모난 도장까지 찍혀있었다.

《아니?! 그럼 그분이 **김일성**장군님이시란말인가!》

할머니는 깜짝 놀라 얼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서 뭇별들이 총총한 밤하늘만 쳐다보았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눈앞에 씨뿌릴 철이 다가왔으나 땅에 묻을 씨앗 한알 없어 온 마을이 근심하고있는 때에 이처럼 종곡을 보내주신 장군님이 한없이 고마왔다.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에 대고 큰절을 올렸다.

그 이튿날 아침 밖에 나가보니 흰눈우에 세필의 말발굽자리가 나있었다.

할머니는 그 말발굽자리를 따라갔다.

그런데 말발굽자리는 얼마쯤 가다가 산밑에 이르러 흔적없이 사라져버렸다.

그제야 할머니는 어제밤에 장군님께서 타고오신 말이 날개돋힌 룡마였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옳거니, 여기서 룡마가 하늘로 날아올랐구나!)

할머니는 이 사실을 온 마을에 알렸다.

할머니네 집마당에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

려고 온 마을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나 장군님의 편지에 씌여있는 곰고개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곰고개가 어딜가?

그러는 사이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이때 또 신기한 일이 생겼다.

마을건너편 산봉우리뒤에서 환한 빛이 부채살처럼 하늘로 펴져올랐다.

마을사람들은 처음보는 신기한 빛이여서 너도나도 그리로 달려갔다.

가보니 거기에선 바로 어제밤 할머니네 집에 떨어졌던 그런 별찌가 황황 타며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바로 그옆에 편지에 씌여있던 종곡 세가마니가 쌓여있는것이였다.

마을사람들은 종곡을 지고와서 집집마다 나누어가졌다.

봄이 되자 그들은 땅을 뚜지고 씨앗을 묻었다.

그런데 그 씨앗은 참으로 신기한것이였다.

그 씨앗은 밭에 뿌리자마자 금시 움이 트고 잎이 피고 가지를 뻗더니 강냉이대와 수수대마다에 지게다리같은 이삭들이 달렸다.

강냉이알은 사과알만하고 수수알은 밤알만하고 조알은 당콩알만하였다.

낮이면 해빛이 그 씨앗을 뿌린 땅을 더 따스하게 비쳐주었고 밤이면 별들이 빛을 모아 더 밝게 비쳐주었다.

그해 그 마을엔 대풍이 들었다.

마을사람들은 백두산을 우러러 감사의 마음을 금치 못했다.

백두산에 대장수 났다

백두산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어느 울창한 수림속에 범골이라고 부르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다.

사방이 밀림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은 조만해서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우지 않는 외딴 고장이였다.

고향땅에서 쫓겨나 외진 산골에 숨어사는 이 범골마을사람들은 세상을 등진 가난한 화전민들이였다.

그런데 어느날 이 마을에 왜놈들이 달려들었다.

놈들은 집을 불태우고 무고한 마을사람들을 칼로 찔러죽이고 총으로 쏘아죽이다못해 생매장까지 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했다.

하루아침에 집잃고 부모잃고 처자를 빼앗긴 사람들의 원한에 사무친 곡성이 련 사흘 산골짜기를 울리였다.

이때 마을을 지나던 한 도사(주로 도교나 불교에서 도를 닦은 사람)가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그 정상이 하도 딱하여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정상이 불쌍하나 원쑤갚을길 어렵구나. 산에 가면 장수를 만날수 있으련만…》

이때 왜놈에게 끌날같은 아들 셋을 모두 빼앗긴 마을의 좌상벌되는 로인이 그 말을 듣고 귀가 확 틔여 《보아하니 귀

인이 분명한데 산에 가면 장수를 만날수 있다고 한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하고 물었다.

도사는 로인을 한참이나 내려다보더니 손을 들어 무릎까지 드리운 긴 수염을 내리쓸며 정중한 어조로 말하였다.

《백두산에 장수가 내렸소.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도와주기를 서슴지 않으며 나라세울 큰뜻을 이룩해가시는데 한번 찾아가봄이 헛되지 않을가 하오.》

다음날 로인은 마을에서 끌끌한 세 젊은이를 대표로 뽑아 백두산으로 들여보냈다.

그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백두산을 향해 걷고 또 걸었다.

사흘째되는 날에는 산판에서 왜놈들을 만나 죽을 고비를 겪고 겨우 몸을 피하기도 하였다.

마을을 떠난지 꼭 열흘째 되는 날밤 그들은 어느 한 펑퍼짐한 산등성이에서 무술훈련을 하는 웬 사람과 맞다들게 되였다.

장신인 그 사람은 달빛밝은 산등성이에서 창과 칼을 쓰는 훈련을 하고있었다.

그가 창검을 한번 휘둘러대면 달빛이 번쩍거려 천하가 낮과 같이 환해지고 손가락으로 바위를 밀면 스르르 가볍게 밀려가는것이였다.

《장수로구나!》

젊은이들은 너무도 놀라와 이렇게 소리쳤다.

그 소리에 훈련을 하던 사람이 젊은이들쪽으로 머리를 돌리였다.

젊은이들이 어쩔바를 몰라 망설이고있는데 그 사람은 마치

구면이기나 한듯이 서글서글하게 대해주었다.

《초면에 안됐습니다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젊은이들은 말뜻을 몰라 그 사람을 쳐다보았다.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린단말인가?)

그 사람은 여전히 웃으면서 그중 좀 나이든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다름이 아니라 저기 먹이 가득 담긴 먹통이 있는데 이 비자루로 먹물을 찍어 나를 향해 뿌려주십시오.》

젊은이들은 도저히 무슨 영문인지 알수가 없었다.

그러나 초면에 간절히 부탁하는바람에 그 젊은이는 시키는 대로 비자루에 먹물을 듬뿍 찍어서 그 사람을 향해 힘껏 뿌리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검을 날쌔게 휘둘러대여 몸에 뿌려지는 먹물을 한방울도 묻히지 않고 모두 막아냈다.

《히야!》

젊은이들은 또 한번 깜짝 놀랐다.

그제야 그 사람은 만족한듯 칼을 씻어 칼집에 꽂더니 그 젊은이들앞으로 다가왔다.

《보아하니 급한 일이 있어 어디론가 가는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묻자 한 젊은이가 한걸음 나서며 대답하였다.

《저희들은 범골마을에서 온 젊은이들입니다. 백두산에 장수가 내렸다는 말을 듣고 저희들의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십사 청을 드리고저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럼 저에게 말하십시오.》하고 말하였다.

《예?!》

젊은이들은 깜짝 놀랐다.

(이분이 백두산장수이시구나!)

그렇게도 애타게 찾던 백두산장수를 이렇게 만나니 꿈만 같았다.

그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 큰절을 드리였다.

《미련한 저희들이 백두산장수님을 미처 몰라보았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그러자 젊은이는 펄쩍 뛰며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백두산장수가 아닙니다. 그분의 수많은 제자들중의 한 사람입니다.》하고 대답하는것이였다.

《백두산대장수님의 제자라구요?》

사람들은 그 젊은 장수에게 자기네 마을이 당한 참변을 그대로 다 말했다.

장수는 그들의 말을 침착하게 듣고있다가 알겠다는듯 머리를 끄덕이더니 주먹을 부르쥐였다.

《천하에 악독하기 그지없는놈들. 내가 여러분네들의 원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사흘후에 악착한 그 왜놈의 본거지를 들이치겠으니 여러분들은 마음놓고 80리밖에 있는 풀막에 가서 푹 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장수의 눈에서는 불길이 펄펄 일었다. 그런데 세 젊은이는 몹시 난처했다. 어떻게 사흘안으로 그곳까지 가닿는단말인가.

그곳까지 가자면 범접할수 없는 절벽과 령에 막혀있는 아흔아홉굽이를 에돌아가야 하므로 열흘은 실히 걸려야 하였다.

마을사람들의 이러한 심정을 헤아린 장수는 《근심할것 없

습니다. 저 너럭바위우에 올라가 앉으십시오. 그리고 세분이 백을 셀동안 눈을 꼭 감고있으십시오. 백을 다 세면 눈을 떠도 됩니다.》하고는 흔연히 사라졌다.

세 젊은이는 장수가 시키는대로 너럭바위우에 올라가 앉은 다음 눈을 감고 셈을 세기 시작했다.

그들이 아흔아홉을 세고있는데 장수가 껄껄 웃는 소리가 나기에 눈을 떠보니 그들은 벌써 풀막에까지 와있었다.

하도 신기하여 눈을 크게 뜨고 좌우를 살펴보니 부채살처럼 겹쳐졌던 아흔아홉굽이를 안은 메부리들이 연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펴져가고있었다.

놀란 눈으로 그것을 지켜보고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축지법을 썼구나.》하고 감탄하였다.

그들은 장수의 말대로 왜놈의 본거지가 빤히 내려다보이는 풀막에서 쉬게 되였다.

장수는 왜놈의 우두머리가 도사리고있는 성시로 내려갔다.

그는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손에는 아무것도 쥔것이 없었다.

장수가 성문앞에 이르자 보초를 서던놈이 웬 사람인가고 물었다.

장수는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나는 백두산대장수의 부하이다. 너희네 대장을 만나러 왔으니 어서 문을 열어라.》

그러자 보초서던 왜놈이 갑자기 눈알이 뒤집히고 모재비로 쓰러지더니 아주 잠잠해졌다.

백두산의 장수란 말에 그만 기절초풍한것이였다.

《졸장부로군.》

장수는 그것을 보는둥마는둥하고 성문앞에 다가가 쇠빗장

을 지른 철대문을 한손으로 지그시 밀었다.

그러자 대문이 우지직소리를 내며 썩은 바자가 넘어가듯 했다.

젊은이들은 초막에서 장수의 행동을 내려다보며 연방 놀라기만했다.

장수는 성안으로 척척 걸어들어갔다.

성안에 있던 총칼을 든 왜놈들이 그에게로 욱 밀려들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쥔것이 없는 장수가 어떻게 했는지 앞과 뒤, 좌우에서 달려들던 네놈은 총과 칼을 땅에 떨구고 비칠거리다가 꼬꾸라졌다.

더욱 이상한것은 다른 숱한 왜놈들이 청맹과니처럼 그저 허우적거리는데 잡았던 총자루가 푸석푸석 부스러지고 칼이 엿가락처럼 휘여들어 왜놈들이 총칼을 쓸념을 못하는것이였다.

왜놈의 우두머리놈은 낯짝이 시커멓게 죽어서 버들버들 떨면서도 졸병놈들에게 호령질을 하며 싸움에로 내몰았다.

졸병들은 다시 일어나 총과 칼을 잡았으나 한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경황없는 가운데도 우두머리놈은 응원부대를 보내달라고 전화통에 매달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장수는 그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당옆에 서있는 아름드리박달나무를 무우뽑듯 뽑아들고 두어번 흔들다가 저쪽 성밖으로 홱 던져버렸다.

이것을 본 우두머리놈은 겁에 질려 눈을 까뒤집고 마루바닥에 쓰러져 사시나무 떨듯했다.

졸병놈들은 성벽밑에 들어박혀 궁둥이만 내놓고 《하느님 날 살리오!》를 련발하였다.

장수는 마루바닥에 쓰러져 와들와들 떠는 왜놈우두머리놈의 덜미를 잡아 넝큼 쳐들고 마당으로 나와 조약돌을 집어던지듯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나서 더러운것을 만진 손을 씻듯 손수건을 꺼내여 한참 문지른 다음 성벽밑으로 갔다.

그리고는 여기저기에 대가리들을 틀어박고 떨고있는 졸병놈들을 일으켜세우고 《이놈들 듣거라! 네놈들이 백성들을 못살게 군 흉악무도한 죄행을 생각하면 모조리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만은 살려줄터이니 다시는 악한짓을 말아라. 두번다시 죄를 지을 땐 용서치 않으리라!》고 소리쳤다.

졸병놈들은 그 말에 너무도 황송하여 두손을 싹싹 비비며 절까지 굽석굽석 하였다.

이리하여 왜놈의 병영이 하루아침에 쫄딱 녹아났다.

이윽고 장수가 마을젊은이들앞에 나타났다.

젊은이들은 장수앞에 꿇어엎디여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하고 몇번이고 몇번이고 큰절을 하였다.

장수는 그들을 하나하나 일으켜세우면서 《인제는 놈들이 단단히 정신이 들었을테니 마음놓고 돌아가십시오.》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장수에게 거듭 사의를 표하고 마을로 돌아왔다.

좌상로인과 마을사람들은 세 젊은이의 말을 듣고 모두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였다.

《과시 그 도사의 말이 옳구나. 백두산에 장수가 내렸다. 대장수가 났구나! 제자가 그럴진대 하물며 대장수님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조선에 대통운이 텄도다!》

좌상로인의 말에 마을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끄떡이며 멀리 백두산을 우러러보았다.

륙군대신이 받은 보고서

말복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기가 내리기 시작한 어느해 초가을이였다.

길림에서 무송으로 뻗은 넓은 신작로로 뽀얀 먼지를 말아올리며 승용차가 질풍같이 달리고있었다.

누가 무슨 일로 가기에 저리도 급히 달리는것인가.

차안에는 항일유격대에 대한 《토벌》형편을 알아보기 위해 일본에서 이곳에 온 참모본부의 파견관 이께다대좌가 앉아있었다.

등받이에 몸을 맡긴 이께다는 차창으로 불어치는 바람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눈을 감았다.

아직도 이께다의 귀가에는 일본을 떠나올 때 하던 륙군대신의 말이 쟁쟁하게 울렸다.

《이께다대좌! 당신의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승승장구하는 〈대일본제국〉의 앞길에 **김일성**공산유격대는 커다란 암초로 되고있다.

그 암초만 없애면 황군은 순풍에 돛단 배처럼 거침없이 전진할것이다. 헌데 황군은 항일유격대에 발목이 붙잡혀 오도가도 못하고있다.

그래서 항일유격대 〈토벌〉에 관동군과 조선주둔군, 경찰

대와 위만군까지 모두 동원하였으나 오히려 <토벌>대가 토벌을 당하고있는 형편이다.

군은 바로 그 <토벌>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원인을 찾아 나에게 보고하라.

이제부터 군의 눈은 바로 나의 눈이요, 군의 귀는 바로 나의 귀와 같다. 군의 권한 또한 나의 권한과 같다.》

이께다의 가슴속에는 이번 기회에 한번 크게 공을 세워 높이 출세해볼 야심이 불타고있었다.

자못 흥분에 휩싸인 이께다는 좀처럼 가만히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이때 차창가를 불어지나는 바람결에 어디선가 나팔소리가 실려왔다.

앞을 내다보니 무송이 눈앞에 보였다.

이께다에게 제놈들의 운명이 달려있다는것을 알고있는 무송현성안의 약삭바른 왜놈우두머리놈들은 파견관이 온다는 련락을 받고 성대한 환영을 조직한것이였다.

군악대가 요란하게 불어대는 환영곡을 흐뭇하게 들으며 차에서 내린 이께다는 마중나온 이곳 주둔군과 위만군, 경찰대와 헌병대 등의 《토벌》우두머리들을 휘둘러보았다.

그뒤에 요염한 웃음을 짓고 연방 허리를 갑삭대는 일본녀인들과 료정계집들의 모습도 얼른 띄여보았다.

그러나 이께다는 이런 환영식에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있을 경황이 없었다.

그는 무송에 도착하자마자 료정안내도 마다하고 곧 졸개들과 마주앉았다.

《먼저 〈토벌〉에서 거둔 전과를 보고하라.》

이께다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러자 방금전까지도 환영의식으로 법석 떠들며 붐비던 분위기와는 너무도 대조가 되게 장내는 갑자기 쥐죽은듯 조용해졌다.

《〈토벌〉에서 거둔 전과를 보고하라.》

또다시 같은 말로 재촉하였으나 역시 방안은 잠잠했다.

모두 꿀먹은 벙어리모양으로 덤덤히 앉아만있었다.

《아무런 전과도 없는가?》

이께다가 쾅 책상을 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한놈 한놈 자국이 날 정도로 쏘아보았다.

이께다와 눈길을 마주치는 놈마다 목을 움츠리고 고개를 떨궜다.

갑자기 모두 벙어리가 됐는가?

이께다는 이런 의심까지 들었다.

이께다는 관동군부대장을 일궈세웠다.

《군은 할 말이 없는가? <토벌>에서 거둔 전과를 보고하라.》

관동군부대장은 부들부들 떨며 가까스로 이렇게 말했다.

《각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김일성**유격대는 얼마나 신출귀몰한 전법을 쓰는지 아무리 해도 도저히 당해낼수가 없습니다.》

이께다는 관동군부대장의 말이 어이없게 들렸으나 어찌다가 한마디 한것을 가로채면 또 벙어리가 될것 같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러자 이때라고 생각했던지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여기저기서 겨끔내기로 일어나 저마다 우는 소리를 했다.

《각하! 정말 그렇습니다. **김일성**유격대는 종이 한장으로

수만군사가 강을 건느고 가랑잎을 타고 하늘을 날아오르기도 하는데 어쩔 방도가 없습니다.》

경찰대장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자 이번엔 위만군부대장이 뒤따라 일어나 《각하, **김일성**유격대는 못부리는 조화가 없습니다. 솔방울로 폭탄을 만드는가 하면 모래로 총알을 만들기도 합니다.》하고 말했다.

헌병대장도 지지 않으려는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각하, 그뿐이 아닙니다. **김일성**유격대는 축지법을 쓰는데 …》하고 말을 시작하려는데 쾅— 이께다가 또 책상을 쳤다.

《그만하라! 〈대일본제국〉의 군인으로서의 야마도다마시이는 다 어디로 갔는가?》

헌병대장은 말을 중둥무이당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만 꺼벅거렸다.

이께다는 그들모두가 미치지 않았으면 바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한편 은근히 겁이 나기도 했다. 이 현성에도 유격대가 쳐들어올수 있지 않을가?

이께다는 관동군부대장에게 물었다.

《이 무송현성은 안전한가?》

《네, 여기는 절대 안전합니다. 현성주위에는 동산을 비롯한 600～800메터의 고지들과 릉선들이 성처럼 빙 둘러있습니다. 그 동산과 릉선의 곳곳마다에 견고한 포대를 구축하고 토성의 네 귀와 각 문마다에는 밤낮 많은 무력이 동원되여 쥐새끼 한마리 얼씬못하게 경계를 강화하고있습니다.》

관동군부대장은 이제야 칭찬받을 일이 생겼다는듯 단숨에 쭉 말했다.

그런데 웬일인가.

이께다는 또 꽥 소래기를 질렀다.

《그만하라! 당신들은 유격대를 〈토벌〉하려고 여기 왔는가? 아니면 무송을 지키는 방어대로 왔는가? 범의 굴에 가야 범을 잡지 여기 앉아 포대만 지키면 공산군을 〈토벌〉할수 있는가?》

이래도 욕 저래도 욕이니 관동군부대장은 뻥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있었다.

이때 발라맞추기 잘하는 경찰대장이 난딱 일어나 주어섬겼다.

《각하!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송수진과 시난차, 대영과 쟈피거우, 두도묘령 등 여러곳에 〈토벌〉대를 파견하고 지금 전과를 기다리고있던참입니다.》

《그런가? 그렇다면 어디 기다려보자.》

이께다의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갑자기 문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관동군련락장교가 절뚝거리며 들어왔다.

《부대장각하!》

관동군부대장이 련락장교에게 이께다쪽으로 눈짓을 하였다.

장교는 얼른 이께다쪽으로 돌아서서 기척을 했다.

《대좌각하! 쟈피거우에 **김일성**유격대가 나타났습니다.》

《뭣이? 그래 어떻게 됐는가?》

이께다와 《토벌》대장들은 행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련락장교의 입만 지켜보았다.

《유격대한테 〈토벌〉대는 감히 맞설 엄두도 못내고있습니다. 시급히 증원부대를 파해주십시오.》

련락장교의 말을 듣고 《토벌》대장들은 모두 겁에 질려 얼굴이 새파래졌다.

만주바람을 쐬여보지 못한 이께다만은 일종의 호기심까지 생겨 이렇게 캐여물었다.

《**김일성**장군을 보았는가?》

련락장교는 실은 보지 못하였으나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무슨 벼락이 떨어질지 몰라 아무렇게나 말이 나가는대로 주어댔다.

《예. 보았습니다. 흰수염이 가슴까지 내리드리운 백발로장입니다.》

《음, 그렇단말이지.》

이께다는 푸릿한 담배연기사이로 련락장교를 쳐다보았다.

이때였다.

말발굽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회의실로 또 다른 련락장교가 들어왔다.

《각하, 이도화원에 **김일성**유격대가 나타났습니다.》

《뭣이?》

이께다가 미처 놀랄사이도 없이 또 다른 련락장교들이 들어왔다.

《각하, 두도묘령에 **김일성**유격대가 나타났습니다.》

《**김일성**유격대가 시난차에 나타났습니다.》

이께다와 《토벌》대장들은 모두 어리벙벙해졌다.

더욱 놀라운것은 모든곳에 **김일성**장군이 직접 부대를 이끌고 나타났다는것이였다.

이께다는 련락장교들을 하나하나 차례로 일궈세워 캐여물었다.

《**김일성**장군을 보았는가?》

《예, 보았습니다. 두루마기를 입은 나이많은 장군이였습니다.》

《좋다. 그럼 너도 보았는가?》

또 다른 장교에게 물었다.

《예, 보았습니다. 이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뎁쇼. 회색 두루마기를 입은 할아버지장군이였습니다.》

《그럼 너도 보았는가?》

《예, 직접 제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머니가 량켠에 달린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나이는 한 예순살가량 난 장군이였습니다.》

《음, 그렇단말이지.》

이께다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실눈을 하고 한참이나 움직이지 않고 한곳을 응시하더니 한명밖에 남지 않은 련락장교에게 또 물었다.

《**김일성**장군을 보았는가?》

《예, 보았습니다. 키는 구척장신이고 눈에서는 불이 이글거리는 젊은 장군이였습니다.》

《뭣이?》

이께다는 어느 장교의 말을 믿을지 종잡을수가 없었다.

련락장교들은 저마다 자기가 똑똑히 본것처럼 거짓말을 꾸며대는것이 분명한데 대체 어느놈의 말을 믿을것인가.

이께다는 제일 마지막에 한 련락장교의 대답이 그래도 신용있어보였다.

모두 보지도 못한 **김일성**장군에 대하여 먼저 한 거짓말에다가 한가지씩 더 보탠것이 틀림없는데 마지막장교만은

영 다른 대답을 하는것을 보니 그 말을 믿을수 있을것 같았다.

《총 출동준비를 갖추라!》

이께다는 드디여 명령을 내렸다.

제가 직접 《토벌》대를 이끌고 **김일성**장군과 맞서싸워 한번 무공을 세우고싶은 생각이 났던것이다.

이께다는 《토벌》대를 끌고 **김일성**장군이 나타났다는 시난차로 떠났다.

그런데 시난차로 급히 달려가니 언제 싸움이 있었던가싶게 조용한데 영글게 우는 풀벌레소리만 들려오고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이미 전투가 끝난지 오래된 모양이였다.

누렇게 널려있는것은 모두 왜놈들인데 그 어느것 하나 숨이 붙어있는놈이 없었다.

《부상병이라도 하나 찾아오라.》

이께다가 명령하였다.

한참만에야 겨우 숨이 붙어있는 졸병 한놈을 찾아냈다.

이께다가 졸병에게 물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마… 말도 마십시오. **김일성**장군이 나타나 한번 호령을 하니 맑은 하늘에서 벼락이 우지끈 딱 하고 떨어지는데 온통 불바다가 되였습니다. 그바람에 순식간에 모두 전멸되고말았습니다. 난 바위굴안에 들어가 겨우 몸을 숨겼는데 글쎄 거기에도 불길이 따라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졸병은 정신이 들락날락하는지 갑자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종잡을수 없게 놀았다.

《**김일성**장군을 보았는가?》

《예, 예, 보았습니다. 키는 구척장신이고 눈에서는 불이 이는데 퍽 젊은 장군이였습니다.》

《그래 유격대는 모두 어디로 갔는가?》

《유격대는 **김일성**장군이 손을 한번 휘두르자 모두 가랑잎을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께다는 정신이 나간 이놈의 말을 믿을수가 없었다.

《대영으로 가자.》

이께다는 《토벌》대를 끌고 대영으로 갔다.

대영도 형편은 같았다.

이미 전투는 끝났고 황군의 시체가 산을 덮었다.

거기서도 한 부상병을 찾아냈는데 그놈은 이렇게 말했다.

《**김일성**장군이 호령을 하자 웬일인지 우리 황군의 총들이 모두 구멍이 막혀 총을 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총이 막대기가 되고말았습니다.》

《**김일성**장군을 보았는가?》

《예, 보았습니다. 키가 구척장신인데 나이가 젊은 장군이였습니다.》

이께다는 또 한번 놀랐다.

(그렇다면 **김일성**장군이 동시에 시난차와 대영에 나타났단 말인가?)

송수진에서도 쟈피거우에서도 형편은 마찬가지였다.

모든곳을 다 돌아보았으나 가는곳마다 같은 모양이요, **김일성**장군이 나타난것도 사실이였다.

그러니 여덟명의 **김일성**장군이 동시에 나타난것이 분명

했다.

이께다는 잔뜩 겁이 났다.

이제는 한발 내디디기도 무서웠다.

이께다는 무송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수 없었다.

빨리 이 정황을 보고하기 위해서인것처럼 급히 말을 몰았다.

그런데 무송에 돌아오니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있었다.

무송이 **김일성**장군유격대한테 녹아난것이였다.

포대도 병영도 탄약창고도 모두 하늘로 날아났다.

무송에 남아있던 왜놈들은 한놈도 살아남지 못했다.

(**김일성**장군이 결국 이 무송현성을 치자는것이였구나!)

이께다는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아무렇게나 털썩 주저앉았다.

얼마후 이께다는 불에 타다남은 찌그러진 책상우에서 륙군대신에게 보내는 다음과 같은 정황보고서를 작성했다.

《본관은 대신각하의 명령으로 만주에서 **김일성**유격대에 대한 〈토벌〉정황을 자세히 료해하였습니다.

…

신출귀몰한 전법을 쓰는 **김일성**유격대를 황군으로서는 도저히 당해낼수가 없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김일성**장군이 무송지구에만도 동시에 여덟이나 나타났는바 남북만주와 조선까지 다하면 백이겠는지 천이겠는지 그 수를 가늠할수가 없는것입니다. …》

장 군 바 위

장백현 대덕수에 가면 마을뒤산어귀에 거의 스무길이나 되는 큰 바위 하나가 우뚝 솟아있다.

이고장사람들은 이 바위를 장군바위라고 부른다.

원래는 이 바위 이름이 《선바위》였는데 후세사람들이 《장군바위》라고 고쳐 불렀다고 한다.

왜 선바위를 장군바위라고 이름을 고쳐부르게 되였는가.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내려오고있다.

장백현 대덕수부근 신창동에 리가성을 가진 한 로인이 살고있었다.

성격이 불같은 그는 악착한 지주놈의 집에 불을 지르고 고향을 떠나 여기 신창동으로 옮겨온 로인이였다.

그런데 여기로 온 그해 포대공사에 끌려나갔다가 덕대가 무너지는바람에 생때같은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다.

그래서 로인은 자주 술로 울적한 마음을 달래며 망국노의 울분을 토하군하였다.

당시 장백땅에는 리로인과 같은 조선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우리 겨레들이 압록강을 건너 여기 장백땅에다 이국살이의 울장을 박기 시작한것은 19세기 후반기부터였다.

서간도로 알려진 이 일대에서는 모두가 어렵게 살고있었다.

그들은 피땀으로 지은 귀밀과 감자마저 일제와 지주놈에게 깡그리 빼앗기고 굶주림에 고생하고있었다.

그러던 어느해 단풍이 지는 가을이였다.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나신 천출명장 **김일성**장군님께서 부하를 거느리시고 장백땅에 나오셨다는 소문이 돌았다.

《뭐라구?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셨다구?!》

이 소식을 듣자 리로인은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다.

당장이라도 장군님께서 계시는곳만 알면 달려가서 만나뵙고싶은 심정이였다.

며칠후 리로인은 장군님께서 대덕수마을에 와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아침일찍 집을 나섰다.

그런데 그는 얼마 가지 못해서 왜놈들에게 붙잡히고말았다.

장군님께서 장백으로 나오셨다는 정보를 받은 일제침략군의 《토벌》대놈들은 **김일성**부대를 《토벌》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고 갈가마귀 끓듯 법석 고아대며 부랴부랴 밀려들었던것이다.

그때 제일먼저 기여든것이 이마노란놈이였다. 반일부대들에 대한 《토벌》에서 악명을 떨친 이놈은 200명의 경찰대놈들을 끌고왔었다.

놈들은 잔뜩 겁을 먹은 눈으로 해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울창한 수림속에서 유격대가 어디 있는가 하여 두리번두리번 조심스럽게 살피며 대덕수부근의 신창동에까지 게바라왔던것이다.

이마노는 대덕수에 유격대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가 없어 어느 한 농민을 붙잡아서 알아보게 하려던참인데 마침 리로인이 나타났던것이다.

《령감, 저 대덕수에 유격대가 있는가 없는가 빨리빨리 알아오라. 알았소까?》

리로인은 그제야 놈들의 흉계를 알아차리고 언제 유격대가 왔는가고 모르쇠를 하며 슬쩍 되물었다.

그러면서 로인은 속으로 기뻐하였다.

왜놈들이 돌아치는것을 보니 떠도는 소문이 틀림없구나. 그래 못견디는체하며 마지 못해 가는듯이 대덕수쪽으로 걸어갔다.

리로인은 대덕수마을까지 채 가지 않고 부근에서 돌따서 다시 신창동마을로 되돌아왔다.

《오, 벌써 대덕수에 갔다왔소까?》

이마노는 헤벌쭉해서 소리쳤다.

《예, 갔다왔수다.》

《그래? 유격대가 있는가?》

이마노는 다급하게 물었다.

《마을이 조용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리로인은 왜놈들이 마음놓고 대덕수에 들어갔다가 된벼락을 맞게 하려고 슬쩍 거짓말을 하였다.

《아무도 없다, 정말인가?》

《정말 아니구요.》

이마노는 곧 《토벌》대에 명령을 내렸다.

《음, 좋아. 그럼 대덕수를 그냥 지나가라.》

《토벌》대는 마음놓고 큰길로 행군을 시작하였다.

대덕수골안에 없으니 빨리 다음골안에 가서 찾아보려는것이였다.

리로인은 《토벌》대놈들을 멀리 앞세우고 슬금슬금 뒤에서 따라갔다.

《토벌》대놈들이 대덕수마을에 완전히 다 들어섰을 때였다.

갑자기 《땅!》 하는 신호총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총알들이 비발치듯 날아왔다.

《토벌》대놈들은 여기저기서 아이쿠 아이쿠 하며 푹푹 꺼꾸러지기 시작했다.

리로인은 가까이에 있는 감자굴로 뛰여들어갔다.

감자굴에는 마을사람 몇이 먼저 들어와있었다.

그들은 놀라는 리로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김장군님께서 싸움이 일어날걸 미리 아시구 우리들보고 안전하게 감자굴속에 들어가있으라고 일러주셨다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장군님께서는 천리밖에서도 왜놈들이 오는것을 다 알고계신다, 어제부터 벌써 싸움준비를 해놓고 놈들이 오기만을 기다리셨다고 하였다.

《장군님께서 미리 알고계셨다구? 장군님이 어디에 계시우?》

리로인은 장군님의 모습을 먼발치에서라도 뵙고싶어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다.

한 사람이 감자굴밖으로 머리를 내밀더니 마을뒤산어귀에 있는 선바위를 가리켰다.

《저길 보시우.》

그 사람이 가리키는곳을 보니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선바위우에 오색채운이 서렸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서계시는 장군님의 모습이 운무에 휩싸여 보일듯말듯하였다.

리로인은 눈을 비비고나서 구름에 휩싸인 선바위쪽을 보고 또 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엉?》하고 저도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장군님께서 어떤 술법을 쓰셨는지 선바위가 그대로 요새가 되여 총알이 소낙비처럼 쏟아져나오는것이 아닌가!

그것은 그대로 뢰성벽력이였다. 놈들은 질겁하여 땅바닥에 코를 박고 벌벌 기였다.

하지만 이마노는 끈덕지게 졸병들을 위협하며 내몰았다.

그러면그럴수록 선바위에서는 총알이 더 무섭게 쏟아졌다.

왜놈들은 일시에 벼락맞은 나무토막이 되고 부석이 되고말았다.

대장 이마노는 쥐였던 칼까지 줴버리고 줄행랑을 놓았다. 우두머리놈이 내빼는것을 본 졸병들은 죽어넘어진 제놈들의 시체를 걷어차며 산지사방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통쾌한 섬멸전이 끝나자 감자움에 들어갔던 리로인과 마을사람들이 모두 뛰쳐나왔다.

선바위에 거연히 서시여 전장을 한눈에 굽어보시는 장군님의 모습은 참으로 숭엄하고 위엄스러웠다.

선바위를 그대로 철갑의 요새로, 온 고지를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화점, 수백수천의 화구로 만들어 멸적의 불벼락을 안기신분!

마을사람들은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장군님께서 술법을 쓰시여 산과 바위를 요새로 만들고 나무와 모래알이 총이 되고 총알이 되여 불을 뿜게 하신것이라고 하였다.

로인은 머리를 끄덕이며 감동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과시 하늘이 낸 명장이시오!》

《천지조화를 마음대로 부리는분이시니 바위를 요새로 만드는것쯤이야 뭐 그리 어렵겠소.》

다른 마을로인도 같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오만한 왜놈들에게 심대한 패배를 안기신 장군님께서는 다시 대덕수부락으로 내려오시였다.

마을사람들은 더없는 기쁨과 감격에 휩싸여 장군님을 열광적인 환호로 맞이하였다. 얼마후 장군님께서는 대원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멀리 백두산쪽으로 날아가시였다.

그후 이곳사람들은 선바위를 **김일성**장군님께서 왜놈들을 요정내신곳이라고 하여 장군바위라는 뜻깊은 이름으로 부르게 되였다.

신기한 종이장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한번은 볼 일이 있어서 함흥으로 나가셨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함흥에서 제일 크고 으리으리한 왜놈의 려관에서 보름동안이나 류숙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려관을 떠나실 때 려관주인을 불러 명함장을 주셨는데 그 명함장을 받아든 주인은 너무 놀라서 장군님께 깊숙이 절을 하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하였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온 천하에 명성이 높은 만고의 령장 **김일성**장군님께서 바로 자기 려관에서 보름동안이나 류숙하셨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거니와 존함이 씌여진 명함장을 내놓고 태연하게 나서시는 장군님의 근엄한 기상에 주인은 그만 혼이 나갔던것이다.

려관주인은 한동안 망두석을 세워놓은것처럼 뻣뻣해진채로 그 자리에서 움직일줄을 몰랐다.

장군님께서 떠나가신지 얼마후에야 정신이 좀 든 주인은 허겁지겁 경찰서에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뭣이?》

화닥닥 놀란 경찰들은 각지 경찰서에 전화를 건다, 파발말을 띄운다 눈이 뒤집혀 돌아갔다.

함경남도의 모든 경찰이 벌둥지를 쑤셔놓은것처럼 소동을 일으키며 다 떨쳐나섰다.

하여튼 함흥에서부터 삼수, 갑산을 거쳐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산이고 들이고 할것없이 경찰들이 개미떼처럼 새까맣게 덮였다.

놈들이 이렇게 정신이 빠져서 소동을 피우고있을 때 장군님께서는 후치령을 넘어 풍산읍에 있는 리발소에서 리발까지 척 하고 나오시여 북으로 뻗은 신작로를 유유히 걸어가시였다.

그제야 경찰들이 장군님을 알아보고 바싹 뒤를 따르는데 장군님께서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으시고 큰길로 휠휠 걸어가시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걸보기엔 천천히 걸으시는것 같은데 실상은 어찌도 빨리 가시는지 놈들이 기를 쓰고 따라가도 도저히 따라설수가 없었다.

(하, **김일성**장군이 축지법을 쓴다더니 이것이 바로 축지법이 아니야?!)

놈들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숨이 턱에 닿아 죽기내기로 따라뛰였다.

그래 어떤놈은 땀으로 미역을 감아서 물에 빠진 생쥐모양이 되고 어떤놈은 너무 급해 바지에 오줌을 싸고 어떤놈은 혀를 석자나 빼물고 늘어졌다.

그래도 놈들은 연방 엇바꾸어가며 헐레벌떡 장군님의 뒤를 쫓아갔는데 어언 압록강가에 이르렀다.

(이젠 됐다.)

놈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좋아했다.

(앞에는 넓은 강물이 출렁이는데 이미 이곳 주재소에 련락하여 강에 있는 배를 모조리 치웠으니 **김일성**장군이 아무리

축지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 큰 강을 어떻게 맨몸으로 건너가겠는가.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는것이다.)

경찰들은 제법 얼굴에 웃음까지 지으며 강가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장군님께서는 강가에 태연히 앉으시여 종이를 펼쳐놓고 조선지도를 그리고계시지 않는가.

일본경찰들은 너무나 태연하게 홀로 앉아계시는 그이를 보자 어쩐지 겁이 나서 감히 접어들지 못하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눈알만 데룩거렸다.

이윽하여 정신차린 상관놈이 어서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경찰들은 우르르 달려들었다.

그제야 장군님께서는 종이장을 압록강물우에 척 띄우고 그우에 선뜻 올라서시는것이였다.

그러자 종이장이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눈깜박할사이에 강건너기슭에 가닿았다.

경찰들은 너무나 놀라서 입만 쩍 벌리고있다가 뒤늦게야 허겁지겁 배를 얻어타고 따라갔다.

그런데 갑자기 방금까지 바람 한점 없고 호수처럼 잔잔하던 강 한복판에 파도가 길길이 치솟는것이였다.

벌써 강 저쪽 바위우에 올라서신 장군님께서는 종이장을 둘둘 말아 품에 간수하고계시였다.

갑자기 치솟는 파도는 장군님께서 그 종이장을 건사하시는 바람에 일어나는 멀기였던것이다.

하여튼 그 파도가 어찌나 세찼던지 장군님의 뒤를 쫓던 경찰들의 배가 몽땅 뒤집혀서 놈들이 모두 압록강의 고기밥이 되고말았다.

그리고 그때 강가에 있던 일본경찰관주재소는 물속에 잠겨버렸다.

하늘로 날아오른 힘장수

지금도 량강도 삼지연군에 가면 하늘로 날아오른 힘장수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속에 전해지고있다.

장수가 어떻게 하늘로 날아올랐을가?

신비로 가득찬 옛전설같기도 하고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로 엮어진 옛말같기도 한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70여년전 어느 목재소마을에서 벌어진 일을 담고있다.

동기와를 올린 처서군들의 집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피여오르던 어느날 석양무렵, 이와실이(지난날 산판에서 베여놓은 통나무를 차길 가까이까지 나르는 삯일)를 갔던 쇠돌이라는 어린 소년이 발구채를 멘 황소의 잔등에 연방 채찍을 안기며 달리고있었다. 통나무를 가득 싣고 위태롭게 미끄러져가던 발구가 얼음판에 접어들자 그만에야 한쪽으로 미끄러져버렸다. 그바람에 황소도 함께 넘어졌다.

얼음판에 넘어진 황소는 쇠돌이가 아무리 채찍질을 세차게 안겨도 눈만 멀뚱거릴뿐 도무지 일어서지 못했다.

《이랴! 이랴!》

아직 소를 부리는데 미립이 트지 못한 쇠돌이는 고삐를 잡아당기며 앞으로 무작정 끌어당기기만했다.

그러다가 뒤로 달려가 한쪽으로 쏠리는 발구를 밀면서 휘!

휙! 황소의 엉뎅이에 채찍질을 들이댔다.

그런데 이 일을 어찌하랴!

한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던 발구는 종시 뒤집혀지고 통나무들은 와르르 무너져 깊은 홈타기에 굴러처박히고말았다.

설상가상으로 황소는 다리까지 부러졌다.

쇠돌이는 막 울고싶었다.

아버지없이 자란 그는 집에서 홀로 앓고있는 어머니에게 좁쌀죽이나마 대접하려고 어린 몸으로 힘에 부친 이와실이군이 된것이다.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나 늦은 저녁이라 깊은 수림속엔 지나다니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쇠돌이는 주저앉아 쿨쩍쿨쩍 울기 시작하였다.

슬픈 생각이 가슴속에 사무쳐와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내렸다.

생각할수록 앞이 막막하기만했다.

이때였다.

등뒤에서 누군가의 웅글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애야, 넌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

소년은 낯선 사람의 아래우를 유심히 살폈다.

큰 키에 몸집이 우람한데 눈에서는 불꽃이 튕겼다.

어깨엔 피나리보짐을 둘러메고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보통사람같지 않았다.

쇠돌이는 대번에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스스럼없이 낯모르는 사람에게 자기가 처한 사정을 자초지종 다 이야기했다.

《일없다.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거라.》

그 사람은 발구를 버쩍 들어 바로세우고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통나무가 미끄러져내려간 언덕아래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러더니 홈타기에 빠진 아름드리 통나무들을 마치 수수짚이나 다루듯이 가볍게 척 들어 량겨드랑이에 몇대씩 끼고 길우에 올려다가 발구에 싣는것이였다.

다리가 부러져 일어서지 못하는 황소도 넝큼 안아다가 통나무 실은 발구우에 올려앉히였다.

《야!—》

쇠돌이는 놀라와 저도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얘야, 너도 어서 발구에 올라타거라.》

쇠돌이는 너무도 고마와 달려나가 《아저씨!》하고 부르며 그 아저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저씨는 쇠돌이를 안아 황소의 잔등에 태워주었다.

발구에 통나무를 싣고 통나무우에는 황소를 태우고 황소의 잔등우에는 쇠돌이를 앉히였다.

이윽고 아저씨는 황소대신 발구채를 메더니 씽하고 앞으로 잡아끌었다.

어찌나 빨리 끄는지 귀에서는 바람소리가 다 났다.

아저씨가 발구를 끌고 목재소마을에 나타나자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나왔다.

《힘장수로군! 장수가 틀림없네그려.》

《히야! 장수가 나타났다! 진짜 힘장수가 나타났다!》

그 아저씨를 둘러싸고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는 사람들중에는 목재소주인인 왜놈도 있었다.

주인은 장수를 보자 대번에 자기네 인부로 받아들이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그 힘장수는 목재소에서 다른 처서군들과 함께 나무 베는 일을 하게 되였다.

그는 늘 쇠돌이를 데리고 다녔는데 품삯을 받아서는 언제나 그것을 어린 쇠돌이에게 주군하였다.

그는 힘이 세여 일을 잘할뿐아니라 말도 여간 잘하지 않았다.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 저절로 두주먹을 불끈 부르쥐게 되고 온몸에 새힘이 솟았다.

어느날 나무를 베다가 쉬는참에 그 사람은 우등불가에 앉아 이런 말을 했다.

《지금 백두산에서는 장수들이 천지물을 마시며 왜놈들을 칠 힘을 키우고있습니다. 한번 백두산에 들어가 그 천지물을 마시고 힘을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거 그럴법한 말이웨다. 예로부터 백두산을 산지조종 천하명산이라 일러왔으니 천지물에 신비론 조화가 깃든것은 지극히 응당한 일이지.》

나이지긋한 한 벌목공이 머리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긍정했다.

이때 쇠돌이가 무슨 생각이 났던지 이렇게 물었다.

《힘장수아저씨! 아저씨도 혹시 그 천지물을 마셔서 힘이 세진게 아니예요?》

모여앉았던 사람들은 갑자기 긴장해졌다.

쇠돌이의 엉뚱한 질문에 힘장수가 어떻게 대답할는지 모두 궁금하였던것이다.

혹시 저 사람이 백두산대장수의 부하가 아닐가, 그들은 그

의 입만 지켜보았다.

《오냐, 그렇단다. 나도 그 천지물을 몇달 마셔보았단다.》

《야!—》

쇠돌이는 환성을 질렀다.

모여앉은 사람들도 머리를 끄덕이면서 놀라운 빛을 감추지 못했다.

젊은이들은 당장 백두산으로 들어가겠다고 나섰다. 힘장수가 백두산으로 가는 길을 가리켜주었다.

몇사람이 백두산을 향해 떠나갔다.

백두산으로 가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났다.

하루는 쇠돌이도 백두산으로 가겠다고 나섰다.

《쇠돌아, 너는 좀 더 큰 다음에 가거라. 아직은 일러.》

힘장수는 쇠돌이를 타일렀다.

그후에도 산판에서는 자주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군하였다.

그러자 왜놈들은 수상한 기미를 챘던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산판을 싸다니며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발구에 통나무를 싣고 내려오던 쇠돌이는 아저씨가 로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있는 산으로 왜놈경찰서장이 경찰들을 데리고 살금살금 기여올라가는것을 보았다.

《앗! 저놈들이…》

쇠돌이는 길가에 소발구를 세워둔채 골짜기를 빠져 길을 앞질러 달려올라갔다.

《아저씨! 아저씨!…》

그는 숨이 턱에 닿아 미처 말을 잇지 못했다.

《왜 그러느냐?》

힘장수는 하던 말을 그치고 쇠돌이에게 물었다.

《아저씨! 어서 몸을 피하세요. 놈들이 잡으러 달려와요.》

그러나 그는 조금도 놀라거나 긴장해지는 빛이 없이 여전히 하던 말을 계속했다.

바로 그찰나 뒤따라온 경찰들이 총부리를 내대고 돼지멱따는 소리로 《꼼짝 말라! 움직이면 쏜다!》하며 달려들었다.

로동자들은 모두 긴장하여 아무 말을 못하고 서있었다.

그런데 힘장수가 그놈들앞에 나서면서 《이놈들, 나는 백두산대장수의 부하이다. 어서 덤벼들테면 덤벼들어봐라! 네놈들이 망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런줄이나 알고 썩 물러가지 못할가? 인민들을 못살게 굴면 그때엔 용서치 않을것이다!》하고 추상같이 호령했다.

그러자 큰소리를 치던 일제경찰놈들은 백두산대장수의 부하라는 말에 기가 죽어 목을 움츠리고 부들부들 떨었다.

이때 힘장수는 바지가랭이에서 무엇인가 한줌 꺼내더니 그것을 놈들을 향해 휘뿌려던졌다.

그것은 모래였다.

모래는 회오리바람처럼 경찰들의 면상을 후려치며 날아올라갔다.

놈들은 눈도 못뜨고 아우성을 쳤다.

얼마후 눈을 떠보니 그 힘장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경찰들은 눈만 디룩거리는데 《이놈들아! 내 여기 있다.》하는 고함소리가 들려와 고개를 들어보니 힘장수는 어느새 날아올랐는지 아찔하게 높은 바위우에 뚝 버티고 서있었다.

그러자 악에 받친 경찰서장놈은 경찰들을 내몰면서 그를 생포하라고 떠들어댔다.

힘장수는 그러는 놈들을 내려다보며 태연하게 서서 웃고있었다.

경찰놈들은 서장놈의 강요에 못이겨 게걸음으로 엉기엉기 그를 포위하고 조여들었다.

힘장수는 끄떡도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떡 버티고 서있었다.

놈들이 서로 손을 맞잡을정도로 가까이 조여들자 《앗!》 하는 소리와 함께 또다시 힘장수는 가뭇없이 사라지고말았다.

경찰놈들은 악이 받칠대로 받쳤다.

놈들은 힘장수를 놓쳐버린것도 놓쳐버린것이지만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술법에 걸려들어 망신만 당했으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였다.

그리하여 경찰놈들은 인원을 더 늘이는 한편 마을사람들까지 모두 끌어내여 앞산을 둘러싸고 그 힘장수를 기어이 붙잡는다고 야단을 쳤다.

놈들이 법석 고아대며 앞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뒤줌되는 모래만 있을뿐 힘장수는 어디 갔는지 그림자도 없었다.

모두 기가 막혀 입을 하 벌리고 눈만 멀뚱거리고있는데 그래도 아는게 많다고 늘 뻐겨대던 경찰서장놈이 제 할애비에게서 들은 조선장수들에 대한 옛말을 떠올렸다. 급기야 놈은 《옳지, 바지가랭이에서 모래를 털어놓은것을 보니 하늘로 날아올라간것이 분명하다.》고 중얼대고는 더는 추격하기를 그만두고 되돌아서 꽁무니를 빼고말았다.

그후 쇠돌이는 백두산으로 들어갔다.

그도 백두산에서 천지물을 마시고 장수가 되였다. 그리고 그때 하늘로 날아올라간 그 힘장수와 함께 **김일성**장군님의 부하로 해방의 그날까지 용감히 싸웠다고 한다.

오를수 없는 봉우리

국력이 강대했던 고구려사람들은 백두산을 조종의 산으로 신성시하면서 백두산이 오른팔로 북쪽으로 힘차게 휘둘러 문지른것이 드넓은 벌이고 지혜로운 왼손을 남으로 뻗쳐 재주를 피운것이 반도 금수강산이라 하였다.

그러니 홍두산도 백두산이 그 지혜로운 왼손으로 재주를 피워 만든 산이 아닐가.

홍두산은 백두산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리 떨어진곳에 솟아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이 홍두산에서 20여명의 대원으로 500여놈의 일제침략군을 괴멸시켰으니 이 어찌 신비하지 않은가!

어떻게 스무나문의 유격대원들이 발톱까지 무장한 500여명의 왜놈들을 요정냈을가?

생각할수록 홍두산전투의 빛나는 승리는 이 산의 신비를 더해만 준다.

때는 1937년 겨울 어느날이였다.

이날따라 추위는 몹시도 맵짰다.

유격대를 추격하느라고 산판을 헤매다가 돌아온 《토벌》대장 스즈끼는 온몸이 꽁꽁 얼어 낯짝이 시퍼래서 자기 방으

로 들어섰다.

련 3일동안 잠시도 쉬지 못하고 온 산판을 다 뒤졌으나 유격대는커녕 그림자도 보지 못한 스즈끼《토벌》대장놈은 지칠대로 지쳤다.

방안에 들어서자마자 놈은 쓰러지듯 푹신한 쏘파에 주저앉았다.

일시에 더운 공기가 스즈끼의 온몸을 휩쌌다.

피곤에 몰린 스즈끼는 저도모르게 눈을 스르르 감았다.

《방금까지 있었다는 유격대는 모두 어디로 갔는가?》

눈을 지써 감은채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고있는데 따르릉 전화종소리가 다급히 울렸다.

《토벌》사령부에서 오는 전화였다.

《토벌》사령부에서는 **김일성**장군부대가 또 나타났으니 속히 출동하라는 벼락명령을 내리는것이였다.

(이번엔 내 기어이 무공을 세우리라!)

스즈끼는 졸병들을 끌고 또다시 유격대가 주둔해있다는 골짜기로 급히 달려갔다.

그런데 골짜기는 쥐죽은듯 고요하였다.

바람에 나무가지만 흔들릴뿐 사람은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았다.

(또 속은게 아닐가?)

스즈끼는 부대에 철수명령을 내리려고 하였다.

이때 하늘에서 오호홍!—하고 말울음소리가 울렸다.

머리를 들고 올려다보니 룡마 한필이 금빛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데 그우에 장수가 타고앉아 허연 수염발을 바람에 흩날리며 발아래를 굽어보고있었다.

스즈끼는 본능적으로 땅에 넙적 엎디였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룡마탄 장수가 손을 들어 땅을 가리키자 하늘에서 무수한 불화살이 비오듯 쏟아져내렸다.

《아이쿠! 아이쿠!》

불화살은 왜놈들을 무리로 쓸어눕혔다.

스즈끼의 머리우에서도 커다란 불뭉치같은 불화살이 내리 쏟아졌다.

《악—》

스즈끼는 비명을 지르며 벼랑밑으로 달려가 몸을 피했다.

그러나 옷자락엔 벌써 불이 당기기 시작했다.

스즈끼는 눈속을 마구 뒹굴며 옷에 당긴 불을 끄고는 황급히 불길속을 헤쳐나와 겨우 목숨을 건지였다.

《후유—》

사지에서 벗어난 스즈끼에게서 안도의 숨이 나갔다.

혼이 빠진 스즈끼는 그후 다시는 《토벌》에 나가고싶지 않았다.

불만 보아도 소름이 끼쳐 담배불마저 붙이지 못했다.

그런데 며칠후 《토벌》사령부에서는 또 전화가 걸려왔다.

와뜰 놀란 스즈끼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가까스로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를 든 그놈의 손은 점점 더 떨리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홍두산에 **김일성**장군이 나타났으니 그리로 출동하라는 명령이 또 떨어진것이였다.

이젠 **김일성**장군이란 말만 들어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몸

이 잘 움직여지질 않았다.

전번 《토벌》에서 졸병들을 모두 잃은 스즈끼는 더는 출동할수 없다고 우는 소리를 했다.

그러자 《토벌》사령부에서는 500여명의 예비대를 보내줄터이니 당장 홍두산으로 떠나라고 을러메였다.

스즈끼는 할수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억지로 예비대를 끌고 홍두산으로 떠났다.

홍두산기슭에 이른 스즈끼는 무서워서 자기는 산에 오르지도 못하고 졸병들만 내몰았다.

졸병놈들은 강요에 못이겨 눈먼 총을 쏘아대며 홍두산으로 기여올랐다.

허리를 치는 눈을 헤치며 기여오르자니 여간만 힘들지 않았다.

왜놈들은 한걸음한걸음 힘겹게 올라갔다.

홍두산은 해발 1,800메터로서 일년치고 겨울이 7~8개월은 계속된다는 몹시 춥고 바람 세찬곳으로 소문이 난곳이다.

왜놈들은 백포를 뒤집어쓰고 총신까지 흰 붕대를 감아 위장한 다음 세찬 눈보라를 리용하여 은밀히 산말랭이를 향해 기여올라갔다.

그런데 유격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사방은 쥐죽은듯 고요하였다. 스즈끼가 뒤꽁무니에서 슬금슬금 따라올라가는데 산으로 간신히 기여오르던 졸병들이 갑자기 쭈르르 미끄러져 지쳐내려오는것이였다.

《뭐야? 왜 내려오는가? 겁쟁이같은놈들!》

스즈끼는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졸병들을 다시 산꼭대기로 내몰았다.

그런데 기여오르던 졸병들은 이번에도 산중턱을 넘어서자 또다시 쭈르르 미끄러져 산아래로 지쳐내리는것이 아닌가! 올랐다간 미끄러져내리고 미끄러졌다간 또다시 기여올랐으나 역시 또 지쳐내려왔다.

웬일일가?

사방은 여전히 고요하기만하였다.

스즈끼는 이번엔 제놈이 직접 산으로 기여올랐다.

그러나 그놈도 산중턱을 조금 넘어서자 졸병놈들과 같이 쭈르르 미끄러져 얼음지치기를 하고말았다.

놈은 악이 나서 또 산으로 기여올랐다.

그러나 또 미끄러져내려왔다.

그러면그럴수록 놈은 더 기승을 부리며 졸병들을 내몰며 자기도 아득바득 기여올라갔다.

그러나 매번 영낙없이 미끄러져내려왔다.

어떻게 된 일인가? 도저히 영문을 알수가 없었다.

왜놈들은 기운이 진해지고 점점 정신까지 흐리마리해지기 시작했다.

놈들은 무엇에 홀린듯 네발걸음을 하며 홍두산으로 기여오르고 또 올랐다.

스즈끼와 졸병놈들은 나중엔 자기들이 유격대《토벌》을 왔다는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산꼭대기에만 올라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허우적거렸다.

그래서 거치장스러운 총을 집어던지고 머리에 얹은 쇠똥바가지(철갑모)도 벗어던졌다.

비틀비틀 엉금엉금 기여올라가는 그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였다.

더우기 산꼭대기로 기여올라갔다가 썰매타듯 미끄러져내려

가며 비명을 지르는 광경은 정말 꼴불견이였다.

놈들은 제풀에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살아남은놈들은 또다시 기여올라갔다.

그러다나니 나중엔 몇놈 남지 않게 되였다.

온종일 홍두산을 오르내리다나니 스즈끼도 끝내 게거품을 물고 쓰러져 골짜기에 처박히고말았다.

500여명의 왜놈들이 수라장을 만든 홍두산엔 어느덧 정적이 깃들었다.

동녘에 비꼈던 노을은 어느새 서쪽 하늘에 펼쳐졌다.

이때 홍두산꼭대기에서 갑자기 커다란 웃음소리가 수림을 흔들며 울려왔다.

김일성장군님과 유격대원들의 웃음소리였다.

장군님께서 대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인젠 저 산아래에 내려가서 왜놈들이 가지고 온 무기와 식량을 모두 거둬오시오.》

대원들은 산아래로 달려가 왜놈들의 무기와 배낭들을 거둬들였다.

지칠대로 지쳐버린 왜놈들은 유격대원들이 총과 배낭을 거둬가는것을 눈을 펀히 뜨고 보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지어 어떤놈들은 자기 무기를 두손으로 공손히 바치기까지 하였다.

이날 장군님께서는 신묘한 술법을 쓰시여 놈들을 하루종일 당겼다놓았다 하시면서 맥을 빼놓고 녹여내시였던것이다.

그때부터 홍두산은 《오를수 없는 봉우리》로 알려지게 되였다. 이고장사람들은 왜놈들을 보고 《오를수 없는 봉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야유하군하였다.

가랑잎타고 다니는 군사

되골령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마을에 포수로 가장한 왜놈밀정 한놈이 기여들었다.

이놈은 항일유격대의 행처를 알려고 개처럼 코를 킁킁거리며 밤낮으로 돌아쳤다.

마을과 산판을 가리지 않고 개 싸다니듯하던 밀정놈은 드디여 어느날 마을에 내려온 항일유격대공작원의 정체를 알아냈다.

《뭐라구?》

밀정의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놈은 제가 직접 경찰들을 끌고 밀정놈을 따라 마을에 달려들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방금 마을사람들앞에서 선동연설을 하던 그 대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모여섰던 사람들은 그날이 마침 봄을 즐기는 명절이라 한편에서는 윷놀이판을 벌려놓고 한편에서는 춤을 추면서 아닌보살을 하는바람에 헛물만 켜고말았다.

그래 일확천금을 꿈꾸던 밀정놈은 경찰서장에게 따귀만 보기좋게 몇대 얻어맞았다.

《네놈이나 누굴 놀리는가?》

그후부터 밀정놈은 그 분풀이를 하느라고 더 혈안이 되여 날뛰면서 밤낮 도적고양이새끼처럼 살금살금 마을을 싸다녔다.

그러던 어느날 밀정놈은 되골령의 밀림속에서 항일유격대

의 한 소부대를 발견하였다.

(옳지, 됐다. 이번에야 어쩔수 없지.)

이놈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경찰서에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서… 서장님! 저, 저 되골령에 유격대가…》

《이번엔 틀림이 없는가?》

《틀림없다마다요, 제… 제가 이 두눈으로 직접 보았는뎁쇼.》

《얼마나 많던가?》

《굉… 굉장히 큰 부대인데 아 … 아마 천명은 실히…》

그러자 서장놈은 저들만으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던지 린근에 둥지를 틀고있는 《토벌》대에까지 알렸다. 수천명의 병력이 되골령으로 몰려들었다.

놈들은 되골령을 몇겹으로 에워싸고 포위진을 쳤다.

포위진을 치고 되골령숲속으로 기여들던 놈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유격대가 있다던 숲속엔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았고 다만 눈덮인 흰 밀림만이 펼쳐져있을뿐이였다.

놈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눈만 멀뚱거리고있는데 갑자기 지동이 세번 일었다.

모두 놀라 소리나는쪽을 바라보니 안개가 자오록이 서렸는데 그것이 점차 벗겨지면서 장수 한분이 우렷이 나타났다.

그 장수의 기상은 보기만해도 무서운데 한번 소리치면 산이 무너져내릴것 같고 한번 칼을 휘두르면 하늘이 찢어질것만 같았다.

장수가 불이 펄펄 이는 눈으로 쏘아보자 놈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더 가까이 다가설념을 못했다.

장수는 땅을 쿵쿵 울리며 걸어나오더니 밀림을 향해 손을 세번 흔들었다.

그러자 밀림속엔 기치창검을 높이 들고 기세당당하게 서있는 수백명의 군사들이 나타났다.

왜놈들은 눈이 화등잔만해졌다.

장수는 숲을 향해 또 손을 세번 흔들었다.

그러자 이번엔 돌개바람이 일더니 수많은 가랑잎을 하늘높이 말아올리는것이였다.

무수한 가랑잎은 새까맣게 높이 떠서 하늘을 뒤덮었다.

놈들은 가랑잎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모두 일시에 《엉?》하고 소리를 내질렀다.

창검을 번쩍이는 군사들이 그 가랑잎을 타고 되골령마루를 날아넘어가는것이 아닌가!

《유격대가 가랑잎을 타고 날아간다!》

왜놈들은 아우성을 치며 돌아갔다.

날개달린 흰 룡마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른 장수는 저마다 꽁무니를 빼느라고 야단을 치는 왜놈들을 향해 《이놈들, 꼼짝말고 서라!》하고 하늘땅이 쩌렁쩌렁 울리게 소리를 쳤다.

그러자 죽을 힘을 다해 줄행랑을 놓던 왜놈들이 모두 그자리에 얼어붙고말았다.

《토벌》대놈들도 경찰놈들도 그리고 밀정놈까지도 모두 그자리에 얼어붙어 나무토막처럼 되여버렸다.

바로 그분이 **김일성**장군님이신데 그이께서는 돌로 굳어버린 왜놈들을 내려다보고 통쾌하게 웃으시였다.

백마를 타신 장군님과 가랑잎을 타고가는 군사들은 뭉게구름이 떠있는 맑고 푸른 하늘가로 훨훨 날아갔다.

백두산에서 날아온 불돌

백두산기슭에 자리잡은 어느 한 면소재지에서 있은 일이다.

작은 강을 옆에 끼고있는 그 면소재지는 당시 이 근방 면들가운데서는 꽤 큰편이였다.

그것은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한 후 제놈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강화되고 특히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가 백두산에서 맹활약을 벌리자 여기를 《토벌》요충지로 삼았기때문이였다.

왜놈수비대병영과 일제통치기관이 많이 자리잡고있었고 그에 따라 려인숙, 우편국, 농사시험장, 산림경영소까지 면소재지에 새로 생기게 되였다.

일제는 여기에다 또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새로 커다랗게 짓기 시작했다.

제놈들의 위세를 한번 뽐내보려는 심산에서였다.

왜놈들은 이 공사에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내몰았다.

새로 부임한 주재소소장 야마구찌놈은 순사들을 동원해서 열살도 채 못되는 소년으로부터 칠순이 넘는 늙은이들까지 끌어냈다.

어느날 일흔다섯살이나 되는 한 로인이 주재소지붕우에 올라가 일하다가 떨어져 죽는 참상이 벌어졌다.

그러나 야마구찌란놈은 본인의 《부주의》라고 하면서

《위자료》도 주지 않았을뿐아니라 장례도 치러주지 않았다.

면내 인민들은 격분하여 윽윽하였으나 맨주먹뿐이라 총쥔 왜놈들과 맞서 싸울수 없었다.

드디여 조선사람들의 원한이 사무친 주재소와 면사무소가 덩그렇게 일떠섰다. 성대한 락성식이 벌어져 군에서도 경찰서장놈과 군수까지 내려왔다.

야마구찌는 락성식에 모인 사람들앞에서 지껄여댔다.

《〈대일본제국〉을 위하는 면민들의 지성이 한데 합쳐져 우리 경찰관주재소와 면사무소가 훌륭하게 건설되여 오늘 이처럼 성대한 락성식을 보게 되는것은 참으로 우리 면의 크나큰 자랑이 아닐수 없다.…》

락성식이 끝난 후 야마구찌와 면장은 군경찰서장과 군수를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밤새껏 술추렴을 하였다.

그런데 그 이튿날 새벽 날이 푸름푸름 밝아올무렵에 주재소와 면사무소 그리고 야마구찌의 집에 불이 일었다.

《불이야!—》

술을 잔뜩 처먹고 뻐드러져 자고있던 경찰서장놈과 군수, 야마구찌와 면장은 불이 붙은 옷을 벗어던지고 맨 알몸뚱이가 되여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였다.

뒤늦게야 모여든 조선사람들은 발가숭이가 되여 미친듯이 덤벼대는 왜놈들의 꼴을 바라보며 속으로 쾌재를 올렸다.

눈깜빡할사이에 주재소와 면사무소 그리고 야마구찌놈의 집이 하늘로 날아나고말았다.

목조건물이라 그 자리엔 재만 남았는데 그것마저 바람에 날려가고 꼬부라진 못들만 댕그라니 여기저기에 널려있었다.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지어놓고 한번 으시대보려던 야마구찌와 면장놈은 오히려 경찰서장놈과 군수앞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하게 되

였다. 놈들은 화재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피눈이 되여 돌아쳤다.

그러나 아무리 수사진을 펴보았으나 원인을 알수가 없었다.

나중에는 군경찰서와 도경찰부에서까지 내려와 몇달을 두고 이 사건을 수사하였으나 종시 밝혀내지 못하고말았다.

야마구찌놈과 면장놈은 그 분풀이로 이번엔 전번보다 더 크게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짓기 시작했다.

물론 야마구찌놈의 집도 큼직하게 지었다.

이번에도 전번과 같이 락성식을 성대하게 하였다.

락성식에는 도에서까지 내려왔다. 락성식뒤엔 의례히 주연이 벌어졌다. 모든것이 전번과 다름이 없었다.

다만 다른것은 주재소와 면사무소 그리고 야마구찌의 집에다 겹겹으로 포위진을 치고 개미 한마리 얼씬할수 없게 경비를 세운것이였다.

그러나 그 이튿날 새벽 날이 푸름푸름 밝아올무렵에 주재소와 면사무소 그리고 야마구찌놈의 집에 또 불이 일었다.

왜놈들은 참으로 미칠지경이였다. 그처럼 물샐틈없는 경비진을 쳤는데 어떻게 동시에 불이 일어난단말인가?

이번엔 직접 군경찰서장놈이 세곳에 경비를 섰던 경찰관을 불러다가 취조를 하였다.

《네놈들의 눈이 뜸자리가 아닌 이상 바로 코앞에서 불이 일어났는데 방화자를 잡지 못한단말인가?》

그러자 주재소건물경비를 섰던 경찰놈이 얼나간 사람처럼 눈을 껌벅껌벅하며 대답했다.

《저… 저… 정말 무섭습니다. 하늘에서 불길이 황황 이는 불덩이가 떨어지는데 정말 어쩔수 없었습니다. 이건 하늘에서 내리는 벼락이올시다.》

경찰서장놈은 그놈의 말에 속이 섬찍하였으나 애써 태연한

체 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뭐라구?》

이번엔 면사무소의 경비를 섰던 경찰놈이 대답했다.

《마… 맞습니다. 면… 면사무소지붕에두 하늘에서 불돌이 와찌끈하고 떨어졌습니다.》

경찰서장놈은 눈앞이 아찔했다. 그럼 하늘에서 내린 천벌이란말인가!

이때 야마구찌놈의 집에 경비를 섰던 경찰놈도 《서… 서장님, 제… 제가 경비를 섰던 집에도 불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저 백두산쪽에서 날아내려오는 불덩이였습니다.》하고 얼혼이 나가 떠듬거렸다.

《뭐? 백두산에서?》

경찰서장은 무엇이 짚이는데가 있었던지 부랴부랴 꽁무니를 빼고말았다.

불이 붙은 날 밤 경찰놈들만 밤을 새운것이 아니였다.

면소재지사람들은 누가 자기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주재소와 면사무소에 불을 놓는지 알고싶었다. 그들도 자지 않고 지켰는데 분명히 백두산쪽에서 불돌이 날아내려오는것을 보았던것이다.

후에 불이 다 붙은 다음 재속을 파헤쳐보니 그안에 몇개의 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백두산에 있는 돌과 신통히도 같은것이였다.

마을의 좌상로인이 그 돌을 집어들고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불돌은 백두산의 장수가 집어던진것이 분명할세. 하늘에서 내려오신 장수이시니 우리 백성들의 심정을 알고말고, 그분이 아니시고야 누가 우리 마음을 알겠나.》

그후부터 이 면소재지에 다시는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짓지 못했다. 놈들은 다음해에 할수없이 면소재지를 다른곳으로 옮기지 않을수 없었다.

눈이 있는 총알

김일성장군님께서 무산지구에 진출하시여 왜놈들을 족치신 이후 이 일대에서는 많은 전설들이 생겨났다.

장군님께서 파견하신 7련대가 신개척을 들이쳤을 때 후방조성원들과 함께 물자운반을 도와나섰던 처서군들속에서는 《눈이 있는 총알》에 대한 전설이 전해졌다.

한 마을에 머슴을 사는 무학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어느날 그는 나무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쉴참에 같이 온 나무군들한테서 귀가 번쩍 열리는 말을 들었다.

축지법을 쓰시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것이다.

장군님께서 한걸음에 천리를 달리시고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으시며 쑥대 한가치로 태평양을 건느신다는 말에 무학이의 마음은 자꾸만 백두산으로 향했다.

어서 장군님부대에 들어가 축지법을 배우고싶었던것이다.

그는 축지법을 배워서 무엇보다도먼저 자기를 못살게 구는 지주놈을 요정내고싶었다.

그리고 언젠가 자기에게 생트집을 잡아 따귀를 붙이고 마을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 털보왜놈순사를 쳐없애고싶었다.

무학은 자나깨나 늘 백두산으로 갈 생각만하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무학은 백두산을 찾아 길을 떠났다.

험한 산발을 타고 북으로 올라가던 무학은 드디여 백두산이 가까이 바라보이는 높은 산마루에 올라섰다.

흰눈을 머리에 인 백두산이 구름을 치뚫고 거연히 솟아있었다.

무학은 잠간 숨을 돌리고는 또 인차 길을 떠났다.

얼마를 걸어가니 바람결에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다.

무슨 약 달이는 냄새같기도 하고 향긋한 꽃내같기도 하였다.

무슨 냄샐가?

맡으면맡을수록 페부가 시원해지는것이였다.

그리고 온몸에 힘이 솟는것 같았다.

무학은 이상한 그 냄새를 한껏 들이키며 그냥 앞으로 걸었다.

얼마쯤 가니 빨간 꽃이 가득 핀 넓은 산삼밭이 나졌다.

《야!— 산삼!》

무학은 정신없이 달려가 산삼을 캐기 시작했다.

캐는것마다 어린아이 팔목만큼 굵은데 모두가 몇백년씩은 묵었을것들이였다.

무학은 산삼을 한보따리 캐서 등에다 짊어지고 계속 길을 걸었다.

얼마쯤 걸어가니 바람결에 또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다.

마늘냄새였다. 바로 눈앞에 대가 팔뚝만큼씩 굵은 마늘이 밀림처럼 가득 들어찬 마늘밭이 펼쳐져있었다.

무학은 거기서 밥바리만큼씩한 마늘 세개를 캐서 보따리에

넣고 또 걷기 시작했다.

얼마쯤 가니 이번엔 발길에 무엇인가 나무가지같은것이 걸리는것이였다.

들어보니 나무가지가 아니라 사슴의 뿔이였다.

《야! 록용이로구나!》

주위를 살펴보니 그렇게도 귀한 사슴뿔이 산지사방에 널려있는것이였다.

어떤것은 방금 떨어진것인지 뿔에 솜털이 보르르한게 윤기가 흐르고있었다.

무학은 그중에서 제일 생신한것 세틀을 골라 보따리에 싸넣었다.

무학은 보따리를 짊어지고 또 길을 떠났다.

집을 떠난지 꼭 아흐레만에 백두산꼭대기에 이른 그는 거기서 방금 어디론가 떠나시려는 장군님을 만났다.

《장군님! 저는 지주집에서 머슴을 사는 무학이라는 사람입니다. 축지법을 배워 왜놈과 지주놈을 쳐없애고저 하오니 저에게도 그 신기한 술법을 배워주십시오.》

무학은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렇게 청을 드렸다.

그리고나서 장군님앞에 오면서 캔 산삼과 마늘과 록용을 내놓았다.

장군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감사하게 받으셨다.

장군님께서는 무학에게 지금 왜놈치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가자고 하시면서 그에게 총 한자루를 안겨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총알을 재우고 방아쇠를 당기는 방법을 배워주시였다.

그리하여 무학은 그날로 장군님을 따라 왜놈치는 싸움에

참가하게 되였다.

장군님의 부대는 고개 세개를 넘어서자 수천명의 《토벌》대놈들과 맞다들게 되였다.

장군님께서는 친히 대원들에게 총알을 나누어주시더니 진지를 차지하고 왜놈들을 소탕하라는 명령을 내리시였다.

무학이도 다른 대원들처럼 바위뒤에 몸을 숨기고 장군님께서 주신 총알을 재우고 왜놈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땅!》

난생처음 쏘아보는 무학이의 총에서 총알이 씽—하고 날아나갔다.

그러자 왜놈 한놈이 아이쿠! 하고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다.

무학은 또 총알을 재웠다.

그리고 왜놈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아이쿠! 하고 왜놈 한놈이 또 나가자빠졌다.

(내가 정말 이렇게 총을 잘 쏘는가?)

무학은 자기가 쏘는 총알이 매번 다 명중하게 되자 부지중 이런 의문이 생겼다.

그러나 쏘면쏠수록 백발백중이였다.

무학은 점차 자신심이 생기고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지였다.

무학은 사기충천해서 있는 총알을 다 쏘았다. 쏠 때마다 왜놈들은 하나씩 틀림없이 죽어자빠졌다.

아니 어떤 땐 한 총알에 두놈, 세놈씩 맞아쓰러지기도 했다.

있는 총알을 다 쏘았어도 왜놈들은 그냥 악착스럽게 달려들었다.

무학은 총알이 떨어지자 어떻게 할가 하고 잠시 궁리하

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왜놈들도 더 총을 쏘지 못하는 것이였다.

왜놈들의 총구멍이 모두 막혀버린것이였다.

장군님께서 술법을 쓰시여 왜놈들의 총구멍을 모두 틀어막으신것이다.

무학은 도망치는놈들을 쏘아눕히고싶었으나 총알이 떨어져 어쩔수없어 안달아하다가 죽어넘어진 왜놈한테서 총알을 가져다가 쏘고 또 쏘았다.

그런데 웬일인지 왜놈을 한놈도 명중시킬수 없었다.

한쪽 눈을 지그시 감고 아무리 겨냥을 잘하고 쏘았으나 모두가 빗나가고말았다.

무학은 여기저기 자꾸만 쏘아댔다.

어느덧 다른 대원들이 왜놈들을 거의다 쏘아눕히고 나머지는 달아나고말았다. 싸움이 끝난것이였다.

(이상한데. 아까는 잘 쏘았는데 왜 이번엔 맞지 않을가?)

그는 전투가 끝난 다음에야 그 원인을 알게 되였다.

장군님께서 주신 총알과 왜놈들의 총알은 꼭같은것 같지만 실은 영 다른것이였다.

장군님께서 주신 총알에는 눈이 있었던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신입대원이라 해도 장군님께서 주신 총알을 재우고 총을 쏘면 누구나 백발백중하는것이였다.

그때부터 무학은 장군님께서 주신 총알로 한방에 왜놈을 세놈, 다섯놈씩 쏘아눕혔다고 한다.

놀림받는 순사놈들

김일성장군님 항일유격대가 보천보를 들이친 후 인민들속에서는 왜놈순사들을 비웃는 새로운 말들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왜놈순사들을 가리켜 《북데기순사》, 《베개통순사》, 《염소순사》, 《벙어리순사》라고 놀려대였는데 그런 말이 나오게 된데는 그럴만한 연고들이 있다.

1. 《북데기순사》

아홉살난 칠성이는 매우 똑똑하고 령리한 애였다.

나이는 어리지만 부모님들의 일손을 곧잘 도와주었고 눈치가 빨라 동네어른들의 사랑을 받았다.

석자 막대기를 휘둘러도 걸칠것이 없는 궁한 살림이 칠성이에게 일찍 지각이 들게 했는지도 모른다.

어느해 여름밤 칠성이는 동네애들과 늦도록 술래잡이를 하며 밖에서 놀고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총소리가 한방 울리더니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는지 우편국, 농사시험장의 지붕에서 불길이 치솟아오

르는것이였다.

여기저기서 총소리가 울리고 잠에서 깨여난 사람들이 거리로 떨쳐나섰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가 보천보를 들이친것이였다.

칠성이도 마을어른들을 따라 거리로 나갔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

누군가가 웨쳐대는 구호를 따라 함께 소리치며 칠성이는 사람들이 모여선 넓은곳으로 갔다.

사람들이 가득 모인 마당에서 키가 작은 칠성이는 연설하시는 **김일성**장군님을 뵈올수가 없었다.

섭섭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칠성이는 돼지우리가 있는 쪽에서 별스레 꿀꿀대는 소리를 들었다.

칠성이는 돼지물을 준지가 오랬다는 생각이 들어 부엌에 들어가 뜨물을 퍼가지고 우리로 다가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한마리밖에 없던 돼지우리안에 난데없이 또 한마리의 엄지돼지가 있는것이였다.

칠성이는 아마도 누구네 집 돼지가 총소리에 놀라 우리를 뛰쳐나왔다가 여기에 들어온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주인이 찾을 때까지 너도 먹어라.》

칠성이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돼지물을 쏟아주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돼지》는 북데기속에서 나올념을 하지 않았다.

칠성이는 막대기로 그 《돼지》의 잔등을 꾹꾹 찔러대며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돼지》는 북데기속으로 점점 더 깊이 대가리를 처박는것이였다.

그러는사이에 아버지며 동네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왔다.

칠성이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뉘집 돼지인지 나가보자꾸나.》

칠성이 아버지는 광솔불을 켜들고 돼지우리로 나갔다.

낯선 돼지는 북데기로 온몸을 다 가리워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막대기로 검불을 들추고 《이놈의 돼지, 겁두 많다.》하며 잔등을 가볍게 때렸다.

그러자 북데기속에서 《꿀꿀》하는 소리가 났다.

《이것 봐라. 거참 별난놈이로군.》

칠성이 아버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또 한번 잔등을 때렸다. 또 《꿀꿀》소리가 나는데 분명히 돼지소리는 아니였다.

그는 광솔불을 더 가까이 대고 북데기를 헤치다가 흠칫 놀랐다. 때를 같이하여 순사 한놈이 벌떡 일어나 우리를 뛰쳐나갔다.

유격대총알이 무서워 숨을곳을 찾아헤매다가 칠성이네 돼지우리속으로 기여들어갔던 순사놈이였던것이다.

순사는 그후에 정신이 아예 나가 돼지처럼 계속 꿀꿀거리면서 북데기속에만 기여들었는데 그 병을 종시 고치지 못했다.

자기 녀편네와 말할 때도 꿀꿀거리였고 제 집 아이와 말할 때도 꿀꿀거리였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사람들은 왜놈순사들을 가리켜 《북데기순사》라고 비웃군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순사놈이 돼지처럼 꿀꿀거린다고 하여 《돼지순사》라고도 놀려주었다.

2. 《베개통순사》

보천보에서 녹아난 일제놈들은 부랴부랴《토벌》대를 무어가지고 압록강을 건너 **김일성**장군님부대를 뒤쫓아갔다.

그러나 놈들은 구시산에서 항일유격대한테 또 한차례 불벼락을 얻어맞고 녹아났다.

그때 구시산중턱에까지 기여올랐다가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도망쳐온 한 왜놈순사가 있었는데 이놈은 주재소에 돌아와 소장놈을 보자마자 엉겁결에 《유격대가 온다!》고 정신없이 소리쳤다.

그 말에 질겁한 소장놈은 외마디소리를 지르더니 저먼저 살겠다고 뒤문을 박차고 내뛰였다.

소장놈이 내뛰는바람에 방에 구겨박혀있던 순사놈들은 《유격대가 온다!》고 받아외우면서 이리뛰고 저리뛰며 갈팡질팡 저들의 집들로 달려가 물건짝들을 들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한 순사놈은 정신없이 집을 뛰쳐나오다가 무슨 생각이 났던지 다시 집으로 들어가 무엇인가를 그러안고 황급히 뒤산으로 내뛰였다.

이놈에게는 갓난애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제 애새끼만은 버리고 달아날수 없었던지 다시 집으로 들어가 포대기에 싼것을 안고나온것이다.

그런데 이놈은 한참 뛰다가 자기가 안고온것을 보더니 그만 풀썩 주저앉고말았다.

너무도 겁에 질려 정신없이 덤벼치다나니 아이를 안고 나

온다는것이 베개통을 안고 나왔던것이다.

놈은 다시 그 베개를 안고 집으로 내리뛰였다.

집안에 들어간놈은 헤덤비며 《아이》를 포대기에 싸안고 산으로 달려올라갔다.

산으로 한참 올리뛰던놈은 포대기가 축축히 젖어옴을 느끼자 아이가 오줌을 싸는거라고 생각하고 멈춰서서 포대기를 풀어헤쳐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자기는 분명 아이를 안고 올라왔는데 포대기에는 제놈이 늘 술을 받아다 먹던 대두병이 싸여있는것이 아닌가.

술냄새가 확 풍겼다.

마개가 빠지면서 그안에 있던 술이 쏟아진것이였다.

《아이쿠!—》

놈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여 울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왜놈순사놈들에게는 《베개통순사》 또는 《대두병순사》라는 별명이 하나 더 따라다니게 되였다.

3. 《염소순사》

보천보와 구시산에서 호되게 얻어맞은 왜놈들은 겁에 질려 벌벌 떨며 《인젠 망했구나!》하면서 간이 콩알만해 있었다.

어찌나 바빴던지 경찰놈들은 제놈들의 경찰옷도 입지 못하고 사민옷을 입고 다녔다.

놈들은 검은 경찰옷을 입는것이 마치도 범골에서 개가죽을 쓰고다니는것과 같은격이라는것을 알았기때문이였다.

긴칼을 차고 다니는 놈들이였지만 해가 저물기도전에 집안에 들어박혀 밖에 대가리도 내밀지 못했다.

더우기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가 둔갑변장술에 능하여 풀대로도 변하고 바위로도 변하는가 하면 백발로인과 아낙네로도 변신한다는 소문을 들은뒤라 왜놈들은 얼이 쑥 빠졌다.

어떤놈들은 국경부근에 있다가는 귀신몰래 죽는다고 하면서 국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곳에 자리를 옮기거나 아예 자기 고향땅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거짓진단서와 사직서를 내는가 하면 녀편네와 아이들을 일본으로 보내는 등 소동을 일구었다.

하루는 운흥경찰관주재소에 있던 다니구찌와 마사오까라는 두 왜놈경관이 남양동으로 나가다가 길옆에 세워놓은 짚단이 움씰거리는것을 보고 와뜰 놀라 그자리에 멈춰섰다.

《마사오까상, 저게 뭔가?》

다니구찌가 눈이 휘둥그래서 묻자 《유격대가 아닌가?》하고 마사오까가 겁먹은 소리로 말했다.

두놈은 눈을 부릅뜨고 움씰거리는 짚단을 자세히 보았다.

짚단에서 유격대가 당장 달려나와 제놈들을 덮칠것만 같았다. 겁에 질릴대로 질린 놈들은 거의 동시에 《유격대다!》하고 미친듯이 소리치며 짚단을 향해 총을 쏘아댔다.

땅, 땅! 총소리와 함께 매애애 하는 염소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달려가보니 짚단옆에 총에 맞아 피를 흘리는 염소 한마리가 쓰러져있었다.

《이게 뭔가? 유격대가 염소로 변신한게 아닐가?》

《글쎄, 그렇지 않으면 금방 있던 유격대가 어디로 갔겠는가?》

둘은 서로 마주보며 뻥해있었다.

그때 그놈들이 쏜 총소리를 듣고 주재소소장이 달려왔다.

《뭔가?》

《소장님, 염소로 변신한 유격대를 잡았습니다.》

《음— 그런가!》

소장은 입이 헤벌쭉해서 염소를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바로 며칠전에 잃어버린 자기네 염소가 아닌가? 목에 매단 방울을 보아도 자기네 집 아이새끼가 달아준것이 분명하고 코구멍우에 난 까만 무늬를 보아도 틀림이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마을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였는데 나중에는 소장의 녀편네와 아이새끼까지 오게 되였다.

소장녀편네와 아이새끼는 염소를 보자마자 대번에 자기네 집 염소라고 하면서 그것을 쏘아죽인 다니구찌와 마사오까에게 달려들어 행악질을 하였다.

아이새끼는 염소를 당장 살려내라고 떼질을 썼다.

《멍텅구리같은놈들! 직속상관의 염소도 몰라보는가?》

화가 치민 소장은 두 경관의 볼따귀를 철썩철썩 갈기였다.

《아이쿠!》

《어이쿠!》

두 경관놈은 불을 싸쥐고 돌아갔다.

한옆에서는 소장의 녀편네와 아들이 달려들며 염소를 살려내라고 계속 아우성쳤다.

울음소리, 신음소리, 욕지거리, … 참으로 보기드문 광경이였다.

모여왔던 마을사람들은 입이 쓰거워서 돌아섰다.

《허, 망조가 들었군. 염소보다도 못한것들!》

그후부터 인민들은 그놈들이 나타나면 《염소순사》라고 하면서 수군수군 비웃었다.

그러나 한 짓이 있는지라 그놈들은 못들은척하고 지나쳐버리군했다.

4. 《벙어리순사》

왜놈군대나 경찰놈들이 입으로는 야마도다마시이를 부르짖지만 사실은 세상에 둘도 없는 비겁쟁이들이다.

보천보전투가 있은지 며칠 안되는 어느날이였다.

백두산기슭에 있는 어느 한 마을에 경찰관주재소 소장이 나타나 일장 훈시를 하였다.

《〈공비〉들이 주야로 출동하여 면민들의 생활을 괴롭히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본관은 전심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경찰들의 노력만으로는 <안민촌>을 유지하기

어려운즉 적극 협력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더우기 야간활동에 능한 유격대와 맞서는것은 죽기를 바라는것과 같은것이니 이제부터 일체 야간통행을 금지하고 이를 엄격히 단속할것이다.》

그로부터 며칠후 요시다라는 왜놈순사가 야간통행검열을 한답시고 이 마을에 나타났다.

요시다는 악질적인 순사로 소문이 자자한놈이였다.

마을청년들은 이놈을 한번 혼쌀내줄 잡도리를 하고 어느날 밤 짜고들어 길목을 지키고있었다.

자정이 지나자 이놈이 나타났다.

그러자 한 마을청년이 나타나 다짜고짜로 《이놈, 밤중에 절대로 다니지 말라고 주재소 소장님이 말했는데 네놈은 무엇이길래 아닌밤중에 개싸다니듯 돌아치는거야.》하고 따지면서 동무들과 함께 놈을 죽탕이 되도록 때려주었다.

그러고난 마을청년들은 순사놈을 질질 끌고 주재소에 찾아가 소장에게 말하기를 《소장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나쁜놈을 잡아왔습니다.》하였다.

소장은 기가 막혔다.

이전같으면 이 청년들을 붙잡아서 단단히 혼을 내주겠지만 보천보전투후에는 감히 무서워서 어쩌지 못했다.

왜놈순사는 매를 실컷 맞고도 말 한마디 변변히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요시다순사가 그후부터는 정말로 벙어리가 되여 아무말도 못하게 된것이다.

왜 벙어리가 됐는지 그것은 누구도 몰랐다.

《호박풍년이 들었다》

백두산에서 서남쪽으로 얼마를 내려가면 태고연한 밀림이 펼쳐진 평평한 서강고원이 펼쳐져있다.

그 고원지대에는 마치 바다의 섬과도 같이 우뚝 솟은 간삼봉이라는 세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와 더불어 수많은 전설들이 전해지고있다.

그가운데는 당시 왜놈들의 패망상을 야유하여 많이 돌아가던 《호박풍년이 들었다》는 전설도 있다.

어느날 왜놈 제19사단소속 함흥 74련대 김석원놈은 서울로 올라오라는 조선주둔군 사령관의 명령을 받았다.

(왜 나를 부를가?)

김석원놈은 영문을 몰라 두루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 전날밤 참으로 피이한 꿈을 꾸었다.

난데없이 황소만한 돼지가 꿀꿀대며 자기네 집대문으로 들어서는 꿈이였다.

김석원놈은 먼길을 떠나기전날 밤에 꾼 꿈이 길흉화복을 예고하는 신의 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해몽을 잘한다는 어느 늙은 소경을 불러들였다.

석원의 말을 다 듣고난 소경은 륙갑을 하고 주문을 외우는지 손가락을 곱작거리며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허허, 매우

좋은 꿈이올시다. 이제 서울로 올라가면 이름도 모르는 산과 바다의 진미를 다한 진수성찬으로 대접을 받을거웨다.》하고 말했다.

석원의 입이 귀밑까지 돌아갔다.

(어제밤 꿈이 맞아떨어지는가보다. 그러면 그렇겠지, 아무렴 내 운수가 나쁠수야 있나.)

이놈은 기분이 둥 떠서 서울로 올라갔다.

서울에 올라간 김석원은 정말로 조선주둔군 사령관한테서 《대일본제국》에 충실한 《공로》로 앞가슴에 훈패를 받아안았고 게다가 진수성찬으로 후한 대접까지 받았다.

그후 한달이 좀 더 지나 이번엔 김석원놈은 일본 도꾜에 있는 대본영으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전날밤에도 김석원놈은 또 꿈을 꾸었는데 전번과 꼭같이 황소만한 돼지가 꿀꿀거리며 자기네 집 대문으로 들어서는것이였다.

김석원놈은 해몽을 잘한다는 그 소경을 또 불러들였다.

소경은 김석원의 말을 다 듣더니 이번엔 륙갑도 하지 않고 중얼거림도 없이 대번에 이렇게 말했다.

《이번 꿈 역시 좋은 꿈이올시다. 일본으로 건너가면 대본영의 장군들이 반겨맞아줄것인즉 아마 이번엔 비단옷감이 여러벌 생길것이웨다.》

김석원놈은 저절로 입이 벌어지는것을 어쩌는수가 없었다.

그날로 김석원놈은 일본을 향해 길을 떠났다.

김석원놈은 소경의 말대로 대본영에서 후한 대접까지 받고 여러가지 비단옷감들까지 가지고 돌아왔다.

그후 마음이 즐거워진 석원놈의 입에서는 흥얼흥얼 노래가

끊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석원놈은 항일유격대에 대한 《토벌》을 위해 장백으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날밤 김석원놈은 또 꿈을 꾸었다.

이번 꿈에 역시 또 돼지가 나타났는데 전번과는 달리 그 황소만한 돼지가 꿀꿀거리며 호박밭에서 호박을 먹는 꿈이였다.

(이번 길에도 역시 좋은 일이 생길것이다.

돼지가 호박까지 먹는 꿈을 꾸었으니 이 아니 좋으냐!)

흐뭇해진 김석원놈은 이번엔 아예 소경을 불러 해몽하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너무도 뻔하지 않은가.

김석원놈은 벌써부터 《토벌》에서 무공을 세우고 돌아올 자신을 그려보며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

다음날 함흥역전광장에서는 장백으로 《토벌》을 떠나는 함흥 74련대 《토벌》대놈들을 위해 요란한 의식이 벌어지였다.

일제는 74련대 《토벌》대장인 김석원놈을 고무해주느라고 함흥시민들을 강제로 끌어내여 《토벌》대의 소위 《장행회》라는것을 벌려놓았던것이다. 말하자면 《토벌》을 떠나는놈들을 전송해주는것이였다.

김석원놈은 상전이 쥐여준 긴칼을 차고 쇠똥바가지같은 철갑모를 눈섭밑까지 내리쓰고 《무운장구》라고 쓴 멜띠를 어깨에 두르고 일본놈의 군기앞에서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였다.

놈은 지껄여댔다.

《내 이번에 가면 유격대를 잡아가지고 온다. 모두 기다리라! 그리고 보라,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 어떻게 오는가를! 제군들은 반드시 유격대를 보게 될것이다!》

열병든놈의 헛소리같은 희떠운 소리를 줴친 김석원놈은 곧 졸병들과 함께 함흥역을 떠났다.

《토벌》대의 기세는 흡사 갈가마귀가 하늘중천에 치솟아 오르는것과도 같았다.

혜산에 이른 김석원놈은 국경수비대놈들을 모아놓고 또 한바탕 지껄여댔다.

《…너희들은 이번에 내가 령솔하는 정예부대가 얼마나 훌륭한 전투를 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기염을 내뿜은놈은 살기등등하여 압록강을 건너갔다.

장백현에 이르자 이번엔 또 위만군과 산림경찰대놈들을 모아놓고 지껄여댔다.

《너희들은 이번 전투에서 〈대일본제국〉 군인의 위풍을 보게 될것이다.》

이렇게 이놈이 이르는곳마다에서 흰소리를 치며 위세를 돋군것은 자기의 그 허황한 꿈을 할애비보다 더 믿었기때문이였다.

놈은 대병력을 이끌고 13도구를 지나 우거진 숲길을 헤치면서 간삼봉밀에까지 기여들어갔다.

살기등등한놈의 꼴은 하늘의 별이라도 딸것 같은 기상이였다.

간삼봉은 참으로 묘하게 생긴 봉우리였다.

간삼봉의 남쪽은 백바위이고 북쪽은 두루봉인데 부후물이 봉우리기슭을 감돌아흐르고있었다.

그리고 주변은 망망한 숲바다를 이루고있기때문에 공격해 들어가기엔 참으로 불리한 고장이였다.

놈은 신출귀몰한 유격대와의 첫 싸움에서 된매를 맞았다.

유격대는 한명도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산지사방에서 총알이 비발치듯 쏟아졌다.

게다가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고 노래소리가 우렁차게 골짜기를 울리였다.

놈은 정신이 얼떨떨해졌다.

몇번 돌격을 시도해보았으나 그때마다 매번 언 발로 바위 차는격이였다.

(어디에 유격대가 있는가?)

김석원놈은 량손으로 머리를 싸쥐였다.

앞으로 돌격하면 그 길이 곧 저승길이요, 우회를 하면 그 길이 곧 함정이라 어디로 어떻게 헤치고 돌격하면 좋을지 몰라 놈은 갈팡질팡하였다.

악에 받친 놈은 연신 긴칼을 뽑아 내휘두르며 돌격에로 졸병들을 내몰았다.

그러나 역시 헛일이였다.

놈은 부랴부랴 참모들을 불러다가 졸병들의 사기를 회복하여 다시 공격에로 내몰 궁궁이를 벌리려고 련락병을 불러댔다.

바로 이때 탄알이 날아와 그놈의 오른다리를 꿰뚫고나갔다.

《악!》하는 짐승의 소리같은 비명을 지르며 김석원놈은 그 자리에 풀썩 꺼꾸러졌다.

다리에서 검붉은 피가 콸콸 쏟아졌다.

놈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어디를 보나 왜놈의 시체뿐이였다.

겨우 살아남은놈들은 모조리 내뛰고있었다.

총을 버리고 칼도 버리고 두주먹만 쥐고 죽을판살판 모르고 도망을 치는 졸병들의 꼴을 지켜보고있던 석원놈은 《아—마지막이구나.》하고 비명소리를 지르더니 자기도 피를 줄줄 흘리며 비에 젖은 간삼봉의 오솔길로 내빼고말았다.

이번엔 자기의 그 돼지꿈이 전혀 맞지 않았다.

좋은 일은커녕 목숨도 건지기가 바빠났다.

공을 세우고 출세를 하는것은 살아난 다음에나 있을 일이고 목전에 죽음이 와닿았으니 도망을 쳐서 우선 살고봐야겠다고 놈은 악을 쓰며 내뺐다.

졸병들의 틈에 끼워 아득바득 도망치던놈은 항일유격대의 총소리가 좀 뜸해지자 가쁜 숨을 쉬면서 한 소나무에 기대섰다.

이놈은 이제야 죽을 고비를 겨우 면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머리를 푹 떨어뜨리고 절망적인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 함흥역을 떠날 때는 2,000여명의 싱싱한 대부대를 끌고왔는데 남은놈들은 대개가 다리가 부러진놈, 팔이 떨어져나간놈, 그나마도 겨우 500명 되나마나하였다.

위만군놈들이 죽은것은 젖혀놓고도 왜놈들만 1,500명이나 죽어자빠졌으니 정말 김석원놈은 눈깔이 뒤집혀질 지경이 되였다.

(꿈자리가 좋았는데 이번엔 왜 두들겨맞기만할가?)

놈은 꿈에 돼지를 본것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이 꼴이 되고보니 환장할 지경이였다.

이제는 더 어쩌는수없이 송장들이라도 끌고가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송장을 끌고가자니 그것이 하도 많아서 운반할 도

리가 없었다.

한참 머리를 앓던놈은 묘한 생각을 해냈다.

(죽은놈의 대가리만 잘라서 싣고가자.)

그놈은 곧 살아남은 졸병들을 시켜 죽어자빠진놈들의 목을 자르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놈들은 죽은놈들의 목을 쳐서는 둥글둥글한 대가리들만 마대에다 여러개씩 한꺼번에 넣었다.

놈들은 그 자루를 낑낑거리며 산비탈로 끌고내려왔는데 넓은 길에 들어서자 맥이 풀려서 더 걸을수가 없었다.

그래서 놈들은 그 지방의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시켜 그것을 나르게 했다.

여름철이라 역한 송장내가 코를 찔렀다.

놈들은 자루의것이 송장의 대가리라는것을 극비에 붙였다.

한 농민이 아무렇게나 처실은 마대짐을 가리키면서 경비병에게 넌지시 물었다.

《아니, 이게 뭡니까?》

경비병은 시끄럽다는듯 생각나는대로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보면 몰라? 호박이야, 호박이란말이야.》

농민은 눈을 크게 뜨면서 놀라와하는 눈길로 다시 물었다.

《아니, 사람이 먹는 호박말입니까?》

놈은 또 그렇다고 대답했다.

농민은 신기하다는듯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을수 있게 큰소리로 중얼거렸다.

《거참 모를 일인데요. 군대어른들이 간삼봉에서 호박농사를 짓는걸 난 보지 못했는데…》

그러자 졸병놈은 다급하게 대답했다.

《어이, 어이. 우리나 호박농사 지었다, 지었어!》

농민은 그 말을 짐짓 감탄하듯 받았다.

《예,— 거 호박농사가 굉장히 풍년이웨다.

그런데 이렇게 우차까지 내여 실어주니 우리에게도 호박 몇개쯤은 있겠수다?》

바빠맞은 그놈은 당황하여 《아니다. 이건 특수호박이다. 특수호박!》하며 달구지를 빨리 몰라고 고아댔다.

달구지군들은 서로 눈들을 끔뻑거리며 이야기했다.

《간삼봉에 호박대가리풍년이 들었군!》

《글쎄 줄창 호박대가리풍년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소!》

김석원놈은 농민들이 하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뭐, 호박대가리풍년?》

놈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챘다.

그러나 놈은 농민들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자리를 뜨고 말았다.

그리하여 기세충천하던 김석원의 《토벌》대는 죽은 대가리만 가득 처싣고 돌아오게 되였다.

함흥역두에서는 승전의 환영곡대신 《호박대가리》를 맞이하는 장송곡이 울렸다.

김석원놈은 돌아오자마자 해몽을 해준 그 늙은 소경을 불러들여 푸념을 하였다.

《꿈에 돼지를 보면 좋다고 했는데 왜 이번엔 이 꼴이 되였는지 말 좀 하오. 장백으로 떠나기 전날밤에도 난 돼지가 호박을 먹는 꿈을 꾸었단말이요.》

《허허, 날 탓하지 마시우다. 난 첫번째 꿈과 두번째 꿈은 해몽을 해주었지만 세번째는 해몽을 하지 않았수다.》

《뭐요? 세번째 꿈에도 같은 돼지가 나타났는데 그건 다르단말이요?》

놈은 소경의 말이 믿어지지 않아 이렇게 되물었다.

《다르지 않구요. 세번째 꿈에도 돼지가 나타난것은 매우 불길한 꿈이올시다.》

소경은 태연하게 말했다.

《처음 꿈에 돼지가 나타나 대문으로 들어오며 꿀꿀거린것은 배가 고프다는 뜻이니 먹을것을 달라는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처음 꿈에 돼지가 나타난것은 먹을것이 많이 생길 조짐이요, 두번째 꿈에 돼지가 나타나 꿀꿀거린것은 배는 부른데 춥다는 뜻이니 북데기를 씌워달라는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두번째 꿈에 돼지가 나타난것은 옷감이 많이 생길 조짐이요, 세번째 꿈에 돼지가 나타나 꿀꿀거리는것은 배도 부르고 잠자리도 따뜻한데 그냥 꿀꿀대니 주인이 매를 들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세번째 꿈에 돼지가 나타난것은 얻어맞을 조짐이란말이요. 게다가 돼지가 호박을 먹으니 예로부터 호박쓰고 돼지우리에 들어간다고 그만큼 위험천만한 일이 있을것이라는 예고이니 꿈자리가 나쁘면 이보다 더 나쁘겠소?》

김석원놈은 더 할 말이 없었다.

《그러니 꿈이 얼마나 신통한가. 하늘이 낸 천하명장 **김일성**장군이 이끄시는 항일유격대와 맞서지 말라는 신의 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늘의 뜻을 거역하였으니 이런 벌을 받은것은 응당한 일이로구나.》

이때부터 우리 인민들은 왜놈들을 야유하여 《호박풍년이 들었다》는 말을 즐겨 쓰게 되였다.

벼락맞은 구장

항간에 백두산장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가던 때 있은 일이다.

어느 마을에 마음이 어지고 순박한 문순이라는 총각이 살고있었다.

그는 3대외아들이였는데 얼마전에 목재소에서 이와실이를 하던 아버지가 통나무에 깔려죽는바람에 홀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였다.

마을에서는 문순이를 귀머거리총각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그가 어렸을 때 가는귀를 먹어 작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크면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저절로 귀가 열렸으나 마을사람들은 그냥 어려서 부르던 별명을 그대로 불렀다.

어머니는 남들이 문순이를 보고 귀머거리총각이라고 부르는것이 듣기 싫었다.

그런데 그 귀머거리라는 별명의 신세를 지게 될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당시 이 마을 구장은 심술이 사납고 마음이 고약하기로 소문이 난놈이였다.

얼마나 악착하였던지 린근마을에서까지도 이 구장놈의 악행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구장놈은 마을사람들을 부역에 내보내고 징병과 징용에 끌어내가느라고 늘 복닥질하며 돌아치는 악질친일주구였다.

어느날 구장놈은 문순이와 마을청년 여럿을 징병에 끌어냈다.

그런데 문순이와 차돌이라는 젊은이는 귀머거리로 행세를 하여 신체검사에서 떨어져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 어머니는 집안의 대를 이을 일점혈육인 문순이에게 귀머거리라는 별명이 붙은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남들이 아들을 귀머거리라고 부르는것을 오히려 더 고맙게 여기였고 자기도 문순이가 날이 갈수록 점점 귀가 더 어두워져 아예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절벽이 되였다고 소문을 내고다녔다.

그러니 문순이는 멀쩡한 귀를 가지고도 언제나 귀머거리행세를 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지 않았다가는 당장이라도 징병이나 징용에 끌려갈판이였다.

한편 마을에서 끌끌한 청년들을 모두 뽑아 일본상전에게 바친 구장놈은 문순이와 차돌이까지 징병에 내보내지 못해 가슴이 알알해하였다.

(문순이는 귀머거리라는 말이 있었는데 차돌이녀석은 모르겠단말이야.)

구장놈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아무래도 속히운것만 같았다.

(어디 보자, 내 기어이 밝혀내고야말테다.)

구장놈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리 궁싯, 저리 궁싯하며 생각을 공굴리듯하였다.

그러다가 어느날 드디여 한가지 《묘안》을 찾아냈다.

다음날 구장놈은 차돌이와 함께 문순이도 끌어냈다.

구장놈은 미리 준비해놓은 모래가마니옆에 서서 《귀머거리》들앞에서 큰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은 〈대일본제국〉을 위해 모두가 목숨을 바치고 있는 이때에 병신이 되여 불명예스럽게 군대에도 나가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이것은 너희자신들의 수치이자 곧 〈안민촌〉인 우리 마을의 수치이기도 하다.

그러니 너희들이 벌을 받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이제부터 이 모래가마니를 메고 령이 있을 때까지 운동장을 계속 달려야 한다.》

《귀머거리》들이라 처음에 그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체하며 그 자리에 뻥해 서있는체했다.

그러자 구장놈은 손시늉을 해가며 그들이 모래가마니를 둘러메고 운동장을 뛰게 하였다.

그리하여 차돌이와 문순이는 구장놈의 강압에 못이겨 모래가마니를 둘러메고 운동장을 달리기 시작하였다.

아침밥도 변변히 먹지 못하고 끌려나온 그들이라 허기진 몸으로 무거운 모래가마니를 메고 뛰자니 여간 힘들지 않았다. 다리가 꼬이고 눈앞이 가물가물하여 앞도 잘 보이지 않았다.

혼자서 집안살림을 하며 심화병으로 앓는 어머니의 병구완까지 해오는 문순이는 더욱 힘들었다.

그러나 구장놈은 운동장을 두바퀴, 세바퀴, 네바퀴를 돌아도 그만두라는 말이 없이 《빨리! 빨리 뛰라!》하고 고래고래 소리만 질렀다.

차돌이와 문순이는 숨이 턱에 닿아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장을 뛰고 또 뛰였다.

목에서는 겨불내가 확확 났다.

그러나 구장놈은 회초리를 휘두르면서 더 빨리 뛰라고 호통만 쳤다.

언제 그만두라고 할지 알수가 없었다.

그들이 맥이 진하여 더는 뛸수 없게 되였을 때 구장놈은 드디여 들릴듯말듯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 뛰고 서라!》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던지 구령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모래가마니를 내동댕이치고 얼른 그 자리에 섰다.

그러자 구장놈의 얼굴엔 얄미운 웃음이 비꼈다.

《그러면 그렇겠지. 네 녀석들이 날 속이겠다구? 문순이네 녀석도 가짜 귀머거리였구나.》

구장놈은 다짜고짜로 청년들의 따귀를 후려쳤다.

그들은 너무도 힘들었던지라 자기들이 《귀머거리》행세를 해야 한다는것을 그만 까맣게 잊었던것이였다.

그바람에 가짜귀머거리라는것이 드러난 그들은 구장놈에게 된봉변을 당하고 종시 징병에 끌려가고말았다.

문순이 어머니와 차돌이 어머니가 구장놈을 찾아가 애걸복걸 사정을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들으려 하지 않았다.

문순이는 앓는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나자니 차마 발길을 뗄수가 없었다.

《어머니!—》

《문순아!—》

두 모자가 서로 그러안고 눈물범벅이 되여 우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허비였다.

그러나 구장놈은 《대일본제국》을 위해 아들을 바치는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끝내 끌어가고말았다.

어머니는 마을앞 고개길을 넘어가는 문순이를 얼없이 바라보았다.

그런데 얼마후 마을에는 불행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전쟁터에 끌려간 그 청년들이 모두 죽었다는 부고가 왔던것이다.

구장놈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원망은 하늘에 닿았다.

《이 벼락맞아 죽을 구장놈아! 내 아들을 내놓아라!》

문순이 어머니는 땅을 치며 통곡을 하였다.

어머니는 아들이 징병에 끌려갈 때 넘어가던 마을앞 고개우에 올라가 문순이를 부르고 또 불렀다.

《문순아!— 문순아!— 너 어디 갔느냐?— 문순아!—》

련사흘 아들이름만 부르던 문순이 어머니는 그 고개길에서 끝내 숨을 거두고말았다.

《누가 이 원한을 풀어줄고?》

마을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땅을 쳤다.

그러나 하늘도 땅도 모두 무심하였다. 악귀같은 왜놈들과

구장놈에게도 땅은 디디고 다닐 길을 열어주었고 하늘은 푸른 하늘을 펼쳐주고 해와 달은 빛을 뿌려주었다.

과연 어느 누가 이 원한을 풀어줄것인가?

그들은 조종의 산 백두산을 향해 마음속으로 기원하였다.

《백두산대장수님! 백성들의 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것은 누가 시킨것도 아니였다.

언제건 아무데서나 이마를 스치는것은 백두산의 바람결이요, 목을 추기는것은 백두산의 샘이라 이 시절 백두산대장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구장놈은 더 기승을 부리며 돌아쳤다. 나중엔 나이도 채 안된 어린 소년들도 징병에 끌어내가는가 하면 쉰이 넘은 사람까지 징용에 내보내느라고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그러던 어느날 마을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징병에 끌려가 죽었다던 문순이와 차돌이가 실은 죽은것이 아니라 왜놈군대에서 몰래 도망쳐나와 백두산으로 들어갔다는것이였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사람들은 문순이와 차돌이가 백두산으로 들어갔으니 백두산대장수에게 구장놈의 죄행을 아뢰여 자기들의 원한을 꼭 풀어줄것이라는 희망을 안고살아갔다.

그로부터 며칠후 면에 갔던 구장놈이 고개를 넘어 돌아오고있을 때였다.

청명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이 울더니 백두산쪽에서 금시 소낙비를 쏟칠듯한 검은 매지구름 한떼가 와와 밀려오는

것이였다.

구장놈은 불안해서 하늘을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이윽고 번개불이 하늘을 이리저리 날고 땅을 들었다놓는 요란한 천둥소리가 또 울렸다.

온 지구덩이가 다 부서져나가는듯싶었다.

드디여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구장놈의 머리우에 불뭉치가 떨어졌다.

벼락이였다.

구장놈은 꼼짝 못하고 그자리에서 즉사하고말았다.

이상한것은 그자리가 문순이 어머니가 죽은 바로 그 자리였던것이다.

백성들의 원한이 구천에 사무쳐 하늘이 천벌을 내렸는지 아니면 땅에 어려 지신이 노했는지 구장놈은 정말 제명을 다 살지 못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일제의 악질주구놈들은 길을 걷다가도 가끔 백두산쪽 하늘을 힐끔힐끔 쳐다보군하였다.

그것은 제놈의 머리우에 혹시 벼락이 떨어지지 않을가 해서 겁이 나 그러는것이였다.

사람들은 문순이와 차돌이가 백두산대장수에게 아뢰여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구장놈에게 벼락을 내리게 한것이라고 하며 왜놈들이 망할 날을 기다리며 희망안고 살아갔다.

《누데기토벌대장》

왜놈《토벌》대장 스즈끼는 많은 병력을 끌고 **김일성**장군 유격대를 《토벌》한다고 홍두산기슭까지 기여들었다가 된벼락을 맞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위만군과 강제로 끌어낸 짐군들까지 앞세우고 유격대《토벌》에 나갔던 이놈은 얼마 남지 않은 패잔병들을 끌고 겨우 도망치기 시작했다.

스즈끼는 15리도 채 못가 골짜기에 어스름이 깃들자 산기슭에다 천막을 치고 거기서 하루밤 묵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놈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축지법을 쓰는 신출귀몰한 **김일성**장군부대가 언제 또 나타나 자기들을 칠지 알수가 없어 잠자리에 누웠으나 좀처럼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끝내 잠을 이루지 못한 이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위만군부대장을 자기 천막으로 급히 불러들였다.

《각하! 불렀습니까?》

위만군부대장의 잠기어린 얼굴에는 긴장한 빛이 흐르고있었다.

《위만군병사들을 우리 황군이 들어있는 천막주위에다 둥그렇게 배치하라. 그리고 그 바깥두리에는 짐을 지고온 백성놈들을 배치하라. 알겠는가?》

스즈끼는 짐짓 태연한 표정을 지었으나 그 목소리에는 겁먹은자의 허세가 울리고있었다.

《넷!》

천막에서 나온 위만군부대장은 곧 《토벌》대장놈의 명령대로 위만군과 끌고온 짐군들을 왜놈군대천막주위에 빙 둘러가며 배치하였다.

김일성장군님부대가 인민들을 절대로 해치지 않는다는것을 놈들도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이젠 됐지 하고 스즈끼는 어지간히 마음이 놓여 깊은 잠에 들었다.

그런데 그날밤 갑자기 번개가 번쩍거리고 꽝 꽈르릉하고 천둥이 울더니 하늘에서 불길이 이글거리는 시뻘건 불덩이가 곧바로 왜놈들을 향해 떨어지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술법을 쓰신것이였다.

신발까지 벗고 마음놓고 자다가 된벼락을 맞은 왜놈들은 급해맞은김에 신도 못신고 맨발로 눈속으로 내뛰였다.

그바람에 얼마 남지 않은 《토벌》대놈들은 절반이나 불벼락에 맞아죽고 숱한놈들이 얼어죽었다.

요행 살아남은놈들을 긁어모아가지고 내뺀 《토벌》대장 스즈끼놈은 그 분풀이를 위만군에게 하였다.

스즈끼는 위만군장교들을 몇명 잡아다놓고 《이놈들, 네놈들은 모두 통비분자다. 네놈들이 공산군과 내통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가운데 있는 우리만 맞고 곁에 있는 너희는 무사했는가?》고 야단을 치더니 위만군장교들을 총살해버렸다.

그런데 아직 날이 밝지 않았다.

피곤이 몰렸던 스즈끼는 또다시 위만군과 짐군들을 제놈

들의 천막주위에 빙둘러 배치하고는 재차 잠을 자려고 하였다.

이때 또 하늘에서 천둥소리와 함께 시뻘건 불덩이가 왜놈들의 머리우에 떨어졌다.

김일성장군항일유격대가 어떻게 알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날아와 복판에서 자는 제놈들에게만 불벼락을 내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였다. 스즈끼는 미칠 지경이였다.

왜놈들이 두번씩이나 눈깜박할사이에 녹아나는것을 보고 질겁한 위만군들은 총 한방 쏘지 못하고 달아나고말았다.

위만군부대장도 간이 콩알만해져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다.

이놈은 도망을 치면서도 견장을 떼던지고 모자도 졸병놈의것으로 바꾸어 쓰는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면 유격대한테 잡혀도 목숨만은 건질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어느덧 날이 훤히 밝아왔다.

위만군부대장은 제꼴을 한번 훑어보았다.

아무리 견장을 떼고 졸병모자를 썼어도 위만군장교복만은 숨길수 없었다.

(이걸 어쩐다?)

놈은 안절부절 못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바로 이때 강제로 끌려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짐군들이 눈에 띄였다.

(옳지, 살았다! 유격대는 백성들을 해치지 않지. 이왕이면

제일 헌 옷으로 바꾸어입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위만군부대장은 제일 헌 누데기옷을 걸친 한 사나이를 불러세웠다.

《야, 이 자식아!》

그러자 누데기를 걸친 사나이가 목을 움츠리며 그자리에 멈추어섰다.

《어서 그 누데기옷을 벗지 못할가?》

위만군부대장은 그 사나이가 입은 누데기옷의 팔소매를 잡아 나꾸어챘다.

그바람에 가뜩이나 낡은 누데기옷은 팔소매가 쭉 째지고 겨드랑이가 뚝 떨어졌다.

누데기옷이 만신창이 되여 차마 입을수 없게 된 위만군부대장은 앙갚음을 하려고 사나이에게 주먹질을 하고 발길로 마구 차며 기승을 부렸다.

사나이는 왜 그런지 매를 맞을수록 머리를 더 땅에 구겨박고 부들부들 떨기만하였다.

맥이 진한 위만군부대장은 씩씩거리며 그 사나이를 내려다 보았다.

그러다가 흠칫 놀랐다.

한쪽 소매가 떨어진 그 팔에 누런 군복을 입은것이 보였던 것이다.

그것도 아주 좋은 천으로 만든 일본장교군복이였다.

《앗?!》

위만군부대장은 너무도 놀라 뒤걸음질을 쳤다.

자세히 보니 누데기옷을 걸친 그 사나이는 일제《토벌》대장 스즈끼였던것이다.

그러나 《토벌》대장은 위만군과 짐군들의 앞이라 망신스러워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아픈 매를 그냥 맞고있었던것이다.

짐군들은 빙 둘러서서 그놈들이 노는 꼴을 지켜보았다.

위만군부대장은 나무막대기처럼 꼿꼿이 서서 《〈토벌〉대장각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번만 용서해주십시오.》하고 말했다.

땅에 대가리를 구겨박고있던 《토벌》대장놈은 더는 자기 정체를 숨길수 없게 되자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개자식! 뭐야!》하고 소리를 쳤다.

《네놈은 왜 우리 황군을 지키지 않고 도망쳤는가? 앙?》

《난… 난… 대장님이 … 뛰는바람에…》

《뭣이? 이자식! 난 누데기나 입고 네놈들을 모두 잡아오려고 했다.》

《토벌》대장놈은 누데기를 걸치고 도망치던 주제에 그래도 제 체면을 세워보려고 위만군부대장의 따귀를 몇대 후려갈겼다.

방금까지 기승을 부리던 위만군부대장은 고양이앞의 쥐마냥 바들바들 떨고있었다.

그후부터 사람들속에서는 《누데기토벌대장》놈에 대한 이야기가 퍼졌는데 그때마다 배를 그러쥐고 웃음통을 터뜨리군하였다.

입원이야기

길돈선을 따라 달리는 렬차의 3등차칸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밤은 퍼그나 깊어 피곤에 몰린 사람들은 수수떡같은 전등 밑에서 하나둘 끄덕끄덕 졸기 시작했다.

앉은 사람은 앉은채로, 선 사람은 선채로 모두가 졸고있었다.

그런데 한쪽구석 차창가에 모여앉아 소곤소곤 말을 주고 받는 사람들만은 얼굴에 졸음기가 조금도 비껴있지 않고 되려 어슴푸레한 속에서 눈들이 초롱초롱 빛을 뿌리고있었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하기에 눈들이 저렇듯 별처럼 빛날가.

누가 먼저 말을 하기 시작했는지는 모르나 그들은 지금 **김일성**장군님께서 장신둔갑술과 분신변신술을 쓰시는 신기한 이야기에 한창 흥을 돋구고있었다.

처서판을 돌아다니는 사람인듯 머리에 벙거지를 쓴 중년의 사나이가 연길에서 들은 이야기라면서 이런 말을 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지난해 여름에 연길병원에 두달이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셨다오. 그이께서는 글쎄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하실 때 글쪽지를 놓고 가셨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져있더라오. 〈의사들과 간호원들이 그동안 수고하였습니다.〉 하고말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장군님의 존함이 씌여있더래요.

장군님께서 떠나가신지 얼마만에 그 글쪽지를 발견한 왜놈경찰과 헌병놈들은 부랴부랴 비상출동명령을 내리고 시내를 발칵 뒤집었답니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이미 농민으로 변장하시고 유유히 농촌길을 가고계셨습니다.

이것을 알리 없는 왜놈들은 농민차림을 하신 장군님께 〈**김일성**장군을 보지 못했는가?〉 고 물었답니다.

장군님은 태연하게 손을 들어 산쪽을 가리키시며 〈**김일성**장군은 저기로 갔소.〉 하고 말씀하셨대요.

일제경찰놈들은 그리로 발길을 옮겼는데 그때 어디선가 장군님의 호위병 2명이 번개같이 나타나더니 그놈들을 제끼고 등뒤에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일제경찰놈들을 **김일성**장군님부대가 처단하고 간다〉는 글쪽지를 붙여놓았다오.

뒤따라온 다른 경찰놈들과 헌병놈들은 그것을 보고 겁에 질려 벌벌 떨다가 저마다 꽁무니를 빼고말았답니다. 허허!》

그 사람은 통쾌한듯 크게 웃더니 얼른 손으로 입을 가리웠다.

이때 옆에 앉아있던 등거리 입은 나이지긋한 사람이 곰방대에 담배를 꾹꾹 다져넣으며 《장군님께선 룡정병원에두 입원하셨댔수다.》 하며 입을 열었다.

어느날 룡정병원에 나이 젊은 한 청년이 입원하였다.

그 청년은 키가 크고 인물이 훤칠하게 생겼는데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남다른데가 많았다.

세상의 모든 리치를 손금보듯하는데다가 앞으로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것까지 환히 알고있었다.

간호원들과 환자들은 그 청년에게 졸라서 이야기를 듣군하였다.

어느날 밀정을 통해 그 청년이 보통사람이 아니라는 정보를 받은 왜놈들은 수상한 사람을 붙잡는다고 하면서 병원에 들이닥쳤다.

총검을 휘두르며 병원대문으로 쓸어드는 왜놈들을 본 간호원들과 환자들은 어쩔바를 몰라하며 청년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청년은 태연하게 침대우에 누운채 무슨 생각에 잠겨있었다.

청년의 신변이 념려되여 안절부절못하던 간호원들은 《선생님, 빨리 몸을 피하십시오.》하고 말했다.

그러나 청년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이 없이 오히려 그들을 위안하더니 종이 한장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간호원은 청년의 말대로 종이 한장을 가져왔다.

그랬더니 청년은 간호원이 가져온 종이에 활달한 필치로 《**김일성**》이라고 쓰는것이였다.

(아니 그럼 이분이 **김일성**장군님이시란말인가?)

간호원들과 환자들은 깜짝 놀랐다.

그러거나말거나 장군님께서는 아무런 내색도 없이 천천히 걸어나가시더니 병원출입문에다 그 종이장을 붙이시는것이였다.

이때 출입문으로 막 달려들어오던 왜놈경찰들은 흰종이에 씌여진 장군님의 존함을 보자 갑자기 초풍만난것처럼 와들와들 떨며 선자리에서 더는 움직이지 못했다.

얼마후에야 경찰놈들은 방안에 들어가 겁에 질린 눈알을 희번뜩이며 방을 살폈으나 침대엔 새하얀 이부자리만 있을뿐 장군님은 보이지 않았다.

장군님께서 술법을 쓰셨다는것을 대뜸 알게 된 왜놈들은 더욱 겁에 질려 어쩔바를 몰라하다가 《토벌》사령부에 죽어가는 목소리로 **김일성**장군이 병원에 나타났다고 전화를 걸었다.

얼마후 헌병대, 수비대, 경찰대, 《자위단》 등 룡정일대의 적들이 완전무장을 하고 몽땅 출동하였다.

개미 한마리 얼씬 못하게 병원을 에워싼 적들은 이번엔 장군님을 《체포》한다고 장담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병원주변에서 난데없는 돌개바람이 일더니 호박잎만한 가랑잎이 둥둥 하늘로 날아올랐다.

놈들은 허둥지둥 가랑잎을 뒤쫓아갔다. 그러나 어느새 가랑잎은 소나무숲속에 자취를 감추고말았다.

왜놈장교는 긴칼을 뽑아들고 꽥꽥거리며 산으로 돌격하라고 졸병들을 몰아세웠다.

그러나 한놈도 선뜻 나서는놈이 없었다.

김일성장군이 솔방울로 작탄을 만들고 솔잎으로 화살을 만들어 날린다는데 우리는 다 죽었다고 징징 눈물을 짜며 우는 소리만했다.

이때 산우에서 호탕하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왜놈들이 노는 꼴을 내려다보며 웃으시는 장군님의

웃음소리였다.

갑자기 맨 앞에서 돌격명령을 연방 지르며 달려나가던 장교놈이 뛰는 시늉만 할뿐 제자리걸음만 하고 졸병놈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뛰기를 몇시간, 입에 거품을 물고 줄곧 달렸으나 종시 산마루에 오르지 못했다.

장군님께서 자리를 뜨신 다음에야 왜놈들이 산마루에 올라설수 있었는데 장군님께서는 벌써 온데간데없이 사라지시였다.

바람 한점 없는데 소나무정수리만 흔들거리고있었다.

후에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입원기간에 병치료를 도와준 룡정병원의 의사와 간호원들에게 감사편지와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등거리를 입은 사람의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또 다른 사람이 말을 받았다.

누구는 장군님께서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시여 치료를 받았다고 하였고 또 다른 사람은 라남병원에 입원하시였다고도 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우기였고 자기들이 사는고장에 장군님이 오시여 치료를 받으시였다는 것을 크나큰 자랑으로 여기였다.

어느덧 차창밖은 희붐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하늘로 올랐나, 땅으로 잦았나

어느해 이른 봄날이였다.

나무가지들에 물이 오르고 양지쪽 아늑한 산기슭에는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기 시작하였다.

장백현의 어느 성시에 있는 왜놈군경들을 호되게 족치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부대를 거느리시고 산마루에 올라 휴식을 명령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대원들에게 천막을 치게 하고 여기서 며칠을 묵으려 한다고 하시였다.

대원들은 오래간만에 하는 휴식이여서 몸도 거두고 빨래도 하고 저녁에는 즐거운 오락회도 벌렸다.

밀정을 통하여 이 정보를 받은 《토벌》대사령관 야마모도는 밤이 깊었으나 그 즉시 부대에 출동명령을 내리였다.

놈들은 감쪽같이 조선인민혁명군부대를 완전히 포위하였다.

이놈들은 《토벌》대중에서도 가장 악질이였는데 고지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참빗으로 훑듯 한걸음한걸음 기여올라갔다.

먹을 풀어놓은 사발밀처럼 달도 별도 뜨지 않은 캄캄한 깊은 밤이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망원초의 보고를 받으시고 잠시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드디여 명령을 내리시였다.

《놈들을 맞받아 내려가시오. 그러되 놈들이 모르게 은밀히 산을 내려가시오.》

대원들은 장군님의 명령에 따라 타오르는 우등불을 그냥 둔채 왜놈들을 맞받아 쥐도 새도 모르게 산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다가 톺아오르는 적들과 맞다들면 엎디여 각반을 치는 체하면서 일본말로 《이 자식, 빨리 올라가라!》하고 그놈들을 지나쳐보내군했다.

옆사람의 뺨을 후려갈겨도 누군지 모를 정도로 캄캄한 밤인데다가 감쪽같이 포위를 하였기때문에 이번엔 영낙없이 성공했다고 놈들은 타산하고있었다.

왜놈들은 고지에 기여올라 불무지를 향해 《꼼짝말앗!》하고 소리치며 총을 내대였다.

그런데 금시 수백명이나 있던 유격대가 단 한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모닥불만이 유격대가 둘러앉았던 자리를 밝혀주며 황황 타오르고있었다.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하늘로 올랐는가, 땅으로 잦았는가?》

《토벌》대놈들은 모두 아연실색하여 아우성을 쳤다.

방금까지도 떠들썩하며 부르던 유격대원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렇게 가뭇없이 사라지다니?

유격대원들이 앉았던 그 자리들엔 아직도 온기가 그대로 느껴졌다.

먼저 오른놈들이 멍하여 멍청하니 서있는데 어디선가 《땅!》하고 총소리가 울렸다.

《공산군이다!》

놈들은 총소리가 나는 산아래쪽에 대고 총질을 하기 시작했다.

전투는 자못 맹렬해졌다.

창격전을 벌리며 피투성이가 되여 싸우던 그놈들은 얼마후 제놈들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어 서로 멍하니 서서 마주 바라보았다.

자기편이였던것이다.

제놈들끼리 서로 죽일내기를 하던놈들은 그제야 먼저 오른 놈들을 뒤에 오른놈들이 유격대인줄 알고 잘못 쏘았다는것을 알았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토벌》대놈들은 거의다 죽어너부러졌다.

《토벌》대사령관 야마모도는 《〈공산군〉이 하늘로 오르고 땅으로 잦아든다는 말이 과연 옳긴옳구나.》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때로부터 몇달후 여름 어느날 야마모도는 **김일성**장군부대가 갈밭에서 휴식을 하고있다는 정보를 또 받았다.

《쥐도 새도 모르게 포위하라!》

왜놈들은 갈밭을 물샐틈없이 에워쌌다.

그리고는 점점 포위망을 좁혀들어갔다.

휴식하고있는 항일유격대원들의 모습이 놈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흐흐, 이번에야 어쩔수 없지. 내 손아귀에 든이상 빠질수 없다!》

야마모도는 군도를 뽑아들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바로 이때 갈밭 한가운데서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더니

난데없이 이상한 연기가 타래쳐올랐다.

갈발이 불에 붙는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먼지가 바람에 말려 날아오르는것도 아니였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였다.

왜놈《토벌》대놈들은 피여오르는 연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런데 웬일인가?

피여오르는 연기와 함께 금방 있던 항일유격대원들이 한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사라진것이였다.

《하늘로 올랐나, 땅으로 잦았나? 연기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른것이 분명하다.》

넋나간 사람처럼 하늘만 쳐다보던 야마모도는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때 먼 뒤산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어느새 포위진을 뚫고나간 항일유격대원들이 부르는 힘찬 노래소리였다.

야마모도는 두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그러면 그럴수록 노래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정신착란을 일으킨 야마모도는 칼을 휘두르며 부하놈들의 목을 뎅경뎅경 벴다.

그러다가 이놈은 갈발 어느 물웅뎅이에 대가리를 구겨박은채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3원짜리 모가지

김일성장군님부대가 장백현 12도구를 들이쳐 적들을 쓸어눕힌 날이였다.

12도구의 어느 한 모퉁이에서 흙칠범벅이 되여 얼굴조차 알아보기 힘든 시체 하나를 놓고 두 경찰놈이 맞붙어 개싸움을 벌리고있었다.

《야, 임마, 이건 내거다. 내가 쏜거란말이야.》

《뭐라구? 이놈 봐라. 네놈은 총도 없이 맨손으로 뛰였는데 무엇으로 쐈단말인가, 엉?》

이놈들은 전투가 벌어지자 살구멍을 찾아 줄행랑을 놓았다가 **김일성**장군님부대가 떠난 다음에야 다시 마을로 기여든놈들이였다.

이놈들은 도망쳤던 죄를 면하기 위해 쓰레기통에서 헌신짝이라도 하나 얻으려고 하였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공산군의 신발》이라고 거짓을 꾸며 공을 세운것처럼 하려는것이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쓰레기통에서 시체 하나를 발견했던것이다.

두놈은 이게 웬떡이냐고 와락 그 시체에 달려들어 저마다 제가 쏜것이라고 싸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서로 총과 칼을 빼들기까지 하였다.

놈들이 으르렁거리며 맞붙어 싸우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훤히 밝기 시작했다.

두놈은 더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오래잖아 달려들 다른놈들한테 저들의 《전과》를 송두리채 빼앗길수 있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서로 의논끝에 둘이 같이 쏜것으로 하는데로 의견을 합치였다.

그리하여 놈들은 저들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한 연극을 벌리기 시작했다.

놈들은 시체에서 목을 베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 한복판에 매달았다.

그리고는 광고까지 써붙이였다.

바로 이무렵 12도구경찰서앞으로 장백현 선와자촌에서 급한 전화가 왔다.

어제 선와자촌 경찰분서장 고경장이 12도구로 내려갔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는것이였다.

김일성장군부대한테 된벼락을 맞고 정신도 못차리고있던차에 잃어진 고경장까지 찾는 소동이 벌어졌다.

전화를 받고 거리에 나타난 경찰서장이 대가리 하나가 달아매여있는곳에 이른것은 아침녘이였다.

서장은 공중에 매달려 데룽거리는것을 올려다보다가 기겁을 하여 입을 딱 벌린채 그 자리에 굳어져버렸다.

바로 그것이 고경장의 대가리였기때문이였다.

얼마후에야 제정신을 차린 경찰서장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고 넋없이 소리쳤다.

두 경찰놈은 돌연히 나타난 경찰서장을 보자 저들의 《공로》를 자랑하듯 《이놈은 저희들이 함께 쏘아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 말에 서장의 상판대기는 대번에 푸르딩딩해지더니 욕설이 터져나왔다.

《이 미친놈들아, 네놈들이 고경장을 쏘았단말인가?》

경찰서장의 입에서 고경장이란 말이 떨어지자 이번에는 두 경찰놈이 돌부처처럼 굳어져 공중에 매단 대가리를 일시에 쳐다보았다.

《고경장이라니요?》

《이놈들아, 당장 네놈들의 모가지를 내놓아라!》

경찰서장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놈은 얼마나 성이 났던지 당장 두 경찰놈의 모가지를 벨것만 같았다.

두 경찰은 울상이 되여 이번에는 저들이 쏜것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비를 가르고있을 겨를이 없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고경장의 가족이 이리로 온다는 소식이 왔던것이다.

급해맞은 경찰서장은 경찰놈들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이놈들, 당장 고경장의 목을 본래대로 몸뚱이에 붙여놓지 못할가?》

경찰놈들은 서장의 호령에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기만하였다.

어떻게 고경장의 모가지를 다시 붙여놓을수 있겠는가.

《서장님! 그거야 어떻게… 제발 이 미련한것들이 죽을 죄를 졌으니 한번만 용서해주십시오.》

경찰놈들은 우는 소리를 하며 사정하고 또 하였다.

그 순간 경찰서장은 기발한 생각이 떠올라 《이 바보같은

놈들아! 당장 달려가서 신기료장수를 불러와!》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신기료장수요?》

이놈들은 영문을 몰라서 머리를 기웃거리다가 서장의 령이라 헌신 깁는 신기료장수령감을 데려왔다.

서장은 신기료장수에게 강제로 고경장의 대가리를 구두를 꿰매듯 몸뚱이에 붙여놓으라고 호령질을 했다.

《예? 사람대가리를 꿰매라구요?》

영문을 모르고 불려온 신기료장수령감은 깜짝 놀라 이렇게 되물었다.

《그렇다. 령감, 빨리빨리 꿰매라.》

《아니 왜 이러시웨까? 혹시 신성한 나리님의 머리를 저 헌 구두짝과 혼돈하지 않쉐까?》

《령감, 빨리 꿰매지 못하겠는가?》

서장은 꽥 소리를 질렀다.

《내 신기료장수 30년에 못꿰매본것이 없는데 사람모가지를 꿰매기는 이번이 처음이웨다.》

모든것을 짐작한 신기료장수령감은 놈들에게 이렇게 슬쩍 골탕을 먹였다.

《령감, 이것을 꿰매면 돈을 많이 주겠다.》

서장은 신기료장수에게 《수리비》로 돈 3원을 주었다. 당시의 구두수리비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였다.

신기료장수는 할수없이 돈 3원을 받고 떨어진 고경장의 모가지를 꿰매주었다.

이때부터 그 근방사람들은 일제군경놈들을 보면 《3원짜리 모가지》라고 하면서 비웃군하였다.

백두산호랑이

조선은 곧 백두산이요, 백두산이자 그것은 곧 반도 삼천리 금수강산이다.

이 백두의 성산에 하늘에서 장수가 내린것은 지극히 응당한 일이다.

그리고 그 장수가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원하고 만백성에게 복을 안겨준다니 그것은 백두산의 신비와 만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것이다.

왜놈들은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나신 장수를 모함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했으나 그때마다 백두산호랑이가 나타나 따웅! 하고 뢰성벽력같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바람에 번번이 실패와 죽음을 면치 못하였다.

그래 천황의 어명을 받고 조선주둔군과 100만의 관동군이 모두 백두산에로 내몰렸으니 이것만으로도 놈들이 얼마나 당황해했는가를 여실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신록이 우거진 어느해 여름이였다.

《토벌》대장 사사끼는 부대를 끌고 항일유격대를 찾아 백두산수림속을 헤매였다.

해빛도 스며들지 않는 수림속은 대낮에도 밤처럼 어두웠고 무시무시한 정적이 깃들어있었다.

《토벌》대놈들은 발밑에서 삭정이 부러지는 소리에도 와뜰 놀라 본능적으로 총구를 앞으로 내대였다.

밤은 밤대로 이따금 울리는 승냥이울음소리와 궁상스런 부엉이의 울음소리에 놈들은 머리칼을 곤두세웠다.

며칠동안 밀림속을 헤매다나니 《토벌》대놈들은 지칠대로 지쳤다.

다리는 뻣뻣해지고 눈에는 온통 피발이 섰다.

신경은 조금만 다쳐도 터질것같이 팽팽해졌다.

갑자기 《따웅!》하고 밀림을 뒤흔드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놈들은 모두 그 자리에 대가리를 구겨박았다.

백두산호랑이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지라 놈들은 범의 울음소리에 사지가 과다져서 더는 움직이지 못했다. 아니 실은 절반이상이 정신을 잃고 아예 뻐드러진것이다.

《따웅!—》 호랑이가 다시 울어댔다.

이번엔 사사끼이하 《토벌》대놈들이 전부 뻐드러졌다.

얼마후 그래도 대장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다.

내가 살았나? 죽었나? 놈은 눈을 슴벅거리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주위에 《토벌》대놈들만 누렇게 쓰러져있었다.

이때 휙! 하는 바람소리와 함께 누런 줄이 죽죽 간 호랑이가 사사끼의 눈앞을 지나갔다.

《앗!》

놈은 비명을 지르며 썩은 통나무마냥 또다시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놈이 정신을 차린것은 그후 며칠이 지나 《토벌》대병원

의 침대우에서였다.

그런데 사사끼는 갑자기 침대우에서 벌떡 일어나 《호랑이다!—》 하고 소리치다가 다시 까무러쳤다.

심하면 하루에 대여섯번, 보통 서너번씩은 발작하군하였다.

병원에서는 백두산호랑이가 사사끼의 혼을 빼앗아갔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부들부들 떨었다.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은 다 쓰고서도 몇달이 지나서야 겨우 사사끼의 그런 증상이 없어지게 되였다.

사사끼가 부대로 돌아온 다음날 놈은 또다시 유격대를 《토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항일유격대 《토벌》에서 만신창이 된 일제는 다리병신이요, 정신병자요 하고 가릴새가 없었던것이다.

사사끼는 백두산기슭의 어느 한 수림속에서 휴식하고있는 공산군부대를 《토벌》하라는 명령을 받고 부대에 총출동명령을 내렸다.

하긴 이런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누가 감히 백두산대장수인 **김일성**장군님과 맞서겠다고 하겠는가? 그래 《토벌》사령부에서는 그 누구도 받아물지 않는 이 명령을 이놈에게 내린것이였다.

멀리서부터 참빗으로 훑듯 수림속을 샅샅이 뒤지며 포위진을 좁혀가던 사사끼는 숲속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오고 연기가 피여오르는것이 보이자 《옳지— 인제야 오도가도 할데가 없지.》 하고 중얼거렸다.

대장놈은 칼을 뽑아들더니 《돌격!》 하고 소리쳤다.

쇠똥바가지를 뒤집어쓴 《토벌》대놈들이 진대나무통을 넘

고 숲을 헤치면서 유격대를 향해 돌격하였다.

그런데 웬일인가? 방금까지 눈앞에서 떠들썩하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던 유격대가 단 한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졌으니 참으로 귀신이 통곡할 노릇이였다.

유격대가 피워놓은 불무지에선 여전히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었고 주전자에선 아직도 김이 오르고있었다.

시퍼런 대낮에 눈을 펀히 뜨고 유격대를 놓쳤으니 사사끼는 어이가 없어 《이거야말로 승천입지로다.》하고 비명을 질렀다.

《토벌》대놈들은 맥이 빠져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아 떠가는 구름만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런데 이때 저쪽 앞산쪽에서 노래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어보니 분명히 아까 유격대가 부르던 그 노래소리였다.

정신이 번쩍 든 사사끼는 《저쪽이다!》하고 소리치며 일어나 그리로 냅다 달려갔다.

산말랭이에 거의 다달으니 유격대가 여기저기 널려앉아 쉬고있는 모습이 빤히 올려다보였다.

《토벌》대놈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한걸음한걸음 조심스레 기여올랐다.

이때 《땅!》하고 골짜기를 뒤흔들며 총소리가 한방 울렸다.

왜놈들은 와닥닥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섰다.

총소리가 나는쪽을 바라보니 체구가 우람한 백두산대장수가 불길이 펄펄이는 눈으로 놈들을 내려다보고계시였다.

놈들은 무서워서 목을 움츠리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러자 백두산대장수는 얼굴에 빙그레 웃음을 짓더니 벼랑앞에 있는 외딴집으로 천천히 걸어들어가시였다.

그 순간 꽝 꽈르릉! 하고 천지를 뒤집는듯한 뢰성벽력이 울었다.

그리고 산기슭에 앞을 가려볼수 없게 구름이 자욱히 끼더니 백두산대장수가 들어가신 집이 큰 바위로 변했다.

잠시후 구름이 걷히였는데 그 큰 바위우에는 난데없이 백두산호랑이가 앉아있었다.

《토벌》대놈들은 무서워서 땅에서 발을 떼지 못한채 부들부들 떨고있었다.

더우기 사사끼는 벌써 혼이 빠져 눈알이 옆으로 돌아갔다.

《따웅—》

임금 왕(王)자를 이마에 새긴 백두산호랑이가 시뻘건 입을 쩍 벌리고 고함을 지르자 산이 찌렁찌렁 울렸다.

그러자 벼랑앞에서 개무리처럼 욱실거리던 왜놈들이 순식간에 뻐드러졌다.

그런중에서도 몇놈의 졸개들은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놈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건너편 산으로 들고뛰였다.

백두산호랑이는 그것을 알고 어느새 이번엔 그 산으로 날아가서 또다시 《따웅!—》하고 고함을 쳤다.

그러자 놈들은 모두 그자리에 돌로 굳어져버리고말았다.

장군님부대를 《토벌》하려던 왜놈들은 모두 이렇게 백두산호랑이앞에서 황천객이 되였다.

그후부터 백두산호랑이라면 왜놈들은 말만 들어도 무서워 벌벌 떨었다.

신비로운 전투

지금으로부터 약 70년전,

우리 나라 삼수군 호인면(지금의 삼수군 포성리)과 마주앉은 장백현 반절구는 꽤 큰 거리로서 왜놈의 《토벌》대요충지였다.

견고한 토성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마을에는 경찰대, 무장자위단이 주둔하고있었고 토성 네귀퉁이의 포대에는 기관총으로 무장한 경비병들이 밤낮으로 경비를 서고있었다.

더우기 왜놈들은 반절구에서 얼마 멀지 않은 14도구와 15도구가 유격대에 의해 얻어맞는바람에 전에없이 경비를 강화하고있었다.

반절구의 경비진은 말그대로 철통같았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이날은 류달리도 달이 밝았다.

교교한 달빛이 누리에 은은한 빛을 뿌려주어 달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명상에 잠기게 하고있었다.

반절구에 둥지를 틀고있던 적들은 《이렇게 달이 밝은 날에 공산군이 습격해오는 일은 없을것이다.》고 하면서 그 무슨 명절을 맞은듯 모두 밖에 나와 달구경을 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적들의 심리상태를 환히 꿰뚫어보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전체 부대에 반절구를 칠데 대한 전투명령을 내리시였다.

장군님의 명령을 받은 대원들은 번번한 벌판을 순식간에 지나 얼마후 성문주변에 다달았다.

그런데 달빛이 너무도 밝아서 성문으로 은밀히 접근할수가 없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모두 궁리를 짰으나 신통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저 달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가?)

그들은 달을 원망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난데없이 밤하늘에 나타난 따오기 여덟마리가 달을 향해 날아오르고있었다.

하더니 여덟마리의 따오기는 부리로 달을 물고 어디론가 끌고가는것이였다.

잠시후 밤하늘에 달이 사라지자 사위는 먹물을 풀어놓은듯 캄캄해졌다.

(옳지! 장군님께서 천지조화를 부리시는구나.)

유격대원들은 장군님께서 지어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서둘렀다.

선발대로 나간 대원들은 얼른 농민으로 변장하고 성문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쳤다.

《나으리! 성문을 좀 열어주시오. 밭에서 이제야 돌아옵니다.》

그러자 보초놈은 시끄럽다는듯이 《빨리빨리 들어갓!》하고 선선히 문을 열어주었다.

어느새 한 대원이 보초놈을 제꼈고 뒤를 이어 기본부대가 총소리 한방 내지 않고 쥐도 새도 모르게 성안으로 들어갔다.

물밀듯이 성안에 들어선 대원들은 어둠을 리용하여 성문포대와 적병실 등 각기 맡은 대상물에 재빨리 다가가 맹렬한 사격을 들이댔다.

놈들은 총 한방 쏘아보지 못하고 너부러졌다.

방금까지 교교하게 비치던 달빛이 가뭇없이 사라지면서 난데없이 불벼락이 들씌워지자 놈들은 그 무슨 하늘의 변이 일어난것으로 여기고 아예 맞서볼 생각도 못한채 송장이 되고 말았다.

싸움이 끝나자마자 사위는 다시 환해지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여덟마리의 따오기들이 다시 나타나 달을 물어다 제 자리에 띄워놓고 사라지는것이였다.

밤하늘에선 둥근달이 환한 빛을 뿌리였다.

장군님께서는 하늘에 있던 달을 없애기도 하시고 새로 띄우기도 하시면서 전투를 지휘하신것이였다.

실로 반절구전투는 그자체가 신비로운 싸움이였다.

이 전투가 있은 후부터 왜놈들은 《**김일성**장군이 천지조화를 부린다는 말이 맞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늘의 달을 없애기도 하고 다시 띄우기도 하겠는가?》고 하면서 벌벌 떨었다.

기자의 명함장

반절구전투가 있은 직후인 어느날이였다.

중국 장백현 경찰서장은 경찰들을 모아놓고 일장 훈시를 하였다.

《제군들은 야마도다마시이가 피줄마다에 흐르고있는 대일본제국의 경찰관으로서 천황폐하께 충성다하는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한다. 지금 **김일성**공산군은 만주와 조선땅에서 각일각 제국의 명줄을 조이고있다.

공산군 <토벌>에 모두 전심전력하여 무공을 세움으로써 제국의 남아로서의 본분을 다하라.》

그런 다음 서장은 제 먼저 앞장에 서서 경찰들을 끌고 《토벌》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경찰들은 **김일성**장군님의 신출귀몰한 전법에 걸려들어 무리죽음을 당하고 겨우 서장과 몇놈의 경찰들만이 살아서 네발걸음으로 엉기엉기 기여 경찰서로 돌아왔다.

제 방에 들어가 걸상에 앉은 서장은 후—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그리고는 터지고 찢어져 험창해진 제몰골을 거울에 비쳐보았다. 바로 이때 똑똑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

렸다.

서장은 얼른 거울을 감추고 위엄을 돋구느라고 《어험, 어험.》 헛기침을 깇었다.

이윽고 양복을 입은 한 젊은 신사가 방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서장에게 《매일신보사》기자라고 자기를 소개한 다음 찾아온 목적을 설명했다.

그리고는 서장의 맞은편걸상에 앉아 천천히 주머니에서 자기의 명함장을 꺼내여 그자의 앞에 내놓았다.

방금 사지판에서 돌아온 서장은 어쩐지 태연자약한 기자의 행동에서 은근한 위압감을 느꼈다.

서장은 기자의 명함장을 조심스럽게 받아쥐였다.

명함장을 들여다보던 서장은 갑자기 걸상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두눈이 화등잔만해지고 얼굴이 새까매졌다. 이윽고 그놈은 《악!》 스산한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푹 꼬꾸라져버렸다.

뜻밖의 일에 깜짝 놀란 기자는 부지불식간에 앞으로 달려나가 서장을 잡아흔들었다.

그러나 서장은 이미 기절해버리고말았다.

기자는 어쩔줄 몰라 허둥거렸다.

이때 마침 서장을 만나려 한 경찰이 방으로 들어왔다.

경찰은 빼드러진 서장을 보자 흠칠 놀라더니 기자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것이였다.

난처해진 기자는 경찰에게 자기의 명함장을 보이며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명함장을 받아쥔 그 경찰도 서장과 한모양으로 두

눈을 흡뜨더니 뒤로 벌렁 나자빠지는것이였다.

그놈의 입에서는 부그그 게거품이 피여올랐다.

어찌된 일인가? 명함장에 무엇이 씌여있길래 보자마자 모두 기절초풍을 하는것인가?

기자는 자기의 명함장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명함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그는 그제야 짐작되는것이 있었다.

《옳지, 내 이름때문이로구나!》

그 기자의 이름은 《김일선》이였는데 **김일성**장군님의 존함으로 잘못보고 기겁을 하여 까무라친것이 틀림없었다.

기자는 놈들이 얼혼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김일성**장군님부대 <토벌>에 나갔다가 모두 얼이 빠졌구나. <대일본제국>도 가련한 종이범이로구나. 허허.》기자는 허거픈 웃음을 웃었다.

기자는 실지 이것이 특보감이였으나 신문에 낼수가 없는것이 안타까왔다.

올기강의 호랑이

아마도 《올기강에서의 낚시질》이라면 모르는이가 없을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왜놈들이 겹겹으로 포위진을 치고 걸음마다 앞을 막아서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여유있게 낚시줄을 강물에 드리우시고 세계의 움직임을 날날이 꿰뚫어보시였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는 올기강의 흐름과 더불어 영원할것이다.

이 이야기와 함께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담대하신 풍모를 높이 칭송하는 이런 전설도 전해지고있다.

어느날 장군님의 호위를 맡은 나어린 전령병은 긴장한 낯빛으로 매 부대마다 찾아다니며 이렇게 물었다.

《장군님께서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여기엔 오시지 않았소.》

그러면 전령병은 또 다른 부대에 찾아가 물었다.

《장군님께서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오시지 않았소.》

부대마다 대답은 모두 한가지였다.

전령병은 몹시도 안타까왔다.

장군님께서 작전지도를 보실 때 잠간 자리를 떴는데 돌아

와보니 그이께서 계시지 않았던것이다.

(어디로 가셨을가?)

전령병은 부대들을 다 찾아다니고 주변을 돌아보았으나 장군님께서는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다.

장군님께선 요즘 몹시 바쁜 나날을 보내고계셨다.

수만명 대병력이 겹겹으로 포위진을 치고 하루에도 몇차례씩 달려드는 적들과 힘겨운 전투를 치러야 하는 엄혹한 나날이 계속되였다.

그러나 장군님께선 태연자약하게 부대들에 휴식명령을 내리시고 자신께서는 작전지도를 보시며 기묘한 전술을 짜시였다.

그런데 오늘 장군님께서 호위병도 없이 단신으로 어디에 가신것이다.

처음엔 장군님께서 머리를 좀 쉬려고 산책을 하시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아무리 찾아도 계시지 않자 전령병은 당황해났다.

전령병은 깊은 수림속으로 한걸음한걸음 들어갔다.

사람들의 발길이 한번도 닿지 않은 원시림은 해빛도 스며들지 않고 금시 맹수라도 달려들듯 무시무시했다.

여기저기서 새들의 날개짓소리와 바람에 나무가지 꺾어지는 소리가 우지직우지직 들려왔다.

얼마를 가자 전령병은 자신이 길을 잃은듯한감을 느꼈다.

이때 어느쪽에선가 강물 흐르는 소리가 쏴— 쏴— 들려왔다.

전령병은 무심결에 그 강물소리를 따라 자꾸만 나아갔다.

얼마를 가니 강물이 깎아지른듯한 절벽사이로 세차게 흐르

는 올기강가에 다달았다.

올기강변에 이른 전령병은 강아래우를 휘둘러보다가 《아—》하고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글쎄 **김일성**장군님께서 아찔하니 높은 절벽우에 올라앉으시여 강물에 낚시줄을 드리우고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는 것이였다.

《사령관동지!》

전령병은 소리쳐부르려 하였다.

다음순간 전령병은 너무도 놀라 그 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수면에 낚시줄을 드리우고 깊은 사색에 잠겨계시는 장군님으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바위우에 싯누런 금빛바탕에 검은 줄이 쭉쭉 간 송아지만한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 사방을 두릿거리고있는것이 아닌가!

호랑이의 두눈에서는 시퍼런 불길이 뿜어져나오고 하품하듯 쩍 벌린 시뻘건 입은 금시라도 달려들듯한 기상이였다.

너무도 놀란 전령병은 온몸에 쫙 소름이 끼쳐 오도가도 못하고 식은땀만 뻘뻘 흘리고있었다.

소리를 치자고 해도 웬일인지 입이 열리지 않았다.

전령병을 발견한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자리에서 움쭉 일어나 그를 덮칠듯 무섭게 쏘아보았다.

위기일발의 순간 전령병은 저도모르게 허리에 찬 목갑총에 손이 갔다.

그는 호랑이를 자기에게로 유인하여 장군님의 신변을 지켜드리려고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목갑총을 꺼내들고 절커덕 안전고리를 풀었다.

이때 **김일성**장군님께서 옆을 돌아보시였다.

장군님께서는 호랑이를 마주 바라보시면서 《왜 그러느냐? 가만있거라.》하고 말씀하시더니 다시 깜부기가 동동 뜬 수면에 눈길을 보내며 깊은 사색에 잠기시는것이였다.

호랑이는 장군님의 그 말씀에 공손히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다.

전령병은 장군님의 그 태연자약하신 모습, 그 무쌍한 담력에 경탄하며 호랑이를 지켜보았다.

호랑이는 마치 길든 짐승처럼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경건히 지켜보는것이였다.

얼마후 장군님께서는 팔뚝만한 산천어 한마리를 낚아내시였다.

산천어는 풀밭우에서 푸들쩍푸들쩍 뛰며 이리저리 몸을 뒤채기였다.

장군님께서는 호랑이를 돌아보더니 《호랑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하고 부르시였다.

그러자 호랑이는 바위우에서 껑충 뛰여내려 장군님 바로 옆에 와앉더니 풀쩍풀쩍 뛰는 산천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제야 전령병은 다소 긴장이 풀리고 대신 호기심이 살아났다.

그는 용기를 내여 《사령관동지!》하고 찾았다.

그 소리에 장군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시였다.

장군님께서는 백지장처럼 창백해진 전령병의 얼굴을 보고

모든것을 헤아리신듯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어서 오라고 손짓으로 부르시였다.

《이 호랑이때문에 그러는게로구만. 무서워말고 어서 오시오. 일없소.》

그래도 전령병은 호랑이를 쏘아보며 선뜻 발을 떼지 못했다.

《호랑아! 그럼 넌 인젠 가보아라!》

그러자 범은 마치도 호위임무를 인계라도 하는듯 전령병을 한번 힐끔 돌아다보고 슬그머니 일어나 어슬렁어슬렁 수림속으로 사라졌다.

그때에야 장군님께로 가까이 다가간 전령병은 얼굴이 빨개서 아무말도 못하고 서있었다.

그러는 전령병에게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호랑이란놈은 용감한 사람을 좋아하오. 산중의 왕이고 성질이 사납지만 좋은 사람은 가려본단말이요. 절대로 범을 만나면 겁을 먹어선 안되오.》

그제야 장군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은 전령병은 산천어가 가득히 든 다래끼를 둘러메고 사령부천막으로 돌아왔다.

백두산 산신령이 호랑이로 변신하여 전령병대신 장군님을 호위한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였다.

아흔아홉가지 축지법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나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참으로 신통한 조화를 부리시여 왜놈들을 전률케 하시였다.

일제통치시기 항간에서는 장군님께서 아흔아홉가지 축지법을 쓰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돌았다.

그중에서 몇가지 전설을 다음에 소개한다.

1. 걷는축지법, 나는축지법, 앞뒤축지법

언젠가 **김일성**장군님께서 민심을 살피시려고 백두산을 내리신적이 있었다.

보통사람의 차림새를 하고 여러 고장을 돌아보신 장군님께서는 중낮이 좀 지나서 어느 국수집에 들리시였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왜놈밀정이 몰래 장군님의 뒤를 따랐다.

밀정놈은 장군님께서 국수집에 들어가시자 이때라고 생각하고 수백명의 경찰을 풀어 그 집을 겹겹으로 포위했다.

포위진을 점점 좁혀들어가던 경찰놈들은 갑자기 와락 국수

집창문으로 총구를 들이댔다.

국수를 먹던 손님들은 모두 깜짝 놀라 저가락을 든채 일어서서 부들부들 떨었다.

장군님께서만은 놈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태연한 자세로 앉아 여전히 국수를 잡수시였다.

그러자 되려 경찰놈들이 여유작작하신 장군님의 태도에 당황하여 어쩌지 못하고 눈만 멀뚱거렸다.

이때였다. 장군님께서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장을 꺼내시더니 손바닥우에 올려놓고 그것을 입으로 후— 하고 부시였다.

종이장은 갸우뚱거리며 창문밖으로 나가더니 하늘높이 날아올랐다.

경찰놈들은 날아오르는 종이장을 신기하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국수집안을 다시 들여다보니 장군님은 보이지 않았다.

경찰놈들은 소동을 피웠다.

그러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그 흰종이장이 삿자리만큼 커졌는데 그우에 장군님께서 서계시는것이였다.

《**김일성**장군이 도술을 쓴다!》

경찰놈들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일어설념을 못했다.

경찰서장놈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하늘로 날아가는 **김일성**장군을 추격하라고 경찰놈들에게 야단을 쳤다.

할수없이 경찰들은 헐떡거리며 날아가는 종이장을 따라 뛰기 시작했다.

고개를 하나 넘고 또 넘었다.

가시밭이건 진펄이건 가리지 않고 옷이 다 찢어지고 온몸이 가시에 찔려 피투성이가 되였으나 그래도 그냥 뛰였다.

고개 세개를 넘어서자 종이장은 점점 땅으로 내려오더니 어느 산마루에 걸리였다.

장군님께서는 종이장우에서 풀숲으로 내리뛰시였다.

그리고 사방을 휘둘러보시며 지형을 주의깊게 살피시였다.

그러는사이 경찰놈들이 헐떡거리며 저멀리 고개를 넘어서는것이 보였다.

장군님께서는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험한 산세와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기도 하시고 향기를 풍기는 꽃송이에서 꽃내를 맡아보기도 하시였다.

그러다가 경찰놈들이 거의 따라왔을무렵에 갑자기 우로 몸을 솟구치더니 어느새 산을 훌쩍 뛰여넘으시였다.

《**김일성**장군이 축지법을 쓴다!》

경찰놈들은 당황하여 또 이렇게 소리쳤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신으신 신은 참으로 신기한 신이였다.

그 신바닥에는 주름잡힌 신기한 물건이 있는데 장군님께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건너뛰려고 생각만 하시여도 바닥밑에 있는 그 신기한 물건이 저절로 펴져 한걸음에 훌쩍 산을 넘게 하였다.

밀정놈과 경찰놈들은 눈이 화등잔만해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있었다.

그러는데 어느새 또 장군님께서 발을 구르시자 한달음에 앞산을 넘기도 하시고 뒤산을 넘기도 하시면서 왜놈들을 족쳐대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번엔 또 앞뒤축지법을 쓰신것이였다.

왜놈들은 얼핏얼핏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지시는 장군님을 보고 얼이 빠져 더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자리에 얼어붙은듯 서있었다.

그런즉 장군님께서는 걷는축지법, 나는축지법, 앞뒤축지법을 다 쓰시는것이였다.

왜놈들은 얼마만에야 정신을 차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골짜기로 내리뛰였다.

왜놈들의 꼬락서니를 건너편 산마루에서 내려다보시던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더니 옆에 있는 쑥대 한가치를 꺾어들고 땅에 대고 세번 원을 그리시였다.

그러자 골짜기의 앞뒤산이 서로 마주 다가오더니 쾅! 소리를 내며 맞부딪치는것이였다.

그바람에 골짜기에서 덤벼치던 왜놈들은 소리도 쳐보지 못하고 몰살되고말았다.

그러니 이번엔 산과 산을 맞부딪치게 하는 축지법을 쓰신것이였다.

2. 산을 주름잡는 축지법

백두산밑 어느 마을에 춘삼이라는 사람이 살고있었다.

어느날 춘삼은 산에 나무하러 올라갔는데 웬일인지 사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안해와 자식들은 물론 온 마을이 모여앉아 걱정을 하였다.

필경 잘못된 사람이다, 짐승에게 화를 입지 않았으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어떻게 된것이 틀림없다.

그들은 이렇게 단정하였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는 온 마을이 산에 올라가 춘삼이를 찾기 시작했다.

춘삼이를 찾기 시작한지 꼭 사흘째 되는 날 마을사람들은 어느 바위벼랑밑에 쓰러져있는 춘삼이를 발견했다.

마을사람들이 춘삼이를 업고 집에 돌아오니 얼마 안있어 그는 정신을 차렸다.

그런데 그의 눈은 별처럼 빛나고 얼굴엔 웃음이 한가득 피여올랐다.

어찌된 일인가?

긴장하게 내려다보고있는 마을사람들에게 춘삼은 여전히 웃음을 거두지 않은채 띠염띠염 이런 말을 했다.

…춘삼은 지게를 지고 뒤산에 나무를 하려고 올라갔다.

마을앞까지 숲이 우거져있어 땔나무를 하는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였으나 헛간을 지을 재목감을 몇대 더 찍으려고 밀림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나무는 많았으나 맞춤한것을 고르자니 그것도 헐치 않았다.

한걸음한걸음 들어가다나니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말았다.

여기서 나서자라 누구보다도 이고장 산세를 잘 아는 춘삼이였으나 워낙 숲이 우거지고 험악한 산골짜기라 잃은 길을 쉬이 찾을수가 없었다.

어느덧 날이 저물자 춘삼은 더는 길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느 구새먹은 나무밑둥에 들어가 하루밤을 새기로 하였다.

캄캄한 어둠속에 잠긴 밀림은 참으로 무시무시했다.

어디선가 따웅!— 하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울리고 승냥이와 사슴의 울음소리도 들려왔다.

뜬눈으로 밤을 새운 춘삼은 새벽이 되자 몰려드는 피곤도 피곤이려니와 무엇보다도 배가 고팠다.

때는 마침 가을이라 춘삼은 머루며 다래 등 산열매를 따먹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벼랑밑에서 바위틈사리에 있는 벌의 둥지를 발견하였다.

꿀이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까이 가 자세히 살펴보니 고드름같은 산꿀이 덩이채로 바위에 붙어있었다.

이게 웬떡이냐!

춘삼은 주먹만한 산꿀덩이를 떼여 버적버적 뜯어먹었다.

얼마나 단지 목구멍이 아려왔다.

그러나 배가 고팠던지라 눈을 꾹 감고 걸탐스레 먹었다.

얼마후 춘삼은 정신없이 곯아떨어지고말았다. 며칠이나 잤는지 눈을 떠보니 아침해가 한발이나 솟아있었다.

이때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귀기울여 들어보니 봉건시대에 부르던 창가도 아니요, 간드러지게 부르는 왜놈노래소리도 아니였다.

들을수록 힘이 솟고 용기가 나는 씩씩한 노래였다.

춘삼은 눈을 뜨고 일어나앉아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저쪽 숲속에서 빨간 오각별을 모자에 단 군대들이 렬을 지어 노래를 부르며 어디론가 행군해가는것이 보였다.

그들의 맨 앞장에는 키가 구척장신이고 눈에서는 불이 펄펄 이는 장수가 서있는데 그뒤에 선 대원들은 모두 그 장수

의 발자국을 따라걷는것이였다.

그런데 그 장수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면 눈앞에 서있는 령마루가 접혀서 들어오고 그 령마루를 디디고 서면 어느새 그 다음 령마루가 접혀들어오군하였다.

첩첩히 늘어선 령마루들이 이렇게 장수의 발길아래 병풍 접히듯이 한폭한폭 접혀들어 장수는 한걸음에 10리, 20리씩 걷는것이였다.

《히야! 축지법을 쓰는 장수구나.》

춘삼은 너무도 놀라와 저도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장수만이 아니라 그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군사들까지 장수와 같이 한걸음에 10리, 20리씩 걷는것이였다.

춘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멀리 사라져가는 장수의 행렬을 보려고 높은 산말랭이로 달려올라갔다.

거기서 내려다보니 장수가 축지법을 써서 산들이 접혀들때마다 멀리 산머리에는 안개와 실구름이 감도는것이였다.

그래서 아무리 대낮이라도 이산저산을 분간할수가 없었다.

간혹 구름속에서 창끝이 번쩍거리기도 하고 기발이 펄럭거리기도 하고 장수의 대렬이 언뜻언뜻 보이기도 했다.

춘삼은 너무도 희한한 일이여서 눈을 비비며 보고 또 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로 믿어지지 않아 몇번이나 허벅다리를 꼬집어보기도 했다.

아무리 봐도 눈앞에 펼쳐진것이 사실이 분명한것이였다.

장수와 군사들이 멀리 사라졌으나 춘삼은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냥 서있었다.

문득 집으로 빨리 돌아가서 이 사실을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길을 잃었으니 어떻게 돌아간단말인가?

춘삼은 또 산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만 벼랑밑에 쓰러져 잠이 들었던것이다.

춘삼의 말을 듣고 마을사람들은 모두 혀를 찼다.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

한 할아버지가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아마 **김일성**장군님께서 부대를 이끌고 왜놈치러 가시는 길이였을걸세.》

모두 그 할아버지의 말이 옳다고 머리를 끄덕이였다.

3. 땅을 늘구는 축지법

축지법이라고 하면 땅을 주름잡는다는 뜻이니 일반적으로 땅을 줄이는 술법이다.

그러나 **김일성**장군님의 축지법은 땅을 주름잡을뿐아니라 늘구기도 하여 참으로 신기한것이였다.

어느해인가 왜놈군대의 대장 한놈이 우리 나라의 보물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치고있었다.

어느 조선사람에게서 빼앗아낸 은장도며 금장도, 금가락지, 보석반지 그리고 무덤속에서 파낸 갖은 진주보석과 패물들까지 모조리 자루속에 집어넣어 둘러메고 부산으로 내빼는중이

였다.

백두산꼭대기에 걸터앉아 삼천리를 굽어보시던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보물을 훔쳐가지고 도망치는 그놈을 띄여보게 되시였다.

《이놈, 어디 한번 혼나봐라!》

장군님께서는 쑥대 한가치를 꺾어드시더니 그것을 한뽐가웃이 되게 세토막을 내시였다.

그리고 그 세토막의 쑥대를 하늘에 홱 뿌리시였다.

그러자 조화가 일어났다.

왜놈대장이 뛰는 길이 자꾸만 늘어나는것이였다.

왜놈대장은 죽기내기로 뛰지만 뛸수록 땅이 늘어나 전혀 길이 축나지 않았다.

장군님께서는 땅을 주름잡지 않고 이번엔 늘구는 술법을 쓰신것이였다.

왜놈대장의 온몸에선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숨이 턱에 닿아 헐떡거리고 목에서는 겨불내가 났다.

등에 진 자루에 하도 값진 보석이 들어있어 앉아 쉴수도 없었다.

왜놈대장은 뛰면뛸수록 길이 자꾸만 더 늘어나니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격이 되였다.

이때 어떻게 알았는지 저 멀리서 손에 몽둥이를 든 조선사람들이 《왜놈도적 잡아라!》하고 소리치며 따라오는것이 보였다.

《아이쿠, 인젠 죽었구나.》

대장놈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말았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저쪽 길옆 나무에 름름한 말 한필이 매여져있는것이 보

였다.

(죽을수가 닥치면 살수가 생긴다더니 이런것을 두고 한 말이로구나.)

왜놈은 그 말이 누구의것인지 알아볼 경황도 없었다.

다짜고짜로 고삐를 풀어내고 말잔등에 올라앉아 박차를 찼다.

말은 네굽을 안고 달리기 시작했다.

《후!— 인젠 됐구나.》

왜놈대장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발로 힘껏 말배때기를 찼다.

말은 갈기를 날리며 기세좋게 달리였다.

그런데 한참 달리였는데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는것이였다.

아까 말을 맸던 그 나무가 아직 옆에 그냥 서있었던것이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땅을 더 빨리 늘구어놓으신것이다.

그래서 마치 다람쥐가 채바퀴를 돌리는격이 되고말았다.

《저놈을 잡아라!—》

사람들의 함성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밤새도록 말을 타고 뛰였으나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왜놈대장은 기진맥진하여 말잔등에서 저절로 툴렁 굴러떨어지고말았다.

몽둥이를 든 조선사람들이 달려갔을 때 땅에다 코를 박은 왜놈대장놈의 숨은 이미 끊어져있었다.

사람들은 그놈의 보물자루를 빼앗아메고 둥실둥실 춤을 추며 돌아갔다.

장군님께서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빙그레 웃음을 지으시였다.

파면된 경찰부장

바다바람에 흩날리는 눈가루가 엉성한 함바의 문틈으로 웅웅—소리를 내며 기여들어왔다.

눈가루가 문결에 앉은 사람들의 목으로 스며들었으나 이야기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은 그저 한걸음 나앉았을뿐 그에 별로 개의치 않았다.

수건을 목에 건 중년의 사나이가 한창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이들은 흥남비료공장 로동자들이다.

진종일 고역에 시달리다가도 저녁을 먹고나면 의례히 이야기군이라고 소문난 이 중년의 사나이가 있는 방으로 모여들었다.

가뜩이나 좁은 함바안은 말그대로 콩나물시루와도 같았다.

그는 파면된 경찰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모여온 사람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였다.

그후 그 이야기군은 어디로 갔는지 알수 없으나 그가 남긴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깊이 파고들었다.

함경남도 경찰부장이 새로 부임된지 얼마 안되는 어느날이였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출세할수 있을가 하는 생각에 골몰해

있던 이놈은 등받이걸상에 몸을 맡긴채 총독부 경무총감이 내려보낸 지시문을 읽고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대목에 이르러 눈길을 박은채 좀체로 뗄 줄을 몰랐다.

지시문에는 이놈의 야심에 키질을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던것이다.

… 현하정세는 바야흐로 **김일성**공산세력이 대일본제국을 각일각 위협하고있는바 장차 반도에 그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천황은 조석으로 근심이 그칠새 없는데 이는 세계를 평정하려는 제국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미구에 **김일성**공산유격대가 함남도 함흥을 비롯하여 반도 깊이까지 쳐들어올것이라는 확실한 기미가 있은즉 관하 모든 경찰들은 이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라. …

《무공》을 세울 기회가 생겼다고 벌써부터 가슴이 울렁거렸다. 놈은 각 군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경비를 강화하도록 이르고는 자신이 직접 그 상태를 알아보려고 함흥일대를 돌아쳤다.

어디를 돌아보아도 개미 한마리 얼씬하지 못하게 철통의 경비진이 펼쳐져있었다.

경찰부장놈은 경찰들을 내몰아 함흥을 샅샅이 뒤지게 하고 골목골목에 보초까지 세워놓았다.

마음이 흡족해진 이놈은 제 방으로 돌아와 쏘파에 앉아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기를 기다리며 황홀한 꿈속에 잠겼다.

바로 이때였다.

름름한 모습의 한 청년이 문여는 소리도 없이 갑자기 경찰

부장앞에 나타났다.

《엉?》

경찰부장은 흠칠 놀라며 쏘파에서 벌떡 일어섰다.

경찰부장은 그 청년의 태연하고 의젓한 자세에 위압감을 느꼈던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오?》

그러자 그 청년은 엄한 목소리로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김일성**이요.》 하고 말했다.

《뭣이?!》

경찰부장은 너무도 놀라 뒤로 벌렁 나가넘어질번하다가 가까스로 몸을 가누었다.

얼마후 정신을 차린 이놈은 《공산군이다!》하고 고래고래 소래기를 질러댔다.

그러자 경찰놈들이 우르르 경찰부장의 방으로 몰려들었다.

적수공권으로 놈들과 맞다드신 장군님은 조금도 놀라거나 당황해하는 기색이 없으시였다.

경찰부장은 경찰놈들에게 《체포》하라고 또 소리를 쳤다.

위기일발의 순간 갑자기 안개가 자오록이 끼더니 금방 앞에 서계시던 **김일성**장군님께서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감추시였다.

너무나 뜻밖의 일에 부닥친 왜놈들은 《**김일성**장군이 안개를 불러타고 하늘로 올랐다.》고 주절대며 눈이 휘둥그래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이때 전화종소리가 급하게 울렸다.

경찰부장이 전화를 받았다.

김일성장군이 동홍산에 나타났다는 통보전화였다.

《뭐라구?》

경찰부장은 전화를 놓자마자 경찰들을 끌고 그쪽으로 달려갔다.

정말 어느새 **김일성**장군님께서 동홍산꼭대기에 올라 자기들을 내려다보며 호탕하게 웃고계시였다.

왜놈경찰놈들은 그 웃음소리에 기가 꺾여 더는 추격할념을 못했다.

경찰부장은 꽥꽥거리며 수천명의 경찰들을 동홍산으로 올리밀었다.

장군님께서는 발악하는 왜놈들의 꼴을 내려다보시며 태연히 웃음을 지으시였다.

그러시다가 왜놈들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야 천천히 품속에서 목갑총을 꺼내시더니 놈들을 향해 총 한방을 쏘시였다.

그러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한방의 총알이 날아가는사이에 수십수백발이 되여 놈들의 가슴팍을 꿰뚫는것이였다.

더욱 신기한것은 눈앞에 서계시는 장군님을 왜놈들은 눈을 편히 뜨고도 보지 못하는것이였다.

왜놈들은 무리로 쓰러지는 제놈들의 시체를 넘으면서 그냥 집요하게 달려들었다.

발악하는 원쑤놈들을 지켜보고계시던 장군님께서는 《네놈들이 악질은 악질이로구나.》하시더니 이번에는 발아래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 들어 놈들을 향해 던지시였다.

그러자 주먹보다도 더 큰 수백수천개의 돌멩이들이 날개달린 새처럼 제절로 날아다니면서 왜놈들의 골통을 여기저기서 까댔다.

그바람에 구천각으로 기여오르던 적들이 성천강쪽 절벽에 굴러떨어져 죽었다.

장군님께서는 눈깜짝할사이에 수천명의 왜놈들을 몽땅 요정내시였다.

동흥산마루에서 장군님께서는 잠시 조국의 아름다운 산천과 넓은 함흥벌을 바라보시였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말울음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어디선가 흰 룡마 한필이 장군님앞에 날아와 머리를 굽히였다.

장군님께서는 룡마를 타시고 훨훨 날아 백두산쪽으로 향하시였다.

경찰부장놈은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격으로 멍하니 서서 하늘만 쳐다보았다.

더 높은 자리를 바라던 경찰부장놈은 그 일이 있은 뒤 파면되고말았다.

들리는 소문에는 얼이 쑥 빠져 머리가 돌았는데 그놈은 때없이 《공산군이다! **김일성**부대다!》하고 소래기를 지르며 미쳐 돌아치다가 아이들이 던지는 돌세례에 맞아죽었다고 한다.

그림속의 룡마

어느해 여름 **김일성**장군님께서 몇명의 대원들과 함께 동해안쪽에 나가셨다가 백두산으로 돌아오시던 때였다.

장군님께서는 어느 산중의 개울가에서 잠시 대원들을 휴식시키시였다.

이때 산속을 개싸다니듯하던 왜놈《토벌》대들이 갑자기 그리로 밀려들었다.

《저쪽이다! 귀신도 모르게 생포하라.》

《토벌》대놈들은 살금살금 도적고양이처럼 숲속으로 은밀히 기여들었다. 그러던 왜놈들의 눈은 놀란 토끼눈갈이 둥그래졌다.

다리쉼하는 부대는 모두 혈기왕성하고 차림새가 단정한데 높고낮은 사람이 없이 친형제처럼 서로 화목하게 지내니 볼수록 놀랍기만 하였다.

(하, 저 사람들이 천지만물을 좌지우지한다는 **김일성**부대가 틀림없군!)

이렇게 생각한 적들은 그만 겁이 덜컥 나서 감히 개울가로 다가서지 못했다.

장군님께서 손을 한번 쳐드시기만해도 산천초목이 싸움에 일떠선다니 제놈들의 머리우에 어떤 불벼락이 내릴지 알수없어 왜놈들은 모두 얼빠진놈처럼 서있었다.

이때였다.

가시눈으로 졸병들을 쏘아보던 《토벌》대장놈이 시퍼런 칼을 뽑아들었다.

《다들 듣거라. 이 칼에 목을 내놓겠느냐, 아니면 앞으로 나가겠느냐? 두가지중 어느 하나다.》하고 그놈이 소리를 지르는바람에 졸병들은 목을 움츠리고 기신기신 개울가로 다가서는체했다.

수적우세를 믿고 대장놈은 제법 큰소리를 치며 달려들었다.

그제야 수백명의 《토벌》대놈들이 포위진을 치고 바싹 다가오는것을 본 유격대원들은 모두 긴장해졌다.

그러나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장군님께서는 조그마한 안색의 변화도 없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아예 그놈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여유있게 천천히 품에서 종이 한장을 꺼내시고 연필로 그우에 술한 말들을 그리시는것이였다.

(웬일일가?)

유격대원들은 모두 이상해서 머리를 기웃거리며 초조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태연하게 앉아서 그림을 그리시는 장군님의 모습에서 힘을 얻었다.

반면에 왜놈들은 너무도 태연하신 그이의 모습에 그만 기가 눌려 더 가까이 다가서지 못했다.

이때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말들을 그리시던 장군님께서 연필을 들고 해뜨는 동쪽을 향해 세바퀴 휘휘 휘두르시자 종이장에서 진짜말들이 껑충껑충 밖으로 뛰여나오는것이였다.

《야, 룡마다!》

유격대원들과 《토벌》대놈들은 거의 동시에 이렇게 소리쳤다.

그 말들은 모두 기름진 금빛룡마들이였는데 뛰여나오자마자 오호홍! 하고 소리를 지르며 껑충껑충 뛰여다녔다.

그러자 지진이 일듯 온 골짜기가 드르릉 울렸다.

룡마들은 무쇠발통으로 땅을 탕탕 굴렀다.

그러자 산이 와르르 무너져내렸다.

깜짝 놀란 왜놈들은 모두 그 자리에 엉덩방아를 찧고 물러앉아 입을 딱 벌리고 눈이 휘딱 뒤집혔다.

그림속에서 나온 룡마들은 모두 겨드랑이에 금빛날개가 돋혀있었다. 장군님께서는 말들을 불러 한줄로 세우더니 대원들에게 명령을 내리셨다.

《말들을 하나씩 골라잡으시오.》

그리고 자신께서는 흰 룡마에 올라앉으시여 공중에 대고 딱! 채찍을 휘두르시였다. 그러자 대원들을 태운 룡마들은 일시에 땅을 걷어차며 하늘높이 날아올라갔다.

그 순간이였다.

우뢰소리, 바람소리… 청청하던 하늘에 구름이 밀려들며 우뢰가 울고 세찬 바람이 일었다.

뒤따라 하늘에서 돌사태가 쏟아져내렸다.

넋이 빠져 멍하니 서서 하늘만 올려다보던 왜놈들은 오도가도 못하고 돌사태에 묻혀 몰살당하고말았다.

그때 하늘땅을 진감한 우뢰소리로 말하면 장군님께서 타신 말의 투레질소리요, 세찬 바람은 장군님께서 종이를 접으실 때 일어난 바람이였다.

그 바람이 어찌나 세찼던지 개울가의 돌들을 하늘높이 말아올렸다가 쏟아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돌벼락이 된것이였다.

백두산에 갔다온 사람

꽝! 꽈르릉! 우지끈 딱!

천둥이 우는가, 하늘이 무너지는가, 어느날 밤 갑자기 정적을 깨뜨리며 요란한 폭음이 골안을 뒤흔들었다.

방금 잠자리에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다.

어인 일인가? 하늘과 땅은 온통 불바다, 불천지였다.

땅에서 하늘로 불기둥이 솟구쳐오르는지, 아니면 하늘에서 불덩이가 땅으로 떨어지는지 분간키 어려웠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고 뒤이어 환성소리, 만세소리가 터져나왔다.

하늘이 낸 명장 **김일성**장군님부대가 왜놈이 경영하는 목재소를 들이친것이였다.

그바람에 왜놈들은 꿩새끼처럼 구석구석에 대가리를 처박고 부들부들 떨다가 어떤놈들은 불에 데죽기도 하고 또 어떤놈들은 천둥소리에 놀라 기절해죽었고 더러는 정신이 나가 내뛰다가 나무에 마주치기도 하고 바위에 부딪치기도 하고 제놈들끼리 맞부딪쳐 죽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장군님부대에 의해 조선사람들을 못살게 굴던 왜놈들은 일시에 멸살되고말았다.

목재소로동자들은 자기들의 원한을 풀어주신 장군님께 앞을 다투어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신 장군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일이 사의를 표하시였다.

장군님부대가 철수하여 백두산으로 돌아가게 되자 로동자들은 로획물자운반을 자진하여 맡아나섰다. 그들중에는 문국이라는 벌목공도 있었다.

문국이는 얼마전에 다친 팔이 채 낫지 않아 한쪽은 잘 쓰지 못할뿐아니라 아직 동통도 멎지 않았으나 떼를 쓰고 나섰다.

그들은 로획물자를 한짐씩 지고 장군님을 따라 백두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며칠동안 개울을 건느고 굽인돌이를 돌아 그냥 들어갔어도 끝이 날줄을 몰랐다.

드디여 떠난지 아흐레만에 펑퍼짐한 넓은 공지가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난데없이 마늘밭이 펼쳐져있었다.

《히야!》

그들은 키를 넘는 실한 마늘들이 빼곡하니 들어찬 밭을 보자 저도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마늘을 한톨씩 캐넣으시오.》

놀라는 그들에게 장군님께서 말씀하시였다.

로동자들은 나무꼬챙이로 땅을 뚜지였다.

문국이도 한쪽손으로 땅을 뚜지자 장군님께서 그를 도와주시였다.

로동자들은 잠간사이에 마늘을 하나씩 캤다.

마늘밑둥은 얼마나 큰지 제일 작은것이 애기밥바리만 하였다.

그들은 마늘을 보따리에 싸넣고 또다시 행군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마늘밭을 지나자 문국이는 몰렸던 피곤이 가신듯이 사라졌다.

《이게 웬일이요?》

그는 옆에 있는 한 로동자에게 물었다.

그도 피곤이 사라진듯 문국이를 마주보고 《놀라운 일이요.》하며 씽긋 웃었다.

모두 흥에 겨워 아까보다 더 빨리 행군해가는데 이번엔 서까래만큼씩 굵은 파들이 밀림처럼 들어선 파밭이 나졌다.

《야! 굉장하구나!》

문국이는 또 환성을 질렀다.

《파씨를 하나씩 건사해두시오.》

장군님께서 말씀하시였다.

로동자들은 파씨를 받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키가 미치지 않았다.

그들은 할수없이 긴 장대기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털었다.

당콩알만큼한 파씨가 후두둑 떨어졌다.

모두 그 파씨를 한알씩 집어 주머니에 간수했다.

그들이 파밭을 지나자 웬일인지 이번엔 온몸에 기운이 뻗치였다.

그들은 신이 나서 아까보다 더 빨리 행군해갔다.

마늘과 파의 특유한 냄새가 한데 섞여 풍기는데 그것을 들이킬 때마다 페부가 시원해지고 새힘이 용솟음쳤다.

그런데 이번엔 바람결에 향기로운 쑥내가 실려왔다.

눈앞에 쑥밭이 펼쳐진것이다.

《쑥잎을 하나씩 따넣으시오.》

장군님께서 또 말씀하시였다.

문국이와 로동자들은 기름기가 찰찰 도는 쑥잎들을 하나씩 따서 건사하였다.

이때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다.

문국이의 다쳤던 팔이 말끔히 다 나아 아픔이 없어지는것이였다.

문국이는 다쳤던 팔을 마구 내휘둘렀다.

팔뚝엔 새힘이 꿈틀거렸다.

배를 앓던 사람은 배아픔이 없어지고 눈을 앓던 사람은 눈이 잘 보였고 종처가 있던 사람에게선 종처가 가신듯이 없어졌다.

그들은 연방 놀라며 장군님을 따라 걸어갔다.

쑥밭을 지나 개울 하나를 건느니 장군님의 부대가 주둔하고있는 근거지가 나타났다.

근거지에 이른 로동자들은 지고온 짐들을 내려놓았다.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근거지에서 며칠을 묵으면서 휴식을 하도록 하시였다.

문국이는 다른 로동자들과 함께 휴식하면서 근거지안을 돌아보았다.

근거지에서는 보는것마다 모든것이 신비롭기만하였다.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돌멩이 하나까지도 모두가 그 어떤 기적을 안고있는듯싶었다.

여기서는 음식물도 속세의것과는 다른것이였는데 장군님의 유격대원들은 마늘과 파와 쑥을 주식으로 하고있었다.

물도 천지물과 같은 줄기에서 솟는다는 샘물만을 마시였다.
문국이와 로동자들은 장군님부대 대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같은 샘물을 마시면서 며칠 휴식하는동안 저도모르게 힘이 세져 어느덧 장수가 되였다.
그러던 어느날 장군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였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에서 부모처자들의 근심이 클텐데 이젠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제야 그들은 자기들이 집을 떠난지 퍽 오래되였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예, 저희들이 정말 너무 오래 지체한것 같습니다.》
문국이가 일어나 말씀드렸다.
그는 갑자기 두고온 처자들과 앓아누운 어머니생각이 간절해졌다.
장군님께서는 집으로 어서 돌아가고싶어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집으로 돌아가는데는 두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빠르기는 하나 위험한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안전하기는 하나 먼 길입니다. 그러니 두 길이 다 좋고 그른점이 있는데 돌아가는 길은 여러분들이 상론하여 마음대로 택하십시오.》
로동자들은 장군님의 말씀에 잠시 생각을 더듬었다.
(빠른 길은 대체 어떤 길인가? 그런데 왜 위험한가?)
그들은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한 생각도 들었다.
드디여 문국이가 장군님께 말씀을 올렸다.
《장군님, 저희들은 좀 위험해도 빠른 길로 가고싶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위험한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어서 집으로 돌아가고싶

단말이지?》 하고 되물으시였다.

그러시더니 그 길을 자세히 설명해주시였다.

《저기 보이는 고개를 넘으면 낭떠러지가 있는데 옆으로 약간 에돌면 그것은 쉬이 내려갈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면 크지 않은 강이 나지는데 물결을 거슬러 백일흔발자국가량 올라가면 좁은 여울목이 있습니다. 그리로 건너서 또 고개 하나를 넘으면 이깔나무숲이 나질것입니다. 그 이깔나무숲속에 지금 서른세명의 왜놈들이 눈이 벌개서 유격대를 잡겠다고 돌아치고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놈들의 눈을 피해가기란 대단히 어려울것입니다.

량쪽은 아찔하게 높이 솟은 벼랑이고 가운데 길이 나졌으니말입니다.

바로 그놈들에게 잡혀 단련을 받을텐데 일없겠습니까?》

(정말 장군님은 천리앞을 환히 내다보시는구나.)

그러자 로동자들은 배심이 든든해졌다.

장군님께서 우리를 보살펴주시는데 제깐놈의 왜놈들이 대수랴!

《장군님! 놈들이 정 못되게 굴면 한바탕 해제끼면 될게 아닙니까.》

한 로동자가 주먹을 내흔들며 자신에 넘쳐 말씀을 드렸다.

《해제끼겠다? 하하하, 결심이 정 그렇다면 그 길로 가십시오.》

그들은 장군님과 대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길을 떠났다.

장군님께서 자기들을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벼웠다.

고개를 넘으니 정말 천길낭떠러지가 나지였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장군님께서 가리켜주신대로 옆으로 약간 에도니 아래로 쉬이 내려갈수 있었다.

낭떠러지밑에는 강물이 사품치며 흐르고있었다.

산골짜기강이라 그리 크지는 않았으나 물살이 몹시 빨랐다.

물갈기를 날리며 흐르는 강은 도저히 그냥 건늘수 없었다.

그들은 우로 백일흔발자국을 올라갔다.

그랬더니 거기엔 장군님의 말씀대로 좁은 여울목이 있었다.

그 여울목을 건느니 또 한 고개가 나타났다.

고개뒤엔 이깔나무숲이 펼쳐져있었다.

(여기로구나.)

그들은 모두 긴장해졌다.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어둠을 타서 숲속으로 들어갔다.

로동자들은 숨을 죽이고 온몸이 눈과 귀가 되여 사방을 살피며 걸어갔다.

한걸음 또 한걸음, 바싹 긴장해진 그들은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아직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바람에 삭정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부엉이의 날개젓는 소리가 그들의 걸음을 가끔 멈추게 할뿐이였다.

왜놈들이 없는게 아닌가.

이깔나무수림속을 퍼그나 들어갔으나 왜놈들은커녕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았다.

점차 그들은 마음의 탕개가 풀리였다.

이때였다.

갑자기 숲속에서 《꼼짝말앗!》하더니 수십명의 왜놈들이 달려나와 코밑에 총구멍을 가져다댔다.

이제는 오도가도 못하고 영낙없이 놈들에게 붙들릴수밖에 없었다.

적수공권인데다가 사람마저 열두명밖에 안되니 어쩌는수가 없었던것이다.

이때 문국이가 《이놈들아!》하고 고함을 지르며 놈들앞으로 썩 나섰다.

그 고함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왜놈들은 귀가 멍멍하여 어리벙벙해 서있었다.

그 순간 로동자들은 왜놈들의 총신을 량손에 하나씩 거머쥐고 그것을 비틀어댔다.

그러자 총신은 엿가락처럼 휘여들었다.

《엉? 장수다!—》

한놈이 이렇게 겁먹은 소리를 치자 놈들은 모두 내빼기 시작했다.

로동자들은 놈들을 따라가 파리잡듯 손바닥으로 쳐죽였다.

로동자들은 자기들에게 그렇게 큰힘이 있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죽은 왜놈들을 세여보니 장군님의 말씀대로 꼭 서른세놈이였던것이다.

(정말 하늘이 낸 명장이시구나.)

그들은 모두 감탄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문국이는 백두산에서 가져온 마늘과 파씨와 쑥잎을 앓는 어머니에게 드렸다.

그것을 쓰자 어머니는 이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후에도 백두산에 가서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온 사람들은 모두가 장수가 되여 돌아왔다.

발자국이야기

김일성장군님의 령활한 전법을 반영한 전설들가운데는 발자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 몇가지를 소개한다.

1. 되돌아온 발자국

련련히 뻗은 백두산의 산발들엔 눈이 한길이나 쌓이였다.

어느해 겨울날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는 대마록구의 적들을 쓸어버리고 화라즈의 깊은 수림속에 접어들었다.

로획물자운반을 도와나선 대마록구의 로동자들도 부대와 함께 깊은 숫눈길을 헤쳐가고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장군님께서 로획품을 정리하라는 명령을 내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고온 짐들을 눈속에 깊이 묻은 다음 그우로 길을 내면서 지나가라고 하시였다.

대원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있다가 곧 자기들이 지고온 짐을 눈속에 파묻기 시작했다.

얼마후 로동자들의 짐까지 다 파묻자 부대장은 장군님께 보고를 드렸다.

장군님께서는 《로동자들은 어서 집으로 돌려보냅시다.》하시더니 그들이 있는곳으로 가시여 수백명이나 되는 로동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말씀하시였다.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로동자들은 장군님께 끝까지 짐을 져다드리겠노라고 말씀올렸으나 장군님께서는 굳이 사양하시며 《집에서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실 때에는 오던 길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가셔야겠습니다.》하고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친히 한개 소부대를 길안내로 붙여주기까지 하시였다.

명령을 받은 소부대는 장군님께서 가리키신쪽으로 길을 내면서 로동자들을 데리고 떠나갔다.

유격대원들은 떨어지기 서운해하는 그들에게 오래도록 손을 흔들며 바래주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장군님의 명령대로 다른쪽으로 행군을 시작했다.

장군님과 헤여져 집으로 돌아가던 로동자들은 산등성이에 올라서서 다른쪽으로 행군해가는 부대를 바라보고있었다.

그러던 그들은 갑자기 눈들이 둥그래졌다.

이게 웬일인가?

유격대원들이 걸어가는 눈우에는 하나의 발자국도 생기지 않고 수백명이 걸어간 그 뒤엔 눈이 그대로 쌓여있었던것

이다.

자세히 보니 유격대원들은 걸어가는것이 아니라 눈우를 스칠듯 가볍게 날아가고있었다.

그러나 자기들이 걸어온 길은 눈이 다져져서 큰길을 만들어놓았었다.

《과시 **김일성**장군님께서 축법을 쓰시는구나.》

그들은 모두 감탄을 하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이날 왜놈들은 대마록구가 얻어맞았다는 급보를 받자 그 부근에 있는 병력을 모조리 그러모아가지고 유격대가 철수한 통로를 따라 추격해왔다.

눈우에 난 발자국을 따라 생긴 외통길은 점점 깊은 수림속으로 들어갔다.

놈들은 얼마 안가면 《공산군》부대를 따라잡을수 있으리라고 타산하고 숨이 턱에 닿아서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러나 날이 훤히 밝을 때 보니 앞에는 자기들이 출발했던 바로 그 대마록구목재소가 나타났다.

놈들은 그제야 유격대한테 속아서 깊은 수림속을 꼬불꼬불 돌다가 제자리에 되돌아온것을 깨닫고는 분통을 터뜨리며 혀를 깨물었다.

《토벌》대놈들은 부대의 발자국을 따라 수림속으로 깊숙이 들어오다가 소부대가 로동자들을 데리고 대마록구로 간 그 발자국을 밟으며 제자리에 되돌아갔던것이다.

발자국없이 다니는 유격대를 어떻게 찾겠는가.

《또 **김일성**장군의 묘술에 걸렸구나.》

놈들은 이렇게 개탄하며 눈우에 털썩털썩 주저앉았다.

2. 신기한 발자국

김일성장군님부대에 순돌이라는 나어린 대원이 새로 들어왔다.

열살도 되기전부터 탄광에서 오소리굴을 오르내리며 탄짐을 져나르던 그는 장군님부대가 탄광을 들이치자 다짜고짜로 유격대를 따라가 부대에 받아달라고 생떼를 썼던것이다.

한것은 왜놈들한테 죽은 아버지, 어머니의 원쑤를 갚겠다는 마음에서였지만 그에 못지 않게 세상에 뜨르르 소문난 장군님의 축지법을 배우고싶은 마음도 컸었다.

순돌이는 입대한 첫날부터 어떻게 하면 축지법을 배우겠는가 하는데 왼심을 썼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첫날부터 순돌이에게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 밟는 훈련을 시키시는것이였다.

순돌이만이 아니라 다른 대원들도 거듭 반복하여 그 훈련을 시키시였다.

순돌이는 의문이 풀리지 않아 머리를 기웃거렸으나 다른 대원들이 아무말없이 그 훈련을 하는바람에 자기도 뒤질세라 부지런히 발자국따라밟기를 반복하였다.

얼마쯤 하니 순돌이는 싫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훈련할 때면 먼눈을 팔기도 하고 슬그머니 빠져나

가 나무그늘밑에서 쉬기도 하였다.

그날도 산마루에서 대원들에게 발자국 밟는 훈련을 시키시던 장군님께서 손채양을 하고 산아래 먼곳을 굽어보시더니 《저 왜놈들에게 버릇을 좀 가르쳐야겠구나.》하고 혼자말씀처럼 하시는것이였다.

드디여 장군님께서는 출동명령을 내리시였다.

모두들 총을 메고 배낭을 지고 신들메를 단단히 조이고 한곳에 모였다. 물론 순돌이도 빠지지 않았다.

누구보다도 순돌이의 가슴은 흥분으로 하여 쿵쿵 방망이질을 했다.

(장군님께서 어떻게 왜놈들을 족치실가?)

순돌이는 잔뜩 호기심이 생겨 장군님만 유심히 바라보았다.

장군님께서는 대원들을 한줄로 쭉 세우시더니 자신께서 앞장서 걸으시며 그 발자국을 밟으면서 따라오라고 하시였다.

대원들은 이미 훈련을 하여 익혔는지라 조금도 헛디디지 않고 능숙하게 장군님의 발자국을 밟으며 따라갔다.

그러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장군님의 발밑으로 그 우중충한 산발들이 병풍처럼 접혀들어오는것이 아닌가!

한걸음만 내디디여도 단번에 10리, 20리씩 앞으로 씽씽 나가는데 조금도 힘이 들거나 숨차지를 않았다.

(옳지, 이게 바로 축지법이로구나!)

순돌이는 무릎을 쳤다.

온몸엔 기운이 솟고 하늘로 날아가는듯 마음은 상쾌하였다.

마치 순돌이는 자기도 축지법을 다 배운듯한 심정이였다.

그런데 아뿔싸! 이 일을 어찌할것인가.

순돌이는 그만 발을 헛디디여 장군님의 발자국뒤를 밟았던 것이다.

그러자 아까와는 반대로 앞산마루가 썩 물러가더니 다시는 접혀지지 않았다. 그바람에 순돌이는 심산속에 홀로 남게 되였다.

어디로 갔는지 장군님과 대원들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저 혼자 깊은 수림속에 있자니 외롭기 그지없었다.

장군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길을 묻재도 물을데가 없었다. 또 설사 길을 안다 해도 축지법을 쓰시는 장군님을 도저히 따를수가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있자니 훈련을 잘하지 않은 자신이 미웠고 먼눈을 팔고 딴생각을 하면서 들떠있던 자기가 원망스러웠다.

순돌이는 어린애마냥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다.

얼마나 울었는지 한참만에 머리를 드니 이 어인 일인가?

앞산에서 실구름이 밀려오고 땅이 움씰하더니 장군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였다.

《장군님!》

순돌이는 목이 메도록 장군님을 소리쳐 불렀다.

장군님께서는 《순돌아!》하고 부르시며 그의 손을 잡아 대렬에 세워주시였다.

순돌이는 또다시 장군님의 발자국을 따라밟으며 한걸음에 10리, 20리씩 씽씽 달려갔다.

발아래로는 산발들이 병풍처럼 접혀들었다.

그런데 그때로 말하면 장군님께서는 벌써 왜놈군대를 멸살시키고 돌아오시는 길이였다. 순돌이는 장군님과 같이 왜놈들을 멸살시키는 통쾌한 싸움에 참가하지 못한것을 못내 아

쉬워하였다.

그후부터 순돌이는 언제나 장군님의 발자국을 헛디디지 않고 따라걸으며 싸움에서 늘 크게 공을 세우군하였다.

3. 거꾸로 난 발자국

일제《토벌》대놈들을 때려부시라는 **김일성**장군님의 명령을 받고 항일유격대의 어느 한 부대는 놈들을 족치기 유리한 곳으로 끌고가고있었다.

큰길에 나섰을 때였다.

눈이 수북이 쌓인 길우에는 금방 지나간 자동차바퀴자리가 있었다.

그것은 일본군대의 자동차가 지나간 자리였다.

적의 자동차바퀴자리를 들여다보던 유격대원들은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곧 신을 거꾸로 신고 재빨리 건넌산으로 올랐다.

이때 그들은 앞선 사람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으면서 산으로 올랐다.

그리하여 마치 한 사람이 산에서 내려와 자동차바퀴자리가 있는 큰길로 간것처럼 만들어놓았다.

이런줄도 모르고 일제《토벌》대놈들은 유격대원들을 찾아 허둥지둥 헤매고있었다.

이때 앞서가던 한놈이 씨근덕거리며 달려왔다.

《대장님! 웬 수상한 발자국이…》

《토벌》대장놈은 제법 허세를 부리며 호통을 쳤다.

《유격대원들이 산에서 내려와 자동차를 타고 달아났다. 돌격이다. 앞으로!》

대장놈은 고래고래 소리쳤다.

《토벌》대장놈은 긴 칼을 빼들고 졸병놈들을 앞으로 내몰았다.

놈들이 헐떡거리며 한창 달려갈 때였다.

맞은켠쪽에서 자동차가 나타났다.

《토벌》대장놈은 마주 달려오는 자동차를 향해 사격구령을 내렸다.

놈은 그 자동차에 유격대원들이 타고있는줄로 알았던것이다.

이쪽에서 총을 마구 쏘아대자 자동차에서도 총알이 날아왔다.

자동차에는 일본군대의 다른 《토벌》대놈들이 타고있었다.

이놈들도 마주 달려오며 총질하는것이 유격대인줄 알고 악을 쓰며 맞총질을 했다.

자동차길우에서는 한창 피투성이전투가 벌어졌다.

긴칼을 뽑아들었던 《토벌》대장놈이 자동차에서 날아오는 총알에 대갈통을 얻어맞고 쓰러졌다.

《토벌》대놈들은 총창을 비껴들고 서로 마주 달려가 치고 찌르며 미친듯이 날뛰였다.

한창 피를 흘리며 격투를 하던놈들은 그제야 제놈들끼리 싸운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리하여 서로 욕지거리를 퍼부으며 성이 독같이 나서 씨근덕거렸다.

제놈들끼리 피투성이가 되여 싸우느라고 쓰러지고 너부러진놈들은 기운이 빠질대로 빠졌다.

이때 신을 거꾸로 신고 산에 올랐던 유격대원들이 달려내려와 살아남은 일제 《토벌》대놈들을 모조리 족쳐버렸다.

4. 다시 생긴 발자국

어느날 왜놈《토벌》대는 항일유격대가 차지하고있는 흑라자라는 산을 불의에 공격하였다.

아침에 연길을 출발한 《토벌》대는 산기슭에서 눈우에 점점이 흩어져있는 발자국을 발견하였다.

《유격대발자국이다!》

《토벌》대장놈이 이렇게 소리치자 《토벌》대놈들은 갑자기 긴장해져서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였다.

《토벌》대장놈은 발자국을 둘러싸고 곧 《발자국회의》를 열었다.

왜놈《토벌》대들에는 발자국을 보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발자국참모가 있었는데 그놈들은 발자국의 모양과 개수, 눈에 새겨진 깊이 등을 가늠하여보고 항일유격대가 빠져나간 방향과 현재 가있을 위치 그리고 그 인원까지 알아낸다고 하였다.

이날 발자국회의도 발자국참모가 운영하였다.

한동안 발자국을 놓고 옥신각신하던 끝에 드디여 발자국참모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 발자국으로 보아 7~8명의 항일유격대가 한시간전에 지나간것이 틀림없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발자국을 따라가면 항일유격대를 모조리 생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자국참모의 말을 듣고 《토벌》대장은 명령을 내렸다.

《하늘이 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출동하라!》

땀을 뻘뻘 흘리며 발자국을 따라갔으나 유격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놈들을 더 놀라게 한것은 눈우에 난 발자국이 도중에 없어진것이였다.

《토벌》대장은 발자국참모에게 물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발자국참모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

《유격대가 하늘로 날아오른것이 틀림없습니다.》

《뭐라구?》

대장놈은 참모의 말이 어이가 없었으나 그렇다고 그렇게 믿지 않을수 없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산에서 떠오른 안개가 구름이 되여 저녁노을을 받는데 마치도 신선이 타고다닌다는 오룡차의 수레처럼 보였기때문이였다.

《토벌》대놈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 서성거리다가 하여튼 돌아갈 길이라도 찾으려고 선발대를 앞으로 보냈다.

얼마후 선발대가 돌아왔는데 대장에게 보고하기를 발자국이 다시 나타났다는것이였다.

《토벌》대놈들은 모두 그리로 달려갔다.

정말 눈우에는 발자국이 나있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가?》

《토벌》대장은 발자국참모에게 물었다.

발자국참모는 이번에도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다.

《유격대가 다시 하늘에서 내려온것이 틀림없습니다.》

《뭐?》

《토벌》대장은 허구픈 웃음을 웃었다.

그러나 어쩌는수가 없었다.

놈들은 발자국을 따라 다시 허겁지겁 달려갔다.

얼마쯤 따라가니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인가? 발자국이 또 다시 없어진것이였다.

눈을 뜰수 없게 뽀얀 눈보라가 이는 속에서 발자국은 생겼다간 없어지고 없어졌다가는 다시 생기군하여 《토벌》대놈들은 정신을 차릴수 없었다.

마치 그 뽀얀 눈보라를 타고 유격대가 하늘로 날아오르기도 하고 땅으로 내려오기도 하는것 같았다.

《토벌》대놈들은 발자국참모의 말을 듣고 발자국을 따라 눈덮인 산판을 헤매다가 절반이나 얼어죽고 굶어죽고말았다.

《토벌》대장은 겨우 목숨을 건진놈들을 끌고 허둥지둥 계속 발자국을 따랐다.

그러는 놈의 눈앞에 또다시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

눈우에는 새 발자국이 자꾸만 생기는데 그 발자국을 내며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유격대가 둔갑술을 쓴다!》

대장놈은 겁먹은 소리를 쳤다.

놈들은 온 겨울 발자국을 따라다녔으나 유격대를 한사람도 보지 못한채 숱한 주검만 남기고 겨우 몇놈밖에 돌아오지 못했다.

그후부터 왜놈들은 《토벌》대마다에 있던 발자국참모직제를 모두 없애버리고말았다.

신출귀몰하는 **김일성**장군님유격대의 행처를 발자국참모라고 알아내겠는가?

왜놈들은 뒤늦게야 깨달은것이다.

《말꼬리토벌대장》

어느 겨울날.

《토벌》대장 노무라는 졸병놈들에게 노발대발하여 쌍욕을 퍼붓고있었다.

《머저리같은놈들! 아무리 신출귀몰한 **김일성**부대이기로서니 대포와 비행기까지 주었는데도 되려 얻어맞고 도망쳐온단 말인가, 앙?》

노무라는 졸병놈들을 씹어삼킬것만 같았다.

오늘아침에도 전과를 보고하라는 《토벌사령부》의 불같은 독촉을 받았으나 벙어리가 되지 않을수 없었던 노무라이다. 이제나저제나 하고 《전과보고》를 기다렸는데 돌아온놈들마다 모두 유격대는 보지도 못하고 병신짝이 되여 기여드니 참으로 통곡할 노릇이였다.

바로 이때였다.

또 한놈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기여들어오더니 노무라앞에 《기척》을 하였다.

《각하! 7도구목재소가 유격대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뭣이?》

노무라는 불에 덴놈처럼 펄쩍 놀랐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팔과 머리에 온통 붕대를 감은 다른놈이 뛰여들어와 가까스로 서서 보고하였다.

《각하! 대양차에서 장백으로 가던 황군의 기마대가 유격대의 습격을 받아 전멸되였습니다.》

《뭐라구?》

들어오는 소식마다 기막힌것뿐이여서 이놈은 귀를 막고 소리라도 치고싶은 심정이였다.

노무라는 우리에 갇힌 승냥이처럼 으르렁대면서 부대에 총출동명령을 내리였다.

《모두 내뒤를 따르라! 유격대를 사로잡기전에는 절대로 살아돌아오지 않을것이다.》

이놈은 군마우에 올라앉아 졸병놈들앞에서 호언장담을 하였다.

노무라는 제가 직접 기마부대를 앞세우고 말에 채찍을 먹이며 7도구쪽으로 달려갔다.

입에 거품을 물고 달리던 이놈은 갑자기 멈춰서더니 말에서 뛰여내렸다.

눈우에 수많이 새겨진 발자국을 발견하였던것이다.

《발자국참모를 부르라.》

급히 달려온 발자국참모는 곧 발자국에 대한 조사사업을 진행하였다.

발자국의 모양과 개수 그리고 깊이와 호상간격 등 몇가지 징표들을 조사한 그는 심중하게 이런 결론을 내리였다.

《이 발자국모양으로 보아 말발자국이 틀림없습니다. 새겨진 발자국의 깊이와 호상간격은 말들이 시속 20키로메터의 속도로 달리였음을 말해주고있습니다. 여기에 새겨진 말발자국수는 적어도 말이 500마리는 넘을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발자국의 모양이 생생한것으로 보아 방금 10분전에 지나간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500명의 유격대기마대가 10분전

에 시속 20키로메터의 속도로 7도구쪽으로 행군해간것으로 보아집니다.》

《뭐라구?》

노무라는 더럭 겁이 생겼다.

신출귀몰하는 유격대가 500명이 넘는다면 자기가 끌고온 2,000명의 《토벌》대만으로는 도저히 당해낼것 같지 못했다.

노무라는 련락을 띄워 《토벌》사령부에 응원을 요구했다.

그리하여 후꾸다, 오자끼부대 등 3,000여명이 더 증파되여 《토벌》대는 5,000명이 넘었다.

노무라는 증원부대로 산을 빙 둘러싸고 포위진을 좁혀들어가게 하였다.

그리고 자기는 먼저 공을 세워볼 생각으로 말발자국을 따라 추격해갔다.

이때 하늘에서 무엇인가 번쩍 빛을 뿌렸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생겼다.

그 빛을 본 노무라와 《토벌》대놈들은 갑자기 안개가 낀듯 눈이 흐리멍텅해져 앞을 잘 가려볼수가 없었다.

《오호홍!》

말울음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눈이 잘 안보인다고 아우성치던놈들은 흠칫 멈춰섰다.

노무라는 눈을 비비며 사방을 이리저리 살피였다.

그러다가 높은 나무들사이로 말들이 지나가는것을 어렴풋이 보게 되였다.

실히 500필은 넘는상싶었다.

《유격대다!

제군들! 무적황군의 명예를 떨칠 때는 왔다. 유격대는 우

리 눈앞에 있다. 일제 사격! 돌격 앞으로!》

왜놈들은 일제히 눈먼 총을 쏘아대며 앞으로 내달렸다.

그런데 총소리가 울리자마자 유격대기마부대는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엉?》

놈은 눈만 껌벅거렸다.

(**김일성**유격대가 또 축지법을 쓴것이나 아닌가.)

유격대가 승천입지한다는 생각이 든 노무라는 하늘높이 떠가는 흰구름을 겁먹은 눈으로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이때 저쪽 골짜기에서 《오호홍!—》 말울음소리가 울리였다.

그제야 펀뜻 정신이 든 노무라는 《저쪽이다! 추격하라.》 하고 또 소리를 질렀다.

눈을 잘 보지 못하는 노무라 《토벌》대놈들은 말울음소리를 듣고 유격대를 추격하느라고 총을 쏘아대며 발악하였다.

그러자 저쪽에서 맞받아 총알이 비오듯 날아왔다.

아이쿠, 아이쿠! 여기저기서 왜놈들의 비명소리가 울렸다.

노무라는 졸병들을 내몰았다.

《돌격하라! 빨리, 빨리!》

그러면그럴수록 《토벌》대놈들은 무리로 쓰러졌다.

그래도 노무라는 졸병들을 그냥 돌격에로 내몰았다.

이렇게 하기를 몇시간, 왜놈들은 지칠대로 지쳤다.

저쪽에서 비오듯 날아오던 총알도 뜸해지기 시작했다.

노무라는 겨우 살아남은 졸병들을 긁어모아가지고 최후돌격전을 벌렸다.

숲속에서 말들이 뛰여다니는것이 언뜻언뜻 보였다.

그러나 총알은 한알도 날아오지 않았다.

(유격대가 총알이 떨어진게 틀림없다. 인제야 할수 없지. 아무리 신출귀몰하는 유격대라 해도 이젠 빠지지 못한다.)

놈은 제법 팔자수염까지 쓸어만지며 위엄있게 말에서 뛰여내렸다.

벌써 큰 공을 세워 가슴에 번쩍거릴 훈패들이 눈앞에서 얼른거렸다.

《유격대를 끌어오라!》

그놈은 일본도를 땅에 짚고 서서 호통쳤다.

그런데 웬일인가?

한놈이 헐떡거리며 달려와 이렇게 보고하였다.

《대장각하! 유격대는 어디로 갔는지 한명도 보이지 않고 주인없는 말 다섯필만이 뛰여다니고있습니다.》

《뭣이? 그럼 죽은 유격대의 시체라도 끌어오라.》

《각하, 죽은 유격대의 시체는 하나도 없고 〈황군〉의 시체만 가득 널려있습니다.》

《뭐라구? 그럼 우리와 싸운것이 황군이란말인가?》

노무라는 두손으로 머리칼을 움켜쥐고 모지름을 썼다.

정말 미칠 지경이였다.

그럼 증원부대인 후꾸다와 오자끼부대와 싸웠단말인가?

노무라는 눈을 흡뜨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흐리멍텅히 눈에 안겨오는것은 임자없이 헤매는 말들뿐이였다.

이때 맞은쪽에서 후꾸다와 오자끼 《토벌》대장들이 노무라를 향해 걸어오고있었다.

망둥이 제 새끼 잡아먹듯 제놈들끼리 죽일내기를 하던놈들은 만나자바람으로 서로 멱살을 부여잡고 개싸움을 벌렸다.

《네가 먼저 사격을 했다.》

《아니다. 네가 먼저 사격했다.》

란투를 벌리던놈들은 기진맥진해지자 모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만 멀뚱거렸다.

그러다가 노무라가 먼저 벌떡 일어섰다.

(옳지, 저 말이라도 잡아서 보고를 해야겠다.)

이때 후꾸다와 오자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났다.

《저 말들을 잡아오라!》

《저 말새끼를 붙잡으라!》

《저 말을 몽땅 잡아오라!》

노무라도 후꾸다도 오자끼도 모두 자기 졸병들에게 호통쳤다.

그바람에 노무라와 후꾸다와 오자끼의 《토벌》대놈들은 주인없는 말들을 저마다 잡겠다고 피투성이가 되여 싸웠다.

그런데 그 말들은 어찌나 날쌘지 도저히 붙잡을수가 없었다.

이쪽으로 달려가면 어느새 저쪽 산봉우리에서 《오호홍!》하고 울어대고 또 저쪽으로 달려가면 이번엔 이쪽에서 투레질소리가 울렸다.

약이 오를대로 오른 《토벌》대놈들은 말들을 사방에서 포위하고 낭떠러지로 몰아갔다.

총을 쏘며 따라오는 《토벌》대놈들에게 쫓기운 말들은 인젠 더는 빠져나갈수가 없게 되였다.

인제야 오도가도 할수 없게 됐지하고 《토벌》대놈들은 말들이 몰켜있는 벼랑우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런데 이때였다.

갑자기 말들이 일시에 날개라도 돋힌듯 벼랑우를 뛰여내리는것이였다.

노무라《토벌》대의 한 졸병이 얼결에 어느 한 말의 꼬리

를 꽉 붙잡았다.

그러자 그 말의 꼬리가 끊어지고말았다.

졸병은 끊어진 말꼬리를 손에 쥐고 사방을 휘둘러보았다.

말들은 하늘로 날아올랐는지 온데간데없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룡마들이 아닐가?)

《토벌》대놈들은 이런 생각이 들자 더는 추격할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러다나니 결국 그 어느 《토벌》대에서도 한마리의 말도 잡지 못하였다.

다만 노무라 《토벌》대에서 말꼬리 한개를 겨우 잡았을뿐이였다.

그것도 천만다행이였다.

그날저녁 노무라는 《토벌》사령부에 할수없이 이렇게 보고했다.

《유격대<토벌>전과는 다음과 같다.

아군전사자 1,200명, 아군부상자 700명, 로획물자 말꼬리 한개.(유격대가 타고다니던 룡마임) 이상》

허나 실상 그 말은 룡마도 아니요, 더우기 유격대의 말이 아니였다.

장군님께서 왜놈들의 말을 빼앗아서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다섯필을 놓아주시고 그 다섯필의 말이 500필로 보이도록 또 술법을 쓰셨던것이다.

그러니 청맹과니가 된 5,000명의 《토벌》대놈들은 임자 없는 말 다섯필을 진종일 따라다니다가 제놈들끼리 서로 싸워이 지경이 된것이였다.

이때부터 《말꼬리토벌대장》이란 말이 생겨났다.

《아무리 고아대야 헛공사다》

일제통치말기 북부조선과 중국동북지방에서는 《아무리 고아대야 헛공사다.》라는 말을 즐겨쓰군하였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사람들은 의례 그 뒤끝에 《아무리 고아대야 헛공사지.》하고 꼬리를 달군하였다.

이 말은 자꾸만 퍼져 나중에는 아무리 해도 안된다는 본래의 뜻보다도 패망하여가는 일제를 야유조소하는 은어로 더 많이 쓰이게 되였다.

어느날 사민으로 가장한 일본군장교가 시모노세끼에서 부산까지 가는 관부련락선에 몸을 싣고 조선으로 오고있었다.

그는 천황의 어명을 직접 받고 감히 **김일성**장군님과 맞서보려고 떠난것이였다.

유도 8단에 기합술을 쓰는데다가 격검에 능하고 도술까지 부리는 장교는 자신심에 넘쳐있었다.

며칠전 장교는 갑자기 궁성으로 불리워갔었다.

거기서 그는 뜻밖에도 천황을 만났다.

《그대의 재주가 뛰여나 만사람을 놀라게 한다니 한번 내 앞에서 있는 재주를 다 보이라.》

장교는 영문도 모르고 천황앞에서 재주를 부리였다.

그의 재주는 참으로 놀랄만하였다.

유도, 격검은 말할것도 없고 기합을 쓰는데 궁성안에 있는 동물원에서 범과 사자를 각각 한마리씩 풀어내여 달려들게 하고는 《얏!》하고 소리치니 순식간에 돌로 굳어지는것이였다.

굳어진 범과 사자는 그놈이 대가리를 오른손으로 세번 쓸어주자 다시 살아나 동물원의 제 우리로 쫓기듯 비실비실 들어가더니 눈만 껌벅껌벅하며 앉아있었다.

천황은 너무도 놀라와 입을 딱 벌리고 아무말도 못하고있었다.

다음엔 도술을 부렸는데 그것은 더 놀라운 재주였다.

금방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어졌다가도 다시 나타나는가 하면 눈깜박할 사이에 몇천리를 갔다오기도 하였다.

천황은 입이 헤벌쭉해져서 그를 조선으로 보내면서 **김일성**장군을 《체포》하라는 분부를 내렸다.

그리하여 장교는 관부련락선에 몸을 싣게 된것이였다.

그는 그날로 현해탄을 건너 조선 부산땅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 일본장교앞에 두 백발로인이 나타났다.

흰 수염이 앞가슴까지 내리드리운 두 로인은 꼬불꼬불하게 생긴 지팽이로 장교의 길을 막아나섰다.

《뭐야?》

조선땅에 첫발을 내디디자마자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겨 악에 받친 그놈은 꽥 소래기를 질렀다.

그러나 두 로인은 태연히 지팽이로 길을 막은채 열어주지 않고 서있었다.

장교는 성이 잔뜩 나서 《얏!》하고 소리치며 몸을 우로

솟구더니 동시에 두 로인을 발로 힘껏 걷어찼다.

그런데 웬일인가?

두 로인은 간데온데없이 사라지고말았다.

장교는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 어디에도 그들은 없었다.

이때 하늘에서 뚜룸뚜룸하는 두루미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머리를 들고 쳐다보니 두마리의 하얀 두루미가 깃을 퍼덕이며 구름밑으로 날아가고있었다.

장교는 하도 수상하여 아픈 다리를 싸쥐고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도저히 영문을 알수가 없었다.

(그러면 두 로인이 저 두루미로 변하였단말인가?)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두루미가 날아가자 그의 혼도 앗아갔는지 별로 정신이 흐리마리해지는것 같았다.

그는 머리를 기웃거리며 또다시 백두산을 향해 걸어갔다.

대동강가에 다달았을 때였다.

장교앞에 난데없이 아낙네들이 나타나 빨래방치를 들고 길을 막는것이였다.

《이건 뭐야?》

일본장교는 성이 나서 꽥 소리치며 두주먹을 부르쥐고 아낙네들을 탁 내리쳤다.

그러자 그 아낙네들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아름드리 버드나무가 솟아났다. 자기를 조롱하듯 실실이 내리드리운 가지들이 바람에 흐느적이고있었다.

(**김일성**장군이 내가 온것을 미리 알고 도술을 쓰는게 아닐

가?)

이런 생각이 머리속에 갈마들자 점차 겁이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냥 그러고 서있을수는 없었다.

천황의 어명을 받은지라 그는 울며 겨자먹기로 할수없이 또 백두산을 향해 걸어갔다.

드디여 백두산에 이른 그 장교는 장군님의 행적을 찾아 헤매였다.

그런데 장군님의 행방을 알수가 없었다.

그는 할수없이 가까이 주둔하고있는 《토벌》대에 찾아가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였다.

《토벌》대놈들까지 총출동하여 **김일성**장군을 《추격》하느라고 돌아쳤다. 모두다 허사였다.

일본장교는 종시 장군님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어디론가 자꾸만 걸어가고있었다.

이때 뒤에서 타박타박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다보니 웬 소년이 급하게 장교를 따라오며 찾는것이였다.

웬일인가싶어 장교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아저씨, 우리 선생님이 거기에 좀 서있으랍니다.》

귀엽게 생긴 소년은 발씬 웃으며 맑고 쟁쟁한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구? 너의 선생이 누구냐?》

장교는 퉁명스럽게 물었다.

《우리 선생님은 **김일성**장군님의 부하입니다.》

《뭐? **김일성**장군부하?!》

장교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렇게 찾아도 줄을 잡지 못했는데 부하를 만났으니 인젠 됐구나.)

《이 녀석아, 네 선생이 어디 있느냐?》

장교는 그 부하하고라도 한번 맞서볼양으로 팔다리를 움직이며 예비동작을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장교의 발이 땅에 떡 들어붙어 떨어지지 않는것이였다.

장교는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수가 없었다.

그는 온몸에서 맥이 다 빠져 땅으로 잦아드는감을 느꼈다.

장교는 소년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전혀 말소리가 나가지 않았다.

소년은 그러는 그놈을 보고 다시 한번 발씬 웃더니 되돌아서 가버리고말았다.

장교는 온종일 돌미륵처럼 그자리에 서있을수밖에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았으나 장교는 아무말도 할수가 없었다.

한 달구지군은 지나가다가 길복판에 서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 장교에게 쌍욕까지 퍼부었다.

하긴 허름한 사민옷을 입었으니 누가 그를 일본군장교라고 생각하겠는가?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여서야 그 소년이 다시 나타났다.

소년은 밤이슬에 몸이 후줄근해진 장교를 보고 또 발씬 웃더니 《우리 선생님이 이젠 가도 된다고 합니다.》하고 말했다.

소년이 이렇게 말한 다음에야 장교는 비로소 땅에서 발이 떨어져 길을 걸어갈수가 있었다.

장교는 체면도 잊어버리고 그 소년앞에 무릎을 꿇고 엎디여 손을 싹싹 비비며 제발 이 미련한놈을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했다.

소년은 선생님이 이미 용서를 했으니 어서 눈앞에서 빨리 사라지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제야 장교는 황황히 도망치면서 중얼거렸다.

《부하가 저런 재간을 가졌을진대 감히 **김일성**장군과 맞서다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장교는 그 길로 부산으로 달려가 시모노세끼로 가는 관부련락선에 올랐다.

그는 눈앞이 캄캄했다.

궁성으로 찾아가야 틀림없이 효수를 당할건 뻔한 일이였다.

조선으로 떠나올 때 그렇게도 굳은 맹세를 다졌던 자신이 아니였던가.

갑판에 나왔던 장교는 미친듯이 두손을 하늘높이 쳐들고 소리쳤다.

《아무리 고아대야 헛공사다. **김일성**장군한텐 그 누구도 어림없다.》

그는 벌써 제 정신이 아니였다.

배는 현해탄 여울목을 지나고있었다.

장교는 바다물속에 풍덩 몸을 던졌다.

그후부터 사람들이 현해탄을 건늘 때엔 《아무리 고아대야 헛공사다! **김일성**장군한텐 그 누구도 어림없다.》고 한 그 장교의 말소리가 파도소리와 섞갈려 간간이 들린다고 한다.

바람타고 다니는 장군

일제침략자들의 아성인 도꾜의 궁성안에 일대 수라장이 벌어졌다.

천황이 신경과민증에 걸린것이였다.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이고 끙끙 앓음소리를 내며 천황이 일체 식음을 전폐한지도 벌써 며칠.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들이고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으나 아무런 효험도 없었다.

날이 갈수록 천황의 신경발작은 더 심해만졌다.

동방의 명산 백두산에서 **김일성**장군이 관동군을 수세에 빠뜨리고 《대일본제국》을 위협하고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매일 궁성으로 날아오는바람에 천황이 이 지경으로 된것이였다.

천황은 백만관동군을 모두 유격대《토벌》에 돌리라고 어명을 내렸다.

그런데 《토벌》대놈들은 유격대를 《토벌》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놈들이 련속 타격을 받고있었다.

천황은 마침내 또 발작을 일으켰다.

그는 륙군대신을 궁성에 불러들였다.

《너 이놈! 대일본제국의 황군을 허수아비처럼 만들어놓고도 감히 대가리를 들고 다니느냐? 죽어 마땅한놈.》

룡상에서 일어난 천황은 주먹을 내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앞에서 륙군대신은 바들바들 떨면서 제발 용서를 빌었다.

《신이 지은 죄 실로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한달만 말미를 주십시오. 신이 기어이 폐하의 소원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천황은 다소 성이 가라앉은듯 《음, 그럼 마지막으로 너에게 한번 더 기회를 준다. 하늘이 준 이 기회에 나를 위해 충성다하라. 만약 이번에도 뜻을 못이루는 날에는 네 목이 무사치 못할줄 알아라.》하고 오금을 박아놓았다.

비지땀을 뒤집어쓰고 천황앞을 물러나온 륙군대신은 조선으로 다시 건너가 부하들을 불러놓고 한바탕 화풀이를 하였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련락을 띄운다, 명령을 내린다 야단법석을 피웠다.

그런 다음 륙군대신은 좋은 소식이 올가 하여 전화종소리가 울리기만 기다렸다.

며칠후 첫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륙군대신은 화닥닥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부관이 주는 송수화기를 빼앗듯이 받아쥐였다.

《뭐야?》

륙군대신은 송수화기를 받아쥐자마자 소래기를 질렀다.

김일성장군이 평양에 나타났다는 보고였기때문이다.

장군은 평양에서 제일 큰 식당에 들려 아침식사를 하고 밥값까지 치른 다음 천천히 문밖으로 나섰다는것이였다.

《그러면 그렇겠지. 인젠 됐다.》

룩군대신은 벌써 속으로 쾌재를 올리며 명령을 내렸다.

《수비대를 몽땅 풀어 평양을 포위하라. 평양이다, 평양! 개미 한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룩군대신은 평양을 물샐틈없이 에워싸고 샅샅이 뒤지도록 했다.

그리고는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오겠는가 하고 안절부절을 못하며 방안을 이리저리 왔다갔다 했다.

그럴 때 두번째 보고가 들어왔다.

룩군대신은 평양에서 좋은 소식을 알려오는가부다 하고 급히 송수화기를 들었다.

그 전화는 평양에서 온것이 아니라 함흥에서 걸려온것이였다.

보고내용인즉 **김일성**장군이 함흥 역전리발관에서 리발을 하고 마차에 올랐는데 간곳은 모른다는것이였다.

룩군대신은 또 명령을 내렸다.

《수비대를 몽땅 함흥으로 돌리라. 함흥이다, 함흥! 개미 한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포위하라.》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헛물만 켜고말았다.

평양에서도 함흥에서도 모두 **김일성**장군이 안개처럼 사라졌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도대체 **김일성**장군이 어디로 사라졌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였다.

이때 세번째 보고가 서울에서 들어왔다.

김일성장군이 서울에 나타나 왜놈들을 몰살시키고 달아나는 헌병대장까지 쏴눕힌 다음 권총끝에서 나오는 연기를 훌 불어 날리면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가 거리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는것이였다.

륙군대신은 사색이 되여 이번에는 《서울!— 서울!—》하고 웨쳤다.

그러나 소용없는짓이였다.

왜놈들은 서울로 몰려들었으나 벌써 **김일성**장군님은 가뭇없이 자취를 감추신것이였다.

여기저기로 몰려다니는 왜놈들의 귀에 크게 웃는 웃음소리가 들렸으니 그것은 백두산마루에 오르신 장군님의 웃음소리였다.

그 웃음소리에 륙군대신은 부들부들 떨었다.

그놈은 할수없이 다시 천황을 찾아갔다.

독기어린 눈으로 쏘아보는 천황앞에 벌벌 기여간 그놈은 모가지를 내대면서 죽어가는 목소리로 《신이 죽기는 죽겠으나 바람을 타고 다니는 **김일성**장군앞에서는 어쩔수 없으니 폐하는 깊이 료량해서 처사를 하옵소서.》하고 말했다.

천황은 륙군대신의 목을 당장 베고싶었으나 그놈도 어쩔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던지라 《하긴 그래. 네가 살아온것만도 천만다행이로다.》하고 맥빠진 소리를 하였다.

철길공사장에서 있은 일

대동강의 지류인 비류강줄기를 따라 평양에서 북으로 약 200리가량 올라가면 신성천로동자구가 있다.

지금은 동서남북 네줄기의 철길이 사귀는 철도분기점으로 여러 철도기관들이 들어앉아있고 쉼없이 오르내리는 려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봉사시설들과 공장, 기업소까지 적지 않게 있어 로동자구로서는 꽤 번창한 고장이다.

그러나 일제통치시기에는 북대봉산줄기와 묘향산줄기의 사이에 매화산, 호전산, 계두산 등 그리 크지 않은 산봉우리들이 점점이 둘러앉은 가운데 자리잡은 자그마한 산골농촌마을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일제는 여기에 다른고장보다 몇배나 더 많은 헌병과 경찰을 배치하고 조선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다.

일제가 왜 자그마한 농촌마을인 신성천에다 그렇게 많은 헌병과 경찰을 배치하였는가?

여기에 이러한 의문을 풀어주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1940년대초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신성천—승호사이철길공

사를 벌려놓았다.

한것은 이 일대에 매장된 무진장한 석탄을 캐여 제 나라로 략탈해가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신성천—승호사이철길을 일명 탄광선이라고도 불렀다.

어느날 철길공사장 현장사무실에 웬 젊은이들이 나타났다.

헌옷을 입고 피나리보짐을 어깨에 걸친 그들은 로무계사무실로 찾아들어가 공손히 말을 했다.

《우리는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들인데 아무 일이나 시켜주십시오.》

얼굴이 갱핏한 안경쟁이 왜놈로무계장은 젊은이들을 아래우로 훑어보았다.

모두가 옷차림은 허름했으나 하나같이 끌끌하고 눈에 정기가 도는것이 힘꼴이나 쓸것 같았다.

로무계장놈은 대번에 입이 귀밑으로 돌아갔다.

그러지 않아도 철길공사가 늦어진다고 우에서 매일같이 독촉인데 이런 상일군들이 나타난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좋다, 좋다.》

계장놈은 새로 온 젊은이들에게 나무로 깎아만든 패쪽을 하나씩 내주었다.

그날부터 젊은이들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계장놈은 저절로 흥얼흥얼 코노래가 나갔다.

젊은이들은 모두가 일을 잘했다.

그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현장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은 물론 감독을 하는 십장들까지 입을 하 벌리고 그 자리에 멍하

니 서있군하였다.

황소만한 바위돌을 들어 넝큼 던지는데 그 거리가 실히 백걸음은 넘을상싶었다.

그런가하면 떡메만한 쇠메를 한손으로 들어 바위산을 내리치는데 산이 절반 쩍 갈라지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 청년들을 보고 힘장사라고들 하였다.

게다가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인정이 깊고 도량이 크고 너그러웠던지 로동자들은 만나서 이틀도 되기전에 친형제처럼 가까와졌다.

그런데 이상하였다.

그 끌끌한 힘장사들이 온 다음부터 철길공사는 더 빨라지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굼떠지는것이였다.

계장놈과 십장들은 아무리 눈에 쌍심지를 켜고 살폈으나 그 원인을 도저히 알수가 없었다.

하는수없이 계장놈은 헌병대에다 이 사실을 보고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 힘장사청년들이 온 다음부터 철길공사가 점점 더 떠지는데 아무래도 그자들의 작간인것 같습니다. 헌병대에서 좀 다스려주기 바랍니다.》

헌병대장놈은 즉시에 헌병들을 철길공사장으로 파견했다.

밤낮으로 공사장을 싸다니던 헌병놈들은 그 힘장사청년들이 수상하다고 생각했다.

그 청년들이 속해서 일하는 작업장이 겉으로 보기에는 일이 잘되는것 같은데 실은 아무런 일자리도 나지 않는것이였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로동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지 제

놈들이 가까이 가면 하던 말도 뚝 그치군하는데 그 뒤엔 반드시 로동자들의 태도가 고분고분해지지 않고 마주보는 눈길이 사나와지는것이였다.

헌병놈들은 당장 그 청년들을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상대가 무서운 힘장사들이라 어쩌지 못하고있다가 더 많은 헌병들과 경찰들까지 끌고 공사장에 나타났다.

너무도 갑자기 헌병들과 경찰들이 달려드는바람에 젊은이들은 몸을 피할사이가 없었다. 놈들에게 포위되여 오도가도 할수 없게 된 청년들을 보면서 로동자들은 그들을 도와주지 못해 안타까와하였다.

젊은이들을 겹겹으로 포위한 왜놈들은 한걸음두걸음 점점 조여들기 시작했다.

로동자들도 손에 땀을 쥐고 젊은이들과 왜놈들을 번갈아보았다.

그런데 이때 《앗!》하는 소리와 함께 젊은이들이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헌병놈들은 물론 로동자들가운데서도 그 젊은이들이 언제 어떻게 어디로 사라졌는지 본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에 왜놈들은 모두 얼이 나가 서로 마주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서있었다.

이때였다.

공사장옆에 있는 함바의 지붕우에서 《쪽발이왜놈들아!》하는 고함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왜놈들도 정신을 차리고 함바의 지붕우를 쳐다보았다.

그 힘장사청년들이 지붕우에 서있는것이였다.

청년들은 품속에서 총을 꺼내여 헌병들과 경찰들을 향해 보기좋게 불벼락을 안기였다.

《아이쿠! 아이쿠!》

놈들은 삼단 넘어지듯 무리로 쓰러졌다.

그러나 악착한 왜놈들인지라 개죽음을 당하면서도 기를 쓰고 달려들었다.

왜놈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청년들을 붙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방금까지 지붕우에 서있던 청년들이 눈깜박할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졌다.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순간 어느덧 힘장사청년들이 닭의 대가리처럼 생긴 계두산의 숲속으로 들어가는것이 보였다.

《저쪽이다!》

왜놈들은 계두산으로 우르르 밀려갔다.

뒤쫓으며 아무리 찾아봐도 청년들은 보이지 않았다.

이리 뛰고 저리 뛰노라고 온몸을 땀으로 미역감은 헌병놈들과 경찰놈들은 하는수없이 산중턱에 이르자 아무렇게나 퍼더버리고 앉아 숨을 돌이고있었다.

때마침 서느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런데 이때 무엇인지 그놈들의 대갈통우에 떨어졌다.

《이크!》

왜놈들은 불에 덴놈처럼 화닥닥 놀라 일어섰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바람에 떨어진 솔방울들이였다.

그 솔방울들은 때구루루 산아래로 굴러내려갔다.

얼마후 헌병놈들과 경찰놈들은 다시 산봉우리를 향해 참빗

훑듯 샅샅이 뒤지며 올라갔다.

그러나 그 청년들은 하늘로 올라갔는지 땅으로 잦았는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기진맥진한 왜놈들이 지친 다리를 끌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아까 올라갈 때 쉬던 그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였다.

솔방울들에서 그 힘장사청년들이 나타나 왜놈들을 족치기 시작했다.

청년들이 솔방울로 변신했던것이다.

바빠맞은놈들이 줄행랑을 놓는데 머리우에서 또 솔방울들이 후두둑 떨어졌다.

그런데 그 솔방울들은 떨어지면서 황소만큼 커지는것이였다.

왜놈들은 그 솔방울밑에 깔려 빠드럭거리다가 총도 한방 쏘아보지 못하고 모두 황천객이 되고말았다.

바로 이 청년들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신성천—승호사이철길공사장에 파견하신 항일유격대원들이였다.

그후부터 왜놈들은 여기 신성천에 **김일성**장군부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면서 다른고장보다 각별히 헌병과 경찰을 더 많이 배치하였다고 한다.

소 스무마리와 새 세쌍

조국해방에 대한 우리 인민의 갈망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잇닿아있었다.

인민들은 장군님께서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선을 기어이 해방시켜주신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장군님께서 천리혜안의 예지를 지니신분이기에 왜놈이 언제 망하고 조선이 어느해에 해방된다는것까지 다 계산해두고계신다고 믿고있었다.

소 스무마리와 새 세쌍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설인데 지방마다 조금씩 그 내용이 다르다.

그중에서 개성지방에서 전해지고있는 전설은 다음과 같다.

언젠가 개성고려병원에서 나이는 젊었으나 아는게 많고 점잖은 한 사람이 치료를 받고있었다.

그 젊은이는 높은 인품과 넓은 도량, 모르는것 없는 다문박식한 학식으로 하여 환자들은 물론 의사와 간호원들까지 매혹되여 진심으로 따랐고 모두 선생이라고 불렀다.

그 젊은이는 환자들과 의사, 간호원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심취되여버렸다.

그의 말이 신기한 힘을 가지고있어 듣고나면 눈앞이 환해지고 가슴이 후련해지군하였다.

어느날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환자들중에 농민 한사람이 있었는데 퇴원을 하면서 인사를 하려고 그 젊은이가 들어있는 호실로 찾아갔다.

젊은이는 완치된 농민을 보고 몹시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몸이 쾌차하신걸 보니 참으로 기쁩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마 집에서는 소가 쌍둥이를 낳고 기다릴겝니다.》

젊은이의 말을 들은 농민은 어리둥절해졌다.

(우리 집 소가 쌍둥이를 낳다니? 엊그제 로친이 면회왔을 때도 아무말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모를 일이다.)

처음 듣는 얘긴데 너무나 확신에 넘쳐있으니 롱이라고만 생각할수 없었다.

그날 집에 돌아간 농민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주인이 집대문에 척 들어서려는데 《매애—》하고 송아지울음소리가 나기에 달려가보니 소가 방금 쌍둥이를 낳은것이였다.

농민은 탄복하여 무릎을 쳤다.

그 젊은분이 송아지를 낳기도전에 미리 쌍둥이를 낳을거라고 알아맞힌것이 생각할수록 놀랍기만 했다.

(그분은 보통사람이 아니다. 필경 하늘에서 내린 신선이 아니면 성인이 틀림없다.)

농민은 너무도 신기하여 그 이튿날 다시 병원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그 젊은분에게 말씀드렸다.

《선생님! 정말 고맙소이다. 하늘에서 복이 내리게 해주신 선생님께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합니까? 큰절을 받아주십시오.》

농민은 머리가 땅에 닿도록 큰절을 했다.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복을 준게 아닙니다.》

젊은분의 얼굴은 잠시 붉어졌다.

농민은 이 신기한 사실을 이방 저방 들고다니며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그러자 온 병원안에 이 소문을 못들은 사람이 없게 되였다.

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직접 찾아가 자기 집 가정이야기를 하고는 가문에 언제 행운이 들겠는지 미리 알려줄수 없는가고 묻기까지 하였다.

그때마다 그 젊은분은 《이제 가문에 복이 굴러들어올것입니다. 신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하고 말하군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새힘이 용솟음침을 느꼈다.

이 소문은 거리의 왜놈경찰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놈들은 그 사람이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불의에 병원으로 들이닥쳤다.

이때였다.

갑자기 돌개바람이 일더니 그 젊은분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서 얼마 떨어져있는 개성남대문 높은 성문에 소 스무마리와 새 세쌍을 그린 종이가 나붙었다.

신기하게 나붙은 그림앞에 사람들은 가득 모여서서 저저마다 제나름으로 풀이를 했다.

《아마 소가 개성장안에 많이 난다는 뜻인가 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 다른 사람이 《밭갈이할 소가 많으니 새들이 기뻐서 날아온다는 뜻이 아닐가요?》하고 말했다.

《그런데 왜 새가 두쌍이나 네쌍이 아니고 딱 세쌍인가 말이요?》

《아, 거야 세쌍을 그렸으니까 세쌍이지.》

《하하하!》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는 이 말에 한바탕 웃음통을 터뜨렸다.

누구도 그 그림의 뜻을 정확하게 푸는 사람이 없었다.

스무마리의 소와 세쌍의 새! 이렇게도 저렇게도 풀어보았으나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과연 무슨 뜻일가 하고 머리를 기웃거리며 계속 생각했다.

이때 그 젊은분과 같이 병원에 입원해있던 한 나이든 환자가 그 그림을 보더니 대번에 이렇게 풀었다.

《성인이 나타나시여 조선이 해방될 날을 미리 알리신것이요. 저 스무마리의 소는 소화 20년이라는 뜻이요, 새 세쌍은 새 세상이라는 뜻이니 1945년에 새 세상이 온다는것을 그림으로 예언하신것이요.》

이 명철한 해석은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예언은 꼭 들어맞아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해방되였다.

그후 개성사람들은 그 젊으신분이 바로 왜놈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소 스무마리와 새 세쌍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만주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속에서도 널리 퍼졌다.

할빈을 비롯하여 쌍성, 빈주, 오상 그리고 교화, 돈화, 방정, 목단강, 호란 어데라없이 널리 전해졌다.

할빈사람들은 **김일성**장군님께서 할빈에 자주 오셨는데 1942년초에 오셨을 때엔 할빈도리중앙대가 홍아려사에서 며칠을 류숙하고 떠나시면서 종이에 바로 그 그림을 그려놓고 가셨다고 했다.

그들은 **김일성**장군님은 세상만사와 사람의 속까지 꿰뚫어보시는 하늘이 낸 큰분이시니 왜놈들이 망하고 조선이 독립되는 날자까지 다 아신다고 하면서 그이를 우러러 희망에 넘쳐 살았다고 한다.

길어서 3년

왜놈들이 망하기 몇해전 강원도 어느 산간마을에 철도선로공으로 일하는 한 젊은 로동자가 살고있었다.

그 젊은이는 통 웃을줄을 모르는 사람이였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마을사람들도 그가 웃는것을 단 한번도 본 일이 없었다.

그는 삼방협곡을 빠져나간 철길을 순회하면서 철길보수작업을 하고있었다.

그러다나니 매일같이 골짜기를 울리며 힘겹게 지나가는 기차의 기적소리와 함께 일제의 대포밥으로 실려가는 조선청년들의 분노에 찬 울부짖음을 가슴아프게 들어왔다.

《죽일놈들, 언제가면 이놈의 세상이 망하려나.》

그는 그저 답답한 가슴만 탕탕 치며 세상을 저주하였다.

그러던 그가 하루는 희색이 만면하여 날개라도 돋힌듯 껑충껑충 집으로 달려왔다.

그는 기쁨에 넘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오늘낮에 백두산의 대장수 **김일성**장군님께서 내가 일하는데 오셨댔어요!》

《아니,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셨댔단말이냐?》

늙은 아버지는 자리를 고쳐앉으며 눈이 휘둥그래져서 물

었다.

《그럼요. 장군님께서 선비로 변장하신채 제자 셋을 거느리시고 바로 내가 일하던 철길우에 오셔서 앉아 쉬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는 신이 나서 낮에 자기가 목격한 일을 죄다 이야기했다.

그날 젊은이는 한낮의 무더위에 지쳐 내리쪼이는 해볕을 피하여 그늘속에 들어가 앉아 쉬고있었다.

이때 한 선비가 제자 셋을 데리고 철길우로 훨훨 나는듯이 걸어오더니 방금 젊은이가 일하던 철길우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휴식을 하는것이였다.

그때 옆에 앉아서 쉬고있던 한 제자가 두리번두리번하다가 움쭉 일어나 깔고앉았던 700근도 넘는 레루를 쭉 휘여 뽑아내더니 수십길 낭떠러지밑에 가볍게 동댕이쳤다.

이것을 지켜보고있던 젊은이는 깜짝 놀라 입을 딱 벌렸다.

(야! 장수구나!)

그는 이렇게 감탄하며 숨소리를 죽이고 계속 지켜보았다.

선비는 《후유!—》하고 숨을 길게 쉬더니 제자에게 말하였다.

《그건 뭘 그러느냐? 몇해나 가겠다구.》

《아직 세월은 좀 기다려야 하는데 이 철길로 왜놈들이 우리 나라의 은금보화를 얼마나 많이 실어가고있습니까.》

제자의 말을 듣고있던 선비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열손가락을 폈다 다시 꼽더니 《네 말도 비슷은 하다. 길어서 3년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더욱 신이 난 제자는 장바 두어기장이나 될 철길레루를 또다시 엿가락처럼 휘여 뽑아쥐더니 산밑으로 집

어던졌다.

이때 선비가 제자들에게 《우리가 백두산을 떠난지도 벌써 사흘이 지났으니 어서 걸음을 재촉해야겠다.》고 말하였다.

나무그늘밑에 숨어서 이 광경을 보고있던 젊은이는 드디여 판단을 내렸다.

(옳지! 풍문에 듣던 **김일성**장군님께서 백두산장수들을 거느리시고 드디여 나오셨구나! 저렇게 변신술을 쓰시여 선비로 되셨으니 누가 감히 알아보랴! 길어서 3년이라고 하신것은 이제 3년이면 왜놈들이 망하고 조선이 독립된다는 말씀이시구나!)

젊은이는 너무도 기쁘고 감격에 겨워 막 첱길우로 달려가려고 했다.

그런데 벌써 그 선비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골짜기를 지나 먼 산마루에 가있었다.

아들의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다 듣고있던 늙은 아버지는 무릎을 탁 치며 기쁨에 넘쳐 말했다.

《옳지! 분명히 장수가 나왔으니 조선독립이 될 날이 가까왔구나! 원래 백두산에 성인 한분이 숱한 장수들을 거느리고 계신다던데 그분께서 한번 손을 저으시면 산천이 환해진다고 했다…》

그후부터 사람들은 모여앉기만 하면 왜놈들이 망할 날도 길어서 3년이라는 말을 자주 외우게 되였다.

신통하게도 그때로부터 꼭 3년이 되여 조선이 해방되였다.

세 장수이야기

노란 만병초꽃이 눈속에서 방긋 웃는 어느해 초여름이였다.

나무군차림의 세사람이 백두산에서 내려오고있었다.

보매 그들은 아무래도 보통사람같지 않았다.

키는 구척장신이요, 체구는 우람한데 두눈에서 불찌까지 튕겨나는것이 장수임에 틀림없었다.

키낮은 들쭉숲을 헤치며 내려오는 그들의 발밑에선 쿵쿵 땅이 울렸다.

어느덧 백두산기슭에 이른 그들은 천지를 향하여 머리를 들고 우러르더니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다.

마치도 집을 떠나는 사람이 대문을 나서며 부모님께 큰절을 드리는것 같았다.

천지의 흰눈을 스치며 불어오는 시원한 산바람이 땀흐르는 그들의 이마를 식혀주고 머리칼을 흩날렸다.

얼마후 그들은 또 길을 떠났다.

이들이 바로 백두산의 대장수이신 **김일성**장군님의 부하장수들이였다.

그들은 지금 장군님의 명령을 받고 평양으로 가는 길이였다.

평양의 적정을 정찰하고 북부조선일대의 산세와 민심을 알

아보려고 떠난것이였다.

그들은 험한 산발을 타고 높은 령을 넘어 분비, 가문비와 봇나무숲을 헤치며 걷고 또 걸었다.

봉우리에 올라서서는 산아래를 굽어보며 수첩에 지형을 그려넣기도 하고 글을 몇자 적어넣기도 하였다.

백두산줄기를 타고가던 그들은 두류산에 이르자 다시 부전령산줄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그들은 어느 솔숲에서 하루밤 묵어가기로 하였다.

세 장수는 가랑잎을 긁어다가 제각기 자기들이 누울 자리를 만들었다.

진대나무통을 끌어다가 베개로 삼고 자리에 누운 장수들은 조금 있더니 드릉드릉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 코고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온 골안을 드렁드렁 울리였다.

이 소리를 산판을 헤매던 왜놈경찰들이 듣게 되였다.

백두산에서 장수들이 내려왔으니 총출동하여 길목을 지키고 산과 골짜기를 살살이 뒤지라는 총독부 우두머리의 벼락명령이 내려 어디 가나 왜놈경찰들이 득실거리는판이였다.

놈들은 백두산과 만주에서 일제군경놈들에게 호된 타격을 안기던 **김일성**장군부대가 국내로 진출해올가봐 겁이 났던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일성**부대의 국내진출을 막아야 한다.》

일제는 물샐틈없는 철통의 경비진을 폈다.

그리고는 개미 한마리 얼씬하지 못한다고 호언장담을 하

였다.

그런데 백두산에서 장수들이 내려 국내에로 들어왔다는 정보까지 받았으니 왜놈들은 혈안이 되여 온통 떨쳐나섰던것이다.

경찰 한놈이 코고는 소리를 먼저 듣고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뢰소리가 아니야?》

그러자 다른놈이 무슨 개소리냐는듯 지껄였다.

《우뢰소린 무슨 우뢰소리야? 하늘에 별이 총총한데.》

이번엔 세번째놈이 말했다.

《그럼 무슨 소리야? 한번 가볼가?》

《글쎄…》

첫번째놈과 두번째놈은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지 애매한 대답을 했다.

밤하늘에 울리는 그 소리가 하도 이상해서 잠시후 그놈들은 다른놈들과 함께 우르르 이삼십명이 그리로 달려갔다.

살펴본즉 나무군차림의 세사람이 가랑잎을 덮고 진대나무를 베고자면서 코를 고는 소리가 아닌가!

그놈들은 흠칫 뒤로 물러섰다.

《백두산장수들이다!》

순간 이런 생각이 그놈들의 뇌리를 쳤다.

그러자 갑자기 온몸이 얼어붙은듯 팔다리가 움직여지질 않았다.

내빼자니 내뺄수도 없고 그렇다고 장수들을 체포하자니 그럴만한 용기가 나지 않았다.

더우기 코고는 소리에 절반 얼이 나갔다.

얼마후 첫번째 경찰놈이 공을 세워볼 생각을 했는지 이렇

게 소곤거렸다.

《저 장수들이 정신없이 자는 틈에 먼저 무기를 빼앗자. 그다음엔 우리한테 총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가?》

그러자 두번째 경찰놈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그러다가 깨여나면 정말 큰일이다! 몽땅 죽는다, 죽어!》

이번엔 또 세번째 경찰놈이 말했다.

《자식, 그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공을 세우겠는가? 〈대일본제국〉의 경찰 30명이 <공비> 셋을 못당하겠는가?》

그놈들은 도적고양이모양으로 살금살금 발끝걸음으로 다가가 세 장수에게서 무기를 감쪽같이 빼앗아냈다.

그리고는 총을 들고 소리쳤다.

《손들엇!》

세 장수가 눈을 떠보니 아닌밤중에 홍두깨격으로 총구 서른개가 자기들을 겨냥하고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는 기색은 조금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태연하게 몸에 붙은 가랑잎을 툭툭 터는것이였다.

《손들엇! 쏜다!》

왜놈들은 또 소리쳤다.

놈들은 세 장수에게 총구를 더 바싹 들이대며 가까이 다가섰다.

그러나 여전히 세 장수는 아무러한 기색도 없이 어깨우에 드리운 솔가지에서 솔방울을 따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 손바닥에서 이리저리 굴리고있었다.

악에 받친 왜놈들은 철커덕 총알을 재우더니 당장 쏠듯한 기세였다.

이때였다. 세 장수는 손에 들었던 솔방울을 왜놈들에게 던

졌다.

그러자 쾅 짜르릉! 하고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폭음이 골짜기를 울렸다.

그 소리와 함께 세 장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왜놈경찰들은 거의가 다 황천객이 되고말았다.

그중 한놈이 겨우 살아 도망쳐가서 경찰서장에게 《백… 백두산장수들이 솔… 솔방울로 폭… 폭탄을 만들어 칩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는 그자리에 쓰러졌다.

《뭣이? 솔방울로 폭탄을 만든다구?》

경찰서장은 이 사실을 도경찰부에 보고했다.

도경찰부에서는 더 많은 경찰들을 출동시켜 산과 강과 바다에까지 경비진을 치게 했다.

그러거나말거나 세 장수는 아무 꺼리낌없이 마음대로 다니였다.

그들은 이번엔 함경산줄기를 타고 내려와 경포앞바다 백사장에 나타났다.

검푸른 바다, 깨끗한 모래불, 곱게 핀 해당화…

세 장수는 바다를 향해 소리라도 치고싶은 심정이였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조국의 바다는.

그들은 허리를 굽히고 모래를 한줌 쥐였다.

가늘고 부드러운 모래는 그들의 거쿨진 손가락사이로 솔솔 새여내렸다.

그러면 또 한줌 쥐고…

어느덧 그들의 마음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옷을 훌훌 벗어 모래불우에 놓고 세찬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에 몸을 잠그었다.

얼마만에 해보는 해수욕인가! 참으로 그들의 마음은 하늘을 날을듯 상쾌하였다.

파도에 몸을 싣고 멀리 갈매기와 경쟁을 하듯 헤염쳐나갔다가는 다시 모래불로 돌아와 따끈따끈한 쾌감을 느끼며 마구 딩굴기도 하였다.

물묻은 바가지에 달라붙은 깨마냥 온몸에 모래알들이 잔뜩 붙었다가는 해볕에 부실부실 제절로 떨어지군하였다.

이렇게 하기를 그 몇번, 그들이 다시 바다로 들어가 멀리 헤염쳐갔을 때였다.

난데없이 백사장에 수십명의 왜놈경찰들이 나타났다.

마음놓고 휴식을 즐기던 장수들은 뜻밖에 당하는 일인지라 처음엔 약간 놀랐다.

《빨리빨리 나오라! 안나오면 쏜다!》

왜놈들은 장수들이 벗어놓은 옷과 무기를 빼앗아 마차에 싣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빨리 나오지 못하겠는가?》

세 장수는 할수없이 기슭으로 헤염쳐나와 백사장우에 올라섰다. 그놈들은 해상경찰대놈들이였다.

놈들은 좋아서 헤벌쭉거리며 세 장수에게로 가까이 다가오고있었다.

무기도 빼앗았겠다 소나무도 한그루 없는 백사장이여서 폭탄도 만들수 없을테니 인제야 꼼짝못하고 잡혔지 하는 태도였다.

그런데 이때 장수들이 백사장의 모래를 한줌 쥐여뿌리니 그것이 모두 왜놈들을 향해 비오듯이 날아갔다.

《아이쿠! 아이쿠 !》

왜놈들은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장수들은 모래를 쥐여 자꾸만 왜놈들을 향해 뿌렸다. 그러면 그 모래는 총알이 되여 놈들을 향해 윙윙 날아갔다.

왜놈들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장수들은 도망치는 왜놈들을 보며 통쾌하게 웃어댔다.

얼마후 수백명의 왜놈들이 백사장으로 달려들었다.

겨우 살아 도망친놈들이 《모래로 총알을 빚는 백두산장수들이 나타났다.》고 소동을 피운 모양이였다.

왜놈들은 기를 쓰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모래로 총알을 빚고 폭탄을 만드는 백두산의 장수들을 당해낼수는 없었다.

왜놈들이 모두 쓰러지고 바다가가 조용해지자 한 장수가 말했다.

《왜놈들이 자꾸만 방해를 놓으니 우리 길이 더디여지는것 같소. 오래간만에 바다에 나왔는데 바람도 쐴겸 배를 타고갑시다.》

다른 두 장수도 그에 동의하였다.

먼저 말하던 장수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장을 꺼내들더니 그것으로 종이배를 만들어 바다에 띄웠다.

그 종이배는 바다에 띄우자마자 눈에 알리게 점점 커지더니 세 사람을 태우고도 남을만큼한 큰배로 변하였다.

세 장수는 그 배에 올라탔다.

배는 쏜살같이 파도를 가르며 내달리기 시작했다.

백사장에 쓰러져 죽은체하고있던 왜놈 몇놈은 저도모르게 《히야!》하고 놀라 소리쳤다.

놈들은 또 해군을 총출동시켜 장수들이 탄 배를 따

랐다.

그러나 왜놈해군은 장수들의 배를 따라잡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세 장수는 유유히 배를 타고 송도원 앞바다에 이르자 곧장 원산으로 들어갔다.

장수들의 행적을 놓쳐버린 왜놈들은 더는 추격할념을 하지 못하고 물러앉고말았다.

그리하여 장수들은 평양으로 가면서 산세와 조선사람들의 생활형편 그리고 적정을 구체적으로 정찰할수 있었다.

평양에 이른 그들은 농민으로 변장하고 거리로 나갔다.

세 장수의 눈앞에는 일제놈들에게 모든것을 송두리채 빼앗긴 조국의 참담한 모습이 펼쳐졌다.

그들은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평양에서 인민들의 동향을 료해하는 한편 적정을 구체적으로 정찰하였다.

평천, 미림, 서평양 등 안다닌데없이 샅샅이 알아보았다.

세 장수는 일제가 평양에 1개 사단과 1개 려단 그리고 비행대를 증강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악독한 왜놈들, 어디 두고보자.)

해질무렵 세 장수는 모란봉에 올랐다.

선조들이 외적을 쳐물리치던 을밀대에 올라 노을비낀 대동강을 내려다보니 그 아름다움은 어디 비길데가 없었다.

세 장수는 미림벌과 보통벌을 둘러보았다.

볼수록 겨레의 한숨소리, 신음소리가 가슴을 허비는듯하였다.

이때 왜놈들은 뒤늦게야 백두산장수들이 평양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벌집을 쑤셔놓은듯 온통 수라장이 되여 날뛰였다.

왜놈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세 장수가 있는 모란봉으로 벌떼마냥 새까맣게 달려올라왔다.

그러나 세 장수는 태연하게 백두산이 있는 북쪽을 향해 두팔을 벌리고 서서 뭐라고 외우는것이였다.

그러자 하늘에서 흰 구름장이 을밀대를 향하여 내려왔다.

그 흰 구름은 세 장수를 태우더니 다시 하늘로 날아올라갔다.

백두산장수들이 또다시 술법을 쓴것이였다.

흰 구름은 하늘높이 떠서 북으로 북으로 백두산을 향해 날아갔다.

모란봉에 새까맣게 뒤덮인 왜놈들은 얼이 빠져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왜놈들이 아무리 **김일성**장군님부대의 국내진출을 막아보려고 하였으나 그것은 허사였다.

백두산장수들은 평양뿐아니라 개성, 서울, 부산에까지 나타나 조선을 해방하기 위해 적정을 살피고 돌아갔다.

《고안마루》는 어떻게 무사할수 있었는가

우리 나라와 일본사이에 있는 좁은 바다를 가리켜 조선해협이라고 한다.

바로 이 해협의 바다 한가운데는 현해탄이라고 부르는 큰 여울이 있다.

예로부터 현해탄은 파도가 사납고 물결이 빙빙 도는 여울로서 이곳을 지나가는 배들을 크게 위협하고있었다.

그래서 부산과 시모노세끼를 오가는 배들은 이 현해탄이라는 여울을 지나면 각각 자기가 떠나온 항구들에 위험지대를 무사히 통과했다는 소식을 무전으로 알리는것이 관례처럼 되여있었다.

그만큼 현해탄은 사람들에게 큰 위험지대였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부산과 시모노세끼사이의 570여리 배길에는 두척의 크지 않은 련락선이 오가고있었다.

그중 한척의 배가 《고안마루》이다.

어느해 이른 봄날 저녁이였다.

관부련락선 《고안마루》는 방금 부산항을 떠나려고 닻을

올리고있었다.

그러자 떠나고 떠나보내는 사람들이 서로 찾고 부르고 대답하는 소리가 부두를 가득 채웠다.

《뚜—》

배고동소리가 울리자 고함소리는 더 높아졌다.

배는 서서히 파도를 가르며 달리고있었다.

얼마후 저녁안개가 낀 부두가는 날이 어두워지자 인차 시야에서 사라지고말았다.

잔교에 섰던 사람들은 모두 쓸쓸한 석별의 정을 안고 되돌아갔다.

갑판에 나와섰던 사람들도 제각기 자기 선실로 들어갔다.

관부련락선은 부산과 시모노세끼항에서 대개가 저녁에 출발하군하였다.

이 배에는 조선사람들과 일본사람들이 많이 타고다녔는데 드물게는 중국사람도 있었다.

관부련락선을 타고다니는 조선사람은 누구나 기쁜 길을 가는것이 아니였다.

그들은 대개가 일본의 탄광이나 광산에 징용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행여나 하고 살길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징용에 끌려간 남편을 만나려고 올망졸망한 어린것들을 데리고가는 아낙네들, 부모들, 친척들의 사망전보를 받고 왔다가는 조선고학생들이였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부두를 떠나 파도에 몸을 실은 《고안마루》는 또 한번 《뚜—》하고 슬픈 배고동소리를 울렸다.

침침한 3등선실은 려객들로 붐비였다.

다다미를 깐 바닥 저쪽구석에 한식구인듯 아이들과 함께 쪼그리고앉은 아낙네가 억지로라도 잠을 청하려는지 눈을 감고있었다.

배멀미를 걱정하는 어떤축들은 벌써 여기저기 널려있는 타구통들을 차지하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화투군들도 잠에 곯아떨어졌는지 이따금 한숨소리, 신음소리가 들리고 코고는 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깨뜨릴뿐 사위는 조용하였다.

그 이튿날 별도 지지 않은 이른 새벽이였다.

갑자기 《고안마루》는 기우뚱거리기 시작했다.

파도가 갑판을 들이치고 비발이 선실에까지 휘뿌려졌다.

금시 배가 깨여질것만 같았다.

《고안마루》는 위험지대—현해탄의 여울에 접어든것이였다.

게다가 태풍까지 들이닥쳐 파도사나운 현해탄은 기승을 부리였다.

산더미같은 파도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바람에 배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기우뚱거리였다.

빙빙 도는 여울복판에 들어서자 육중한 배는 마치 가랑잎마냥 뱅글뱅글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매일 다니는 《고안마루》였으나 현해탄이 이렇게까지 기승을 부리기는 처음이였다.

배안은 온통 악마구리 끓듯하였다.

여기저기서 고함소리, 비명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귀를 멍멍하게 했다.

경찰과 헌병놈들은 이런속에서도 무슨 질서를 세워보겠다고 호각을 빽빽 불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돌아갔다.

이때였다.

3등선실에 들어선 경찰놈은 갑자기 눈이 화등잔만해지더니 장승처럼 그 자리에 굳어져버렸다.

한것은 바로 3등선실천정에 《조선독립대장 **김일성**》이라고 쓴 큰 글자가 나붙었던것이다.

《조선독립대장 **김일성**》

그놈은 저도모르게 그 글을 읽었다.

그러자 그뒤를 따라 들어선 헌병놈도 《조선독립대장 **김일성**》하고 받아외우더니 그 자리에 털썩 나무토막처럼 쓰러지는것이였다.

경찰놈들과 헌병놈들은 **김일성**장군님의 존함만 보고도 기절초풍을 한것이였다.

그제야 3등선실에 타고있던 조선사람들도 어디서 언제 나붙었는지 모를 이 글을 보고 모두 한입처럼 받아외웠다.

《조선독립대장 **김일성**!》

《조선독립대장 **김일성**!》

경찰과 헌병놈들은 호각을 불고 배안을 벌컥 뒤지면서 그 글이 나붙게 된 단서를 알아보느라고 법석 곬었다.

그것은 태풍을 만난것보다 더 큰 소동이였다.

그러나 경찰놈들과 헌병놈들은 종시 그 글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아낼수가 없었다.

이때 이상한 일이 생겼다.

그렇게도 기승을 부리던 태풍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잦아든것이였다.

바다는 어찌나 조용하던지 마치도 산중의 호수와도 같이 고즈넉한 기분까지 돌았다.

사람들은 서로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왜 갑자기 태풍이 잦아졌을가, 일렁이던 파도는 왜 멎었을가 하고 묻는 얼굴들이였다.

이때 일본의 어느 탄광엔가 아들이 징용으로 끌려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체라도 찾으려고 간다는 한 로인이 풍채좋은 수염을 내리쓸며 말하였다.

《이상히 여길게 없네. 태풍이 멎고 파도가 잦아진건 저 령험한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나신 **김일성**장군님의 존함을 불렀기때문일세.》

그러자 려객들은 모두 머리를 끄덕거렸다.

《고안마루》는 잠잠해진 현해탄의 물결을 가르며 드디여 시모노세끼항에 가닿았다.

그런데 더 놀라운것은 이날 《고안마루》가 여느날보다 두 시간이나 앞당겨 도착한것이였다.

이것도 사람들은 **김일성**장군님의 존함과 결부시켜 해석하였다.

이 일이 있은 뒤부터 규슈, 시고꾸, 혼슈 등 일본 남부지방과 우리 나라 여러 지방에 소문이 돌기를 《바다에 나갔다가 태풍을 만나거나 숲속에서 길을 잃었거나 절해고도에서 사경에 처했을 때 **김일성**장군님의 존함을 세번이상 외워라. 그러면 태풍은 멎고 길은 나질것이며 죽음을 면할수 있을것이다.》

그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전설에 의하면 많은 배들이 현해탄을 지났는데 태풍을 만날 때면 **김일성**장군님의 존함을 외웠더니 신기하게도 정말 태풍이 멎었다는것이였다.

백두산3대장군전설전집

1

발굴정리 김우경
편　　집 선우연희
사　　진 로창업, 김형용　장 정 한명신
편　　성 정향애　교 정 박명희

낸　　곳 금 성 청 년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95(2006)년 4월 20일
발　　행 주체95(2006)년 4월 25일

ㄱ-66017　값190원